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
교육 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책임연구원 | 김 태 준

공동연구원 | 이 영 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II: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책임연구원 : 김태준(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영민(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40**
한국교육개발원
개원 40주년

발 간 사 ■ ■ ■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반세기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세계사에 유례 없는 압축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 OECD, G20 가입 등을 통하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동시에 도전이기도 합니다. 정보산업의 확산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과 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문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세대간 갈등의 대두, 이주노동과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의 진전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사회통합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래사회를 담당할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의 함양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의 시민역량 증진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OECD에서 제안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연구를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을 검토하였고, 2009년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EA)가 세계 38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시민성·시민교육 연구(ICCS)의 조사결과 분석작업에 참여하여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다른나라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는 2011년에 시작된 ICCS 조사결과 분석의 2차년도 연구로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청소년 및 교육 부문에서 시민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가 주관하는 국제시민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 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및 의식수준을 국제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국 민주시민 교육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의 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ICCS의 국제 및 아시아 설문의 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제비교 분석결과, 민주시민 지식에서 유럽의 민주시민 지식수준은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 세 대륙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의 시민활동 참여에 대한 국가별 차이분석 결과 라틴아메리카 학생들의 학교 내 시민활동에 대한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고, 아시아는 세 대륙 중 가장 낮았다. 학교 토론에의 개방성은 유럽이 가장 개방적인 반면, 아시아는 가장 폐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유럽과 아시아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민주시민 사회의 모습에서 정치인의 공명정대함을 높은 가치로 두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 여학생들은 학교 내의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에 있어 남학생보다 적극적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를 막론하고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여학생들의 경우 학급에서의 토론에 대한 개방성 인식이 높았다. 반면 남학생은 학생 의견의 학교에서의 영향력, 즉, 본인의 의견이 학교 교수법, 수업내용, 교과서 및 학습자료, 수업시간표 등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좋은 민주시민의 행동에 대하여 여학생들은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인권 증진 운동 참여, 환경보호 운동 참여, 항상 법을 준수하기 등의 요인을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 정치토론 참여와 정당단체 가입과 같은 공적인 행동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민주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층분석 결과, 세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및 학교수준의 변인에 따르면, 유럽청소년의 경우 10%, 라틴 아메리카는 11%, 아시아는 18.0%의 학교수준의 변인 영향을 받고 있어 아시아 국가의 학교교육의 영향이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민주시민 지식형성에 학교차원의 변수는 6%내외, 개인변수는 94% 내외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교수준에 의한 영향정도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아시아 국가 설문 비교분석 결과, 한국, 대만, 홍콩청소년의 경우 정부와 공무원은 사회정의와 공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이 어른 및 부모의 의견 수용 정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인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를 지라도 자신의 소신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은 스스로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의 문화, 경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청소년에게서 특이할만한 점은 정부가 국민의 영적 삶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이며, 또한 국가의 법 제도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다. 첫째, 학교에서의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민주시민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학교내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가 임원 선거 등 비교적 한두 활동에 한정적으로 치우쳐 있었으며,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토론 활동 역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학생들의 경우 교과과정에서 추상적인 정보와 지식을 줄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늘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성, 공공성, 민주성, 책임성 등과 관련된 민주시민 문화적 풍토 및 분위기가 확장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삶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고 있었으나, 이들의 민주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 및 가정환경 배경에 대부분이 한정되어 있었다. 학교는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민주적 풍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적으로 학생 교육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가정과 지역사회 시민교육의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시민교육은 비단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도 함께 부담해야 할 책임임이 분명하다. 특히 분석결과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었듯 가정배경 및 환경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시민교육은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가 함께 연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컨대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단체와 학교에서 연계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시민교육은 세계화와 지역 통합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양성평등과 상대주의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국가마다의 시민교육의 강화 경향은 세계화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교육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정규화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이들의 역량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교육과정 내에서의 교육과정 개편, 교과목 편성, 자율교과목 도입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내에 민주시민의식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2-22-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 연구총괄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2-22-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2-22-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한국교육 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이종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준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협력 연구기관	한국교육 개발원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에서는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시민교육현황과 효과에 대한 국제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를 실시하고 있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 환경을 측정하는데 2009년 조사에서는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와 남아메리카인 멕시코, 칠레 그리고 아시아 국가인 한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홍콩 등 전체 38개 국가가 참여함.
- ICCS 조사 결과 한국은 평균 지식 영역에서 565점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핀란드와 덴마크 다음인 3위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태도-행동 영역의 결과에서는 우려할 만한 모습이 발견됨. 국가와 정당, 미디어와 대중에 대한 신뢰의 경우 한국 청소년들은 이 모든 분야에서 '모두 믿지 못한다' 는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 수치는 20%로 참여국 평균의 1/3에 불과하였음. 또한 정당에 대해서는 18%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학교에 대해서도 1/3 수준인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반 대중에 대한 신뢰 역시 국제평균의 2/3인 39%로 나타나 사회 전반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팽배해져있음을 시사하였음.
- 우리나라 학생들의 참여도 역시 대체적으로 낮았는데, 정당, 노동조합과 유사한 청소년 단체의 참여율은 4%(전체 평균 10%)였으며, 환경운동단체는 5%(전체 평균 29%) 등 전체적으로 저조함. 또한 IEA에서 시민의식과 성인기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학교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해볼 기회를 선정하였는데, 이 영역에서 우리나라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 예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하는 비율이 23%(국제평균 61%의 1/3 수준), 수업 중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33%(전체 평균 44%), 반장 및 학생회 임원 투표 참여는 26%(전체 평균 76%),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는 33%(전체 평균 40%) 등으로 모두 참여국 중 최하위권 점수를 보임.

- 이와 같은 결과는 미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성에 관한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생활화된 참여와 신뢰의 태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지식은 우수하나 태도와 행동 영역에서는 그에 못 미치거나 열악한 불균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 지식을 포괄하는 보다 전체적인 개념으로 민주시민역량(civic competency)의 관점에서 이를 접근하고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발달에 있어 가장 결핍된 부분인 참여영역의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ICCS의 국제 및 아시아 설문의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되었음. 먼저 ICCS 2009 국제자료를 바탕으로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를 구분하고 각 대륙별 5개국을 선정하여 대륙별, 국가별, 그리고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 교육 환경 및 바람직한 사회와 시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비교 분석하였음. 두 번째 파트에서는 2009년 아시아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만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 및 요인과 이들이 인식하는 시민 사회의 모습을 비교 분석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대륙별, 나라별, 성별 민주시민 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9년도 ICCS 국제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음. 분석은 각 대륙별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각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유럽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체코, 라틴아메리카는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멕시코, 파라과이로 구성되었음.
- 또한 다층분석(HLM)을 실시하여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총 변량 형성 중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3. 주요결과

1) 국제비교 분석 결과

- 민주시민 지식 결과에 따르면, 유럽의 민주시민 지식수준은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 세 대륙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유럽국가 중에서도 스웨덴과 이탈리아의 민주시민 지식은 전반적으로 가장 뛰어난 수준이었음. 반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민주시민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시아의 경우 세 대륙 중 중간 수준으로 국가별 민주시민 지식 점수에 큰 차이를 보였음. 한국과 대만이 상당히 높은 민주시민 지식 점수가 나온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지식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남.
- 학교에서의 시민활동 참여에 대한 국가별 차이분석 결과 각 대륙 및 나라에 따른 학교에서의 시민활동 참여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라틴아메리카 학생들의 학교 내 시민활동에 대한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고, 아시아는 세 대륙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학교 내 시민 활동참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의 학교 내 시민 활동 참여 수준은 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 참여국 전체 중 가장 미비한 수준이었음.
- 학교 토론에의 개방성은 유럽이 가장 개방적인 반면, 아시아는 가장 폐쇄적인 특성을 보임. 특히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영국이, 라틴 국가에서는 칠레가,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홍콩에 학교토론에 개방적인 반면, 한국은 학교 토론에서의 개방성에서 38.09점을 보여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토론 개방성을 보였음.
- 학교에서 학생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경우, 학생의 의견이 실제 학교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이들은 학교 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응답을 보여 학교에서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형성 및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음.
- 유럽과 아시아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민주시민 사회의 모습에서 정치인의 공명정대함을 높은

가치로 두고 있었는데 특히 이들은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하고 있어 정치지도자의 혈연이 정부에서 일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강함. 반면, 라틴아메리카는 두 대륙의 청소년에 비하여 다소 허용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임.

- 유럽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기업과 정부의 언론 소유에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이들은 언론의 독립성을 중요한 민주사회의 모습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은 반응에 아시아는 국가별 큰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언론의 독립에 대해 강한 긍정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기업과 정부의 언론소유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임.
- 라틴아메리카 청소년들은 정부 대표자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을 좋은 시민의 행동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어 한국청소년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반응을 보임. 한국은 오직 7.0%만이 정부대표자들에 대한 존경심표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 이들은 정부대표에 대한 존경표현과 좋은 시민의 행동은 별개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국민의 국가비판 권리에 대해 매우 동의 의견을 보여 아시아 뿐 아니라 다른 대륙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를 비판할 권한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함. 또한 이들 중 66.6%는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다는 데에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여, 한국 청소년들은 국민이 국가와 법, 정치, 사회가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국제 설문 성별 차이 분석결과

- 이들은 성별에 따라서도 민주시민에 대한 의식과 시민활동 참여 정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들은 학교 내의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에 있어 남학생보다 적극적이었고, 이러한 경향은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를 막론하고 같은 경향을 보임.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하여 방과 후 드라마 음악 활동과 같은 다양한 참여활동에서부터 토론에 적극적 참여, 반장 등

임원 투표,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등의 영역에서의 참여가 높았음.

- 또한 여학생들의 경우 학급에서의 토론에 대한 개방성 인식이 높았다. 특히 이들은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를 비롯한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는 의견에 남학생보다 높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는 의견을 보여, 자기주장 표명에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남학생은 학생 의견의 학교에서의 영향력, 즉, 본인의 의견이 학교 교수법, 수업내용, 교과서 및 학습자료, 수업시간표 등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학급수칙"이나 "방과 후 활동"과 같은 자신이 속해 있는 작은 조직에서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의 인식이 높았음. 즉, 남학생들은 가시적이며 큰 틀에서의 의사결정에의 영향력을 여학생은 작지만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영향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좋은 민주시민의 행동에 대하여 여학생들은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인권 증진 운동 참여, 환경보호 운동 참여, 항상 법을 준수하기 등의 요인을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 정치토론 참여와 정당단체 가입과 같은 공적인 행동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3) 국가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층분석 결과

- 세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및 학교수준의 변인에 따르면, 유럽청소년의 경우 10%, 라틴 아메리카는 11%, 아시아는 18.0%의 학교수준의 변인 영향을 받고 있어 아시아 국가의 학교교육의 영향이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반면, 이들의 향후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는 학교수준의 영향이 낮아 학교교육은 대륙여부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교육과 지식형성에 치중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태국 청소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민주시민 지식은 낮았지만, 선거참여 의지는 높았음. 또한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 형성의 기초모형 분석에 따르면, 학교차원의 변수는 45%, 개인변수는 55% 수준으로 다른 대륙 및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학교차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청소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주시민 지식형성에 학교차원의 변수는 6%내외, 개인변수는 94% 내외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교수준에 의한 영향정도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이할 만한 사항은 개인변수의 가족변수, 즉, 부모학력 및 부모의 정치관심 등의 변인이 학교변수와 상호작용으로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됨.
- 대다수의 지역연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의 지역연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지역연대 운영비는 720만원 정도로 대부분 참가 위원들의 인건비 및 식사비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아시아 설문 분석결과

- 한국, 대만, 홍콩청소년의 경우 정부와 공무원은 사회정의와 공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의견과 공무원의 친분에 따른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공무원의 공명정대함을 높을 가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 청소년의 경우 이와 같은 내용에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다른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이 어른 및 부모의 의견 수용 정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인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를 지라도 자신의 소신을 중요시하고 있음.

- 한국 청소년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이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 법률 시스템은 완전하다는 의견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아, 법제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전반적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은 스스로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의 문화, 경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이들은 공통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연합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함으로써 아시아 발전을 위해 국가들 간의 연합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
- 아시아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인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행동 요인에 있어,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항상 부모님, 어른, 선생님 등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하고 있음. 특히, 이들은 부모님과 어른들을 의견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성별에 따라 남학생들은 부모보다는 사회적 권위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특성을 보임.
-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청소년에게서 특이할만한 점은 정부가 국민의 영적 삶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인데, 이들은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질문에 다소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영적 삶과 국가의 역할을 연관 지어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한 요소로 도덕성, 자기수양, 높은 영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또한 이들 인도네시아와 태국청소년들은 국가의 법 제도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의 응답과는 다르게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질문에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어, 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았음.
- 아시아 청소년들은 자국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음. 다만,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자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했으며,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 수준에서의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음.
- 아시아 청소년들은 정치인의 가족의 법적 도덕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과 태국 청소년의 경우 정치인의 본인과 주변사람의 청렴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반면, 대만과 홍콩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수준에서 역시 정치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4. 정책제언

- 학교에서의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민주시민 의식교육이 필요함. 분석결과에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학교내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가 임원 선거 등 비교적 한두 활동에 한정적으로 치우쳐 있었으며,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토론 활동 역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민주시민 관련 지식은 높으나, 미래 투표의지나 사회 참여 등 실천적 행동은 낮아, 지식이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즉 한국의 교육은 시민의식과 관련하여 지식적인 교육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천적이고 행동하는 분야에서는 미흡한 것을 시사함. 이를 통해 한국 학생들의 경우 교과과정에서 추상적인 정보와 지식을 줄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늘이는 것이 필요함.
- 학교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학교교육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의 학급운영 참여, 의견제안, 영향력 행사를 위한 다양한 과정은 교육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음. 또한 한국의 학생들은 국내외 다양한 활동이 한정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국제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교의 실천적이지 못한 교육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학교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진작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참여교육은 향후 학생이 커뮤니티에 자발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성, 공공성, 민주성, 책임성 등과 관련된 민주시민 문화적 풍토 및 분위기가 확장되어야 함. 학생들은 삶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고 있었으나, 이들의 민주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 및 가정환경 배경에 대부분이 한정되어 있음. 학교는 학교장 혹은 특정 교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민주적 풍토가 실시되어야 함.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적으로 학생 교육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가정과 지역사회 시민교육의 '체제' 구축이 필요함. 시민교육은 비단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도 함께 부담해야 할 책임임. 특히 분석결과에서 가정배경 및 환경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시민교육은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가 함께 연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컨대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단체와 학교에서 연계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가족, 학교, 시민사회 협력형 교육모델 개발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 마련을 통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함.
- 시민교육은 세계화와 지역 통합의 맥락에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세계는 양성평등과 상대주의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로서 이러한 현실은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최근 국가마다의 시민교육의 강화 경향은 세계화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교육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정규화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이들의 역량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요구됨. 즉 학교교육과정 내에서의 교육과정 개편, 교과목 편성, 자율교과목 도입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내에 민주시민의식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함. 학교교육 단계에서의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교육은 향후 이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회화과정임. 따라서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교육과정은 민주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될 것임.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7
1. 민주시민역량 요인	9
1) ICCS 조사	9
2) 아시아 지역 설문도구(Asian Module)	10
3) 시민의식 개념적 범주	12
2. ICCS 조사설계	13
1) 국제설문(International) 조사 설계	13
2) 아시아 설문(Asian) 조사 설계	15
3.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16
1) 연구 설계와 분석	16
2) 분석방법	17
제3장 분석결과	23
1. 국제설문 조사 결과	25
1) 기초분석 결과	25
2) 대륙 및 국가에 따른 차이분석	38
3)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108
4) 국가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160
5) 대륙별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5
6) 아시아 국가의 민주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3

2. 아시아 설문 조사결과	379
1)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분석결과	379
2) 아시아 국가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비교분석	393
3) 한국과 아시아 국가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비교	462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525
1. 요약 및 결론	527
2. 정책제언	531
 참고문헌	 535

표 목 차

〈표 II-1-1〉 ICCS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2
〈표 II-2-1〉 ICCS 국제 설문 세부 변수	14
〈표 II-2-2〉 아시아지역 설문도구의 구조틀	15
〈표 II-3-1〉 요인분석 결과	17
〈표 II-3-2〉 이론적 가설과 실제 간 부합 정도	20
〈표 III-1-1〉 전체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26
〈표 III-1-2〉 유럽국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28
〈표 III-1-3〉 라틴아메리카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31
〈표 III-1-4〉 아시아 국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34
〈표 III-1-5〉 국가에 따른 학교 내 활동(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 차이분석	39
〈표 III-1-6〉 국가에 따른 학교 내 활동(토론에 적극적 참여) 차이분석	40
〈표 III-1-7〉 국가에 따른 학교 내 활동(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차이분석	41
〈표 III-1-8〉 국가에 따른 학교 내 활동(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차이분석	42
〈표 III-1-9〉 국가에 따른 학교 내 활동(학생회 토론 참여) 차이분석	43
〈표 III-1-10〉 국가에 따른 학교 내 활동(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차이분석 ..	45
〈표 III-1-11〉 국가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1) 차이분석	46
〈표 III-1-12〉 국가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2) 차이분석	47
〈표 III-1-13〉 국가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3) 차이분석	48
〈표 III-1-14〉 국가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4) 차이분석	49
〈표 III-1-15〉 국가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5) 차이분석	50
〈표 III-1-16〉 국가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6) 차이분석	52
〈표 III-1-17〉 국가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7) 차이분석	53
〈표 III-1-18〉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교수법) 차이분석	54

〈표 Ⅲ-1-19〉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수업내용) 차이분석	55
〈표 Ⅲ-1-20〉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교과서 및 학습자료) 차이분석	57
〈표 Ⅲ-1-21〉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수업시간표) 차이분석	58
〈표 Ⅲ-1-22〉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학급수칙) 차이분석	59
〈표 Ⅲ-1-23〉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학교규칙) 차이분석	60
〈표 Ⅲ-1-24〉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방과 후 활동) 차이분석	61
〈표 Ⅲ-1-25〉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공정대우) 차이분석	62
〈표 Ⅲ-1-26〉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어울림) 차이분석	64
〈표 Ⅲ-1-27〉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학생복지 관심) 차이분석	65
〈표 Ⅲ-1-28〉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아웃사이더) 차이분석	66
〈표 Ⅲ-1-29〉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경청) 차이분석	67
〈표 Ⅲ-1-30〉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도움) 차이분석	68
〈표 Ⅲ-1-31〉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 차이분석	70
〈표 Ⅲ-1-32〉 국가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1) 차이분석	71
〈표 Ⅲ-1-33〉 국가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2) 차이분석	72
〈표 Ⅲ-1-34〉 국가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3) 차이분석	73
〈표 Ⅲ-1-35〉 국가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4) 차이분석	74
〈표 Ⅲ-1-36〉 국가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5) 차이분석	76
〈표 Ⅲ-1-37〉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 차이분석	77
〈표 Ⅲ-1-38〉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2) 차이분석	78
〈표 Ⅲ-1-39〉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3) 차이분석	80
〈표 Ⅲ-1-40〉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4) 차이분석	81
〈표 Ⅲ-1-41〉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5) 차이분석	82
〈표 Ⅲ-1-42〉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6)	

차이분석	83
〈표 Ⅲ-1-43〉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7)	
차이분석	84
〈표 Ⅲ-1-44〉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8)	
차이분석	86
〈표 Ⅲ-1-45〉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9)	
차이분석	87
〈표 Ⅲ-1-46〉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0)	
차이분석	88
〈표 Ⅲ-1-47〉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1)	
차이분석	89
〈표 Ⅲ-1-48〉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2)	
차이분석	90
〈표 Ⅲ-1-49〉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모든 선거 참여)	
차이분석	92
〈표 Ⅲ-1-50〉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정당단체 가입)	
차이분석	93
〈표 Ⅲ-1-51〉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역사학습) 차이분석	94
〈표 Ⅲ-1-52〉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미디어 정치이슈 주시)	
차이분석	95
〈표 Ⅲ-1-53〉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정부에 대한 존경심)	
차이분석	97
〈표 Ⅲ-1-54〉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정치토론 참여)	
차이분석	98
〈표 Ⅲ-1-55〉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평화적 항의참여)	
차이분석	99
〈표 Ⅲ-1-56〉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지역공동체 유익 활동 참여) 차이분석	100
〈표 Ⅲ-1-57〉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권 증진 운동 참여)	
차이분석	101

〈표 Ⅲ-1-58〉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환경보호운동 참여) 차이분석	102
〈표 Ⅲ-1-59〉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열심히 일하기) 차이분석	104
〈표 Ⅲ-1-60〉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항상 법을 준수하기) 차이분석	105
〈표 Ⅲ-1-61〉 성별에 따른 학교 내 활동(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 차이분석	108
〈표 Ⅲ-1-62〉 성별에 따른 학교 내 활동(토론에 적극적 참여) 차이분석	109
〈표 Ⅲ-1-63〉 성별에 따른 학교 내 활동(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차이분석	110
〈표 Ⅲ-1-64〉 성별에 따른 학교 내 활동(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차이분석	111
〈표 Ⅲ-1-65〉 성별에 따른 학교 내 활동(학생회 토론 참여) 차이분석	112
〈표 Ⅲ-1-66〉 성별에 따른 학교 내 활동(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차이분석	113
〈표 Ⅲ-1-67〉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1) 차이분석	114
〈표 Ⅲ-1-68〉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2) 차이분석	114
〈표 Ⅲ-1-69〉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3) 차이분석	115
〈표 Ⅲ-1-70〉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4) 차이분석	116
〈표 Ⅲ-1-71〉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5) 차이분석	117
〈표 Ⅲ-1-72〉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6) 차이분석	118
〈표 Ⅲ-1-73〉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7) 차이분석	119
〈표 Ⅲ-1-74〉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교수법) 차이분석	120
〈표 Ⅲ-1-75〉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수업내용) 차이분석	121
〈표 Ⅲ-1-76〉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교과서 및 학습자료) 차이분석	121
〈표 Ⅲ-1-77〉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수업시간표) 차이분석	122
〈표 Ⅲ-1-78〉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학급수칙) 차이분석	123
〈표 Ⅲ-1-79〉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학교규칙) 차이분석	124
〈표 Ⅲ-1-80〉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방과 후 활동) 차이분석	125
〈표 Ⅲ-1-81〉 성별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공정대우) 차이분석	126
〈표 Ⅲ-1-82〉 성별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어울림) 차이분석	127

〈표 Ⅲ-1-83〉 성별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학생복지 관심) 차이분석	127
〈표 Ⅲ-1-84〉 성별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아웃사이더) 차이분석	128
〈표 Ⅲ-1-85〉 성별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경청) 차이분석	129
〈표 Ⅲ-1-86〉 성별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도움) 차이분석	130
〈표 Ⅲ-1-87〉 성별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 차이분석	131
〈표 Ⅲ-1-88〉 성별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1) 차이분석	132
〈표 Ⅲ-1-89〉 성별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2) 차이분석	133
〈표 Ⅲ-1-90〉 성별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3) 차이분석	134
〈표 Ⅲ-1-91〉 성별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4) 차이분석	134
〈표 Ⅲ-1-92〉 성별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5) 차이분석	135
〈표 Ⅲ-1-93〉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 차이분석	137
〈표 Ⅲ-1-94〉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2) 차이분석	138
〈표 Ⅲ-1-95〉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3) 차이분석	139
〈표 Ⅲ-1-96〉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4) 차이분석	140
〈표 Ⅲ-1-97〉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5) 차이분석	141
〈표 Ⅲ-1-98〉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6) 차이분석	142
〈표 Ⅲ-1-99〉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7) 차이분석	142
〈표 Ⅲ-1-100〉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8) 차이분석	143
〈표 Ⅲ-1-101〉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9) 차이분석	144
〈표 Ⅲ-1-102〉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0)	

차이분석	145
〈표 Ⅲ-1-103〉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1)	
차이분석	146
〈표 Ⅲ-1-104〉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2)	
차이분석	147
〈표 Ⅲ-1-105〉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모든 선거 참여)	
차이분석	148
〈표 Ⅲ-1-106〉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정당단체 가입)	
차이분석	149
〈표 Ⅲ-1-107〉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역사학습) 차이분석	150
〈표 Ⅲ-1-108〉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미디어 정치이슈 주시)	
차이분석	151
〈표 Ⅲ-1-109〉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정부에 대한 존경심)	
차이분석	152
〈표 Ⅲ-1-110〉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정치토론 참여)	
차이분석	152
〈표 Ⅲ-1-111〉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평화적 항의참여)	
차이분석	153
〈표 Ⅲ-1-112〉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지역공동체 유익 활동 참여) 차이분석	154
〈표 Ⅲ-1-113〉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권 증진 운동 참여)	
차이분석	155
〈표 Ⅲ-1-114〉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환경보호운동 참여)	
차이분석	156
〈표 Ⅲ-1-115〉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열심히 일하기)	
차이분석	157
〈표 Ⅲ-1-116〉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항상 법을 준수하기)	
차이분석	158
〈표 Ⅲ-1-117〉 국가에 따른 민주시민 지식(1)의 차이	160
〈표 Ⅲ-1-118〉 국가에 따른 민주시민 지식(2)의 차이	162

〈표 Ⅲ-1-119〉 국가에 따른 민주시민 지식(3)의 차이	163
〈표 Ⅲ-1-120〉 국가에 따른 민주시민 지식(4)의 차이	164
〈표 Ⅲ-1-121〉 국가에 따른 민주시민 지식(5) 차이	165
〈표 Ⅲ-1-122〉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시민활동 참여 차이	166
〈표 Ⅲ-1-123〉 국가에 따른 학교 토론에서의 개방성 참여 차이	167
〈표 Ⅲ-1-124〉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생의견 영향력에 대한 인식 차이	168
〈표 Ⅲ-1-125〉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대한 인식 차이	169
〈표 Ⅲ-1-126〉 국가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 인식 차이	170
〈표 Ⅲ-1-127〉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172
〈표 Ⅲ-1-128〉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 인식 차이	173
〈표 Ⅲ-1-129〉 유럽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178
〈표 Ⅲ-1-13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179
〈표 Ⅲ-1-131〉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180
〈표 Ⅲ-1-132〉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180
〈표 Ⅲ-1-133〉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81
〈표 Ⅲ-1-134〉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183
〈표 Ⅲ-1-135〉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2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184
〈표 Ⅲ-1-136〉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184
〈표 Ⅲ-1-137〉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85
〈표 Ⅲ-1-138〉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187
〈표 Ⅲ-1-139〉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187
〈표 Ⅲ-1-140〉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188
〈표 Ⅲ-1-141〉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88
〈표 Ⅲ-1-142〉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191
〈표 Ⅲ-1-143〉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191

〈표 Ⅲ-1-144〉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192
〈표 Ⅲ-1-145〉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92
〈표 Ⅲ-1-146〉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195
〈표 Ⅲ-1-147〉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195
〈표 Ⅲ-1-148〉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196
〈표 Ⅲ-1-149〉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96
〈표 Ⅲ-1-15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199
〈표 Ⅲ-1-151〉 유럽 청소년의 투표여부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199
〈표 Ⅲ-1-152〉 유럽 청소년의 투표참여 분산분석	200
〈표 Ⅲ-1-153〉 유럽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00
〈표 Ⅲ-1-154〉 라틴아메리카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203
〈표 Ⅲ-1-15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04
〈표 Ⅲ-1-156〉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05
〈표 Ⅲ-1-157〉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205
〈표 Ⅲ-1-158〉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06
〈표 Ⅲ-1-159〉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08
〈표 Ⅲ-1-160〉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08
〈표 Ⅲ-1-161〉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209
〈표 Ⅲ-1-162〉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10
〈표 Ⅲ-1-163〉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12
〈표 Ⅲ-1-164〉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12
〈표 Ⅲ-1-165〉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213
〈표 Ⅲ-1-166〉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14
〈표 Ⅲ-1-167〉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16
〈표 Ⅲ-1-168〉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16
〈표 Ⅲ-1-169〉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217
〈표 Ⅲ-1-170〉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18
〈표 Ⅲ-1-171〉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20
〈표 Ⅲ-1-172〉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21
〈표 Ⅲ-1-173〉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221
〈표 Ⅲ-1-174〉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22
〈표 Ⅲ-1-17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24
〈표 Ⅲ-1-176〉 라틴 청소년의 투표참석 여부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25
〈표 Ⅲ-1-177〉 라틴 청소년의 투표참여 분산분석	225
〈표 Ⅲ-1-178〉 라틴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26
〈표 Ⅲ-1-179〉 아시아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228
〈표 Ⅲ-1-18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29
〈표 Ⅲ-1-181〉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30
〈표 Ⅲ-1-182〉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230
〈표 Ⅲ-1-183〉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1
〈표 Ⅲ-1-184〉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33
〈표 Ⅲ-1-185〉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33
〈표 Ⅲ-1-186〉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234
〈표 Ⅲ-1-187〉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4
〈표 Ⅲ-1-188〉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37
〈표 Ⅲ-1-189〉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37
〈표 Ⅲ-1-190〉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238
〈표 Ⅲ-1-191〉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8
〈표 Ⅲ-1-192〉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40

〈표 Ⅲ-1-193〉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율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41
〈표 Ⅲ-1-194〉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242
〈표 Ⅲ-1-195〉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42
〈표 Ⅲ-1-196〉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44
〈표 Ⅲ-1-197〉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율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45
〈표 Ⅲ-1-198〉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245
〈표 Ⅲ-1-199〉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6
〈표 Ⅲ-1-20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48
〈표 Ⅲ-1-201〉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율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48
〈표 Ⅲ-1-202〉 아시아 청소년의 투표참여 분산분석	249
〈표 Ⅲ-1-203〉 아시아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9
〈표 Ⅲ-1-204〉 한국청소년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253
〈표 Ⅲ-1-20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54
〈표 Ⅲ-1-206〉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율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55
〈표 Ⅲ-1-207〉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255
〈표 Ⅲ-1-208〉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6
〈표 Ⅲ-1-209〉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58
〈표 Ⅲ-1-210〉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무조건적 기율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58
〈표 Ⅲ-1-211〉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259
〈표 Ⅲ-1-212〉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평가척도	260
〈표 Ⅲ-1-213〉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62
〈표 Ⅲ-1-214〉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율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62
〈표 Ⅲ-1-215〉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263

〈표 Ⅲ-1-216〉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4
〈표 Ⅲ-1-217〉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66
〈표 Ⅲ-1-218〉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율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66
〈표 Ⅲ-1-219〉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267
〈표 Ⅲ-1-220〉 한국청소년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7
〈표 Ⅲ-1-221〉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70
〈표 Ⅲ-1-222〉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율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70
〈표 Ⅲ-1-223〉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271
〈표 Ⅲ-1-224〉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72
〈표 Ⅲ-1-22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74
〈표 Ⅲ-1-226〉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율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74
〈표 Ⅲ-1-227〉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투표참여 분산분석	275
〈표 Ⅲ-1-228〉 한국청소년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76
〈표 Ⅲ-1-229〉 대만 청소년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278
〈표 Ⅲ-1-23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79
〈표 Ⅲ-1-231〉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율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79
〈표 Ⅲ-1-232〉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280
〈표 Ⅲ-1-233〉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1
〈표 Ⅲ-1-234〉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83
〈표 Ⅲ-1-235〉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무조건적 기율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83
〈표 Ⅲ-1-236〉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284
〈표 Ⅲ-1-237〉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5
〈표 Ⅲ-1-238〉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87

〈표 Ⅲ-1-239〉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87
〈표 Ⅲ-1-240〉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288
〈표 Ⅲ-1-241〉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9
〈표 Ⅲ-1-242〉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91
〈표 Ⅲ-1-243〉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91
〈표 Ⅲ-1-244〉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292
〈표 Ⅲ-1-245〉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3
〈표 Ⅲ-1-246〉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95
〈표 Ⅲ-1-247〉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95
〈표 Ⅲ-1-248〉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296
〈표 Ⅲ-1-249〉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7
〈표 Ⅲ-1-25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299
〈표 Ⅲ-1-251〉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299
〈표 Ⅲ-1-252〉 대만 청소년 투표참여 분산분석	300
〈표 Ⅲ-1-253〉 대만 청소년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1
〈표 Ⅲ-1-254〉 인도네시아 청소년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303
〈표 Ⅲ-1-25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04
〈표 Ⅲ-1-256〉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 검증의 무선효과	304
〈표 Ⅲ-1-257〉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305
〈표 Ⅲ-1-258〉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6
〈표 Ⅲ-1-259〉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08
〈표 Ⅲ-1-260〉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 검증의 무선효과	308
〈표 Ⅲ-1-261〉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309

〈표 Ⅲ-1-262〉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10
〈표 Ⅲ-1-263〉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12
〈표 Ⅲ-1-264〉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 검증의 무선효과	312
〈표 Ⅲ-1-265〉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313
〈표 Ⅲ-1-266〉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14
〈표 Ⅲ-1-267〉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16
〈표 Ⅲ-1-268〉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 검증의 무선효과	316
〈표 Ⅲ-1-269〉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317
〈표 Ⅲ-1-270〉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18
〈표 Ⅲ-1-271〉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20
〈표 Ⅲ-1-272〉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 검증의 무선효과	320
〈표 Ⅲ-1-273〉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321
〈표 Ⅲ-1-274〉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2
〈표 Ⅲ-1-27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24
〈표 Ⅲ-1-276〉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투표여부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324
〈표 Ⅲ-1-277〉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투표참여 분산분석	325
〈표 Ⅲ-1-278〉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6
〈표 Ⅲ-1-279〉 홍콩 청소년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328
〈표 Ⅲ-1-28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29
〈표 Ⅲ-1-281〉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329

〈표 Ⅲ-1-282〉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330
〈표 Ⅲ-1-283〉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31
〈표 Ⅲ-1-284〉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33
〈표 Ⅲ-1-285〉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333
〈표 Ⅲ-1-286〉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334
〈표 Ⅲ-1-287〉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35
〈표 Ⅲ-1-288〉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37
〈표 Ⅲ-1-289〉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337
〈표 Ⅲ-1-290〉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338
〈표 Ⅲ-1-291〉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39
〈표 Ⅲ-1-292〉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41
〈표 Ⅲ-1-293〉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341
〈표 Ⅲ-1-294〉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342
〈표 Ⅲ-1-295〉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43
〈표 Ⅲ-1-296〉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45
〈표 Ⅲ-1-297〉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345
〈표 Ⅲ-1-298〉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346
〈표 Ⅲ-1-299〉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47
〈표 Ⅲ-1-30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49
〈표 Ⅲ-1-301〉 홍콩청소년의 투표참여 여부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349
〈표 Ⅲ-1-302〉 홍콩 청소년의 투표참여 분산분석	350
〈표 Ⅲ-1-303〉 홍콩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51
〈표 Ⅲ-1-304〉 태국 청소년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353
〈표 Ⅲ-1-30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54
〈표 Ⅲ-1-306〉 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354
〈표 Ⅲ-1-307〉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355
〈표 Ⅲ-1-308〉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56
〈표 Ⅲ-1-309〉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58
〈표 Ⅲ-1-310〉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358
〈표 Ⅲ-1-311〉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359
〈표 Ⅲ-1-312〉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60
〈표 Ⅲ-1-313〉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62
〈표 Ⅲ-1-314〉 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362
〈표 Ⅲ-1-315〉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363
〈표 Ⅲ-1-316〉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64
〈표 Ⅲ-1-317〉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66
〈표 Ⅲ-1-318〉 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366
〈표 Ⅲ-1-319〉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367
〈표 Ⅲ-1-320〉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68
〈표 Ⅲ-1-321〉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70
〈표 Ⅲ-1-322〉 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370
〈표 Ⅲ-1-323〉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371
〈표 Ⅲ-1-324〉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72
〈표 Ⅲ-1-32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374
〈표 Ⅲ-1-326〉 태국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374
〈표 Ⅲ-1-327〉 태국 청소년의 투표참여 분산분석	375
〈표 Ⅲ-1-328〉 태국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76
〈표 Ⅲ-2-1〉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요인 전체평균	379
〈표 Ⅲ-2-2〉 한국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평균	380

〈표 Ⅲ-2-3〉 한국청소년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평균	381
〈표 Ⅲ-2-4〉 한국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평균	382
〈표 Ⅲ-2-5〉 한국청소년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평균	383
〈표 Ⅲ-2-6〉 한국청소년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평균	383
〈표 Ⅲ-2-7〉 한국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평균	384
〈표 Ⅲ-2-8〉 한국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평균	384
〈표 Ⅲ-2-9〉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전체 평균 차이	385
〈표 Ⅲ-2-10〉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차이	386
〈표 Ⅲ-2-11〉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요인2) 차이	387
〈표 Ⅲ-2-12〉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차이	388
〈표 Ⅲ-2-13〉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차이	389
〈표 Ⅲ-2-14〉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차이	389
〈표 Ⅲ-2-15〉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차이	390
〈표 Ⅲ-2-16〉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차이	391
〈표 Ⅲ-2-17〉 아시아청소년의 민주시민 요인 전체평균	393
〈표 Ⅲ-2-18〉 아시아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평균	394
〈표 Ⅲ-2-19〉 아시아청소년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평균	395
〈표 Ⅲ-2-20〉 아시아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평균	396
〈표 Ⅲ-2-21〉 아시아청소년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평균	396
〈표 Ⅲ-2-22〉 아시아청소년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평균	397
〈표 Ⅲ-2-23〉 아시아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평균	397
〈표 Ⅲ-2-24〉 아시아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평균	398
〈표 Ⅲ-2-25〉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전체 평균 차이	399
〈표 Ⅲ-2-26〉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차이	400
〈표 Ⅲ-2-27〉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요인2) 차이	401
〈표 Ⅲ-2-28〉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차이	402
〈표 Ⅲ-2-29〉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차이	403
〈표 Ⅲ-2-30〉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차이	403
〈표 Ⅲ-2-31〉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차이	404
〈표 Ⅲ-2-32〉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차이	404
〈표 Ⅲ-2-33〉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요인 전체평균	407
〈표 Ⅲ-2-34〉 대만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평균	408
〈표 Ⅲ-2-35〉 대만청소년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평균	409
〈표 Ⅲ-2-36〉 대만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평균	410
〈표 Ⅲ-2-37〉 대만청소년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평균	410
〈표 Ⅲ-2-38〉 대만청소년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평균	411
〈표 Ⅲ-2-39〉 대만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평균	412
〈표 Ⅲ-2-40〉 대만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평균	412
〈표 Ⅲ-2-41〉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전체 평균 차이	413
〈표 Ⅲ-2-42〉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차이	414
〈표 Ⅲ-2-43〉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요인2) 차이	415
〈표 Ⅲ-2-44〉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차이	416
〈표 Ⅲ-2-45〉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차이	417
〈표 Ⅲ-2-46〉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차이	417
〈표 Ⅲ-2-47〉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차이	418
〈표 Ⅲ-2-48〉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차이 ..	419
〈표 Ⅲ-2-49〉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요인 전체평균	421
〈표 Ⅲ-2-50〉 홍콩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평균	422

〈표 Ⅲ-2-51〉 홍콩청소년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평균	423
〈표 Ⅲ-2-52〉 홍콩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평균	424
〈표 Ⅲ-2-53〉 홍콩청소년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평균	424
〈표 Ⅲ-2-54〉 홍콩청소년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평균	425
〈표 Ⅲ-2-55〉 홍콩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평균	425
〈표 Ⅲ-2-56〉 홍콩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평균	426
〈표 Ⅲ-2-57〉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전체 평균 차이	426
〈표 Ⅲ-2-58〉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차이	427
〈표 Ⅲ-2-59〉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요인2) 차이	428
〈표 Ⅲ-2-60〉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차이	429
〈표 Ⅲ-2-61〉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차이	430
〈표 Ⅲ-2-62〉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차이	430
〈표 Ⅲ-2-63〉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차이	431
〈표 Ⅲ-2-64〉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차이	432
〈표 Ⅲ-2-65〉 인도네시아청소년의 민주시민 요인 전체평균	434
〈표 Ⅲ-2-66〉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평균	435
〈표 Ⅲ-2-67〉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평균	436
〈표 Ⅲ-2-68〉 인도네시아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평균	437
〈표 Ⅲ-2-69〉 인도네시아청소년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평균	437
〈표 Ⅲ-2-70〉 인도네시아청소년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평균	438
〈표 Ⅲ-2-71〉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평균	439
〈표 Ⅲ-2-72〉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평균	439
〈표 Ⅲ-2-73〉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전체 평균 차이	440
〈표 Ⅲ-2-74〉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요인1) 차이	441
〈표 Ⅲ-2-75〉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차이	442
〈표 Ⅲ-2-76〉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요인3) 차이	443
〈표 Ⅲ-2-77〉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차이	443
〈표 Ⅲ-2-78〉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차이	444
〈표 Ⅲ-2-79〉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차이	445
〈표 Ⅲ-2-80〉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차이	445
〈표 Ⅲ-2-81〉 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요인 전체평균	448
〈표 Ⅲ-2-82〉 태국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평균	449
〈표 Ⅲ-2-83〉 태국청소년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평균	450
〈표 Ⅲ-2-84〉 태국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평균	451
〈표 Ⅲ-2-85〉 태국청소년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평균	451
〈표 Ⅲ-2-86〉 태국청소년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평균	452
〈표 Ⅲ-2-87〉 태국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평균	453
〈표 Ⅲ-2-88〉 태국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평균	453
〈표 Ⅲ-2-89〉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전체 평균 차이	454
〈표 Ⅲ-2-90〉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차이	455
〈표 Ⅲ-2-91〉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요인2) 차이	456
〈표 Ⅲ-2-92〉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차이	457
〈표 Ⅲ-2-93〉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차이	457
〈표 Ⅲ-2-94〉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차이	458
〈표 Ⅲ-2-95〉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차이	458
〈표 Ⅲ-2-96〉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차이	459

〈표 Ⅲ-2-97〉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가치신념(요인 1)의 국가 비교	462
〈표 Ⅲ-2-98〉 아시아 청소년들의 "공무원이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에 대한 국가 비교	464
〈표 Ⅲ-2-99〉 아시아 청소년들의 "공무원 채용 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 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에 대한 국가 비교	465
〈표 Ⅲ-2-100〉 아시아 청소년들의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 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466
〈표 Ⅲ-2-101〉 아시아 청소년들의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 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467
〈표 Ⅲ-2-102〉 아시아 청소년들의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 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에 대한 국가 비교	469
〈표 Ⅲ-2-103〉 아시아 청소년들의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에 대한 국가 비교	470
〈표 Ⅲ-2-104〉 아시아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에 대한 국가 비교	471
〈표 Ⅲ-2-105〉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472
〈표 Ⅲ-2-106〉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에 대한 국가 비교	474
〈표 Ⅲ-2-107〉 아시아 청소년들의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에 대한 국가 비교 ...	475
〈표 Ⅲ-2-108〉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에 대한 국가 비교 ·	476
〈표 Ⅲ-2-109〉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국가 비교	477
〈표 Ⅲ-2-110〉 아시아 청소년들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가치신념	

(요인 2)의 국가 비교	479
〈표 Ⅲ-2-111〉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480
〈표 Ⅲ-2-112〉 아시아 청소년들의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481
〈표 Ⅲ-2-113〉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국가 비교	483
〈표 Ⅲ-2-114〉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국가 비교	484
〈표 Ⅲ-2-115〉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국가 비교	485
〈표 Ⅲ-2-116〉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국가 비교	486
〈표 Ⅲ-2-117〉 아시아 청소년들의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487
〈표 Ⅲ-2-118〉 아시아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가치신념 (요인 3)의 국가 비교	489
〈표 Ⅲ-2-119〉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490
〈표 Ⅲ-2-120〉 아시아 청소년들의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492
〈표 Ⅲ-2-121〉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 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493
〈표 Ⅲ-2-122〉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494
〈표 Ⅲ-2-123〉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495
〈표 Ⅲ-2-124〉 아시아 청소년들의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에 대한 국가 비교	497
〈표 Ⅲ-2-125〉 아시아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시민의식 가치(요인 4)의 국가 비교	498
〈표 Ⅲ-2-126〉 아시아 청소년들의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에 대한 국가 비교	499
〈표 Ⅲ-2-127〉 아시아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 대한 국가 비교	500
〈표 Ⅲ-2-128〉 아시아 청소년들의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에 대한 국가 비교	502
〈표 Ⅲ-2-129〉 아시아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에 대한 국가 비교	503
〈표 Ⅲ-2-130〉 아시아 청소년들의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에 대한 국가 비교 ·	504
〈표 Ⅲ-2-131〉 아시아 청소년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 5)의 국가 비교	506
〈표 Ⅲ-2-132〉 아시아 청소년들의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에 대한 국가 비교	507
〈표 Ⅲ-2-133〉 아시아 청소년들의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508
〈표 Ⅲ-2-134〉 아시아 청소년들의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에 대한 국가 비교	509
〈표 Ⅲ-2-135〉 아시아 청소년들의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에 대한 국가 비교	511
〈표 Ⅲ-2-136〉 아시아 청소년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 6)의 국가 비교	512
〈표 Ⅲ-2-137〉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는 우리 정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513
〈표 Ⅲ-2-138〉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	

유산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514
〈표 Ⅲ-2-139〉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516
〈표 Ⅲ-2-140〉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 7)의 국가 비교	517
〈표 Ⅲ-2-141〉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에 대한 국가 비교	518
〈표 Ⅲ-2-142〉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519
〈표 Ⅲ-2-143〉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에 대한 국가 비교	521

그림 목 차

【그림 Ⅱ-1-1】 ICCS 2009의 단계별 흐름	10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에서는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시민교육현황과 효과에 대한 국제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를 실시하였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 환경을 측정하는데 2009년 조사에서는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와 남아메리카인 멕시코, 칠레 그리고 아시아 국가인 한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홍콩 등 전체 38개 국가가 참여하였다.

ICCS 조사 결과 한국은 평균 지식 영역에서 565점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핀란드와 덴마크 다음인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태도-행동 영역의 결과에서는 우려할 만한 모습이 발견되었다. 국가와 정당, 미디어와 대중에 대한 신뢰의 경우 한국 청소년들은 이 모든 분야에서 '모두 믿지 못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 수치는 20%로 참여국 평균의 1/3에 불과하였다. 또한 정당에 대해서는 18%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학교에 대해서도 1/3 수준인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대중에 대한 신뢰 역시 국제평균의 2/3인 39%로 나타나 사회 전반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신이 팽배해져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참여도는 대체적으로 낮았는데, 정당, 노동조합과 유사한 청소년 단체의 참여율은 4%(전체 평균 10%)였으며, 환경운동단체는 5%(전체 평균 29%), 인권운동단체는 2%(전체 평균 16%), 지역사회자선단체는 18%(전체 평균 34%), 기부단체 참여는 8%(전체 평균 39%)로 전체적으로 저조하였다. 또한 IEA에서 시민의식과 성인기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학교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해볼 기회를 선정하였는데, 이 영역에서 우리나라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하는 비율이 23%(국제평균 61%의 1/3 수준), 수업 중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33%(전체

평균 44%), 반장 및 학생회 임원 투표 참여는 26%(전체 평균 76%),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는 33%(전체 평균 40%), 반장 및 학생회 임원 출마는 33%(전체 평균 43%), 학생회 토론 참여는 26%(전체 평균 42%)로 모두 참여국 중 최하위권 점수를 보였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나라가 덴마크였는데 그 나라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43%로 우리나라의 두 배 가까웠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성에 관한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생활화된 참여와 신뢰의 태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지식은 우수하나 태도와 행동 영역에서는 그에 못 미치거나 열악한 불균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 지식을 포괄하는 보다 전체적인 개념으로 민주시민역량(civic competency)의 관점에서 이를 접근하고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발달에 있어 가장 결핍된 부분인 참여영역의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아래 3년 지속사업으로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의 2차년도에 해당한다. 즉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의 전체 연구 중 2차년도로서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1차년도인 2011년에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시민교육 등의 시민역량 개발 지원체계에 대한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적 비교조사 결과의 메타분석을 통한 한국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의식과 현황의 강약점을 분석,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2차년도에는 민주시민의식을 교육환경 맥락 전체에서 분석을 요구하는 주제로서 핵심역량과는 별도의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교육환경 실태를 국제비교하고, 아동청소년들의 민주적 시민활동 참여 수준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민주 시민의식과 역량변인을 검증함으로써 정책적 개인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을 다양한 국제비교조사 결과의 메타 분석을 통해 분석·진단하고, 민주시민의식 육성에 필요한

교육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개입의 우선순위와 그 효과를 예측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ICCS 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및 의식수준을 국제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국 민주시민 교육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CCS의 국제 및 아시아 설문의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ICCS 2009 국제자료를 바탕으로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를 구분하고 각 대륙별 5개국을 선정하여 대륙별, 국가별, 그리고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 교육 환경 및 바람직한 사회와 시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2009년 아시아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만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 및 요인과 이들이 인식하는 시민 사회의 모습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동 청소년의 민주적 시민참여 욕구와 참여현황 실태 조사결과를 기초로 정책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자료에 근거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들의 참여욕구와 실태에 관한 국제비교조사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과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민주적 시민참여 활동의 활성화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민주시민역량 요인
2. ICCS 조사설계
3.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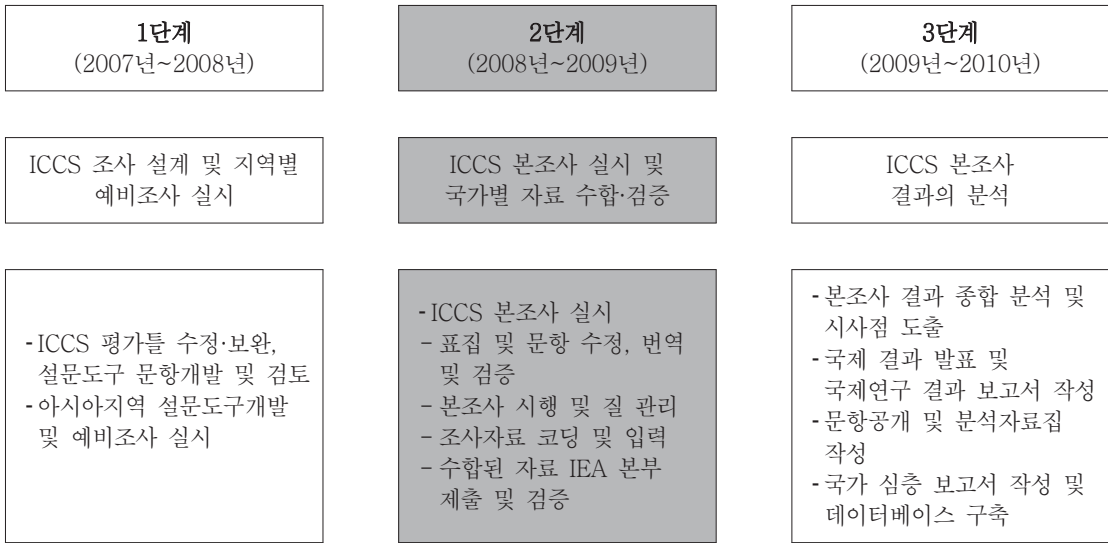
1. 민주시민역량 요인

1) ICCS 조사

IEA는 1차 국제시민교육연구(CIVED)을 기반으로 발전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를 진행 중이다. ICCS는 청소년이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공교육을 통해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시민교육의 이행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고 국제수준에서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시민교육이란 정치, 제도, 인권, 다양성, 환경 등의 포괄적 주제에 대한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해, 태도, 관점, 활동 등을 포함한다.

ICCS에서는 시민역량에 대한 측정을 크게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아는 것(knowing)과 추론·분석력(reasoning and analysing)을, 후자는 가치신념(value belief), 태도(attitudes),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s), 행동(behaviors)을 측정하며 측정 영역은 시민 사회와 체계,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등이다.

ICCS 2009는 총 4년의 계획 하에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었고, 한국은 2007년 8월에 국가분담금을 납부하고 공식적으로 참여해왔다. 아래의 [그림 II-1-1]은 ICCS 2009의 연도별 흐름을 단계별로 도식화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림 II-1-1】 ICCS 2009의 단계별 흐름

위의 [그림 II-1-1]과 같이, ICCS 2009의 본조사는 2009년에 수행되었는데, 2007년부터 1년간은 본조사를 위한 평가틀과 설문도구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본조사의 일환으로 지역별 설문도구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졌다¹⁾.

2) 아시아 지역 설문도구(Asian Module)

IEA가 1999년에 실시했던 제 1차 시민교육 국제비교연구(Civic Education Study, 일명 CIVED)는 서구사회의 맥락에 지나치게 의존하였으나, ICCS 2009는 지역(Regions) 간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차별성을 간과하지 않고, 이를 의도적으로 연구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유럽지역, 라틴지역, 아시아지역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세 개의 지역설문도구가 개발되었다. 아시아지역의 참여국으로서 본 연구자들은 아시아지역 설문도구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고, 2008년에는 아시아지역에서 참여한 5개 국가(한국, 홍콩,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지역설문 예비조사도 실시되었다. 세 개의 지역설문도구들은 예비조사를 거쳐 2009년의 본조사 설문도구의 하위조사영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²⁾.

1) 국제 공통 설문도구에 대한 내용은 이미 2011년 1차년도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략되었다.

2)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본조사에서 총 8개의 개념구성 하에 49개 하위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어 2009년 5월에서 해당

ICCS 2009에 참여한 38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2009년 본조사 이후, 수합된 자료는 각 참여국의 대표 연구진들이 IEA에서 제시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딩을 하여 IEA본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청소년 시민의식 및 시민교육에 대한 국제비교결과 발표 및 세 개의 지역설문도구를 포함한 38개 참여국들의 자료 전체가 공개되었다. 이 연구는 2008년도 예비조사에서 수합된 아시아지역 5개 참여국가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개념범주(Dimension), 개념구성(Construct), 문항(item) 간 위계적 구조에 기초하여 설계되었고, 아시아참여국의 연구진들은 문헌 및 자료분석을 통해 자국의 역사적, 전통적, 규범적, 문화적 요소들을 식별하여 공통의 동양적 요소들을 추출하여 아시아지역 설문도구의 개발과정에 반영하였다. 이후, 연구진들은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계속하였고, 최종안은 ICCS 2009 국가연구조정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다른 지역설문도구들과 함께 2009년 본조사 설문도구의 문화적 편향성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면서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 간 균형점을 유지하고, 나아가 국제비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기능적 의미를 가진다.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를 통한 예비조사 자료 수집은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태국의 연구진들의 주도 하에 직접 실시되었다. IEA는 평균 14.4세의 학생을 설문대상으로 엄격히 한정하였고, 아시아지역 예비조사 참여국들은 자국의 학제상황을 고려하여 대략 만 14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을 진행하였다. 표집과정은 IE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국가의 연구조정관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표〉와 같이, 각 국가에서 14.2~14.7세 연령분포의 중학생 총 23,197명이 표집되었고, 성별의 경우, 대만, 홍콩 및 우리나라의 경우 남학생의 비율이,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들에서 실시되었다.

표 II-1-1 ICCS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평균	남학생	여학생	전체
대만	5,147	14.2	2,665	2,471	5,136
			51.9	48.1	100.0
홍콩	2,670	14.2	1,372	1,307	2,679
			51.2	48.8	100.0
인도네시아	4,938	14.3	2,364	2,643	5,007
			47.2	52.8	100.0
한국	5,236	14.7	2,968	2,274	5,242
			56.6	43.4	100.0
태국	5,206	14.3	2,433	2,812	5,245
			46.4	53.6	100.0
합계	23,197	14.4	11,802	11,507	23,309
			50.6	49.4	100.0

3) 시민의식 개념적 범주

아시아 지역 설문도구의 개념적 기반이 되는 시민성 및 시민의식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이 되는 범주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정의된다(IEA, 2007, 조영하·김태준, 2010 재인용).

첫째, 시민사회와 체계는 시민들이 사회와 맥조 있는 시민계약과 사회자체가 수행하는 기능을 지탱하는 형식적·비형식적 메커니즘 및 조직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시민, 국가기구, 시민기구 세 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한다.

둘째, 시민원리는 시민사회가 공유하는 윤리적 기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원리의 지지, 보호, 고양을 시민적 책임으로 보고 개인과 집단의 공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요인으로 본다. 평등, 자유, 사회통합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셋째, 시민참여는 사회공동체 안에서 개인 활동의 표현으로서 어떤 수준의 공동체에서나 공동체적 맥락에서도 가능하다. 참여의 수준은 단순히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역시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 등이다.

넷째, 시민정체성은 시민으로서 개인의 역할과 역할지각이다. 시민 개인은 그들이 가족, 동료, 공동체 및 지역·국가·전체사회의 집단들과 맺는 관계에 의해 영향을 서로 주고 받기 때문에 일련의 개인적 영향력 및 시민단체들과 관련이 있다. 시민정체성은 시민의 자아상과 시민 유대감이라는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다섯째, 가치신념은 개념, 제도, 사람, 사상의 가치에 대한 신념으로서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깊지는 보다 근본적인 신념이다. 이는 개인의 갈등해결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자신과 개인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 태도의 형성을 돕는다. 가치체계는 다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여섯째, 태도는 사상, 사람, 상황 등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가치신념과는 대조적으로 개념적 범위가 좁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2. ICCS 조사설계

1) 국제설문(International) 조사 설계

ICCS 국제 설문내용 중 본 연구에 활용된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2-1 ICCS 국제 설문 세부 변수

변수		문항번호	문항내용
독립 변수	개인 변수	1-3	성별/기대교육수준
	가족 변수	4-11	부모 학력/모의 정치적 이슈 관심도
	학교 활동 관련 변수	15	학교에서의 활동(6개 항목) : 음악 및 드라마 활동, 토론참여, 반장 / 학생회 참여 /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학생회 토론, 반장 및 학생회 임원 출마
		16	수업시간에 정치적 사회적 이슈토론 시 다음 일들에 대한 의견(7개 항목):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습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토론권장 /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
		17	의견 반영정도(7개 항목) : 교수법(선생님의 수업방식 및 수업방법) / 수업내용 / 교과서 및 학습자료 / 수업시간표 / 학습수칙 / 학교규칙 / 방과 후 활동
		18	다음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7개 항목)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주신다 /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 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 나는 우리학교의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 주신다 /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릴까 봐 두렵다
		종합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 참여 /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 학교에서의 영향력 / 학생_교사의 관계 /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종속 변수	민주 시민 역량	20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2항목)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한 한다 등
		21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의 중요성(12개 항목) 모든선거 활동 참여, 정당참여, 역사학습~~항상 법을 준수하기 등
		종합	민주시민 역량(5개 영역)
			미래투표의도 여부

2) 아시아 설문(Asian) 조사 설계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아시아문화와 전통을 내포하는 총 18개의 개념구성(Construct)을 포함하며 각 개념구성은 3개 이상의 4점 척도 하위문항들(Item)로 구성되어, 결국 18개 개념구성 하의 총 97개의 하위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2-2 아시아지역 설문도구의 구조틀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가치 신념	- 구성1: 정부에 대한 인식 - 구성2: 권위에 대한 복종	- 구성 17: 연줄과 공공행정 - 구성 15: 전체를 위한 개인 희생 - 구성 18: 타인배려		- 구성 13: 아시아 정체성 - 구성 14: 바람직한 시민상 - 구성 16: 사회화합 대 체면
태도	- 구성 5: 환경보호	- 구성 6: 어른공경 - 구성 7: 빈부의 차 - 구성 8: 비민주적 행위의 인정 - 구성 9: 자국 법제에 대한 신뢰 - 구성 10: 범법자의 권리	- 구성 11: 부정부패 - 구성 12: 정치인의 필요 속성	- 구성 3: 아시아국가들간 관계 - 구성 4: 자국의 전통문화

한편, <표 II-2-2>에서 보듯이, 아시아지역 설문도구의 구조틀은 네 개의 시민적 개념범주들(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과 두 개의 개념준거(가치신념, 태도)의 매트릭스로 짜여, 총 일곱 개의 개념범주(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가치신념,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태도, 시민원리에 대한 가치신념, 시민원리에 대한 태도,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³⁾, 시민정체성에 대한 가치신념, 시민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

종합하면,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7개 개념범주(Dimension) 아래 설계된 18개 개념구성(Construct)의 97개 하위문항들(Item)로 구성되며, 문항들은 공통적으로 아시아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3) 시민참여에 대한 가치신념 범주를 위한 하위 문항개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3.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1) 연구 설계와 분석

본 연구는 38개국 대상의 국제공통 설문분석과 아시아 지역 설문 분석결과로 구성된다. 먼저 국제공통 설문분석설계는 국제공통 설문지를 활용하여 3대 지역(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별 분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대륙별, 나라별, 성별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09년도 ICCS 국제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을 실시였다. 분석은 각 대륙별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유럽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체코, 라틴아메리카는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멕시코, 파라과이로 구성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국제공통 설문과는 별도로 제작된 아시아지역 모듈설문지를 통해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방법과 과정을 구조화하였다. 먼저 설문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보장하려면,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설문도구의 기술적 적합성(Technical Adequacy)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이론적 가설에 의해 연역적으로 설계되었다. 다시 말해, 아시아 5개 참여국 연구진들은 동양적 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지, 개념, 태도의 관점에서 가설적 가정을 먼저 설정하였고, 그 가정을 근거로 하여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일곱 개의 범주를 "이론적으로" 추출하여 개념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아시아지역 설문도구의 이론적 의존도가 높으므로, 결과의 분석에 앞서 이의 기술적 적합성을 가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기술적 적합성은 SPSS 12.0을 활용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토대로 분석되었다. <표 II -2-2>에 서와 같이,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구조적으로 일곱 개의 개념범주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가설적 이론의 검정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설문도구의 이론적(Theoretical), 실제적(Practical) 부합 정도를 측정하였다. 요인 수에 이론적 배경을 강하게 구성한 설문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사에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적합하다(성태제, 2007).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은 7개의 추출요인을 염두에 두고 직교회전방식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울러,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 검사를

통해 구성 문항들 간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기술적 적합성 검사를 통하여 분석에 적합한 범위를 구조화한 뒤,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의 차이를 일곱 개 개념범주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국가집단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2) 분석방법

먼저 본 조사의 기술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설문지를 대상으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시아 청소년들은 아시아지역 설문도구의 이론적 의도대로 주어진 문항들을 인지하였는가? 아시아지역 설문도구는 일곱 개의 개념범주에 18개의 하위 개념구성을 두었으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요인분석에서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4 이상이면 해당 요인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Comrey, 1973). 그 결과, 총 97개 문항들 중 46개의 문항이 일곱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일곱 개 요인들은 전체 분산의 54.887%를 설명하였다.

표 II-3-1 요인분석 결과

		성분						
		1	2	3	4	5	6	7
요인1	공무원이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0.784						
	공무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0.737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0.735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0.725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0.698						

		성분						
		1	2	3	4	5	6	7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0.653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0.652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0.619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0.615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0.601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0.578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0.569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0.535						
요인2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0.816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0.786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0.745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0.719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		0.672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라고 생각한다.		0.665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0.549					

		성분						
		1	2	3	4	5	6	7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요인3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0.701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0.691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0.663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0.627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0.503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0.491				
요인4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0.720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0.662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0.614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0.599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0.523			
요인5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					0.736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0.731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0.689		

		성분						
		1	2	3	4	5	6	7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0.607		
요인6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0.730	
	나는 우리 정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0.699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0.617	
요인7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0.717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0.699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0.634

〈표〉는 요인분석을 통해 묶인 일곱 개의 요인과 하위 문항들을 나타낸다.

표 II-3-2 이론적 가설과 실제 간 부합 정도

요인	개념 범주	변수 개수
1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13
2	아시아 및 아시안문화에 대한 인식	7
3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6
4	바람직한 시민의식	5
5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4
6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3
7	정치인에 대한 인식	3

한편,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 검사 결과, 일곱 개 요인으로 추출된 41개 문항들의 Cronbach α 는 .898로서 구성문항들 간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집대상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일 경우, 일반적으로 다소 낮은 Cronbach α 값도 허용할 수 있다(McMillan & Schmacher, 2001)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항들 간 일관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제 3 장

분석결과

1. 국제설문 조사 결과
2. 아시아설문 조사 결과

제 3 장 분석결과

1. 국제설문 조사 결과

1) 기초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전체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66,855명으로 유럽이 17,561명(26.3%), 라틴아메리카는 25,857명(38.7%)이었으며, 아시아는 23,437명(35.1%) 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남학생이 49.4%, 여학생이 50.6%이었다. 이들의 향후 기대하는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1.2%가 고등학교 졸업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 교육 수준은 가장 낮았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4년제 대학 졸업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특히 아시아 청소년들은 66%이상이 4년제 대학졸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기대교육수준을 보였다. 또한 유럽 청소년들은 부모가 타국 출신일 확률이 가장 높아 다문화 환경을 보였으며, 라틴아메리카의 부모 타국출신 비율은 가장 낮았다. 또한 부모학력의 경우 유럽지역의 부모학력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라틴아메리카는 어머니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응답하여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일부 여성이 정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1-1 전체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3개 대륙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전체
성별	남학생	빈도	8946	12209	11850	33005
		%	50.9	47.2	50.6	49.4
	여학생	빈도	8615	13648	11587	33850
		%	49.1	52.8	49.4	50.6
	전체	빈도	17561	25857	23437	66855
		%	100	100	100	100
기대교육수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빈도	8381	15895	15497	39773
		%	48.7	62.0	66.3	60.1
	전문대학 졸업	빈도	1717	3167	3405	8289
		%	10.0	12.4	14.6	12.5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빈도	7100	6575	4475	18150
		%	41.2	25.6	19.2	27.4
	전체	빈도	17198	25637	23377	66212
		%	100	100	100	100
어머니 국적 (태어난나라)	다른 나라	빈도	2483	635	1736	4854
		%	14.3	2.5	7.6	7.4
	같은나라	빈도	14915	24714	21203	60832
		%	85.7	97.5	92.4	92.6
	전체	빈도	17398	25349	22939	65686
		%	100	100	100	100
아버지 국적 (태어난나라)	다른 나라	빈도	2511	731	1373	4615
		%	14.5	2.9	6.0	7.1
	같은나라	빈도	14790	24176	21518	60484
		%	85.5	97.1	94.0	92.9
	전체	빈도	17301	24907	22891	65099
		%	100	100	100	100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다른용어	빈도	1622	1467	4374	7463
		%	9.3	5.7	18.7	11.2
	같은용어	빈도	15820	24245	19051	59116
		%	90.7	94.3	81.3	88.8
	전체	빈도	17442	25712	23425	66579

			3개 대륙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전체
		%	100	100	100	100
어머니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빈도	4140	4366	3364	11870
		%	25.0	17.1	14.4	18.2
	전문대학 졸업	빈도	1700	1816	1901	5417
		%	10.2	7.1	8.2	8.3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졸업	빈도	7291	7406	8530	23227
		%	44.0	29.0	36.6	35.5
	중학교 이하	빈도	3458	11932	9488	24878
		%	20.9	46.7	40.8	38.1
	합계	빈도	16589	25520	23283	65392
		%	100	100	100	100
아버지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빈도	3846	4664	4558	13068
		%	23.7	18.7	19.7	20.3
	전문대학 졸업	빈도	1801	2003	2249	6053
		%	11.1	8.0	9.7	9.4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졸업	빈도	6890	7114	7460	21464
		%	42.4	28.6	32.3	33.4
	중학교 졸업	빈도	3702	11116	8825	23643
		%	22.8	44.7	38.2	36.8
	합계	빈도	16239	24897	23092	64228
		%	100	100	100	100
정치사회이슈 의관심정도 (어머니)	매우 관심 있음	빈도	1438	3955	2263	7656
		%	8.4	16.0	9.7	11.8
	다소 관심 있음	빈도	7763	4599	11668	24030
		%	45.3	18.6	50.2	36.9
	다소 관심 없음	빈도	6927	13464	8348	28739
		%	40.4	54.3	35.9	44.1
	전체매우 관심 없음	빈도	1004	2771	957	4732
		%	5.9	11.2	4.1	7.3
	합계	빈도	17132	24789	23236	65157
		%	100	100	100	100
정치사회이슈 의관심정도	매우 관심 있음	빈도	2782	4703	5122	12607
		%	16.6	19.9	22.3	19.9

			3개 대륙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전체
(아버지)	다소 관심 있음	빈도	7831	5781	11458	25070
		%	46.7	24.4	49.9	39.5
	다소 관심 없음	빈도	5205	10665	5611	21481
		%	31.0	45.1	24.4	33.9
	전체매우 관심 없음	빈도	964	2513	762	4239
		%	5.7	10.6	3.3	6.7
	합계	빈도	16782	23662	22953	63397
		%	100	100	100	100

다음으로 각 대륙 나라별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국가의 경우, 지리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영국(57.0%)과 스페인(56.4%) 청소년은 과반수 이상이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을 희망하고 있어 희망 학력이 높은 수준인 반면, 나머지 나라는 과반수 이하의 학생만이 4년제 졸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특히, 체코와 이탈리아의 경우 고졸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 전반적으로 기대 교육수준은 높지 않았다. 스웨덴과 영국의 경우 부모의 20%가 타국출신으로 가정에 다문화 환경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스웨덴의 어머니 학력은 43.2%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체코의 경우 70%이상의 부모가 고졸로 나타나, 유럽지역 나라 중에서는 가장 낮은 부모교육 수준을 보였다. 유럽지역 부모의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는 이탈리아가 가장 높았으며(어머니:62.8%, 아버지:80%), 영국, 스웨덴, 스페인, 체코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 -1-2 유럽국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유럽 국가					
			체코	이탈 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합계
성별	남학생	빈도	2492	1740	1619	1707	1388	8946
		%	53.9	51.9	49.3	49.9	48.1	50.9
	여학생	빈도	2128	1612	1663	1716	1496	8615
		%	46.1	48.1	50.7	50.1	51.9	49.1
	전체	빈도	4620	3352	3282	3423	2884	17561
		%						

			유럽 국가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합계
		%	100	100	100	100	100	100
기대교육 수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빈도	1783	1537	1844	1610	1607	8381
		%	39.1	46.3	56.4	49.9	57.0	48.7
	전문대학 졸업	빈도	167	248	304	594	404	1717
		%	3.7	7.5	9.3	18.4	14.3	10.0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빈도	2613	1536	1124	1021	806	7100
		%	57.3	46.3	34.4	31.6	28.7	41.2
	전체	%	4563	3321	3272	3225	2817	17198
		%	100	100	100	100	100	100
어머니 국적 (태어난 나라)	다른 나라	빈도	227	383	466	796	611	2483
		%	4.9	11.6	14.2	23.7	21.4	14.3
	같은나라	빈도	4369	2930	2806	2561	2249	14915
		%	95.1	88.4	85.8	76.3	78.6	85.7
	전체	빈도	4596	3313	3272	3357	2860	17398
		%	100	100	100	100	100	100
아버지 국적 (태어난 나라)	다른 나라	빈도	278	302	435	809	687	2511
		%	6.1	9.2	13.4	24.2	24.3	14.5
	같은나라	빈도	4299	2996	2823	2532	2140	14790
		%	93.9	90.8	86.6	75.8	75.7	85.5
	전체	빈도	4577	3298	3258	3341	2827	17301
		%	100	100	100	100	100	100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다른용어	빈도	78	192	635	502	215	1622
		%	1.7	5.8	19.3	15.0	7.5	9.3
	같은용어	빈도	4519	3143	2649	2855	2654	15820
		%	98.3	94.2	80.7	85.0	92.5	90.7
	전체	빈도	4597	3335	3284	3357	2869	17442
		%	100	100	100	100	100	100
어머니 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빈도	814	487	866	1378	595	4140
		%	18.0	14.7	27.0	43.2	25.1	25.0
	전문대학 졸업	빈도	159	196	331	673	341	1700
		%	3.5	5.9	10.3	21.1	14.4	10.2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빈도	3400	1281	658	818	1134	7291

			유럽 국가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합계
		%	75.3	38.7	20.5	25.7	47.9	44.0
	중학교 이하	빈도	140	1346	1356	320	296	3458
		%	3.1	40.7	42.2	10	12.5	20.9
	합계	빈도	4513	3310	3211	3189	2366	16589
		%	100	100	100	100	100	100
아버지 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빈도	856	504	816	1047	623	3846
		%	19.5	15.4	25.7	33.6	27.3	23.7
	전문대학 졸업	빈도	160	182	326	803	330	1801
		%	3.6	5.6	10.3	25.8	14.5	11.1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졸업	빈도	3288	1177	584	857	984	6890
		%	74.9	35.9	18.4	27.5	43.1	42.4
	중학교 졸업	빈도	85	1415	1447	411	344	3702
		%	1.8	43.1	45.6	13.1	15.1	22.8
	합계	빈도	4389	3278	3173	3118	2281	16239
		%	100	100	100	100	100	100
정치사회 이슈의 관심정도 (어머니)	매우 관심 있음	빈도	212	388	308	276	254	1438
		%	4.7	11.6	9.5	8.4	9.4	8.4
	다소 관심 있음	빈도	1808	1709	1331	1602	1313	7763
		%	39.7	51.2	41.1	48.8	48.4	45.3
	다소 관심 없음	빈도	2199	1092	1434	1263	939	6927
		%	48.2	32.7	44.3	38.4	34.6	40.4
	전체매우 관심 없음	빈도	339	151	164	145	205	1004
		%	7.4	4.5	5.1	4.4	7.6	5.9
	합계	빈도	4558	3340	3237	3286	2711	17132
		%	100	100	100	100	100	100
정치사회 이슈의 관심정도 (아버지)	매우 관심 있음	빈도	481	881	508	481	431	2782
		%	10.8	26.6	15.9	14.9	16.4	16.6
	다소 관심 있음	빈도	2010	1767	1387	1481	1186	7831
		%	45.3	53.4	43.5	45.9	45.2	46.7
	다소 관심 없음	빈도	1623	573	1150	1094	765	5205
		%	36.6	17.3	36.1	33.9	29.2	31.0
	전체매우 관심 없음	빈도	321	91	143	168	241	964
		%	7.2	2.7	4.5	5.2	9.2	5.7

			유럽 국가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합계
	합계	빈도	4435	3312	3188	3224	2623	16782
		%	100	100	100	100	100	100

또한 라틴아메리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라틴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콜롬비아 학생들의 희망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이 75.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 -1-3 라틴아메리카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라틴아메리카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멕시코	파라과이	합계
성별	남학생	빈도	2510	2877	2053	3142	1627	12209
		%	48.6	46.5	45.3	47.8	47.9	47.2
	여학생	빈도	2651	3315	2482	3429	1771	13648
		%	51.4	53.5	54.7	52.2	52.1	52.8
	전체	빈도	5161	6192	4535	6571	3398	25857
		%	100	100	100	100	100	100
기대교육 수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빈도	2987	4671	1747	4488	2002	15895
		%	58.2	75.7	39.0	69.4	59.2	62.0
	전문대학 졸업	빈도	1120	660	531	373	483	3167
		%	21.8	10.7	11.8	5.8	14.3	12.4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빈도	1025	841	2207	1608	894	6575
		%	19.9	13.7	49.2	24.9	26.4	25.6
	전체	%	5132	6172	4485	6469	3379	25637
			100	100	100	100	100	100
어머니 국적 (태어난 나라)	다른 나라	빈도	99	70	139	169	158	635
		%	1.9	1.1	3.2	2.6	4.7	2.5
	같은나라	빈도	5038	6040	4241	6210	3185	24714
		%	98.1	98.9	96.8	97.4	95.3	97.5
	전체	빈도	5137	6110	4380	6379	3343	25349
		%	100	100	100	100	100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멕시코	파라과이	합계
아버지 국적 (태어난 나라)	다른 나라	빈도	113	85	205	157	171	731
		%	2.2	1.4	4.8	2.5	5.2	2.9
	같은나라	빈도	4968	5911	4074	6107	3116	24176
		%	97.8	98.6	95.2	97.5	94.8	97.1
	전체	빈도	5081	5996	4279	6264	3287	24907
		%	100	100	100	100	100	100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OTHER	빈도	37	55	105	156	1114	1467
		%	0.7	0.9	2.3	2.4	33.1	5.7
	같은용어	빈도	5131	6106	4388	6373	2247	24245
		%	99.3	99.1	97.7	97.6	66.9	94.3
	전체	빈도	5168	6161	4493	6529	3361	25712
		%	100	100	100	100	100	100
어머니 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빈도	749	1435	651	1092	439	4366
		%	14.7	23.3	14.5	16.8	13.3	17.1
	전문대학 졸업	빈도	700	311	210	309	286	1816
		%	13.8	5.1	4.7	4.8	8.7	7.1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빈도	2264	1438	1982	1065	657	7406
		%	44.5	23.4	44.2	16.4	19.9	29.0
	중학교 이하	빈도	1371	2973	1644	4023	1921	11932
		%	27.0	48.3	36.6	62.0	58.2	46.7
	합계	빈도	5084	6157	4487	6489	3303	25520
		%	100	100	100	100	100	100
아버지 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빈도	918	1455	565	1245	481	4664
		%	18.7	24.4	12.7	19.6	15.0	18.7
	전문대학 졸업	빈도	654	343	348	380	278	2003
		%	13.3	5.8	7.8	6.0	8.7	8.0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빈도	2100	1316	1936	1054	708	7114
		%	42.7	22.1	43.5	16.6	22.0	28.6
	중학교 졸업	빈도	1245	2850	1599	3676	1746	11116
		%	25.3	47.7	35.9	57.8	54.3	44.7
	합계	빈도	4917	5964	4448	6355	3213	24897
		%	100	100	100	100	100	100
정치사회	매우 관심 있음	빈도	622	1069	830	973	461	3955

			라틴아메리카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멕시코	파라과이	합계
이슈의 관심정도 (어머니)	다소 관심 있음	%	12.2	18.3	19.7	15.2	14.3	16.0
		빈도	1541	1071	452	1035	500	4599
	다소 관심 없음	%	30.3	18.3	10.7	16.1	15.5	18.6
		빈도	2624	3149	1990	3903	1798	13464
	전체매우 관심 없음	%	51.6	53.8	47.2	60.9	55.7	54.3
		빈도	300	559	944	499	469	2771
	합계	%	5.9	9.6	22.4	7.8	14.5	11.2
		빈도	5087	5848	4216	6410	3228	24789
		%	100	100	100	100	100	100
		빈도	819	1295	836	1130	623	4703
정치사회 이슈의 관심정도 (아버지)	매우 관심 있음	%	16.7	23.2	21.5	18.2	20.2	19.9
		빈도	1664	1485	689	1268	675	5781
	다소 관심 있음	%	33.9	26.6	17.7	20.4	21.9	24.4
		빈도	2092	2307	1568	3262	1436	10665
	다소 관심 없음	%	42.6	41.4	40.3	52.5	46.6	45.1
		빈도	332	492	793	549	347	2513
	전체매우 관심 없음	%	6.8	8.8	20.4	8.8	11.3	10.6
		빈도	4907	5579	3886	6209	3081	23662
	합계	%	100	100	100	100	100	100
		빈도						

또한 이들 부모의 타국출신 비율은 어머니 2.5%, 아버지 2.9%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의 자국끼리의 결혼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멕시코와 파라과이의 부모학력이 중학교 미만인 비율이 60%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라틴계 국가들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특히, 아버지의 정치관심도는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도미니카, 멕시코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국가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 -1-4 아시아 국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아시아 국가					
			대만	홍콩	인도 네시아	대한 민국	태국	전체
성별	남학생	빈도	2670	1414	2365	2968	2433	11850
		%	51.9	50.7	47.2	56.6	46.4	50.6
	여학생	빈도	2474	1376	2650	2275	2812	11587
		%	48.1	49.3	52.8	43.4	53.6	49.4
	전체	빈도	5144	2790	5015	5243	5245	23437
		%	100	100	100	100	100	100
기대교육 수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빈도	3216	2060	3034	3974	3213	15497
		%	62.5	73.3	61.1	76.1	61.4	66.3
	전문대학 졸업	빈도	1002	370	297	809	927	3405
		%	19.5	13.2	6.0	15.5	17.7	14.6
	고등학교(인문계/실업 계) 졸업	빈도	925	380	1638	436	1096	4475
		%	18	13.5	33	8.4	20.9	19.2
	합계	빈도	5143	2810	4969	5219	5236	23377
		%	100	100	100	100	100	100
어머니 국적 (태어난 나라)	다른 나라	빈도	158	1395	93	13	77	1736
		%	3.1	50.5	1.9	0.3	1.5	7.6
	같은나라	빈도	4885	1370	4742	5185	5021	21203
		%	96.9	49.5	98.1	99.7	98.5	92.4
	전체	빈도	5043	2765	4835	198	5098	22939
		%	100	100	100	100	100	100
아버지 국적 (태어난 나라)	다른 나라	빈도	89	1110	84	9	81	1373
		%	1.8	40.2	1.7	0.2	1.6	6.0
	같은나라	빈도	4966	1650	4735	5168	4999	21518
		%	98.2	59.8	98.3	99.8	98.4	94.0
	전체	빈도	5055	2760	4819	5177	5080	22891
		%	100	100	100	100	100	100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다른용어	빈도	875	156	3088	18	237	4374
		%	17.1	5.6	61.5	0.3	4.5	18.7
	같은용어	빈도	4250	2628	1935	5229	5009	19051
		%	82.9	94.4	38.5	99.7	95.5	81.3
	전체	빈도	5125	2784	5023	5247	5246	23425

			아시아 국가					
			대만	홍콩	인도 네시아	대한 민국	태국	전체
		%	100	100	100	100	100	100
어머니 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빈도	671	214	416	1482	581	3364
		%	13.1	7.9	8.3	28.4	11.1	14.4
	전문대학 졸업	빈도	749	144	144	422	442	1901
		%	14.7	5.3	2.9	8.1	8.4	8.2
	고등학교(인문계/실업 계) 졸업	빈도	2616	944	1329	2957	684	8530
		%	51.2	34.7	26.6	56.7	13.0	36.6
	중학교 이하	빈도	1069	1422	3107	353	3537	9488
		%	21	52.3	62.2	6.8	67.4	40.8
	합계	빈도	5105	2724	4996	5214	5244	23283
		%	100	100	100	100	100	100
아버지 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빈도	941	356	583	2024	654	4558
		%	18.6	13.4	11.7	39.1	12.6	19.7
	전문대학 졸업	빈도	731	147	162	595	614	2249
		%	14.5	5.5	3.2	11.5	11.8	9.7
	고등학교(인문계/실업 계) 졸업	빈도	2180	836	1461	2213	770	7460
		%	43.2	31.4	29.3	42.7	14.8	32.3
	중학교 졸업	빈도	1197	1324	2782	349	3173	8825
		%	23.7	49.8	55.7	6.8	60.9	38.2
	합계	빈도	5049	2663	4988	5181	5211	23092
		%	100	100	100	100	100	100
정치사회 이슈의 관심정도 (어머니)	매우 관심 있음	빈도	200	159	664	589	651	2263
		%	3.9	5.7	13.5	11.3	12.5	9.7
	다소 관심 있음	빈도	1416	1214	2599	3271	3168	11668
		%	27.8	43.5	52.7	62.7	60.9	50.2
	다소 관심 없음	빈도	3116	1205	1461	1273	1293	8348
		%	61.1	43.2	29.6	24.4	24.9	35.9
	전체매우 관심 없음	빈도	364	212	209	84	88	957
		%	7.1	7.6	4.2	1.6	1.7	4.1
	합계	빈도	5096	2790	4933	5217	5200	23236
		%	100	100	100	100	100	100
정치사회 이슈의	매우 관심 있음	빈도	449	407	1425	1408	1433	5122
		%	8.9	14.8	29.4	27.2	27.9	22.3

			아시아 국가					
			대만	홍콩	인도 네시아	대한 민국	태국	전체
관심정도 (아버지)	다소 관심 있음	빈도	1787	1384	2338	3099	2850	11458
		%	35.5	50.3	48.2	59.8	55.5	49.9
	다소 관심 없음	빈도	2497	804	930	618	762	5611
		%	49.6	29.2	19.2	11.9	14.8	24.4
	전체매우 관심 없음	빈도	303	159	154	54	92	762
		%	6.0	5.8	3.2	1.0	1.8	3.3
	합계	빈도	5036	2754	4847	5179	5137	22953
		%	100	100	100	100	100	100

분석에 사용된 아시아 국가는 총 5개국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이었다. 이들 청소년의 기대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희망비율이 전체 학생의 76.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홍콩 73.3%, 대만(62.5%), 태국(61.4%), 인도네시아(61.1%) 순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경우, 청소년 가족의 과반수인 50%에 해당하는 수준의 부모가 타국 출신으로 다른 나라가 대부분 3%미만인 수준인 것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부모 학력의 경우 한국의 부모학력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았으며, 태국,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2) 소결

ICCS 국제설문조사 기초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사용된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청소년의 가정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 응답자의 부모가 타국 출신인 비율이 가장 높아 가정 속에서 다문화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아시아 중 홍콩은 약 50%에 가까운 타국 출신의 부모 비율을 보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둘째, 이들의 향후 기대하는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1.2%가 고등학교 졸업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학력보다는 직업능력을 통한 빠른 사회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했다. 반면,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는 과반수이상의 학생이 4년제 대학 졸업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특히 아시아 청소년들은 66% 이상이 4년제 대학졸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기대교육 수준을 보였다.

셋째, 부모학력의 경우 유럽지역의 부모학력이 세 개의 대륙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라틴아메리카 어머니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럽이나 아시아 보다 월등히 높아,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일부 여성이 정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대륙 및 국가에 따른 차이분석

(1) 대륙 및 국가에 따른 학교교육 관련변수 차이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과 관련된 학교변수는 학교 내 활동에의 참여정도, 학급토론에 대한 개방성 인식, 학교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교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각 나라별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교 내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정도

세계 청소년들의 학교 내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정도는 각 청소년들의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 토론에 적극적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학생회 토론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등의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

세계청소년의 학교 내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 방법 중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 결과에 따르면, 유럽은 25.9%가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였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경우 평균 참여율이 33.9%로 아시아 국가(24.7%)나 유럽국가 학생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세부 결과에 따르면, 유럽대륙은 이탈리아(32.1%)와 영국(34.1%)의 방과 후 활동 참여가 높은 반면, 체코와 스웨덴은 약 20% 수준의 참여정도를 보였고, 라틴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를 보였는데, 특히, 도미니카와 파라과이의 청소년들의 방과 후 음악 및 드라마 활동 참여비율은 4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경우, 대한민국은 전체의 10%만이 지난 1년 동안 방과 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아시아 뿐 아니라 전체국가 중 가장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

표 III -1-5 국가에 따른 학교 내 활동(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 차이분석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4527	25.9	6099	34.9	6860	39.2	17486	100	1276.615***
	라틴아메리카	8465	33.9	8137	32.6	8351	33.5	24953	100	
	아시아	5770	24.7	6339	27.2	11225	48.1	23334	100	
	전체	18762	28.5	20575	31.3	26436	40.2	65773	100	
유럽	체코	896	19.5	1508	32.8	2197	47.8	4601	100	471.647***
	이탈리아	1075	32.1	1181	35.3	1088	32.5	3344	100	
	스페인	885	27.0	1272	38.8	1118	34.1	3275	100	
	스웨덴	693	20.4	1345	39.5	1364	40.1	3402	100	
	영국	978	34.1	793	27.7	1093	38.2	2864	100	
	전체	4527	25.9	6099	34.9	6860	39.2	17486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1739	33.8	1888	36.7	1520	29.5	5147	100	684.866***
	콜롬비아	2156	35.6	2135	35.2	1767	29.2	6058	100	
	도미니카	1634	40.0	898	22.0	1548	37.9	4080	100	
	멕시코	1591	24.6	2235	34.6	2633	40.8	6459	100	
	파라과이	1345	41.9	981	30.6	883	27.5	3209	100	
	전체	8465	33.9	8137	32.6	8351	33.5	24953	100	
아시아	대만	1180	23.0	1725	33.6	2235	43.5	5140	100	2560.891***
	홍콩	983	34.9	994	35.3	838	29.8	2815	100	
	인도네시아	1493	30.2	1298	26.2	2157	43.6	4948	100	
	한국	537	10.3	662	12.7	4034	77.1	5233	100	
	태국	1577	30.3	1660	31.9	1961	37.7	5198	100	
	전체	5770	24.7	6339	27.2	11225	48.1	23334	100	

○ 토론에 적극적 참여

청소년들이 학교 내 토론활동에 얼마나 적극적 참여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토론에 적극적인 대륙은 28.3%가 지난 1년 동안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유럽인 반면, 13.3%만이 참여한 아시아는 토론 적극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결과에 따르면, 유럽대륙 중에서도 이탈리아(34.2%)와 체코(30.2%)의 토론문화가 가장 활발하였으며, 라틴국가의 도미니카는 40%를 육박하는 토론경험이 있다는 반응을 보여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

도 높은 참여수준을 보였다. 아시아의 경우, 한국의 약 15.4%가 지난 1년 동안 학교 내 토론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응답을 보여, 전체 아시아 국가 중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인 반면, 인도네시아가 20.8%로 아시아국가 중에서 학교 내 토론문화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1-6 국가에 따른 학교 내 활동(토론에 적극적 참여) 차이분석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4910	28.3	3719	21.4	8751	50.4	17380	100	2327.011 ***
	라틴아메리카	6575	26.8	5748	23.4	12219	49.8	24542	100	
	아시아	3099	13.3	4332	18.6	15831	68.1	23262	100	
	전체	14584	22.4	13799	21.2	36801	56.5	65184	100	
유럽	체코	1384	30.2	1092	23.8	2108	46.0	4584	100	215.926 ***
	이탈리아	1141	34.2	540	16.2	1655	49.6	3336	100	
	스페인	884	27.1	765	23.5	1613	49.4	3262	100	
	스웨덴	797	23.7	640	19.0	1926	57.3	3363	100	
	영국	704	24.8	682	24.1	1449	51.1	2835	100	
	전체	4910	28.3	3719	21.4	8751	50.4	17380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1307	25.5	1208	23.6	2602	50.9	5117	100	742.611 ***
	콜롬비아	1698	28.6	1238	20.8	3003	50.6	5939	100	
	도미니카	1599	40.0	1009	25.2	1393	34.8	4001	100	
	멕시코	1366	21.3	1702	26.6	3334	52.1	6402	100	
	파라과이	605	19.6	591	19.2	1887	61.2	3083	100	
	전체	6575	26.8	5748	23.4	12219	49.8	24542	100	
아시아	대만	290	5.7	601	11.7	4238	82.6	5129	100	872.157 ***
	홍콩	331	11.8	651	23.2	1829	65.1	2811	100	
	인도네시아	1026	20.8	992	20.1	2908	59.0	4926	100	
	한국	654	12.6	1038	19.9	3515	67.5	5207	100	
	태국	798	15.4	1050	20.2	3341	64.4	5189	100	
	전체	3099	13.3	4332	18.6	15831	68.1	23262	100	

○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세계 청소년들은 학교 내의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에 과반수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전체 응답자 중 48.8%가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에 참여했다는 반응을 보여, 세 대륙 중 중간정도의 참여율을 보인 반면, 라틴국가는 58.6%로 임원투표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다. 반면 아시아(47.0%)는 가장 낮은 참여 비율을 보였다. 세부 결과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나라간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즉, 스페인은 71.0%가 지난 1년 이내에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이탈리아는 오직 29.3%만이 교내 반장/ 학생회 임원투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는 70%이상의 참여율을 보인 반면, 도미니카(35.8%)와 멕시코(43.1%)의 참여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가장 높은 참여 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과반수 이하의 참여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 -1-7 국가에 따른 학교 내 활동(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차이분석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8492	48.8	4521	26.0	4389	25.2	17402	100	759.891 ***
	라틴아메리카	14288	58.6	5396	22.1	4678	19.2	24362	100	
	아시아	10933	47.0	6166	26.5	6149	26.4	23248	100	
	전체	33713	51.9	16083	24.7	15216	23.4	65012	100	
유 럽	체코	2345	51.3	1050	23.0	1178	25.8	4573	100	2422.122 ***
	이탈리아	975	29.3	652	19.6	1706	51.2	3333	100	
	스페인	2316	71.0	535	16.4	413	12.7	3264	100	
	스웨덴	1477	43.8	1413	41.9	480	14.2	3370	100	
	영국	1379	48.2	871	30.4	612	21.4	2862	100	
	전체	8492	48.8	4521	26.0	4389	25.2	17402	1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3680	72.0	889	17.4	542	10.6	5111	100	2859.864 ***
	콜롬비아	4287	72.5	1020	17.3	605	10.2	5912	100	
	도미니카	1365	35.8	968	25.4	1479	38.8	3812	100	
	멕시코	2757	43.1	1956	30.6	1688	26.4	6401	100	
	파라과이	2199	70.3	563	18.0	364	11.6	3126	100	
	전체	14288	58.6	5396	22.1	4678	19.2	24362	100	
아 시 아	대만	2232	43.4	1229	23.9	1677	32.6	5138	100	481.248 ***
	홍콩	1368	48.6	704	25.0	740	26.3	2812	100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인도네시아	2254	45.5	1282	25.9	1418	28.6	4954	100	
	한국	2848	54.7	1119	21.5	1238	23.8	5205	100	
	태국	2231	43.4	1832	35.6	1076	20.9	5139	100	
	전체	10933	47.0	6166	26.5	6149	26.4	23248	100	

○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세계 청소년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비율은 전체평균이 22.8%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다. 특히, 유럽은 18.7%만이 지난 1년간 학교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라틴국가는 27.5%, 아시아는 21.1%,로 대륙별 청소년의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에 차이를 보였다. 세부결과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체코는 7.8%만이 지난 1년간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응답을 보여,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고, 반면 라틴국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아시아 및 유럽국가 보다는 높은 의사결정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34.0%)는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의 참여비율이 높은 반면, 한국은 17.0%로 홍콩(10.0%)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III -1-8 국가에 따른 학교 내 활동(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차이분석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3257	18.7	3848	22.1	10302	59.2	17407	100	711.021***
	라틴아메리카	6690	27.5	5847	24.0	11811	48.5	24348	100	
	아시아	4899	21.1	4913	21.1	13431	57.8	23243	100	
	전체	14846	22.8	14608	22.5	35544	54.7	64998	100	
유럽	체코	359	7.8	619	13.5	3611	78.7	4589	100	1407.881***
	이탈리아	562	16.8	588	17.6	2188	65.5	3338	100	
	스페인	804	24.6	757	23.2	1703	52.2	3264	100	
	스웨덴	808	24.0	1033	30.7	1528	45.4	3369	100	
	영국	724	25.4	851	29.9	1272	44.7	2847	100	
	전체	3257	18.7	3848	22.1	10302	59.2	17407	100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라틴 아메리카	칠레	953	18.6	1025	20.0	3136	61.3	5114	100	622.303***
	콜롬비아	1902	32.3	1386	23.5	2609	44.2	5897	100	
	도미니카	1299	33.7	922	23.9	1631	42.3	3852	100	
	멕시코	1542	24.1	1816	28.4	3042	47.5	6400	100	
	파라과이	994	32.2	698	22.6	1393	45.2	3085	100	
	전체	6690	27.5	5847	24.0	11811	48.5	24348	100	
아시아	대만	1074	21.0	1141	22.3	2899	56.7	5114	100	1089.994***
	홍콩	303	10.8	492	17.5	2016	71.7	2811	100	
	인도네시아	1674	34.0	1092	22.2	2153	43.8	4919	100	
	한국	887	17.0	829	15.9	3496	67.1	5212	100	
	태국	961	18.5	1359	26.2	2867	55.3	5187	100	
	전체	4899	21.1	4913	21.1	13431	57.8	23243	100	

○ 학생회 토론 참여

세계 청소년들의 평균 22.4%가 지난 1년간 학생회 토론에 참여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유럽이 15.9%, 라틴아메리카가 20.5%의 참여비율을 보였고, 아시아의 경우 34.9%의 학생의 참여비율을 보여, 3대륙 중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세부 대륙별 차이를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스웨덴(25.4%)이, 라틴국가에서는 파라과이(33.2%) 청소년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아시아국가에서는 대만과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과반수이상의 학생이 학생회 토론에 참여했다는 반응을 보여, 한국의 13.0%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표 III-1-9 국가에 따른 학교 내 활동(학생회 토론 참여) 차이분석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2762	15.9	3480	20.0	11165	64.1	17407	100	2805.222***
	라틴아메리카	4991	20.5	5102	21.0	14234	58.5	24327	100	
	아시아	8125	34.9	5391	23.1	9793	42.0	23309	100	
	전체	15878	24.4	13973	21.5	35192	54.1	65043	100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유럽	체코	531	11.6	788	17.2	3257	71.2	4576	100	854.105***
	이탈리아	385	11.5	414	12.4	2537	76.0	3336	100	
	스페인	622	19.1	629	19.3	2008	61.6	3259	100	
	스웨덴	859	25.4	949	28.1	1574	46.5	3382	100	
	영국	365	12.8	700	24.5	1789	62.7	2854	100	
	전체	2762	15.9	3480	20.0	11165	64.1	17407	100	
라틴 아메리카	칠레	827	16.2	919	18.0	3368	65.9	5114	100	585.409***
	콜롬비아	1053	17.8	1281	21.7	3575	60.5	5909	100	
	도미니카	987	25.8	853	22.3	1989	51.9	3829	100	
	멕시코	1095	17.2	1435	22.5	3844	60.3	6374	100	
	파라과이	1029	33.2	614	19.8	1458	47.0	3101	100	
	전체	4991	20.5	5102	21.0	14234	58.5	24327	100	
아시아	대만	3036	59.2	1303	25.4	789	15.4	5128	100	6588.148***
	홍콩	375	13.3	577	20.5	1861	66.2	2813	100	
	인도네시아	2781	56.2	1430	28.9	740	14.9	4951	100	
	한국	681	13.0	676	12.9	3868	74.0	5225	100	
	태국	1252	24.1	1405	27.1	2535	48.8	5192	100	
	전체	8125	34.9	5391	23.1	9793	42.0	23309	100	

○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이들에게 지난 1년간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세계 청소년의 18.6%는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답결과에 따르면, 유럽은 16.6%, 라틴아메리카는 24.0%, 아시아는 14.4%로 라틴 국가 청소년들의 임원 출마 경험이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유럽, 아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차이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스페인이(27.1%), 라틴국가에서는 파라과이(35.7%)와 도미니카(31.4%) 청소년의 반장 혹은 학생회 임원 출마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16.4%의 학생이 임원 출마 경험이 있다는 반응을 보여,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1-10 국가에 따른 학교 내 활동(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차이분석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2896	16.6	3574	20.5	10997	63.0	17467	100	1247.867***
	라틴아메리카	5878	24.0	5426	22.2	13174	53.8	24478	100	
	아시아	3347	14.4	3963	17.0	15997	68.6	23307	100	
	전체	12121	18.6	12963	19.9	40168	61.6	65252	100	
유 럽	체코	756	16.4	656	14.3	3190	69.3	4602	100	1074.266***
	이탈리아	346	10.3	378	11.3	2620	78.3	3344	100	
	스페인	889	27.1	925	28.2	1462	44.6	3276	100	
	스웨덴	460	13.6	916	27.0	2016	59.4	3392	100	
	영국	445	15.6	699	24.5	1709	59.9	2853	100	
	전체	2896	16.6	3574	20.5	10997	63.0	17467	100	
라 틴 아 메 리 카	칠레	1230	24.0	1240	24.2	2656	51.8	5126	100	790.377***
	콜롬비아	1279	21.4	1346	22.5	3349	56.1	5974	100	
	도미니카	1217	31.4	961	24.8	1693	43.7	3871	100	
	멕시코	1035	16.2	1212	19.0	4132	64.8	6379	100	
	파라과이	1117	35.7	667	21.3	1344	43.0	3128	100	
	전체	5878	24.0	5426	22.2	13174	53.8	24478	100	
아 시 아	대만	636	12.4	1023	19.9	3480	67.7	5139	100	291.010***
	홍콩	348	12.4	547	19.4	1919	68.2	2814	100	
	인도네시아	751	15.2	494	10.0	3696	74.8	4941	100	
	한국	854	16.4	844	16.2	3519	67.5	5217	100	
	태국	758	14.6	1055	20.3	3383	65.1	5196	100	
	전체	3347	14.4	3963	17.0	15997	68.6	23307	100	

나.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에 대한 질문은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얼마나 민주적 인지에 대한 질문과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에 유럽 학생들은 35.0%가 종종 수업에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여, 가장 활발한 공개적 토론이 수업시간에 일어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반면, 아시아 국가는 오직 11.5%만이 종종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여 가장 폐쇄적인 토론 학급 환경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은 전체 학생 중 10.4%만이 종종 수업에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여, 아시아국가 중에서도 태국(4.2%) 다음으로 낮은 반응을 보였다.

표 III -1-11 국가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1) 차이분석

		전혀 일어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1010	5.8	2972	17.0	7390	42.3	6118	35.0	17490	100	5171.387***
	라틴아메리카	3217	12.9	6138	24.7	10830	43.5	4693	18.9	24878	100	
	아시아	4512	9.3	7508	32.2	8618	36.9	2693	11.5	23331	100	
	전체	8739	13.3	16618	25.3	26838	40.8	13504	20.6	65699	100	
유럽	체코	234	5.1	922	20.1	2078	45.2	1359	29.6	4593	100	434.042***
	이탈리아	176	5.2	510	15.2	1502	44.8	1165	34.7	3353	100	
	스페인	304	9.3	624	19.1	1296	39.6	1049	32.1	3273	100	
	스웨덴	118	3.5	380	11.2	1316	38.7	1590	46.7	3404	100	
	영국	178	6.2	536	18.7	1198	41.8	955	33.3	2867	100	
	전체	1010	5.8	2972	17.0	7390	42.3	6118	35.0	17490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348	6.8	1017	19.8	2174	42.2	1607	31.2	5146	100	2886.906***
	콜롬비아	496	8.2	1674	27.8	3029	50.3	825	13.7	6024	100	
	도미니카	1429	35.1	937	23.0	1377	33.8	327	8.0	4070	100	
	멕시코	632	9.8	1694	26.3	2883	44.7	1242	19.3	6451	100	
	파라과이	312	9.8	816	25.6	1367	42.9	692	21.7	3187	100	
	전체	3217	12.9	6138	24.7	10830	43.5	4693	18.9	24878	100	
아시아	대만	717	13.9	1562	30.4	1986	38.6	877	17.1	5142	100	1527.430***
	홍콩	224	8.0	885	31.4	1215	43.2	490	17.4	2814	100	
	인도네시아	1346	27.3	961	19.5	2069	41.9	563	11.4	4939	100	
	한국	959	18.3	2129	40.7	1598	30.6	544	10.4	5230	100	
	태국	1266	24.3	1971	37.9	1750	33.6	219	4.2	5206	100	
	전체	4512	19.3	7508	32.2	8618	36.9	2693	11.5	23331	100	

○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 한다"는 질문에 유럽학생들이 45.3%가 종종 수업에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아시아는 38.2%, 라틴아메리카는 32.8%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대륙별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한국은 오직 12.4%만이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는 반응을 보여, 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 전체 응답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 -1-12 국가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2) 차이분석

		전혀 일어 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 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1147	6.6	2546	14.6	5858	33.5	7911	45.3	17462	100	1361.306 ***
	라틴아메리카	3711	15.2	4520	18.5	8192	33.5	8034	32.8	24457	100	
	아시아	2055	8.8	4410	18.9	7945	34.1	8905	38.2	23315	100	
	전체	6913	10.6	11476	17.6	21995	33.7	24850	38.1	65234	100	
유 럽	체코	236	5.1	839	18.3	1818	39.6	1696	37.0	4589	100	1683.808 ***
	이탈리아	105	3.1	292	8.7	831	24.8	2123	63.4	3351	100	
	스페인	556	17.0	707	21.6	1076	32.9	927	28.4	3266	100	
	스웨덴	145	4.3	403	11.9	1248	36.8	1597	47.1	3393	100	
	영국	105	3.7	305	10.7	885	30.9	1568	54.8	2863	100	
	전체	1147	6.6	2546	14.6	5858	33.5	7911	45.3	17462	1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271	5.3	636	12.4	1636	32.0	2576	50.3	5119	100	2152.158 ***
	콜롬비아	949	15.9	1228	20.6	2108	35.4	1676	28.1	5961	100	
	도미니카	1257	32.8	856	22.3	987	25.7	738	19.2	3838	100	
	멕시코	853	13.4	1247	19.5	2352	36.8	1936	30.3	6388	100	
	파라과이	381	12.1	553	17.5	1109	35.2	1108	35.2	3151	100	
	전체	3711	15.2	4520	18.5	8192	33.5	8034	32.8	24457	100	
아 시 아	대만	366	7.1	956	18.6	2141	41.7	1671	32.5	5134	100	4842.311 ***
	홍콩	97	3.4	404	14.4	1225	43.6	1086	38.6	2812	100	
	인도네시아	372	7.5	443	9.0	1379	27.9	2748	55.6	4942	100	
	한국	1089	20.8	2077	39.7	1416	27.1	646	12.4	5228	100	
	태국	131	2.5	530	10.2	1784	34.3	2754	53.0	5199	100	
	전체	2055	8.8	4410	18.9	7945	34.1	8905	38.2	23315	100	

○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반면,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54.1%인 과반수이상의 청소년이 학교 수업에서 종종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그 반응은 유럽(56.5%), 라틴아메리카(54.9%), 아시아(51.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시아의 한국학생 응답결과에 따르면, 오직 15.0%만이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다른 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70.0%, 태국의 62.3%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3개 대륙을 모두 합친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로 나타났다. 또한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응답에는 19.3%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오히려 종종 일어난다는 반응보다 더 높은 응답결과를 보였다.

표 III -1-13 국가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3) 차이분석

		전혀 일어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709	4.1	1866	10.7	5012	28.8	9842	56.5	17429	100	445.791***
	라틴아메리카	1451	5.9	2480	10.1	7190	29.1	13548	54.9	24669	100	
	아시아	1628	7.0	3368	14.5	6298	27.1	11934	51.4	23228	100	
	전체	3788	5.8	7714	11.8	18500	28.3	35324	54.1	65326	100	
유럽	체코	237	5.2	736	16.1	1499	32.7	2107	46.0	4579	100	616.585***
	이탈리아	77	2.3	216	6.5	668	20.0	2386	71.3	3347	100	
	스페인	181	5.6	300	9.2	903	27.7	1874	57.5	3258	100	
	스웨덴	124	3.7	337	9.9	1110	32.8	1818	53.6	3389	100	
	영국	90	3.2	277	9.7	832	29.1	1657	58.0	2856	100	
	전체	709	4.1	1866	10.7	5012	28.8	9842	56.5	17429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188	3.7	514	10.1	1458	28.5	2949	57.7	5109	100	549.004***
	콜롬비아	405	6.8	594	9.9	1700	28.5	3275	54.8	5974	100	
	도미니카	473	11.8	491	12.2	1311	32.7	1735	43.3	4010	100	
	멕시코	288	4.5	615	9.6	1882	29.4	3614	56.5	6399	100	
	파라과이	97	3.1	266	8.4	839	26.4	1975	62.2	3177	100	
	전체	1451	5.9	2480	10.1	7190	29.1	13548	54.9	24669	100	
아시아	대만	257	5.0	545	10.6	1470	28.7	2850	55.6	5122	100	5827.725***
	홍콩	85	3.0	198	7.1	876	31.2	1649	58.7	2808	100	
	인도네시아	164	3.3	284	5.7	1034	20.9	3458	70.0	4940	100	

		전혀 일어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한국	1007	19.3	1936	37.0	1502	28.7	782	15.0	5227	100	
	태국	115	2.2	405	7.9	1416	27.6	3195	62.3	5131	100	
	전체	1628	7.0	3368	14.5	6298	27.1	11934	51.4	23228	100	

○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세계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는 질문에 10.3 %는 종종 일어난다는 반응을, 29.3%는 때때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여, 약 40%에 가까운 학교에서 정치적 사건을 종종 토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종종:10.1%, 때때로:29.5%)과 라틴국가(종종:11.9%, 때때로:29.1%)에서 아시아(종종:8.8%, 때때로:29.3%)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시아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17.4%의 학생이 정치적 사건의 토론이 학급에서 종종 일어나고, 42.7%가 때때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여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사건에 토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오직 2.9%의 학생이 종종 일어난다는 반응을, 9.1%의 학생은 때때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여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III -1-14 국가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4) 차이분석

		전혀 일어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3866	22.2	6654	38.2	5129	29.5	1765	10.1	17414	100	276.245***
	라틴아메리카	6371	26.0	8105	33.0	7146	29.1	2914	11.9	24536	100	
	아시아	6239	26.8	8170	35.1	6835	29.3	2060	8.8	23304	100	
	전체	16476	25.2	22929	35.1	19110	29.3	6739	10.3	65254	100	
유럽	체코	1356	29.6	1776	38.8	1118	24.4	330	7.2	4580	100	1016.293***
	이탈리아	585	17.5	1155	34.5	1136	33.9	472	14.1	3348	100	
	스페인	1076	33.0	1364	41.9	634	19.5	185	5.7	3259	100	
	스웨덴	419	12.4	1255	37.1	1253	37.0	455	13.5	3382	100	
	영국	430	15.1	1104	38.8	988	34.7	323	11.4	2845	100	

		전혀 일어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866	22.2	6654	38.2	5129	29.5	1765	10.1	17414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1140	22.3	2032	39.7	1391	27.2	554	10.8	5117	100	518.669***
	콜롬비아	1119	18.7	1980	33.2	1955	32.8	915	15.3	5969	100	
	도미니카	1420	36.3	887	22.7	1081	27.6	525	13.4	3913	100	
	멕시코	1489	23.3	2238	35.0	1993	31.1	682	10.7	6402	100	
	파라과이	1203	38.4	968	30.9	726	23.2	238	7.6	3135	100	
	전체	6371	26.0	8105	33.0	7146	29.1	2914	11.9	24536	100	
아시아	대만	1191	23.2	2419	47.2	1257	24.5	262	5.1	5129	100	5220.283***
	홍콩	393	14.0	1182	42.0	983	35.0	254	9.0	2812	100	
	인도네시아	791	16.0	1180	23.9	2107	42.7	859	17.4	4937	100	
	한국	3103	59.3	1494	28.6	478	9.1	154	2.9	5229	100	
	태국	761	14.6	1895	36.5	2010	38.7	531	10.2	5197	100	
	전체	6239	26.8	8170	35.1	6835	29.3	2060	8.8	23304	100	

○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습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청소년들은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습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는 질문에 28.2%는 종종 일어난다는 반응을, 38.9%는 때때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여, 평균 67.1%가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습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종종:32.0%, 때때로:42.6%)에서 이러한 경향이 높았으며, 라틴, 아시아 순으로 의견표명 정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국가별 응답결과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이탈리아(38.7%),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칠레(41.4%)학생들의 자기의견 표명이 가장 강력하였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자기의견 표명이 가장 강력(36.5%)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5 국가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5) 차이분석

		전혀 일어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980	5.6	3455	19.8	7429	42.6	5584	32.0	17448	100	1484.151***
	라틴아메리카	2207	9.0	5272	21.4	9468	38.5	7637	31.1	24584	100	

		전혀 일어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시아	3032	13.0	6546	28.1	8547	36.7	5190	22.3	23315	100	
	전체	6219	9.5	15273	23.4	25444	38.9	18411	28.2	65347	100	
유럽	체코	255	5.6	1066	23.2	1931	42.1	1336	29.1	4588	100	204.719***
	이탈리아	173	5.2	608	18.2	1268	37.9	1294	38.7	3343	100	
	스페인	255	7.8	689	21.1	1322	40.5	1000	30.6	3266	100	
	스웨덴	152	4.5	631	18.6	1594	47.0	1015	29.9	3392	100	
	영국	145	5.1	461	16.1	1314	46.0	939	32.8	2859	100	
	전체	980	5.6	3455	19.8	7429	42.6	5584	32.0	17448	1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293	5.7	900	17.6	1806	35.3	2121	41.4	5120	100	518.669***
	콜롬비아	454	7.6	1370	22.9	2391	40.1	1755	29.4	5970	100	
	도미니카	520	13.2	819	20.8	1494	38.0	1102	28.0	3935	100	
	멕시코	689	10.8	1506	23.5	2578	40.3	1629	25.4	6402	100	
	파라과이	251	8.0	677	21.4	1199	38.0	1030	32.6	3157	100	
	전체	2207	9.0	5272	21.4	9468	38.5	7637	31.1	24584	100	
아 시 아	대만	434	8.4	1085	21.1	1984	38.6	1635	31.8	5138	100	4038.257***
	홍콩	143	5.1	589	21.0	1314	46.7	765	27.2	2811	100	
	인도네시아	380	7.7	813	16.5	1941	39.3	1800	36.5	4934	100	
	한국	1521	29.1	1968	37.7	1206	23.1	531	10.2	5226	100	
	태국	554	10.6	2091	40.2	2102	40.4	459	8.8	5206	100	
	전체	3032	13.0	6546	28.1	8547	36.7	5190	22.3	23315	100	

○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세계 청소년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는 질문에 22.6%는 종종 일어난다는 반응을, 34.8%는 때때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여, 평균 57.4%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대륙별 차이에 의하면 유럽, 아시아, 라틴국가 순으로 개방적 토론이 수업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오직 4.4%만이 종종 수업에서 선생님들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는 반응을 보여, 3개 대륙의 전체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학급토론 개방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III -1-16 국가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6) 차이분석

		전혀 일어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2455	14.1	4848	27.8	6498	37.3	3638	20.9	17439	100	325.944***
	라틴아메리카	4737	19.4	5781	23.7	8263	33.8	5659	23.2	24440	100	
	아시아	4300	18.4	5667	24.3	7920	34.0	5421	23.3	23308	100	
	전체	11492	17.6	16296	25.0	22681	34.8	14718	22.6	65187	100	
유럽	체코	878	19.2	1616	35.3	1609	35.1	477	10.4	4580	100	1306.733***
	이탈리아	324	9.7	666	19.9	1141	34.1	1217	36.4	3348	100	
	스페인	668	20.4	925	28.3	1143	34.9	535	16.4	3271	100	
	스웨덴	353	10.4	1021	30.2	1366	40.4	645	19.1	3385	100	
	영국	232	8.1	620	21.7	1239	43.4	764	26.8	2855	100	
	전체	2455	14.1	4848	27.8	6498	37.3	3638	20.9	17439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631	12.3	1259	24.6	1821	35.6	1406	27.5	5117	100	782.026***
	콜롬비아	1245	20.9	1602	26.9	2051	34.5	1048	17.6	5946	100	
	도미니카	1024	26.7	870	22.7	1204	31.4	736	19.2	3834	100	
	멕시코	939	14.6	1443	22.5	2179	34.0	1849	28.8	6410	100	
	파라과이	898	28.7	607	19.4	1008	32.2	620	19.8	3133	100	
	전체	4737	19.4	5781	23.7	8263	33.8	5659	23.2	24440	100	
아시아	대만	539	10.5	1225	23.8	1917	37.3	1461	28.4	5142	100	5987.789***
	홍콩	151	5.4	474	16.9	1193	42.4	993	35.3	2811	100	
	인도네시아	559	11.3	872	17.7	1820	36.9	1675	34.0	4926	100	
	한국	2594	49.6	1651	31.6	750	14.4	230	4.4	5225	100	
	태국	457	8.8	1445	27.8	2240	43.0	1062	20.4	5204	100	
	전체	4300	18.4	5667	24.3	7920	34.0	5421	23.3	23308	100	

○ 선생님들이 학습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관점을 제시해 준다.

세계 청소년들은 "선생님들이 학습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질문에 22.6%는 종종 일어난다는 반응을, 34.8%는 때때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여, 평균 57.4%의 선생님들이 학습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아시아, 라틴 순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반면 아시아국가의 경우 한국학생은 오직 7.6%만이 종종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난다는 반응도 20.8%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한국은 전반적인 학습 분위기 및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했다.

표 III -1-17 국가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7) 차이분석

		전혀 일어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2455	14.1	4848	27.8	6498	37.3	3638	20.9	17439	100	1238.758***
	라틴아메리카	4737	19.4	5781	23.7	8263	33.8	5659	23.2	24440	100	
	아시아	4300	18.4	5667	24.3	7920	34.0	5421	23.3	23308	100	
	전체	11492	17.6	16296	25.0	22681	34.8	14718	22.6	65187	100	
유럽	체코	244	5.3	955	20.8	1984	43.3	1404	30.6	4587	100	739.083***
	이탈리아	175	5.2	541	16.2	1278	38.2	1349	40.4	3343	100	
	스페인	345	10.6	647	19.8	1299	39.8	972	29.8	3263	100	
	스웨덴	302	9.0	980	29.2	1580	47.1	495	14.7	3357	100	
	영국	201	7.0	466	16.3	1151	40.3	1038	36.3	2856	100	
	전체	1267	7.3	3589	20.6	7292	41.9	5258	30.2	17406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366	7.2	825	16.1	1801	35.2	2122	41.5	5114	100	223.426***
	콜롬비아	306	5.1	796	13.3	1999	33.3	2897	48.3	5998	100	
	도미니카	393	10.0	563	14.4	1303	33.3	1658	42.3	3917	100	
	멕시코	554	8.6	1059	16.5	2390	37.3	2410	37.6	6413	100	
	파라과이	225	7.2	478	15.2	1061	33.8	1371	43.7	3135	100	
	전체	1844	7.5	3721	15.1	8554	34.8	10458	42.6	24577	100	
아시아	대만	374	7.3	887	17.3	2000	38.9	1879	36.6	5140	100	6218.536***
	홍콩	136	4.8	373	13.3	1204	42.8	1100	39.1	2813	100	
	인도네시아	267	5.4	460	9.3	1451	29.4	2754	55.8	4932	100	
	한국	1788	34.2	1957	37.4	1085	20.8	397	7.6	5227	100	
	태국	238	4.6	843	16.2	1836	35.3	2291	44.0	5208	100	
	전체	2803	12.0	4520	19.4	7576	32.5	8421	36.1	23320	100	

다. 학교에서의 영향력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 학교정책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수법, 수업내용, 교과서 및 학습자료, 수업시간표 및 학급수칙에 학생의견 반영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 교수법(선생님의 수업방식 또는 수업방법)

세계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견이 선생님의 수업방식 또는 수업방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견에 유럽은 11.0%, 라틴아메리카는 34.6%, 아시아는 26.9%의 학생들이 많이 반영된다는 응답을 보여 대륙별 학생의견의 교수법 반영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이 선생님의 수업방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한국학생의 반영된다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표 III -1-18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교수법) 차이분석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반영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1915	11.0	6543	37.6	6241	35.9	2704	15.5	17403	100	5153.649***
	라틴아메리카	8617	34.6	10026	40.2	4798	19.2	1485	6.0	24926	100	
	아시아	6279	26.9	10116	43.3	3895	16.7	3071	13.1	23361	100	
	전체	16811	25.6	26685	40.6	14934	22.7	7260	11.1	65690	100	
유럽	체코	440	9.6	1640	35.8	1660	36.3	839	18.3	4579	100	693.018***
	이탈리아	446	13.4	1509	45.4	1045	31.4	326	9.8	3326	100	
	스페인	479	14.7	1058	32.4	1039	31.8	692	21.2	3268	100	
	스웨덴	374	11.0	1474	43.4	1284	37.8	261	7.7	3393	100	
	영국	176	6.2	862	30.4	1213	42.8	586	20.7	2837	100	
	전체	1915	11.0	6543	37.6	6241	35.9	2704	15.5	17403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1160	22.7	2154	42.1	1325	25.9	478	9.3	5117	100	1274.860***
	콜롬비아	2087	34.5	2563	42.4	1164	19.2	234	3.9	6048	100	
	도미니카	2072	50.1	1634	39.5	313	7.6	120	2.9	4139	100	
	멕시코	2075	32.2	2591	40.2	1427	22.1	357	5.5	6450	100	
	파라과이	1223	38.6	1084	34.2	569	17.9	296	9.3	3172	100	
	전체	8617	34.6	10026	40.2	4798	19.2	1485	6.0	24926	100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반영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 시 아	대만	879	17.1	3032	59.1	720	14.0	500	9.7	5131	100	7501.228***
	홍콩	437	15.6	1517	54.0	645	23.0	210	7.5	2809	100	
	인도네시아	2475	50.0	1590	32.1	559	11.3	327	6.6	4951	100	
	한국	372	7.1	1331	25.4	1592	30.4	1942	37.1	5237	100	
	태국	2116	40.4	2646	50.6	379	7.2	92	1.8	5233	100	
	전체	6279	26.9	10116	43.3	3895	16.7	3071	13.1	23361	100	

○ 수업내용

다음으로 학생의견이 수업내용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따르면, 유럽 청소년들은 오직 12.6%만이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유럽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생의견이 수업내용반영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라틴아메리카의 학생들은 전체의 38.3%가 많이 반영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아시아는 28.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륙별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 세부응답에 따르면, 유럽국가 중에서도 체코(많이 반영됨:9.5%, 보통 반영됨:19.3%)와 영국(많이 반영됨:7.4%, 보통 반영됨:25.1%)학생의 반영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들은 학교가 다소 권위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학생 영향력을 높게 측정한 반면, 한국 학생들은 학생 영향력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 -1-19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수업내용) 차이분석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반영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2192	12.6	5378	31.0	5411	31.2	4371	25.2	17352	100	6714.501***
	라틴아메리카	9413	38.3	9445	38.4	4074	16.6	1649	6.7	24581	100	
	아시아	6749	28.9	9919	42.5	3633	15.6	3040	13.0	23341	100	
	전체	18354	28.1	24742	37.9	13118	20.1	9060	13.9	65274	100	
유 럽	체코	434	9.5	885	19.3	1314	28.7	1945	42.5	4578	100	2219.124***
	이탈리아	629	19.0	1534	46.3	845	25.5	307	9.3	3315	100	
	스페인	553	16.9	865	26.5	979	30.0	869	26.6	3266	100	
	스웨덴	367	10.8	1390	41.1	1284	37.9	345	10.2	3386	100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반영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영국	209	7.4	704	25.1	989	35.2	905	32.2	2807	100	
	전체	2192	12.6	5378	31.0	5411	31.2	4371	25.2	17352	1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1382	27.1	1974	38.8	1196	23.5	540	10.6	5092	100	1345.955***
	콜롬비아	2329	38.9	2431	40.6	971	16.2	254	4.2	5985	100	
	도미니카	2010	51.1	1564	39.8	245	6.2	112	2.8	3931	100	
	멕시코	2172	33.9	2629	41.0	1210	18.9	403	6.3	6414	100	
	파라과이	1520	48.1	847	26.8	452	14.3	340	10.8	3159	100	
	전체	9413	38.3	9445	38.4	4074	16.6	1649	6.7	24581	100	
아 시 아	대만	765	14.9	3114	60.8	726	14.2	518	10.1	5123	100	7019.177***
	홍콩	521	18.5	1395	49.7	583	20.8	310	11.0	2809	100	
	인도네시아	2592	52.4	1514	30.6	479	9.7	360	7.3	4945	100	
	한국	478	9.1	1458	27.9	1523	29.1	1771	33.9	5230	100	
	태국	2393	45.7	2438	46.6	322	6.2	81	1.5	5234	100	
	전체	6749	28.9	9919	42.5	3633	15.6	3040	13.0	23341	100	

○ 교과서 및 학습자료

또한 학생의견이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순으로 학생의견의 학교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23.6%로 학생의견 반영에 세 개 대륙 중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세부 응답차이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는 전체 학생의 54.7%가 학생 의견이 학교의 교과서 및 학습자료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결과를 보여 매우 높은 학생의견 반영률을 보였으며, 한국학생의 경우 오직 10.6%만이 많이 반영되고, 24.9%가 보통 반영된다는 의견을 보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그 영향력은 매우 적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0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교과서 및 학습자료) 차이분석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반영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1904	11.0	5277	30.4	6068	35.0	4082	23.6	17331	100	5778.100***
	라틴아메리카	7945	32.6	9346	38.3	5520	22.6	1583	6.5	24394	100	
	아시아	6210	26.6	9508	40.8	3920	16.8	3679	15.8	23317	100	
	전체	16059	24.7	24131	37.1	15508	23.8	9344	14.4	65042	100	
유럽	체코	412	9.1	1149	25.3	1568	34.5	1421	31.2	4550	100	567.214***
	이탈리아	475	14.4	1278	38.7	1089	33.0	462	14.0	3304	100	
	스페인	437	13.4	953	29.2	953	29.2	917	28.1	3260	100	
	스웨덴	333	9.8	1033	30.5	1343	39.7	677	20.0	3386	100	
	영국	247	8.7	864	30.5	1115	39.4	605	21.4	2831	100	
	전체	1904	11.0	5277	30.4	6068	35.0	4082	23.6	17331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1269	25.0	2048	40.4	1259	24.8	493	9.7	5069	100	813.960***
	콜롬비아	2027	34.1	2319	39.0	1359	22.8	244	4.1	5949	100	
	도미니카	1756	45.4	1408	36.4	548	14.2	155	4.0	3867	100	
	멕시코	1728	27.1	2540	39.8	1719	26.9	394	6.2	6381	100	
	파라과이	1165	37.2	1031	33.0	635	20.3	297	9.5	3128	100	
	전체	7945	32.6	9346	38.3	5520	22.6	1583	6.5	24394	100	
아시아	대만	548	10.7	2848	55.5	978	19.1	753	14.7	5127	100	7088.522***
	홍콩	489	17.4	1392	49.6	619	22.0	309	11.0	2809	100	
	인도네시아	2699	54.7	1300	26.3	484	9.8	451	9.1	4934	100	
	한국	554	10.6	1301	24.9	1285	24.6	2088	39.9	5228	100	
	태국	1920	36.8	2667	51.1	554	10.6	78	1.5	5219	100	
	전체	6210	26.6	9508	40.8	3920	16.8	3679	15.8	23317	100	

○ 수업시간표

다음으로 학생의견이 학교의 수업시간표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여부에 따르면, 유럽은 오직 15.0%만이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이들은 학생의견의 실질적 학교활동에의 반영률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라틴아메리카 학생들의 36.4%가 많이 반영된다는 의견을 보여 유럽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특히, 유럽 중에서도 영국과 체코는 학생의 학교 영향력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아시아 중 한국은 위의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수업시간표 반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전혀 반영되지 않음: 57.1%)이었다.

표 III -1-21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수업시간표) 차이분석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반영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2603	15.0	3591	20.7	3961	22.8	7195	41.5	17350	100	5733.034***
	라틴아메리카	8887	36.4	7558	31.0	4340	17.8	3601	14.8	24386	100	
	아시아	5781	24.8	8308	35.6	3807	16.3	5430	23.3	23326	100	
	전체	17271	26.5	19457	29.9	12108	18.6	16226	24.9	65062	100	
유럽	체코	619	13.6	608	13.3	729	16.0	2608	57.1	4564	100	1412.846***
	이탈리아	616	18.6	895	27.1	873	26.4	924	27.9	3308	100	
	스페인	540	16.5	586	17.9	654	20.0	1485	45.5	3265	100	
	스웨덴	546	16.1	993	29.3	1073	31.7	777	22.9	3389	100	
	영국	282	10.0	509	18.0	632	22.4	1401	49.6	2824	100	
	전체	2603	15.0	3591	20.7	3961	22.8	7195	41.5	17350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1440	28.3	1446	28.4	1109	21.8	1097	21.5	5092	100	701.950***
	콜롬비아	2349	39.4	1786	30.0	1039	17.4	782	13.1	5956	100	
	도미니카	1689	43.9	1416	36.8	480	12.5	266	6.9	3851	100	
	멕시코	2155	33.8	2008	31.5	1204	18.9	1015	15.9	6382	100	
	파라과이	1254	40.4	902	29.0	508	16.4	441	14.2	3105	100	
	전체	8887	36.4	7558	31.0	4340	17.8	3601	14.8	24386	100	
아시아	대만	502	9.8	2631	51.3	932	18.2	1062	20.7	5127	100	8212.519***
	홍콩	375	13.4	1098	39.1	800	28.5	535	19.1	2808	100	
	인도네시아	2306	46.7	1440	29.2	595	12.1	594	12.0	4935	100	
	한국	355	6.8	851	16.3	1038	19.8	2986	57.1	5230	100	
	태국	2243	42.9	2288	43.8	442	8.5	253	4.8	5226	100	
	전체	5781	24.8	8308	35.6	3807	16.3	5430	23.3	23326	100	

○ 학급수치

학생의견이 학급수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청소년들의 32.0%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을 보여, 위의 교과서 및 교수방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학급수치에 있어서는 학생의견이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대륙별 차이분석

결과, 유럽은 22.6%의 학생이, 라틴아메리카는 41.3%가 많이 반영된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아시아는 29.4%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대륙별 어느 정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국가별 차이결과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영국이 학생의견의 학교에서의 영향력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었으며, 아시아의 한국은 다른 변수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의견 반영 인식률을 보였다.

표 III-1-22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학급수칙) 차이분석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반영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3921	22.6	5632	32.4	4507	26.0	3298	19.0	17358	100	2759.140***
	라틴아메리카	10059	41.3	8156	33.5	4285	17.6	1860	7.6	24360	100	
	아시아	6849	29.4	9030	38.7	4387	18.8	3059	13.1	23325	100	
	전체	20829	32.0	22818	35.1	13179	20.3	8217	12.6	65043	100	
유 럽	체코	976	21.4	1608	35.2	1203	26.4	777	17.0	4564	100	870.384***
	이탈리아	1037	31.3	1111	33.5	718	21.7	447	13.5	3313	100	
	스페인	896	27.5	909	27.9	721	22.1	736	22.6	3262	100	
	스웨덴	550	16.2	1307	38.6	1089	32.2	439	13.0	3385	100	
	영국	462	16.3	697	24.6	776	27.4	899	31.7	2834	100	
	전체	3921	22.6	5632	32.4	4507	26.0	3298	19.0	17358	100	
라 틴 아 메 리 카	칠레	1654	32.5	1654	32.5	1150	22.6	627	12.3	5085	100	708.749***
	콜롬비아	2605	43.8	2091	35.2	906	15.2	341	5.7	5943	100	
	도미니카	1879	48.9	1345	35.0	417	10.8	205	5.3	3846	100	
	멕시코	2592	40.6	2195	34.4	1259	19.7	336	5.3	6382	100	
	파라과이	1329	42.8	871	28.1	553	17.8	351	11.3	3104	100	
	전체	10059	41.3	8156	33.5	4285	17.6	1860	7.6	24360	100	
아 시 아	대만	1225	23.9	2476	48.3	993	19.4	435	8.5	5129	100	6523.182***
	홍콩	657	23.4	1189	42.3	679	24.2	284	10.1	2809	100	
	인도네시아	2648	53.8	1416	28.8	542	11.0	318	6.5	4924	100	
	한국	388	7.4	1310	25.0	1609	30.8	1923	36.8	5230	100	
	태국	1931	36.9	2639	50.4	564	10.8	99	1.9	5233	100	
	전체	6849	29.4	9030	38.7	4387	18.8	3059	13.1	23325	100	

○ 학교규칙

학생의견이 학교규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들의 34.7%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26.9%는 보통 반영된다는 반응을 보여, 학생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학교규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륙별 응답차이에 의하면, 유럽학생들의 경우, 20.5%만이 많이 반영되고, 22.0%는 보통 반영된다는 응답을 보여 다른 대륙에 비하여 가장 낮은 의견반영 인식을 보였다. 특히, 라틴국가들의 긍정반응이 높았는데, 이들은 평균 43.7%가 많이 반영되며, 28.8%는 보통 반영된다고 하여 70%이상의 의견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아시아 중 한국은 학생의견이 학교 규칙 반영에 대해 오직 8.3%만이 많이 반영된다는 응답을 보여 학교 분위기가 다소 경직되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III-1-23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학교규칙) 차이분석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반영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3552	20.5	3826	22.0	3677	21.2	6307	36.3	17362	100	5009.594***
	라틴아메리카	10627	43.7	7006	28.8	3883	16.0	2799	11.5	24315	100	
	아시아	8396	36.0	6662	28.6	3724	16.0	4552	19.5	23334	100	
	전체	22575	34.7	17494	26.9	11284	17.4	13658	21.0	65011	100	
유럽	체코	781	17.1	539	11.8	631	13.8	2618	57.3	4569	100	2307.005***
	이탈리아	1017	30.7	937	28.3	624	18.9	730	22.1	3308	100	
	스페인	731	22.4	642	19.7	640	19.6	1251	38.3	3264	100	
	스웨덴	548	16.2	1188	35.1	1105	32.6	544	16.1	3385	100	
	영국	475	16.7	520	18.3	677	23.9	1164	41.0	2836	100	
	전체	3552	20.5	3826	22.0	3677	21.2	6307	36.3	17362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1825	35.9	1338	26.3	990	19.5	928	18.3	5081	100	747.952***
	콜롬비아	2724	45.8	1772	29.8	945	15.9	506	8.5	5947	100	
	도미니카	1939	50.7	1318	34.5	351	9.2	217	5.7	3825	100	
	멕시코	2755	43.2	1823	28.6	1108	17.4	689	10.8	6375	100	
	파라과이	1384	44.8	755	24.5	489	15.8	459	14.9	3087	100	
아시아	전체	10627	43.7	7006	28.8	3883	16.0	2799	11.5	24315	100	7142.681***
	대만	1335	26.0	2001	39.0	807	15.7	985	19.2	5128	100	
	홍콩	662	23.6	934	33.2	627	22.3	587	20.9	2810	100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반영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인도네시아	3281	66.4	838	17.0	366	7.4	454	9.2	4939	100	
	한국	433	8.3	1029	19.7	1459	27.9	2310	44.2	5231	100	
	태국	2685	51.4	1860	35.6	465	8.9	216	4.1	5226	100	
	전체	8396	36.0	6662	28.6	3724	16.0	4552	19.5	23334	100	

○ 방과 후 활동

학생의견의 학교에서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질문인 방과 후 활동에 학생의견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견에는 전체 청소년의 21.2%가 매우 반영됨, 37.8%는 보통 반영된다는 반응을 보여 58%의 긍정적인 의견반영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륙별 차이결과에 따르면 기본 요소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방과 후 활동에 학생의견이 반영된다는 의견은 아시아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많이 반영됨:20.9%, 보통 반영됨:40.8%), 그 다음으로 유럽,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이를 통해 대륙별 활동의 자율성 및 학생의견 허용 영역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III-1-24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방과 후 활동) 차이분석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반영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3435	19.8	6591	38.1	4886	28.2	2409	13.9	17321	100	477.987***
	라틴아메리카	5413	22.3	8443	34.8	7321	30.2	3070	12.7	24247	100	
	아시아	4886	20.9	9515	40.8	5297	22.7	3646	15.6	23344	100	
	전체	13734	21.2	24549	37.8	17504	27.0	9125	14.1	64912	100	
유럽	체코	1120	24.6	1852	40.6	1175	25.8	412	9.0	4559	100	667.915***
	이탈리아	482	14.6	1175	35.6	987	29.9	659	20.0	3303	100	
	스페인	695	21.3	938	28.8	926	28.4	701	21.5	3260	100	
	스웨덴	501	14.9	1463	43.4	1074	31.9	331	9.8	3369	100	
	영국	637	22.5	1163	41.1	724	25.6	306	10.8	2830	100	
	전체	3435	19.8	6591	38.1	4886	28.2	2409	13.9	17321	100	
라틴	칠레	1369	26.9	1974	38.8	1274	25.1	466	9.2	5083	100	1022.596***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반영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메리카	콜롬비아	1190	20.1	2135	36.1	1920	32.5	671	11.3	5916	100	
	도미니카	1328	34.6	1327	34.6	896	23.4	282	7.4	3833	100	
	멕시코	1018	16.0	2067	32.5	2136	33.6	1144	18.0	6365	100	
	파라과이	508	16.7	940	30.8	1095	35.9	507	16.6	3050	100	
	전체	5413	22.3	8443	34.8	7321	30.2	3070	12.7	24247	100	
아시아	대만	1048	20.4	2520	49.1	1174	22.9	388	7.6	5130	100	4423.446***
	홍콩	691	24.6	1287	45.8	630	22.4	202	7.2	2810	100	
	인도네시아	1432	29.0	1860	37.7	1053	21.3	588	11.9	4933	100	
	한국	614	11.7	1095	20.9	1300	24.8	2227	42.5	5236	100	
	태국	1101	21.0	2753	52.6	1140	21.8	241	4.6	5235	100	
	전체	4886	20.9	9515	40.8	5297	22.7	3646	15.6	23344	100	

라.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준다.

세계 청소년들은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준다"는 의견에 전체 청소년의 33.8%가 매우 동의하였으나, 유럽은 25.8%, 라틴국가에서는 45.8%, 아시아는 27.1%의 응답비율을 보여 대륙별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 즉, 유럽 청소년들은 교사의 공정대우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라틴 청소년들은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각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스웨덴과 이탈리아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도미니카의 교사의 공정한 대우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아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경향이 높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한국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1-25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공정대우)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유럽	4517	25.8	9778	55.9	2415	13.8	786	4.5	17496	100	2729.477***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륙	라틴아메리카	11445	45.8	10923	43.7	1950	7.8	683	2.7	25001	100	
	아시아	6333	27.1	13674	58.4	2634	11.3	765	3.3	23406	100	
	전체	22295	33.8	34375	52.2	6999	10.6	2234	3.4	65903	100	
유럽	체코	807	17.5	2730	59.2	823	17.8	253	5.5	4613	100	524.785***
	이탈리아	1085	32.5	1833	54.9	313	9.4	106	3.2	3337	100	
	스페인	952	29.1	1625	49.7	487	14.9	207	6.3	3271	100	
	스웨덴	1097	32.2	1821	53.5	382	11.2	104	3.1	3404	100	
	영국	576	20.1	1769	61.6	410	14.3	116	4.0	2871	100	
	전체	4517	25.8	9778	55.9	2415	13.8	786	4.5	17496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1557	30.4	2617	51.0	711	13.9	242	4.7	5127	100	1394.081***
	콜롬비아	2953	48.6	2656	43.7	358	5.9	107	1.8	6074	100	
	도미니카	2708	65.0	1227	29.4	158	3.8	74	1.8	4167	100	
	멕시코	2765	43.0	3022	47.0	514	8.0	135	2.1	6436	100	
	파라과이	1462	45.7	1401	43.8	209	6.5	125	3.9	3197	100	
	전체	11445	45.8	10923	43.7	1950	7.8	683	2.7	25001	100	
아시아	대만	1551	30.2	2812	54.8	573	11.2	199	3.9	5135	100	2019.982***
	홍콩	615	21.8	1671	59.3	400	14.2	131	4.7	2817	100	
	인도네시아	2097	42.1	2575	51.7	255	5.1	49	1.0	4976	100	
	한국	568	10.8	3296	62.9	1051	20.1	324	6.2	5239	100	
	태국	1502	28.7	3320	63.4	355	6.8	62	1.2	5239	100	
	전체	6333	27.1	13674	58.4	2634	11.3	765	3.3	23406	100	

○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세계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2.3%가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53.4%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여 전체 청소년의 75.7%가 전반적으로 학교 교사들과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럽은 11.2%만이 그렇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라틴국가에서는 28.0%, 아시아는 24.5%가 교사들과 매우 잘 지낸다고 응답하여 대륙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체코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칠레의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아시아에서는 역시 한국 학생들의 매우 동의한다는 반응이 가장 낮았다.

표 III-1-26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어울림)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1951	11.2	9250	52.9	5277	30.2	1010	5.8	17488	100	3383.311***
	라틴아메리카	6943	28.0	11870	47.9	5015	20.2	978	3.9	24806	100	
	아시아	5718	24.5	13967	59.7	3027	12.9	665	2.8	23377	100	
	전체	14612	22.3	35087	53.4	13319	20.3	2653	4.0	65671	100	
유럽	체코	259	5.6	2233	48.4	1777	38.5	342	7.4	4611	100	602.861***
	이탈리아	490	14.7	1789	53.6	909	27.3	147	4.4	3335	100	
	스페인	453	13.8	1508	46.0	1068	32.6	246	7.5	3275	100	
	스웨덴	484	14.2	2032	59.8	765	22.5	119	3.5	3400	100	
	영국	265	9.2	1688	58.9	758	26.4	156	5.4	2867	100	
	전체	1951	11.2	9250	52.9	5277	30.2	1010	5.8	17488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894	17.5	2337	45.6	1546	30.2	344	6.7	5121	100	1386.340***
	콜롬비아	1522	25.2	3020	50.1	1318	21.8	173	2.9	6033	100	
	도미니카	1732	43.2	1702	42.5	459	11.5	112	2.8	4005	100	
	멕시코	1567	24.4	3341	52.0	1261	19.6	250	3.9	6419	100	
	파라과이	1228	38.0	1470	45.5	431	13.4	99	3.1	3228	100	
	전체	6943	28.0	11870	47.9	5015	20.2	978	3.9	24806	100	
아시아	대만	1234	24.0	2690	52.4	950	18.5	258	5.0	5132	100	1676.171***
	홍콩	553	19.6	1799	63.9	383	13.6	82	2.9	2817	100	
	인도네시아	1883	38.0	2669	53.9	315	6.4	87	1.8	4954	100	
	한국	613	11.7	3425	65.4	1001	19.1	198	3.8	5237	100	
	태국	1435	27.4	3384	64.6	378	7.2	40	0.8	5237	100	
	전체	5718	24.5	13967	59.7	3027	12.9	665	2.8	23377	100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이들에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복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질문을 통해 학교의 학생복지 분위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청소년의 33.4%가 매우 동의한다, 50.3 %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여 전체 청소년의 83.7%가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은 학생복지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대륙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럽학생들과 라틴아메리카는 80% 이상이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이들 청소년들은 교사의 학생 복지 관심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으며, 아시아 국가 역시

78.7%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의 차이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학생들은 오직 6.4%만이 매우 동의함, 48.9%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여, 학교생활 분위기가 다소 경적되었음을 예측하게 하고 있었다.

표 III-1-27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학생복지 관심)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4652	26.7	9892	56.8	2268	13.0	599	3.4	17411	100	3620.780***
	라틴아메리카	11657	47.1	10257	41.5	2133	8.6	681	2.8	24728	100	
	아시아	5585	24.0	12763	54.7	3996	17.1	975	4.2	23319	100	
	전체	21894	33.4	32912	50.3	8397	12.8	2255	3.4	65458	100	
유 럽	체코	940	20.5	2752	60.0	723	15.8	174	3.8	4589	100	440.262***
	이탈리아	1122	33.7	1705	51.3	392	11.8	106	3.2	3325	100	
	스페인	1043	31.9	1666	50.9	420	12.8	141	4.3	3270	100	
	스웨덴	1043	30.8	1959	57.8	305	9.0	80	2.4	3387	100	
	영국	504	17.7	1810	63.7	428	15.1	98	3.5	2840	100	
	전체	4652	26.7	9892	56.8	2268	13.0	599	3.4	17411	1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1884	36.8	2443	47.8	610	11.9	176	3.4	5113	100	1113.570***
	콜롬비아	2883	48.1	2560	42.7	428	7.1	122	2.0	5993	100	
	도미니카	2554	63.6	1170	29.2	202	5.0	87	2.2	4013	100	
	멕시코	2459	38.4	2988	46.7	742	11.6	208	3.3	6397	100	
	파라과이	1877	58.4	1096	34.1	151	4.7	88	2.7	3212	100	
	전체	11657	47.1	10257	41.5	2133	8.6	681	2.8	24728	100	
아 시 아	대만	1155	22.6	2851	55.7	877	17.1	238	4.6	5121	100	3625.051***
	홍콩	425	15.1	1757	62.4	514	18.3	118	4.2	2814	100	
	인도네시아	1876	37.9	2627	53.1	375	7.6	67	1.4	4945	100	
	한국	334	6.4	2557	48.9	1835	35.1	507	9.7	5233	100	
	태국	1795	34.5	2971	57.1	395	7.6	45	0.9	5206	100	
	전체	5585	24.0	12763	54.7	3996	17.1	975	4.2	23319	100	

○ 나는 우리학교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반면 세계 청소년에게 "나는 우리학교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는 질문을 통해 학교 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응답결과에 따르면, 전체학생들은 4.0%가 매우동의, 9.5%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여 전체의 13.5%는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륙별 응답차이의 결과에 따르면, 유럽학생의 아웃사이더 인식은 가장 낮은 반면,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관계와 학생 영향력에 가장 긍정적인 응답결과를 보인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본인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5.5%로 가장 높아 이들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이 예상되었다. 아시아 국가별 차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오직 6.7%만이 동의하고 있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아웃사이더 인식률을 보였으며, 한국은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1-28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아웃사이더)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505	2.9	1251	7.2	5640	32.6	9900	57.2	17296	100	2069.188***
	라틴아메리카	1342	5.5	2191	8.9	8616	35.2	12357	50.4	24506	100	
	아시아	779	3.3	2738	11.7	11118	47.7	8672	37.2	23307	100	
	전체	2626	4.0	6180	9.5	25374	39.0	30929	47.5	65109	100	
유럽	체코	134	3.0	591	13.2	2210	49.5	1534	34.3	4469	100	1792.687***
	이탈리아	82	2.5	129	3.9	894	26.8	2226	66.8	3331	100	
	스페인	107	3.3	148	4.5	680	20.9	2326	71.3	3261	100	
	스웨덴	91	2.7	150	4.4	742	21.9	2412	71.0	3395	100	
	영국	91	3.2	233	8.2	1114	39.2	1402	49.4	2840	100	
	전체	505	2.9	1251	7.2	5640	32.6	9900	57.2	17296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193	3.8	372	7.3	1584	31.0	2966	58.0	5115	100	427.365***
	콜롬비아	242	4.1	433	7.2	2151	36.0	3147	52.7	5973	100	
	도미니카	362	9.3	472	12.2	1479	38.2	1563	40.3	3876	100	
	멕시코	359	5.6	628	9.8	2300	36.0	3101	48.5	6388	100	
	파라과이	186	5.9	286	9.1	1102	34.9	1580	50.1	3154	100	
	전체	1342	5.5	2191	8.9	8616	35.2	12357	50.4	24506	100	
아시아	대만	260	5.1	701	13.7	2463	48.1	1700	33.2	5124	100	1673.022** *
	홍콩	117	4.2	465	16.5	1430	50.8	804	28.6	2816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인도네시아	101	2.0	231	4.7	2502	50.7	2105	42.6	4939	100	
	한국	64	1.2	434	8.3	1879	36.0	2849	54.5	5226	100	
	태국	237	4.6	907	17.4	2844	54.7	1214	23.3	5202	100	
	전체	779	3.3	2738	11.7	11118	47.7	8672	37.2	23307	100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주신다.

또한 세계 청소년에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주신다는 질문에 유럽은 18.9%, 라틴아메리카는 34.7%, 아시아는 14.2%의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여 대륙별 응답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라틴 국가의 경우 학교 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친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아시아 국가의 경우 14.2%만이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3개 대륙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국가별 차이분석에 따르면, 영국은 체코와 영국 학교의 경청분위기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역시나 한국의 교사가 학생의견에 경청한다는 의견이 가장 낮았다.

표 III-1-29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경청)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3300	18.9	9738	55.7	3605	20.6	827	4.7	17470	100	3270.637***
	라틴아메리카	8495	34.7	11944	48.8	3034	12.4	994	4.1	24467	100	
	아시아	3308	14.2	13994	60.0	4872	20.9	1144	4.9	23318	100	
	전체	15103	23.1	35676	54.7	11511	17.6	2965	4.5	65255	100	
유럽	체코	459	10.0	2588	56.2	1288	28.0	269	5.8	4604	100	820.326***
	이탈리아	835	25.0	1911	57.3	479	14.4	112	3.4	3337	100	
	스페인	935	28.6	1698	51.9	500	15.3	136	4.2	3269	100	
	스웨덴	702	20.7	1956	57.6	604	17.8	131	3.9	3393	100	
	영국	369	12.9	1585	55.3	734	25.6	179	6.2	2867	100	
	전체	3300	18.9	9738	55.7	3605	20.6	827	4.7	17470	100	
라틴	칠레	1468	28.7	2569	50.3	814	15.9	257	5.0	5108	100	652.674***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메리카	콜롬비아	1757	29.5	3098	52.0	843	14.2	259	4.3	5957	100	
	도미니카	1884	48.6	1537	39.6	313	8.1	143	3.7	3877	100	
	멕시코	2068	32.5	3253	51.1	803	12.6	243	3.8	6367	100	
	파라과이	1318	41.7	1487	47.1	261	8.3	92	2.9	3158	100	
	전체	8495	34.7	11944	48.8	3034	12.4	994	4.1	24467	100	
아시아	대만	976	19.1	2822	55.1	990	19.3	333	6.5	5121	100	965.866***
	홍콩	409	14.5	1777	63.2	531	18.9	94	3.3	2811	100	
	인도네시아	773	15.7	3081	62.5	870	17.7	203	4.1	4927	100	
	한국	372	7.1	2826	54.0	1616	30.9	419	8.0	5233	100	
	태국	778	14.9	3488	66.7	865	16.6	95	1.8	5226	100	
	전체	3308	14.2	13994	60.0	4872	20.9	1144	4.9	23318	100	

○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또한 세계 청소년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는 질문에 전체 청소년의 29.8%가 매우 그렇다, 53.7%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특히 대륙별 차이결과에 따르면 유럽학생들은 26.4%,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은 37.0%가 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아시아는 24.9%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여 라틴 청소년들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선생님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에 긍정적인 의견이 가장 높았다. 아시아 국가의 차이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의 교사의 도움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으면, 대만, 태국, 한국, 홍콩 순으로 기대 수준은 낮아지고 있었다.

표 III-1-30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도움)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4599	26.4	9879	56.6	2345	13.4	627	3.6	17450	100	1155.927***
	라틴아메리카	9058	37.0	11325	46.3	2963	12.1	1122	4.6	24468	100	
	아시아	5822	24.9	13840	59.2	2901	12.4	805	3.4	23368	100	
	전체	19479	29.8	35044	53.7	8209	12.6	2554	3.9	65286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유럽	체코	1014	22.0	2825	61.4	627	13.6	136	3.0	4602	100	195.976***
	이탈리아	1012	30.4	1752	52.6	446	13.4	121	3.6	3331	100	
	스페인	1039	31.8	1659	50.8	416	12.7	153	4.7	3267	100	
	스웨덴	916	27.1	1873	55.4	472	14.0	121	3.6	3382	100	
	영국	618	21.5	1770	61.7	384	13.4	96	3.3	2868	100	
	전체	4599	26.4	9879	56.6	2345	13.4	627	3.6	17450	100	
라틴 아메리카	칠레	1830	35.8	2414	47.2	643	12.6	227	4.4	5114	100	451.216***
	콜롬비아	1946	32.6	2887	48.3	852	14.3	287	4.8	5972	100	
	도미니카	1947	50.3	1467	37.9	310	8.0	147	3.8	3871	100	
	멕시코	2081	32.7	3100	48.7	868	13.6	321	5.0	6370	100	
	파라과이	1254	39.9	1457	46.4	290	9.2	140	4.5	3141	100	
	전체	9058	37.0	11325	46.3	2963	12.1	1122	4.6	24468	100	
아시아	대만	1418	27.6	2862	55.8	632	12.3	220	4.3	5132	100	1017.897***
	홍콩	436	15.5	1667	59.2	566	20.1	146	5.2	2815	100	
	인도네시아	1841	37.2	2753	55.7	279	5.6	71	1.4	4944	100	
	한국	997	19.0	3327	63.5	674	12.9	241	4.6	5239	100	
	태국	1130	21.6	3231	61.7	750	14.3	127	2.4	5238	100	
	전체	5822	24.9	13840	59.2	2901	12.4	805	3.4	23368	100	

○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릴까봐 두렵다

마지막으로 세계 청소년에게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릴까봐 두렵다"는 질문을 통해 학교 폭력의 분위기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응답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학교폭력의 두려움에 8.4%가 매우 동의함, 16.1%는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24.5%가 학교폭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은 4.9%가 매우 동의함, 10.3%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에서는 29.2%가 학교폭력이 두렵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 대륙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아시아 국가별 차이에 따르면 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분위기가 가장 높았으며,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 -1-31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855	4.9	1793	10.3	4708	27.0	10107	57.9	17463	100	2291.546***
	라틴아메리카	2499	10.2	4053	16.6	8090	33.1	9804	40.1	24446	100	
	아시아	2129	9.1	4694	20.1	7971	34.1	8563	36.7	23357	100	
	전체	5483	8.4	10540	16.1	20769	31.8	28474	43.6	65266	100	
유럽	체코	278	6.0	560	12.2	1386	30.1	2377	51.7	4601	100	275.698***
	이탈리아	109	3.3	248	7.4	889	26.7	2085	62.6	3331	100	
	스페인	151	4.6	279	8.5	673	20.6	2165	66.2	3268	100	
	스웨덴	163	4.8	380	11.2	871	25.6	1986	58.4	3400	100	
	영국	154	5.4	326	11.4	889	31.1	1494	52.2	2863	100	
	전체	855	4.9	1793	10.3	4708	27.0	10107	57.9	17463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627	12.3	826	16.2	1324	25.9	2329	45.6	5106	100	633.685***
	콜롬비아	542	9.1	1131	18.9	2174	36.4	2126	35.6	5973	100	
	도미니카	578	15.0	702	18.2	1276	33.1	1296	33.6	3852	100	
	멕시코	427	6.7	772	12.1	2203	34.5	2985	46.7	6387	100	
	파라과이	325	10.4	622	19.9	1113	35.6	1068	34.1	3128	100	
	전체	2499	10.2	4053	16.6	8090	33.1	9804	40.1	24446	100	
아시아	대만	476	9.3	1002	19.5	1745	34.0	1909	37.2	5132	100	3411.496***
	홍콩	326	11.6	616	21.9	897	31.9	977	34.7	2816	100	
	인도네시아	475	9.6	917	18.6	2078	42.1	1469	29.7	4939	100	
	한국	83	1.6	362	6.9	1437	27.4	3354	64.1	5236	100	
	태국	769	14.7	1797	34.3	1814	34.7	854	16.3	5234	100	
	전체	2129	9.1	4694	20.1	7971	34.1	8563	36.7	23357	100	

마.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에 대한 의견

○ 학교운영방법에 대한 학생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이번 파트에서는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방법에 대한 학생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는 응답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세계 청소년에게 이에 대해 37.8%가

매우 동의함, 53.1%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여 전체의 90.0%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대륙별 차이에 의하면, 유럽은 26.5%, 라틴아메리카 47.8%, 아시아가 35.6%가 매우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대륙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국가별 차이결과에 의하면,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파라과이의 청소년들이 학생참여가 학교를 즐겁게 만든다는 것에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학생참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III-1-32 국가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1)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4616	26.5	10313	59.2	1990	11.4	502	2.9	17421	100	2457.789***
	라틴아메리카	11890	47.8	11541	46.4	1074	4.3	387	1.6	24892	100	
	아시아	8342	35.6	13016	55.6	1594	6.8	464	2.0	23416	100	
	전체	24848	37.8	34870	53.1	4658	7.1	1353	2.1	65729	100	
유럽	체코	876	19.1	2780	60.7	761	16.6	165	3.6	4582	100	489.674***
	이탈리아	1162	34.9	1860	55.8	256	7.7	54	1.6	3332	100	
	스페인	1063	32.6	1811	55.5	279	8.5	111	3.4	3264	100	
	스웨덴	901	26.6	2043	60.4	344	10.2	95	2.8	3383	100	
	영국	614	21.5	1819	63.6	350	12.2	77	2.7	2860	100	
	전체	4616	26.5	10313	59.2	1990	11.4	502	2.9	17421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2618	50.9	2277	44.2	179	3.5	73	1.4	5147	100	640.170***
	콜롬비아	2904	48.1	2904	48.1	189	3.1	46	0.8	6043	100	
	도미니카	2513	61.0	1356	32.9	184	4.5	69	1.7	4122	100	
	멕시코	2500	38.9	3410	53.0	387	6.0	138	2.1	6435	100	
	파라과이	1355	43.1	1594	50.7	135	4.3	61	1.9	3145	100	
	전체	11890	47.8	11541	46.4	1074	4.3	387	1.6	24892	100	
아시아	대만	2011	39.1	2803	54.5	259	5.0	72	1.4	5145	100	2362.474***
	홍콩	585	20.8	1769	62.8	382	13.6	80	2.8	2816	100	
	인도네시아	2777	55.7	2105	42.3	76	1.5	24	0.5	4982	100	
	한국	1432	27.3	2868	54.7	676	12.9	263	5.0	5239	100	
	태국	1537	29.4	3471	66.3	201	3.8	25	0.5	5234	100	
	전체	8342	35.6	13016	55.6	1594	6.8	464	2.0	23416	100	

○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세계 청소년들은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질문에 43.7%는 매우 동의함, 48.8%는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92.5%가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유럽학생들의 경우 매우 동의한다는 반응에는 35.1%를 보여 큰 동의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동의한다는 의견에 56.5%가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청소년들은 57.0%가 매우 그렇다는 강한긍정을 보여 학생의 학교경영참여가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가별 차이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라틴국가에서는 파라과이와 칠레의 학생을 통한 긍정적인 학교변화에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학교변화 동의정도가 매우 높았다.

표 III-1-33 국가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2)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6116	35.1	9862	56.5	1177	6.7	292	1.7	17447	100	2918.122***
	라틴아메리카	14225	57.0	9161	36.7	1186	4.8	378	1.5	24950	100	
	아시아	8427	36.0	13056	55.8	1542	6.6	354	1.5	23379	100	
	전체	28768	43.7	32079	48.8	3905	5.9	1024	1.6	65776	100	
유 럽	체코	1380	30.0	2834	61.7	308	6.7	73	1.6	4595	100	430.576***
	이탈리아	1529	46.0	1649	49.6	115	3.5	34	1.0	3327	100	
	스페인	1326	40.5	1600	48.9	273	8.3	73	2.2	3272	100	
	스웨덴	1093	32.2	1959	57.7	277	8.2	66	1.9	3395	100	
	영국	788	27.6	1820	63.7	204	7.1	46	1.6	2858	100	
	전체	6116	35.1	9862	56.5	1177	6.7	292	1.7	17447	1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3260	63.4	1707	33.2	131	2.5	43	0.8	5141	100	732.424***
	콜롬비아	3481	57.3	2273	37.4	256	4.2	61	1.0	6071	100	
	도미니카	2458	60.3	1315	32.2	209	5.1	96	2.4	4078	100	
	멕시코	2904	45.1	2886	44.9	514	8.0	129	2.0	6433	100	
	파라과이	2122	65.8	980	30.4	76	2.4	49	1.5	3227	100	
아 시 아	전체	14225	57.0	9161	36.7	1186	4.8	378	1.5	24950	100	1572.864***
	대만	2216	43.1	2636	51.3	227	4.4	61	1.2	5140	100	
	홍콩	644	22.9	1843	65.5	267	9.5	61	2.2	2815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인도네시아	2627	53.0	2104	42.4	200	4.0	30	0.6	4961	100	
	한국	1355	25.9	3140	60.0	561	10.7	180	3.4	5236	100	
	태국	1585	30.3	3333	63.8	287	5.5	22	0.4	5227	100	
	전체	8427	36.0	13056	55.8	1542	6.6	354	1.5	23379	100	

○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질문에 33.5%는 매우 동의함, 54.7%는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전체학생의 88.2%가 학생조직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별 차이분석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25.8%만이 매우 동의하고 있어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43.2%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으며, 아시아의 경우 29.1%가 매우 긍정하는 반응을 보여 유럽보다는 학생조직의 필요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차이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스페인(35.1%), 라틴국가에서는 칠레(48.9%)와 도미니카(47.2%), 아시아의 경우 대만이(37.6%) 학생조직의 필요성에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4 국가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3)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4483	25.8	10441	60.0	2094	12.0	379	2.2	17397	100	1773.437***
	라틴아메리카	10645	43.2	11577	47.0	1884	7.7	515	2.1	24621	100	
	아시아	6806	29.1	13728	58.8	2287	9.8	543	2.3	23364	100	
	전체	21934	33.5	35746	54.7	6265	9.6	1437	2.2	65382	100	
유럽	체코	1120	24.4	2902	63.3	476	10.4	86	1.9	4584	100	322.627***
	이탈리아	936	28.1	1980	59.5	358	10.8	54	1.6	3328	100	
	스페인	1146	35.1	1689	51.8	359	11.0	69	2.1	3263	100	
	스웨덴	710	21.0	2029	60.1	527	15.6	109	3.2	3375	100	
	영국	571	20.1	1841	64.7	374	13.1	61	2.1	2847	100	
	전체	4483	25.8	10441	60.0	2094	12.0	379	2.2	17397	100	
라틴	칠레	2515	48.9	2246	43.7	307	6.0	73	1.4	5141	100	355.792***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메리카	콜롬비아	2569	42.9	2950	49.3	398	6.7	65	1.1	5982	100	
	도미니카	1859	47.2	1614	41.0	351	8.9	112	2.8	3936	100	
	멕시코	2328	36.3	3273	51.0	636	9.9	182	2.8	6419	100	
	파라과이	1374	43.7	1494	47.5	192	6.1	83	2.6	3143	100	
	전체	10645	43.2	11577	47.0	1884	7.7	515	2.1	24621	100	
아시아	대만	1931	37.6	2760	53.7	366	7.1	83	1.6	5140	100	1382.766***
	홍콩	551	19.6	1711	60.8	466	16.6	85	3.0	2813	100	
	인도네시아	1678	33.8	2983	60.2	247	5.0	50	1.0	4958	100	
	한국	1053	20.1	3018	57.7	876	16.7	287	5.5	5234	100	
	태국	1593	30.5	3256	62.4	332	6.4	38	0.7	5219	100	
	전체	6806	29.1	13728	58.8	2287	9.8	543	2.3	23364	100	

○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가져야만 한다.

이들은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질문도 다수가 긍정하고 있었는데, 세계 청소년들은 46.0%는 매우 동의함, 41.3%는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87.3%가 학생회의 필요성에 긍정하고 있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경우 각각 38.8%와 38.5%로 학생회의 필요성에 매우 동의하고 있는 반면, 라틴아메리카 청소년들의 58.2%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을 보임으로 학생회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요구하고 있었다. 국가별 차이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스웨덴(54.8%), 라틴국가에서는 칠레(74.2%)가, 아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52.0%)와 태국(51.0%)이 학생회의 필요성에 매우 동의하고 있었다.

표 III-1-35 국가에 따른 학교경영예의 학생 참여(4)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6748	38.8	7613	43.7	2415	13.9	629	3.6	17405	100	2943.037***
	라틴아메리카	14344	58.2	8642	35.1	1090	4.4	555	2.3	24631	100	
	아시아	8992	38.5	10760	46.0	2961	12.7	672	2.9	23385	100	
	전체	30084	46.0	27015	41.3	6466	9.9	1856	2.8	65421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유럽	체코	1267	27.7	2005	43.8	1070	23.4	239	5.2	4581	100	1571.777***
	이탈리아	938	28.2	1522	45.8	696	20.9	167	5.0	3323	100	
	스페인	1669	51.1	1375	42.1	152	4.7	68	2.1	3264	100	
	스웨덴	1857	54.8	1274	37.6	179	5.3	78	2.3	3388	100	
	영국	1017	35.7	1437	50.4	318	11.2	77	2.7	2849	100	
	전체	6748	38.8	7613	43.7	2415	13.9	629	3.6	17405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3810	74.2	1162	22.6	105	2.0	60	1.2	5137	100	1170.400***
	콜롬비아	3278	54.8	2344	39.2	267	4.5	94	1.6	5983	100	
	도미니카	2579	64.9	1111	28.0	159	4.0	123	3.1	3972	100	
	멕시코	2932	45.7	2812	43.9	451	7.0	217	3.4	6412	100	
	파라과이	1745	55.8	1213	38.8	108	3.5	61	2.0	3127	100	
	전체	14344	58.2	8642	35.1	1090	4.4	555	2.3	24631	100	
아시아	대만	1442	28.1	2791	54.3	774	15.1	130	2.5	5137	100	4225.241***
	홍콩	1406	49.9	1212	43.0	160	5.7	38	1.3	2816	100	
	인도네시아	2589	52.0	2153	43.3	188	3.8	45	0.9	4975	100	
	한국	893	17.1	2293	43.8	1624	31.0	423	8.1	5233	100	
	태국	2662	51.0	2311	44.2	215	4.1	36	0.7	5224	100	
	전체	8992	38.5	10760	46.0	2961	12.7	672	2.9	23385	100	

-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청소년들에게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을 통해 공동의 활동을 통해 학교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38.7%가 매우 동의함, 49.5%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88.7%가 공동 활동을 통한 영향력 강화에 긍정하고 있었다. 대륙별 응답결과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청소년들의 47.2%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을 보여 대륙 중 가장 높은 매우긍정 반응을 보였다(유럽:33.2%, 아시아:33.8%). 아시아 국가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태국학생들의 공동 행동의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태국,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동의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1-36 국가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5)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5761	33.2	9521	54.8	1629	9.4	450	2.6	17361	100	1313.113***
	라틴아메리카	11604	47.2	10445	42.5	1778	7.2	768	3.1	24595	100	
	아시아	7892	33.8	12361	52.9	2488	10.7	620	2.7	23361	100	
	전체	25257	38.7	32327	49.5	5895	9.0	1838	2.8	65317	100	
유 럽	체코	1407	30.7	2608	56.8	449	9.8	124	2.7	4588	100	214.566***
	이탈리아	1207	36.4	1722	51.9	305	9.2	85	2.6	3319	100	
	스페인	1323	40.6	1540	47.3	298	9.1	97	3.0	3258	100	
	스웨덴	864	25.7	2062	61.4	350	10.4	83	2.5	3359	100	
	영국	960	33.8	1589	56.0	227	8.0	61	2.2	2837	100	
	전체	5761	33.2	9521	54.8	1629	9.4	450	2.6	17361	1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2784	54.2	2038	39.7	235	4.6	81	1.6	5138	100	541.575***
	콜롬비아	2836	47.3	2632	43.9	396	6.6	134	2.2	5998	100	
	도미니카	1943	49.6	1450	37.0	322	8.2	203	5.2	3918	100	
	멕시코	2437	38.1	3043	47.6	656	10.3	259	4.1	6395	100	
	파라과이	1604	51.0	1282	40.8	169	5.4	91	2.9	3146	100	
	전체	11604	47.2	10445	42.5	1778	7.2	768	3.1	24595	100	
아 시 아	대만	1998	38.9	2501	48.6	509	9.9	133	2.6	5141	100	1227.516***
	홍콩	807	28.7	1553	55.2	364	12.9	89	3.2	2813	100	
	인도네시아	1022	20.7	2823	57.1	954	19.3	147	3.0	4946	100	
	한국	1705	32.6	2919	55.8	414	7.9	197	3.8	5235	100	
	태국	2360	45.2	2565	49.1	247	4.7	54	1.0	5226	100	
	전체	7892	33.8	12361	52.9	2488	10.7	620	2.7	23361	100	

(2) 대륙별 국가에 따른 민주 시민사회 역량 수준 차이

다음으로는 전 세계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모습과 좋은 시민의 행동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을 확인해 보았다.

가.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세계청소년들은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에 97%이상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동의 69.1%, 동의 28.6%). 특히, 유럽(71.2%)과 라틴아메리카(77.4%) 학생의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은 아시아의 그것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7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12465	71.2	4686	26.8	272	1.6	86	0.5	17509	100	2096.655***
	라틴아메리카	19506	77.4	5269	20.9	297	1.2	138	0.5	25210	100	
	아시아	13717	58.6	8942	38.2	631	2.7	129	0.6	23419	100	
	전체	45688	69.1	18897	28.6	1200	1.8	353	0.5	66138	100	
유럽	체코	3102	67.2	1425	30.9	68	1.5	21	0.5	4616	100	585.984***
	이탈리아	2732	82.0	570	17.1	26	0.8	5	0.2	3333	100	
	스페인	2626	80.1	595	18.1	38	1.2	20	0.6	3279	100	
	스웨덴	2273	66.7	1021	30.0	91	2.7	23	0.7	3408	100	
	영국	1732	60.3	1075	37.4	49	1.7	17	0.6	2873	100	
	전체	12465	71.2	4686	26.8	272	1.6	86	0.5	17509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4277	83.0	830	16.1	31	0.6	17	0.3	5155	100	279.024***
	콜롬비아	4829	78.8	1242	20.3	31	0.5	24	0.4	6126	100	
	도미니카	3190	75.1	952	22.4	79	1.9	26	0.6	4247	100	
	멕시코	4632	72.1	1622	25.2	126	2.0	47	0.7	6427	100	
	파라과이	2578	79.2	623	19.1	30	0.9	24	0.7	3255	100	
	전체	19506	77.4	5269	20.9	297	1.2	138	0.5	25210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 시 아	대만	4001	77.7	1114	21.6	15	0.3	17	0.3	5147	100	1836.669***
	홍콩	1702	60.4	1052	37.4	43	1.5	19	0.7	2816	100	
	인도네시아	2266	45.4	2347	47.1	342	6.9	32	0.6	4987	100	
	한국	3343	63.8	1771	33.8	83	1.6	40	0.8	5237	100	
	태국	2405	46.0	2658	50.8	148	2.8	21	0.4	5232	100	
	전체	13717	58.6	8942	38.2	631	2.7	129	0.6	23419	100	

○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세계청소년들은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었는데, 세계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23.8%가 매우 동의함, 41.0%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63.8%가 긍정하고 있어 정치지도자의 혈연이 정부에서 일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특히 대륙별 특성에 따르면, 아시아와 유럽의 긍정의견이 강한 반면, 라틴아메리카는 두 대륙의 청소년에 비하여 정치지도자의 혈연이 국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허용가능성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의 국가별 차이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만 학생들의 경우, 64.2%가 매우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상당히 강력하게 정치 지도자의 혈연에 의한 활동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홍콩 역시 높은 수준으로 이를 경계하고 있었다.

표 III-1-38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2)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4219	24.3	7687	44.3	4299	24.8	1134	6.5	17339	100	951.369***
	라틴아메리카	5083	20.7	9298	37.9	7669	31.3	2458	10.0	24508	100	
	아시아	6242	26.7	9750	41.8	6260	26.8	1090	4.7	23342	100	
	전체	15544	23.8	26735	41.0	18228	28.0	4682	7.2	65189	100	
유 럽	체코	832	18.1	2164	47.2	1313	28.6	276	6.0	4585	100	533.356***
	이탈리아	781	23.6	1388	41.9	898	27.1	243	7.3	3310	100	
	스페인	854	26.3	1380	42.4	779	24.0	239	7.3	3252	100	
	스웨덴	1220	36.2	1391	41.3	517	15.3	241	7.2	3369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영국	532	18.8	1364	48.3	792	28.1	135	4.8	2823	100	
	전체	4219	24.3	7687	44.3	4299	24.8	1134	6.5	17339	100	
라틴 아메리카	칠레	1300	25.6	2352	46.3	1095	21.6	331	6.5	5078	100	874.435***
	콜롬비아	808	13.5	1946	32.4	2500	41.7	746	2.4	6000	100	
	도미니카	795	20.4	1393	35.7	1276	32.7	442	1.3	3906	100	
	멕시코	1526	23.9	2422	37.9	1814	28.4	622	9.7	6384	100	
	파라과이	654	20.8	1185	37.7	984	31.3	317	10.1	3140	100	
	전체	5083	20.7	9298	37.9	7669	31.3	2458	10.0	24508	100	
아시아	대만	3299	64.2	1505	29.3	228	4.4	104	2.0	5136	100	6190.373***
	홍콩	783	27.8	1423	50.5	542	19.2	68	2.4	2816	100	
	인도네시아	506	10.2	1927	38.9	2174	43.9	347	7.0	4954	100	
	한국	936	17.9	2027	38.8	1849	35.4	415	7.9	5227	100	
	태국	718	13.8	2868	55.1	1467	28.2	156	3.0	5209	100	
	전체	6242	26.7	9750	41.8	6260	26.8	1090	4.7	23342	100	

○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세계청소년들은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었는데, 세계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27.5%가 매우 동의함, 39.9%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67.4%가 긍정하고 있어 기업과 정부의 언론소유에 부정하고 있었다. 대륙별 특성에 따르면, 유럽의 긍정의견이 특히 강했는데(매우 동의함: 30.7%), 이를 통해 유럽청소년들은 언론과 정부 혹은 기업의 연계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시아의 국가별 차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언론의 독립에 대해 강한 긍정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매우 동의함: 45.3%), 인도네시아는 오직 8.0%만이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여, 기업과 정부의 언론소유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표 III-1-39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3)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5317	30.7	7887	45.5	3326	19.2	816	4.7	17346	100	1297.552***
	라틴아메리카	6879	28.1	8534	34.9	6475	26.5	2560	10.5	24448	100	
	아시아	5742	24.6	9581	41.1	6542	28.1	1454	6.2	23319	100	
	전체	17938	27.5	26002	39.9	16343	25.1	4830	7.4	65113	100	
유럽	체코	1378	30.1	2122	46.3	874	19.1	210	4.6	4584	100	338.949***
	이탈리아	783	23.6	1445	43.6	888	26.8	197	5.9	3313	100	
	스페인	1254	38.5	1298	39.9	514	15.8	190	5.8	3256	100	
	스웨덴	1056	31.5	1594	47.5	581	17.3	124	3.7	3355	100	
	영국	846	29.8	1428	50.3	469	16.5	95	3.3	2838	100	
	전체	5317	30.7	7887	45.5	3326	19.2	816	4.7	17346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1915	37.4	2005	39.2	881	17.2	313	6.1	5114	100	763.883***
	콜롬비아	1296	21.7	2155	36.1	1890	31.6	635	10.6	5976	100	
	도미니카	934	24.1	1163	30.1	1294	33.5	477	12.3	3868	100	
	멕시코	1890	29.7	2129	33.5	1614	25.4	731	11.5	6364	100	
	파라과이	844	27.0	1082	34.6	796	25.5	404	12.9	3126	100	
	전체	6879	28.1	8534	34.9	6475	26.5	2560	10.5	24448	100	
아시아	대만	1376	26.8	1970	38.4	1400	27.3	384	7.5	5130	100	3353.127***
	홍콩	599	21.3	1344	47.9	757	27.0	107	3.8	2807	100	
	인도네시아	396	8.0	1595	32.2	2395	48.4	563	11.4	4949	100	
	한국	2372	45.3	1952	37.3	712	13.6	195	3.7	5231	100	
	태국	999	19.2	2720	52.3	1278	24.6	205	3.9	5202	100	
	전체	5742	24.6	9581	41.1	6542	28.1	1454	6.2	23319	100	

○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을 통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

세계청소년들은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을 통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절반의 긍정을 표하고 있었는데, 세계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20.2%가 매우 동의함, 32.8%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53.0%가 긍정하고 있었다. 대륙별 차이결과에 의하면, 유럽의 경우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에 21.1%, 동의한다는 의견은 39.0%로 경찰의 권리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아시아는 가장 낮은 수준의 동의 의견을 보여 경찰의 권한을 중요시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시아의 국가별 차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만과 인도네시아의 경찰권한 허용범위가 넓은 반면, 한국은 이들의 권한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었다 (매우동의:8.4%, 동의:17.0%).

표 III-1-40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4)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3673	21.1	6782	39.0	4966	28.6	1956	11.3	17377	100	1736.027***
	라틴아메리카	6193	25.4	7598	31.2	7187	29.5	3394	13.9	24372	100	
	아시아	3284	14.1	6999	30.0	9021	38.6	4053	17.4	23357	100	
	전체	13150	20.2	21379	32.8	21174	32.5	9403	14.4	65106	100	
유 럽	체코	1042	22.7	2184	47.6	1035	22.6	327	7.1	4588	100	727.990***
	이탈리아	634	19.1	1119	33.7	1095	33.0	473	14.2	3321	100	
	스페인	583	17.9	1003	30.7	1089	33.4	589	18.0	3264	100	
	스웨덴	966	28.6	1289	38.2	826	24.5	296	8.8	3377	100	
	영국	448	15.8	1187	42.0	921	32.6	271	9.6	2827	100	
	전체	3673	21.1	6782	39.0	4966	28.6	1956	11.3	17377	1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1692	33.0	1586	30.9	1316	25.7	535	10.4	5129	100	355.350***
	콜롬비아	1208	20.3	1795	30.1	2032	34.1	920	15.4	5955	100	
	도미니카	1012	26.6	1124	29.6	1105	29.1	562	14.8	3803	100	
	멕시코	1437	22.5	2154	33.8	1837	28.8	945	14.8	6373	100	
	파라과이	844	27.1	939	30.2	897	28.8	432	13.9	3112	100	
	전체	6193	25.4	7598	31.2	7187	29.5	3394	13.9	24372	100	
아 시 아	대만	1055	20.6	1960	38.2	1499	29.2	618	12.0	5132	100	1885.400***
	홍콩	225	8.0	737	26.2	1266	45.0	587	20.9	2815	100	
	인도네시아	806	16.3	1969	39.7	1677	33.8	505	10.2	4957	100	
	한국	437	8.4	892	17.0	2381	45.5	1522	29.1	5232	100	
	태국	761	14.6	1441	27.6	2198	42.1	821	15.7	5221	100	
	전체	3284	14.1	6999	30.0	9021	38.6	4053	17.4	23357	100	

○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들은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상당한 긍정을 표하고 있었는데, 세계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61.3%가 매우 동의함, 34.3%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94.6%가 긍정하고 있어 모든 사람의 권리존중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국가 학생들의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을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라틴 국가 학생들의 매우 긍정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아시아의 국가별 차이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만 다음으로 매우 동의하다는 의견이 높아, 한국 청소년은 사람의 사회정치적 권리를 상당히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 -1-41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5)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9834	56.5	6766	38.9	604	3.5	197	1.1	17401	100	1185.169***
	라틴아메리카	16916	69.1	6419	26.2	798	3.3	356	1.5	24489	100	
	아시아	13229	56.7	9218	39.5	685	2.9	210	0.9	23342	100	
	전체	39979	61.3	22403	34.3	2087	3.2	763	1.2	65232	100	
유 럽	체코	2221	48.5	2137	46.6	173	3.8	53	1.2	4584	100	550.258***
	이탈리아	2257	67.9	969	29.2	72	2.2	24	0.7	3322	100	
	스페인	2162	66.3	934	28.7	118	3.6	45	1.4	3259	100	
	스웨덴	1844	54.4	1386	40.9	121	3.6	40	1.2	3391	100	
	영국	1350	47.5	1340	47.1	120	4.2	35	1.2	2845	100	
	전체	9834	56.5	6766	38.9	604	3.5	197	1.1	17401	1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3841	75.0	1123	21.9	116	2.3	39	0.8	5119	100	548.174***
	콜롬비아	4506	75.0	1349	22.5	102	1.7	49	0.8	6006	100	
	도미니카	2416	62.6	1114	28.9	220	5.7	109	2.8	3859	100	
	멕시코	3925	61.8	2017	31.8	291	4.6	114	1.8	6347	100	
	파라과이	2228	70.6	816	25.8	69	2.2	45	1.4	3158	100	
	전체	16916	69.1	6419	26.2	798	3.3	356	1.5	24489	100	
아 시 아	대만	3767	73.4	1267	24.7	66	1.3	32	0.6	5132	100	1780.671***
	홍콩	1348	47.9	1307	46.4	127	4.5	34	1.2	2816	100	
	인도네시아	2339	47.2	2447	49.4	124	2.5	41	0.8	4951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한국	3632	69.4	1425	27.2	120	2.3	53	1.0	5230	100	
	태국	2143	41.1	2772	53.2	248	4.8	50	1.0	5213	100	
	전체	13229	56.7	9218	39.5	685	2.9	210	0.9	23342	100	

○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세계 청소년들은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33.7 %가 매우 동의함, 44.3%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78.0%가 공개적인 정부 비판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륙별 차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35.5%)의 매우 동의하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나, 동의하는 정도만을 따진다면, 유럽(80.5%)과, 아시아(81.6%)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라틴:72.9%). 아시아의 국가별 차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46.4 %가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여 아시아 뿐 아니라 다른 대륙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 비판할 권한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표 III-1-42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6)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5730	33.0	8238	47.5	2994	17.3	390	2.2	17352	100	1129.249***
	라틴아메리카	8658	35.5	9103	37.4	5308	21.8	1299	5.3	24368	100	
	아시아	7541	32.3	11507	49.3	3761	16.1	525	2.2	23334	100	
	전체	21929	33.7	28848	44.3	12063	18.5	2214	3.4	65054	100	
유럽	체코	1538	33.5	2240	48.9	727	15.9	80	1.7	4585	100	114.621***
	이탈리아	1140	34.3	1540	46.4	553	16.7	86	2.6	3319	100	
	스페인	1219	37.4	1365	41.8	608	18.6	70	2.1	3262	100	
	스웨덴	1073	31.9	1603	47.7	602	17.9	83	2.5	3361	100	
	영국	760	26.9	1490	52.7	504	17.8	71	2.5	2825	100	
	전체	5730	33.0	8238	47.5	2994	17.3	390	2.2	17352	100	
라틴	칠레	2428	47.4	1953	38.1	639	12.5	101	2.0	5121	100	1074.887***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메리카	콜롬비아	1917	32.1	2195	36.7	1514	25.3	349	5.8	5975	100	
	도미니카	1020	26.9	1247	32.9	1147	30.3	375	9.9	3789	100	
	멕시코	2028	31.9	2466	38.8	1524	24.0	332	5.2	6350	100	
	파라과이	1265	40.4	1242	39.6	484	15.4	142	4.5	3133	100	
	전체	8658	35.5	9103	37.4	5308	21.8	1299	5.3	24368	100	
아시아	대만	1542	30.0	2221	43.3	1170	22.8	201	3.9	5134	100	1245.679***
	홍콩	899	32.0	1447	51.4	425	15.1	42	1.5	2813	100	
	인도네시아	1443	29.1	2945	59.4	507	10.2	61	1.2	4956	100	
	한국	2422	46.4	2179	41.7	524	10.0	100	1.9	5225	100	
	태국	1235	23.7	2715	52.2	1135	21.8	121	2.3	5206	100	
	전체	7541	32.3	11507	49.3	3761	16.1	525	2.2	23334	100	

○ 안전요원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안전요원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해야 한다"는 설문에 73.5%의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여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평균 28.2%가 매우 동의함, 45.3%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륙별 차이분석에 의하면 유럽은 매우 동의한다는 반응에 21.3%를 보여, 대륙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청소년들의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35.7%로 가장 높았다. 아시아의 국가별 차이에 따르면, 대만(31.3%)과 태국(27.5%)학생들은 국가 위협 용의자 체크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20.8%가 매우 동의함, 48.5%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여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III-1-43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7)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3710	21.3	7721	44.4	3681	21.2	2266	13.0	17378	100	2232.432***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라틴아메리카	8689	35.7	9459	38.9	4080	16.8	2097	8.6	24325	100	
	아시아	5971	25.6	12292	52.7	3915	16.8	1166	5.0	23344	100	
	전체	18370	28.2	29472	45.3	11676	18.0	5529	8.5	65047	100	
유럽	체코	740	16.1	1853	40.3	1152	25.1	853	18.6	4598	100	466.109***
	이탈리아	810	24.2	1553	46.5	664	19.9	314	9.4	3341	100	
	스페인	791	24.3	1338	41.1	688	21.1	442	13.6	3259	100	
	스웨덴	885	26.4	1590	47.3	513	15.3	370	11.0	3358	100	
	영국	484	17.2	1387	49.1	664	23.5	287	10.2	2822	100	
	전체	3710	21.3	7721	44.4	3681	21.2	2266	13.0	17378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2029	39.6	1895	36.9	747	14.6	459	8.9	5130	100	323.834***
	콜롬비아	1836	30.7	2610	43.6	1101	18.4	435	7.3	5982	100	
	도미니카	1310	34.9	1239	33.0	794	21.2	411	10.9	3754	100	
	멕시코	2290	36.1	2418	38.1	1013	16.0	619	9.8	6340	100	
	파라과이	1224	39.2	1297	41.6	425	13.6	173	5.5	3119	100	
아시아	전체	8689	35.7	9459	38.9	4080	16.8	2097	8.6	24325	100	793.517***
	대만	1606	31.3	2318	45.2	857	16.7	352	6.9	5133	100	
	홍콩	642	22.8	1474	52.4	537	19.1	160	5.7	2813	100	
	인도네시아	1203	24.3	2800	56.6	764	15.4	183	3.7	4950	100	
	한국	1085	20.8	2534	48.5	1232	23.6	377	7.2	5228	100	
	태국	1435	27.5	3166	60.7	525	10.1	94	1.8	5220	100	
	전체	5971	25.6	12292	52.7	3915	16.8	1166	5.0	23344	100	

○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다음은 투표의 자유권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의 응답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설문에 평균 63.7%가 매우 동의함, 32.6%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전체 96.3%가 동의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세계 청소년들은 투표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륙 중에서는 라틴국가의 청소년들은 아시아나 유럽에 비해 강했다. 각 나라별 차이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스페인, 라틴국가에서는 칠레 청소년의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대만 청소년들의 투표자유에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표 III-1-44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8)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10021	57.4	6756	38.7	508	2.9	160	0.9	17445	100	1199.887***
	라틴아메리카	17910	71.8	6229	25.0	579	2.3	210	0.8	24928	100	
	아시아	13949	59.8	8409	36.0	786	3.4	196	0.8	23340	100	
	전체	41880	63.7	21394	32.6	1873	2.9	566	0.9	65713	100	
유럽	체코	2434	52.8	2078	45.1	76	1.7	18	0.4	4606	100	335.588***
	이탈리아	1966	58.7	1232	36.8	121	3.6	29	0.9	3348	100	
	스페인	2212	67.7	954	29.2	68	2.1	32	1.0	3266	100	
	스웨덴	1966	58.1	1253	37.1	120	3.5	42	1.2	3381	100	
	영국	1443	50.7	1239	43.6	123	4.3	39	1.4	2844	100	
	전체	10021	57.4	6756	38.7	508	2.9	160	0.9	17445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4013	78.0	1034	20.1	66	1.3	30	0.6	5143	100	221.543***
	콜롬비아	4212	69.6	1650	27.3	152	2.5	34	0.6	6048	100	
	도미니카	2949	71.8	967	23.5	127	3.1	67	1.6	4110	100	
	멕시코	4626	71.7	1647	25.5	134	2.1	49	0.8	6456	100	
	파라과이	2110	66.5	931	29.4	100	3.2	30	0.9	3171	100	
	전체	17910	71.8	6229	25.0	579	2.3	210	0.8	24928	100	
아시아	대만	3415	66.5	1539	30.0	144	2.8	39	0.8	5137	100	554.077***
	홍콩	1502	53.4	1187	42.2	103	3.7	23	0.8	2815	100	
	인도네시아	3040	61.6	1668	33.8	176	3.6	54	1.1	4938	100	
	한국	3456	66.0	1658	31.7	88	1.7	35	0.7	5237	100	
	태국	2536	48.6	2357	45.2	275	5.3	45	0.9	5213	100	
	전체	13949	59.8	8409	36.0	786	3.4	196	0.8	23340	100	

○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법에 대한 국민의 권한을 알 수 있도록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문 응답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세계 청소년들은 설문에 평균 45.6%가 매우 동의함, 44.6%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전체 90.2%가 동의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륙 중에서는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청소년들의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비율이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다. 또한 아시아국가 중에서 한국은 66.6%가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다는 데에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여 아시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높은 긍정적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III-1-45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9)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8205	47.0	8172	46.8	868	5.0	210	1.2	17455	100	637.581***
	라틴아메리카	11978	48.6	10275	41.7	1894	7.7	487	2.0	24634	100	
	아시아	9671	41.5	10736	46.0	2399	10.3	516	2.2	23322	100	
	전체	29854	45.6	29183	44.6	5161	7.9	1213	1.9	65411	100	
유 럽	체코	1833	39.8	2516	54.7	225	4.9	28	0.6	4602	100	547.693***
	이탈리아	1548	46.3	1552	46.4	201	6.0	43	1.3	3344	100	
	스페인	1853	56.7	1278	39.1	107	3.3	30	0.9	3268	100	
	스웨덴	1902	56.1	1344	39.7	99	2.9	44	1.3	3389	100	
	영국	1069	37.5	1482	52.0	236	8.3	65	2.3	2852	100	
	전체	8205	47.0	8172	46.8	868	5.0	210	1.2	17455	1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2548	49.5	2180	42.4	359	7.0	56	1.1	5143	100	109.626***
	콜롬비아	2811	47.0	2542	42.5	517	8.6	109	1.8	5979	100	
	도미니카	1939	48.7	1582	39.8	343	8.6	115	2.9	3979	100	
	멕시코	3010	46.9	2781	43.3	490	7.6	138	2.1	6419	100	
	파라과이	1670	53.6	1190	38.2	185	5.9	69	2.2	3114	100	
	전체	11978	48.6	10275	41.7	1894	7.7	487	2.0	24634	100	
아 시 아	대만	1780	34.6	2457	47.8	722	14.0	181	3.5	5140	100	2833.055***
	홍콩	632	22.4	1373	48.8	713	25.3	98	3.5	2816	100	
	인도네시아	1932	39.2	2658	54.0	253	5.1	81	1.6	4924	100	
	한국	3489	66.6	1614	30.8	98	1.9	34	0.6	5235	100	
	태국	1838	35.3	2634	50.6	613	11.8	122	2.3	5207	100	
	전체	9671	41.5	10736	46.0	2399	10.3	516	2.2	23322	100	

○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들은 항의의 방법으로 비폭력적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즉,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평균 53.1%가

매우 동의함, 37.0%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전체 90.1%가 동의함으로 항의의 표현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륙별 차이결과에 의하면, 유럽은 48.8%가 매우 동의하고 있어 라틴 아메리카의 54.2%나 아시아의 55.2%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의 차이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럽에서는 스페인 청소년들이,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칠레 청소년의 비폭력 항의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시아 국가들은 비폭력 항의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아시아국가 중에서도 대만 학생들의 비폭력적 항의의 모습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1-46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0)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8509	48.8	7085	40.6	1272	7.3	578	3.3	17444	100	338.088***
	라틴아메리카	13267	54.2	8477	34.7	1763	7.2	951	3.9	24458	100	
	아시아	12858	55.2	8571	36.8	1304	5.6	543	2.3	23276	100	
	전체	34634	53.1	24133	37.0	4339	6.7	2072	3.2	65178	100	
유 럽	체코	1968	42.9	2040	44.5	390	8.5	186	4.1	4584	100	589.453***
	이탈리아	1958	58.6	1132	33.9	177	5.3	77	2.3	3344	100	
	스페인	1965	60.3	1074	33.0	128	3.9	92	2.8	3259	100	
	스웨덴	1563	46.0	1401	41.2	289	8.5	144	4.2	3397	100	
	영국	1055	36.9	1438	50.3	288	10.1	79	2.8	2860	100	
	전체	8509	48.8	7085	40.6	1272	7.3	578	3.3	17444	1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3123	61.0	1563	30.5	289	5.6	145	2.8	5120	100	379.624***
	콜롬비아	3362	56.4	2013	33.8	351	5.9	233	3.9	5959	100	
	도미니카	1838	47.0	1381	35.3	460	11.8	230	5.9	3909	100	
	멕시코	3202	50.1	2486	38.9	479	7.5	222	3.5	6389	100	
	파라과이	1742	56.5	1034	33.6	184	6.0	121	3.9	3081	100	
	전체	13267	54.2	8477	34.7	1763	7.2	951	3.9	24458	100	
아 시 아	대만	3294	64.1	1533	29.8	207	4.0	106	2.1	5140	100	483.505***
	홍콩	1527	54.2	1047	37.2	185	6.6	59	2.1	2818	100	
	인도네시아	2152	43.9	2219	45.3	369	7.5	160	3.3	4900	100	
	한국	3073	58.7	1860	35.5	217	4.1	84	1.6	5234	100	
	태국	2812	54.2	1912	36.9	326	6.3	134	2.6	5184	100	
	전체	12858	55.2	8571	36.8	1304	5.6	543	2.3	23276	100	

○ 빈부간의 소득경차는 적어야 한다.

이들은 빈부격차에도 상당 수준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빈부간의 소득경차는 적어야 한다."는 질문에 78.4%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평균 39.4%가 매우 동의함, 39.0%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세계청소년들은 빈부 격차가 적을수록 민주주의에서 문제가 적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청소년들의 빈부격차를 반대하는 의견을 강하게 드러냈으며, 라틴 국가 중에서도 칠레(56.6%)학생들의 빈부격차 반대의견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는 대만 학생(60.2%)들의 빈부격차는 적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으며, 한국 학생들도 47.3%가 빈부격차는 적어야 한다는 데에 매우 동의하고 있는 특성을 보였다.

표 III-1-47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II)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6610	38.1	7426	42.8	2474	14.3	841	4.8	17351	100	673.633***
	라틴아메리카	10399	42.7	7989	32.8	4246	17.4	1700	7.0	24334	100	
	아시아	8606	37.0	9910	42.6	3600	15.5	1153	5.0	23269	100	
	전체	25615	39.4	25325	39.0	10320	15.9	3694	5.7	64954	100	
유 럽	체코	1658	36.2	1870	40.9	790	17.3	257	5.6	4575	100	662.907***
	이탈리아	1653	49.6	1322	39.6	249	7.5	111	3.3	3335	100	
	스페인	1461	45.1	1288	39.7	355	11.0	138	4.3	3242	100	
	스웨덴	1191	35.3	1490	44.2	531	15.7	162	4.8	3374	100	
	영국	647	22.9	1456	51.5	549	19.4	173	6.1	2825	100	
	전체	6610	38.1	7426	42.8	2474	14.3	841	4.8	17351	1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2899	56.6	1516	29.6	507	9.9	203	4.0	5125	100	981.286***
	콜롬비아	2279	38.5	1978	33.4	1236	20.9	433	7.3	5926	100	
	도미니카	1142	29.9	1256	32.9	1028	26.9	389	10.2	3815	100	
	멕시코	2711	42.4	2207	34.5	1037	16.2	438	6.9	6393	100	
	파라과이	1368	44.5	1032	33.6	438	14.2	237	7.7	3075	100	
	전체	10399	42.7	7989	32.8	4246	17.4	1700	7.0	24334	100	
아 시 아	대만	3094	60.2	1774	34.5	193	3.8	76	1.5	5137	100	3388.370***
	홍콩	934	33.2	1132	40.2	514	18.3	236	8.4	2816	100	
	인도네시아	1034	21.1	2471	50.5	1118	22.9	269	5.5	4892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한국	2478	47.3	2205	42.1	441	8.4	111	2.1	5235	100	
	태국	1066	20.5	2328	44.9	1334	25.7	461	8.9	5189	100	
	전체	8606	37.0	9910	42.6	3600	15.5	1153	5.0	23269	100	

○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세계 청소년들은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도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평균 27.9%가 매우 동의함, 49.8%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77.7%가 극한 상황에서의 국가의 언론통제력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의견은 대륙별 차이를 보였는데, 유럽국가의 동의의견은 가장 낮은 수준인데 반하여 아시아와 라틴 국가로 갈수록 동의하는 의견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라틴국가들에게서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평균 34.9%가 매우 동의하고 있어, 아시아(25.7%)와 유럽(20.9%) 청소년 보다 국가의 언론통제 권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 아시아 국가의 차이결과에 따르면, 대만과 인도네시아의 언론통제 허용정도가 높은 반면, 한국은 중간정도의 수준이었다.

표 III-1-48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2)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3626	20.9	9656	55.7	3141	18.1	911	5.3	17334	100	1188.342 ***
	라틴아메리카	8518	34.9	10669	43.7	3617	14.8	1585	6.5	24389	100	
	아시아	5999	25.7	12049	51.7	3767	16.2	1487	6.4	23302	100	
	전체	18143	27.9	32374	49.8	10525	16.2	3983	6.1	65025	100	
유럽	체코	767	16.8	2960	64.8	672	14.7	171	3.7	4570	100	405.480 ***
	이탈리아	737	22.1	1888	56.7	544	16.3	159	4.8	3328	100	
	스페인	783	24.2	1546	47.7	680	21.0	230	7.1	3239	100	
	스웨덴	792	23.5	1890	56.1	522	15.5	162	4.8	3366	100	
	영국	547	19.3	1372	48.5	723	25.5	189	6.7	2831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626	20.9	9656	55.7	3141	18.1	911	5.3	17334	100	
라틴 아메리카	칠레	1835	35.8	2235	43.6	738	14.4	315	6.1	5123	100	152.153***
	콜롬비아	1753	29.5	2792	47.0	1011	17.0	384	6.5	5940	100	
	도미니카	1402	36.6	1537	40.2	589	15.4	300	7.8	3828	100	
	멕시코	2407	37.5	2697	42.1	890	13.9	417	6.5	6411	100	
	파라과이	1121	36.3	1408	45.6	389	12.6	169	5.5	3087	100	
	전체	8518	34.9	10669	43.7	3617	14.8	1585	6.5	24389	100	
아시아	대만	1790	34.8	2273	44.2	772	15.0	303	5.9	5138	100	1679.823***
	홍콩	457	16.2	1132	40.2	827	29.4	401	4.2	2817	100	
	인도네시아	1440	29.4	2867	58.6	430	8.8	157	3.2	4894	100	
	한국	1178	22.5	2579	49.3	976	18.6	501	9.6	5234	100	
	태국	1134	21.7	3198	61.3	762	14.6	125	2.4	5219	100	
	전체	5999	25.7	12049	51.7	3767	16.2	1487	6.4	23302	100	

나.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

마지막으로 세계 청소년들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선거 참여, 정당단체 가입, 역사학습, 미디어의 정치이슈 주시,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정치토론 참여,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인권 증진 운동 참여 등 다양한 기초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국가별 응답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선거 참여

세계 청소년들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모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84.6% 이상이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매우중요:51.0%, 중요:33.6%).

표 III-1-49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모든 선거 참여)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5094	29.1	8431	48.2	3275	18.7	679	3.9	17479	100	5317.565***
	라틴아메리카	14833	60.2	5826	23.6	3177	12.9	802	3.3	24638	100	
	아시아	13511	57.7	7740	33.1	1844	7.9	303	1.3	23398	100	
	전체	33438	51.0	21997	33.6	8296	12.7	1784	2.7	65515	100	
유 럽	체코	843	18.3	2302	50.0	1195	26.0	265	5.8	4605	100	1134.733***
	이탈리아	1580	47.2	1451	43.4	263	7.9	50	1.5	3344	100	
	스페인	1099	33.6	1388	42.5	659	20.2	122	3.7	3268	100	
	스웨덴	892	26.2	1708	50.2	658	19.4	142	4.2	3400	100	
	영국	680	23.8	1582	55.3	500	17.5	100	3.5	2862	100	
	전체	5094	29.1	8431	48.2	3275	18.7	679	3.9	17479	1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2718	52.8	1543	30.0	714	13.9	170	3.3	5145	100	563.396***
	콜롬비아	3759	62.7	1465	24.4	675	11.3	101	1.7	6000	100	
	도미니카	2584	65.4	625	15.8	543	13.7	199	5.0	3951	100	
	멕시코	4111	64.1	1470	22.9	672	10.5	163	2.5	6416	100	
	파라과이	1661	53.1	723	23.1	573	18.3	169	5.4	3126	100	
	전체	14833	60.2	5826	23.6	3177	12.9	802	3.3	24638	100	
아 시 아	대만	1619	31.5	2225	43.3	1166	22.7	127	2.5	5137	100	4453.482***
	홍콩	990	35.2	1428	50.7	337	12.0	61	2.2	2816	100	
	인도네시아	3513	70.8	1307	26.3	117	2.4	27	0.5	4964	100	
	한국	3288	62.8	1781	34.0	115	2.2	54	1.0	5238	100	
	태국	4101	78.2	999	19.1	109	2.1	34	0.6	5243	100	
	전체	13511	57.7	7740	33.1	1844	7.9	303	1.3	23398	100	

구체적으로 유럽국가의 청소년들은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오직 29.1%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은 선거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 정당단체 가입

정당단체 가입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지에 대한 의견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12.2%, 중요하다는 의견이 27.0%로 전체 39.2%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유럽학생들의 경우 오직 4.9%만이 매우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여, 라틴과 아시아에 비해 낮은 의견을 보인 반면, 라틴국가 청소년들은 정당단체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아 이들은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을 좋은 시민 행동의 예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 학생은 61.1%가 정당단체 가입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세계 청소년의 평균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III-1-50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정당단체 가입)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847	4.9	3888	22.3	9682	55.5	3018	17.3	17435	100	4312.084***
	라틴아메리카	4773	19.7	5142	21.2	11750	48.4	2614	10.8	24279	100	
	아시아	2317	9.9	8554	36.6	10773	46.1	1701	7.3	23345	100	
	전체	7937	12.2	17584	27.0	32205	49.5	7333	11.3	65059	100	
유럽	체코	115	2.5	577	12.6	2669	58.1	1230	26.8	4591	100	950.565***
	이탈리아	221	6.6	963	28.8	1816	54.3	344	10.3	3344	100	
	스페인	234	7.2	943	29.0	1641	50.4	436	13.4	3254	100	
	스웨덴	140	4.1	631	18.6	1935	57.0	686	20.2	3392	100	
	영국	137	4.8	774	27.1	1621	56.8	322	11.3	2854	100	
	전체	847	4.9	3888	22.3	9682	55.5	3018	17.3	17435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501	9.8	1035	20.2	2829	55.2	758	14.8	5123	100	1418.041***
	콜롬비아	880	14.9	1015	17.1	3393	57.3	635	10.7	5923	100	
	도미니카	1273	33.7	950	25.2	1235	32.7	319	8.4	3777	100	
	멕시코	1268	19.9	1362	21.4	3119	49.0	611	9.6	6360	100	
	파라과이	851	27.5	780	25.2	1174	37.9	291	9.4	3096	100	
아시아	전체	4773	19.7	5142	21.2	11750	48.4	2614	10.8	24279	100	4700.165***
	대만	210	4.1	644	12.5	3510	68.3	772	15.0	5136	100	
	홍콩	105	3.7	469	16.7	1952	69.3	289	10.3	2815	100	
	인도네시아	546	11.1	2175	44.1	2044	41.4	169	3.4	4934	100	
	한국	411	7.9	2784	53.2	1803	34.4	236	4.5	5234	100	
	태국	1045	20.0	2482	47.5	1464	28.0	235	4.5	5226	100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317	9.9	8554	36.6	10773	46.1	1701	7.3	23345	100	

○ 역사학습

역사학습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지 여부에 대하여 세계 청소년들은 크게 동의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41.6%, 중요하다는 의견이 39.2%로 전체 80.8%가 역사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유럽 청소년들의 25.9%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라틴국가 청소년들의 51.8%와 비교하여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국가별 차이결과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청소년들의 역사학습 중요성 인식이 높은 반면(57.4%), 스웨덴(9.6%)은 그렇지 않았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인도네시아(67.9%) 청소년들이 역사학습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학생들은 오직 24.6%만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아시아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 -1-51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역사학습)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4519	25.9	7038	40.4	4622	26.5	1237	7.1	17416	100	4449.760***
	라틴아메리카	12454	51.8	8566	35.6	2527	10.5	510	2.1	24057	100	
	아시아	10011	42.9	9774	41.9	2960	12.7	576	2.5	23321	100	
	전체	26984	41.6	25378	39.2	10109	15.6	2323	3.6	64794	100	
유 럽	체코	930	20.3	2024	44.2	1250	27.3	376	8.2	4580	100	2997.825***
	이탈리아	1915	57.4	1122	33.6	251	7.5	50	1.5	3338	100	
	스페인	879	27.0	1363	41.9	814	25.0	196	6.0	3252	100	
	스웨덴	324	9.6	1206	35.6	1414	41.7	447	13.2	3391	100	
	영국	471	16.5	1323	46.3	893	31.3	168	5.9	2855	100	
	전체	4519	25.9	7038	40.4	4622	26.5	1237	7.1	17416	1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2491	48.8	1854	36.3	611	12.0	147	2.9	5103	100	575.418***
	콜롬비아	2979	50.8	2242	38.2	554	9.4	89	1.5	5864	100	
	도미니카	2213	59.6	1214	32.7	221	6.0	62	1.7	3710	100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멕시코	2859	45.5	2268	36.1	980	15.6	175	2.8	6282	100	
	파라과이	1912	61.7	988	31.9	161	5.2	37	1.2	3098	100	
	전체	12454	51.8	8566	35.6	2527	10.5	510	2.1	24057	100	
아 시 아	대만	1809	35.3	2244	43.7	899	17.5	178	3.5	5130	100	2944.048***
	홍콩	832	29.6	1383	49.1	476	16.9	123	4.4	2814	100	
	인도네시아	3347	67.9	1390	28.2	164	3.3	30	0.6	4931	100	
	한국	1286	24.6	2652	50.6	1089	20.8	210	4.0	5237	100	
	태국	2737	52.5	2105	40.4	332	6.4	35	0.7	5209	100	
	전체	10011	42.9	9774	41.9	2960	12.7	576	2.5	23321	100	

○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정치이슈 주시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정치이슈 주시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지 여부에 대하여 세계 청소년들은 다소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인 결과에 의하면, 세계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정치이슈 주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32.7%, 중요하다는 의견이 43.4%로 전체 76.1%가 역사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대륙별 차이에 의하면 유럽이 23.1%로 가장 낮았고,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순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국가별 차이에 의하면,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도미니카 청소년들의 미디어를 통한 정치이슈 주시를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이라는데 크게 동의하고 있었으며, 아시아에서는 태국, 대만, 한국의 청소년들은 정치이슈 주시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표 Ⅲ-1-52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미디어 정치이슈 주시)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4026	23.1	8447	48.4	4086	23.4	888	5.1	17447	100	3152.250***
	라틴아메리카	8341	34.4	8451	34.8	6285	25.9	1197	4.9	24274	100	
	아시아	8905	38.1	11360	48.6	2611	11.2	479	2.1	23355	100	
	전체	21272	32.7	28258	43.4	12982	19.9	2564	3.9	65076	100	
유	체코	694	15.1	2323	50.6	1279	27.9	293	6.4	4589	100	1739.154***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유럽	이탈리아	1574	47.0	1471	43.9	247	7.4	55	1.6	3347	100	
	스페인	730	22.4	1542	47.3	813	24.9	176	5.4	3261	100	
	스웨덴	523	15.4	1581	46.6	1039	30.6	249	7.3	3392	100	
	영국	505	17.7	1530	53.5	708	24.8	115	4.0	2858	100	
	전체	4026	23.1	8447	48.4	4086	23.4	888	5.1	17447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1373	26.8	2093	40.9	1384	27.0	267	5.2	5117	100	698.025***
	콜롬비아	1795	30.3	2026	34.2	1826	30.8	282	4.8	5929	100	
	도미니카	1751	46.5	1159	30.8	691	18.4	162	4.3	3763	100	
	멕시코	2536	39.8	2169	34.0	1362	21.4	309	4.8	6376	100	
	파라과이	886	28.7	1004	32.5	1022	33.1	177	5.7	3089	100	
	전체	8341	34.4	8451	34.8	6285	25.9	1197	4.9	24274	100	
아시아	대만	2215	43.1	2275	44.3	545	10.6	100	1.9	5135	100	1256.600***
	홍콩	1012	35.9	1512	53.7	235	8.3	58	2.1	2817	100	
	인도네시아	1153	23.4	2514	50.9	1106	22.4	162	3.3	4935	100	
	한국	2175	41.5	2642	50.5	325	6.2	94	1.8	5236	100	
	태국	2350	44.9	2417	46.2	400	7.6	65	1.2	5232	100	
	전체	8905	38.1	11360	48.6	2611	11.2	479	2.1	23355	100	

○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가에 대한 의견은 국가별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세계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33.2%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요하다는 의견이 44.1%로 전체 77.3%가 정부 대표를 존경하는 것이 좋은 시민의 조건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유럽과 아시아에 비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아시아의 특성에 따르면, 한국청소년들은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에 크게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오직 7.0%만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5.6%는 약간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은 정부대표에 대한 존경심과 좋은 시민의 행동은 별개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53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정부에 대한 존경심)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4071	23.3	8500	48.7	3653	21.0	1212	7.0	17436	100	2738.878***
	라틴아메리카	10917	45.0	9413	38.8	3161	13.0	788	3.2	24279	100	
	아시아	6621	28.4	10805	46.3	4764	20.4	1159	5.0	23349	100	
	전체	21609	33.2	28718	44.1	11578	17.8	3159	4.9	65064	100	
유럽	체코	387	8.4	1716	37.4	1804	39.3	682	14.9	4589	100	2482.658***
	이탈리아	1171	35.0	1699	50.8	388	11.6	89	2.7	3347	100	
	스페인	965	29.6	1603	49.1	526	16.1	170	5.2	3264	100	
	스웨덴	849	25.1	1893	56.0	475	14.1	162	4.8	3379	100	
	영국	699	24.5	1589	55.6	460	16.1	109	3.8	2857	100	
	전체	4071	23.3	8500	48.7	3653	21.0	1212	7.0	17436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2212	43.1	2143	41.8	609	11.9	166	3.2	5130	100	332.670***
	콜롬비아	2652	44.7	2419	40.8	699	11.8	164	2.8	5934	100	
	도미니카	2043	54.2	1248	33.1	359	9.5	116	3.1	3766	100	
	멕시코	2543	40.0	2445	38.4	1112	17.5	259	4.1	6359	100	
	파라과이	1467	47.5	1158	37.5	382	12.4	83	2.7	3090	100	
	전체	10917	45.0	9413	38.8	3161	13.0	788	3.2	24279	100	
아시아	대만	1117	21.8	2575	50.2	1196	23.3	246	4.8	5134	100	5849.442***
	홍콩	1032	36.6	1484	52.7	244	8.7	57	2.0	2817	100	
	인도네시아	2647	53.7	2027	41.1	228	4.6	31	0.6	4933	100	
	한국	366	7.0	1861	35.6	2260	43.2	746	14.3	5233	100	
	태국	1459	27.9	2858	54.6	836	16.0	79	1.5	5232	100	
	전체	6621	28.4	10805	46.3	4764	20.4	1159	5.0	23349	100	

○ 정치토론 참여

다음으로 정치토론 참여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가에 대한 의견에서는 과반수 이하의 청소년만이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매우 중요함: 13.8%, 중요함:33.1%). 대륙별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럽 국가는 크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지 않은 반면,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은 정치 토론을 좋은 시민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시아의 세부 국가별 차이결과에 따라 한국 청소년들은 20.2%가 매우 중요하다, 55.7%는 약간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국제 평균과 비교하여

상당한 비율로 정치토론을 좋은 시민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1-54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정치토론 참여)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1626	9.3	5949	34.1	7941	45.6	1906	10.9	17422	100	4974.335***
	라틴아메리카	3600	15.0	4912	20.4	10756	44.7	4811	20.0	24079	100	
	아시아	3694	15.8	10579	45.4	7572	32.5	1475	6.3	23320	100	
	전체	8920	13.8	21440	33.1	26269	40.5	8192	12.6	64821	100	
유 럽	체코	316	6.9	1279	27.9	2265	49.4	728	15.9	4588	100	875.020***
	이탈리아	516	15.4	1502	44.9	1128	33.7	197	5.9	3343	100	
	스페인	346	10.6	1020	31.3	1514	46.5	378	11.6	3258	100	
	스웨덴	196	5.8	955	28.3	1821	53.9	407	12.0	3379	100	
	영국	252	8.8	1193	41.8	1213	42.5	196	6.9	2854	100	
	전체	1626	9.3	5949	34.1	7941	45.6	1906	10.9	17422	100	
라 틴 아 메 리 카	칠레	455	8.9	1072	20.9	2648	51.7	947	18.5	5122	100	1613.004***
	콜롬비아	688	11.7	1039	17.6	2902	49.1	1276	21.6	5905	100	
	도미니카	619	16.9	562	15.3	1420	38.7	1070	29.1	3671	100	
	멕시코	1508	23.8	1755	27.7	2447	38.7	619	9.8	6329	100	
	파라과이	330	10.8	484	15.9	1339	43.9	899	29.5	3052	100	
	전체	3600	15.0	4912	20.4	10756	44.7	4811	20.0	24079	100	
아 시 아	대만	673	13.1	1946	37.9	2119	41.3	392	7.6	5130	100	1439.842***
	홍콩	364	12.9	1238	44.0	1085	38.5	129	4.6	2816	100	
	인도네시아	469	9.5	1906	38.7	2047	41.6	501	10.2	4923	100	
	한국	1054	20.2	2911	55.7	1030	19.7	232	4.4	5227	100	
	태국	1134	21.7	2578	49.3	1291	24.7	221	4.2	5224	100	
	전체	3694	15.8	10579	45.4	7572	32.5	1475	6.3	23320	100	

○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다음으로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가에 대한 의견에서는 응답자의 70%에 청소년들은 중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매우 중요함: 30.9%, 중요함: 37.5%). 대륙별 차이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었으나,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유럽은 그 중요성 인식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반하여 아시아와 라틴 국가들의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매우 강했다. 세부 국가의 차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라틴국가에서는 콜롬비아와 도미니카의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의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표 III-1-55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평화적 항의참여)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3793	21.8	7087	40.8	4901	28.2	1590	9.2	17371	100	1500.044***
	라틴아메리카	8682	36.1	7570	31.5	5639	23.5	2143	8.9	24034	100	
	아시아	7558	32.4	9626	41.3	4760	20.4	1378	5.9	23322	100	
	전체	20033	30.9	24283	37.5	15300	23.6	5111	7.9	64727	100	
유럽	체코	728	15.9	1755	38.4	1514	33.1	576	12.6	4573	100	758.330***
	이탈리아	1078	32.3	1357	40.7	656	19.7	244	7.3	3335	100	
	스페인	982	30.1	1340	41.1	717	22.0	222	6.8	3261	100	
	스웨덴	603	17.9	1404	41.6	1075	31.9	292	8.7	3374	100	
	영국	402	14.2	1231	43.5	939	33.2	256	9.1	2828	100	
	전체	3793	21.8	7087	40.8	4901	28.2	1590	9.2	17371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1716	33.5	1668	32.6	1294	25.3	441	8.6	5119	100	140.136***
	콜롬비아	2273	38.7	1872	31.9	1305	22.2	426	7.2	5876	100	
	도미니카	1402	38.7	1074	29.6	720	19.9	427	11.8	3623	100	
	멕시코	2216	34.9	2024	31.9	1578	24.9	524	8.3	6342	100	
	파라과이	1075	35.0	932	30.3	742	24.1	325	10.6	3074	100	
	전체	8682	36.1	7570	31.5	5639	23.5	2143	8.9	24034	100	
아시아	대만	1235	24.1	2058	40.1	1499	29.2	338	6.6	5130	100	2025.075***
	홍콩	538	19.1	1280	45.5	843	30.0	152	5.4	2813	100	
	인도네시아	1944	39.5	2020	41.1	706	14.4	247	5.0	4917	100	
	한국	2531	48.4	2190	41.8	394	7.5	119	2.3	5234	100	
	태국	1310	25.1	2078	39.7	1318	25.2	522	10.0	5228	100	
	전체	7558	32.4	9626	41.3	4760	20.4	1378	5.9	23322	100	

○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다음으로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가에 대한 의견에서는 세계 청소년들은 86%에 가까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매우 중요함: 42.3%, 중요함:43.4%). 대륙별 차이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었으나,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유럽은 오직 28.0%만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보여, 라틴 국가들의 매우 높은 중요인식과 아시아와는 차이를 보였다. 반면 국가별 차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라틴국가에서는 칠레학생들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유익한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은 지역공동체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 학생의 인식 정도는 아시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6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지역공동체 유익 활동 참여)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4871	28.0	8965	51.6	2893	16.6	650	3.7	17379	100	2549.739***
	라틴아메리카	12290	51.0	8652	35.9	2522	10.5	657	2.7	24121	100	
	아시아	10290	44.1	10500	45.0	2129	9.1	420	1.8	23339	100	
	전체	27451	42.3	28117	43.4	7544	11.6	1727	2.7	64839	100	
유럽	체코	1052	23.1	2444	53.6	861	18.9	202	4.4	4559	100	586.833***
	이탈리아	881	26.4	1717	51.5	630	18.9	107	3.2	3335	100	
	스페인	1446	44.5	1374	42.3	340	10.5	92	2.8	3252	100	
	스웨덴	804	23.8	1843	54.5	588	17.4	149	4.4	3384	100	
	영국	688	24.1	1587	55.7	474	16.6	100	3.5	2849	100	
	전체	4871	28.0	8965	51.6	2893	16.6	650	3.7	17379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2826	55.1	1802	35.2	397	7.7	100	2.0	5125	100	252.533***
	콜롬비아	3065	51.8	2248	38.0	493	8.3	108	1.8	5914	100	
	도미니카	1904	51.6	1195	32.4	429	11.6	162	4.4	3690	100	
	멕시코	2983	47.1	2344	37.0	802	12.7	207	3.3	6336	100	
	파라과이	1512	49.5	1063	34.8	401	13.1	80	2.6	3056	100	
아시아	전체	12290	51.0	8652	35.9	2522	10.5	657	2.7	24121	100	1452.920***
	대만	2305	44.9	2261	44.1	487	9.5	79	1.5	5132	100	
	홍콩	924	32.8	1450	51.5	366	13.0	76	2.7	2816	100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인도네시아	2628	53.2	1967	39.8	269	5.4	73	1.5	4937	100	
	한국	1400	26.8	2980	57.0	714	13.7	134	2.6	5228	100	
	태국	3033	58.0	1842	35.2	293	5.6	58	1.1	5226	100	
	전체	10290	44.1	10500	45.0	2129	9.1	420	1.8	23339	100	

○ 인권 증진 운동 참여

다음으로 인권 증진 운동 참여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세계 청소년들은 86.8%의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매우 중요함: 45.2%, 중요함:41.6%). 대륙별 차이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었으나,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유럽국가의 경우 36.5%가 동의한 반면, 라틴아메리카는 54.4%, 아시아는 42.2%로 대륙별 차이를 보였다. 각 나라의 특성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라틴국가에서는 콜롬비아 학생들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유익한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태국(54.1%) 과 대만(49.3%) 학생들의 유익한 지역 활동 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한국은 33.4%의 찬성으로 홍콩 다음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III-1-57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권 증진 운동 참여)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유럽	6341	36.5	7935	45.7	2533	14.6	571	3.3	17380	100	1634.132***
	라틴아메리카	13118	54.4	8595	35.6	1872	7.8	545	2.3	24130	100	
	아시아	9855	42.2	10448	44.8	2578	11.0	456	2.0	23337	100	
	전체	29314	45.2	26978	41.6	6983	10.8	1572	2.4	64847	100	
유 럽	체코	1382	30.3	2348	51.4	688	15.1	149	3.3	4567	100	1043.634***
	이탈리아	1884	56.4	1141	34.2	262	7.8	51	1.5	3338	100	
	스페인	1402	43.1	1379	42.4	381	11.7	94	2.9	3256	100	
	스웨덴	881	26.1	1689	50.0	657	19.4	151	4.5	3378	100	
	영국	792	27.9	1378	48.5	545	19.2	126	4.4	2841	100	
	전체	6341	36.5	7935	45.7	2533	14.6	571	3.3	17380	100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라틴 아메리카	칠레	2658	52.0	1862	36.4	459	9.0	135	2.6	5114	100	284.004***
	콜롬비아	3496	59.0	2080	35.1	266	4.5	82	1.4	5924	100	
	도미니카	2019	54.8	1319	35.8	239	6.5	105	2.9	3682	100	
	멕시코	3182	50.2	2290	36.1	691	10.9	176	2.8	6339	100	
	파라과이	1763	57.4	1044	34.0	217	7.1	47	1.5	3071	100	
	전체	13118	54.4	8595	35.6	1872	7.8	545	2.3	24130	100	
아시아	대만	2530	49.3	2114	41.2	407	7.9	82	1.6	5133	100	1058.309***
	홍콩	714	25.3	1497	53.1	535	19.0	72	2.6	2818	100	
	인도네시아	2041	41.4	2188	44.4	606	12.3	97	2.0	4932	100	
	한국	1745	33.4	2636	50.4	702	13.4	147	2.8	5230	100	
	태국	2825	54.1	2013	38.5	328	6.3	58	1.1	5224	100	
	전체	9855	42.2	10448	44.8	2578	11.0	456	2.0	23337	100	

○ 환경 보호운동 참여

또한 환경 보호운동 참여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가에 대한 의견에 세계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즉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51.7%, 약간 중요하다는 의견은 38.0%로 90%에 가까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륙별 차이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의견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환경보호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에 라틴 국가청소년의 인식이 매우 높았으며, 아시아, 유럽 순으로 나타났다. 각 나라의 특성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라틴국가에서는 파라과이의 환경보호 활동이 민주시민의 행동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67.0%의 그렇다는 응답으로 세계평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1-58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환경보호운동 참여)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7169	41.2	7474	42.9	2221	12.8	546	3.1	17410	100	1737.229***
	라틴아메리카	14350	59.5	8013	33.2	1295	5.4	452	1.9	24110	100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시아	12038	51.6	9188	39.4	1717	7.4	402	1.7	23345	100	
	전체	33557	51.7	24675	38.0	5233	8.1	1400	2.2	64865	100	
유럽	체코	1686	36.9	2130	46.6	618	13.5	137	3.0	4571	100	507.137***
	이탈리아	1671	50.0	1305	39.0	307	9.2	62	1.9	3345	100	
	스페인	1684	51.7	1184	36.3	307	9.4	83	2.5	3258	100	
	스웨덴	1267	37.4	1472	43.4	506	14.9	145	4.3	3390	100	
	영국	861	30.3	1383	48.6	483	17.0	119	4.2	2846	100	
	전체	7169	41.2	7474	42.9	2221	12.8	546	3.1	17410	1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2980	58.3	1634	32.0	388	7.6	110	2.2	5112	100	294.927***
	콜롬비아	3636	61.7	2026	34.4	180	3.1	54	0.9	5896	100	
	도미니카	2099	57.1	1303	35.4	202	5.5	73	2.0	3677	100	
	멕시코	3613	56.8	2127	33.5	440	6.9	176	2.8	6356	100	
	파라과이	2022	65.9	923	30.1	85	2.8	39	1.3	3069	100	
	전체	14350	59.5	8013	33.2	1295	5.4	452	1.9	24110	100	
아 시 아	대만	2479	48.3	2075	40.4	469	9.1	110	2.1	5133	100	951.184***
	홍콩	1253	44.5	1237	43.9	264	9.4	63	2.2	2817	100	
	인도네시아	2713	55.0	1906	38.6	263	5.3	53	1.1	4935	100	
	한국	2091	40.0	2510	48.0	498	9.5	134	2.6	5233	100	
	태국	3502	67.0	1460	27.9	223	4.3	42	0.8	5227	100	
	전체	12038	51.6	9188	39.4	1717	7.4	402	1.7	23345	100	

○ 열심히 일하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가에 대한 의견에 세계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즉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47.0%, 약간 중요하다는 의견은 38.7%로 전체 85.7%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은 시민의 조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대륙별 차이결과에 의하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는 대륙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유럽:46.4 %, 라틴아메리카:47.0%, 아시아:47.3%), 약간 중요하다는 의견에서 유럽의 반응이 높았다. 반면 아시아 국가의 답변 양상은 각 나라별로 아주 다양한 차이를 보였는데, 예를들어 인도네시아, 대만, 한국, 홍콩 등은 과반수이상인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은 시민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에 비하여 태국은 오직 14.5% 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였다.

표 III-1-59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열심히 일하기)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8098	46.4	7152	41.0	1755	10.1	446	2.6	17451	100	84,876***
	라틴아메리카	11349	47.0	9211	38.1	2839	11.8	757	3.1	24156	100	
	아시아	11062	47.3	8790	37.6	2762	11.8	752	3.2	23366	100	
	전체	30509	47.0	25153	38.7	7356	11.3	1955	3.0	64973	100	
유럽	체코	3099	67.5	1267	27.6	156	3.4	68	1.5	4590	100	1888,099***
	이탈리아	1183	35.3	1648	49.2	435	13.0	83	2.5	3349	100	
	스페인	1107	33.9	1480	45.4	538	16.5	137	4.2	3262	100	
	스웨덴	1032	30.5	1757	51.8	483	14.3	117	3.5	3389	100	
	영국	1677	58.6	1000	35.0	143	5.0	41	1.4	2861	100	
	전체	8098	46.4	7152	41.0	1755	10.1	446	2.6	17451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1770	34.8	2324	45.7	811	15.9	185	3.6	5090	100	700,221***
	콜롬비아	2513	42.7	2257	38.4	879	14.9	231	3.9	5880	100	
	도미니카	2007	54.4	1343	36.4	246	6.7	96	2.6	3692	100	
	멕시코	3453	53.7	2205	34.3	625	9.7	149	2.3	6432	100	
	파라과이	1606	52.4	1082	35.3	278	9.1	96	3.1	3062	100	
	전체	11349	47.0	9211	38.1	2839	11.8	757	3.1	24156	100	
아시아	대만	2916	56.8	1939	37.7	229	4.5	53	1.0	5137	100	5479,609***
	홍콩	1413	50.2	1147	40.7	205	7.3	52	1.8	2817	100	
	인도네시아	3221	65.2	1422	28.8	256	5.2	44	0.9	4943	100	
	한국	2755	52.6	2085	39.8	316	6.0	80	1.5	5236	100	
	태국	757	14.5	2197	42.0	1756	33.6	523	10.0	5233	100	
	전체	11062	47.3	8790	37.6	2762	11.8	752	3.2	23366	100	

○ 항상 법을 준수하기

마지막으로 항상 법을 준수하는 것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가에 대한 의견에 대다수의 세계 청소년들은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매우 중요하다:60.8%, 약간 중요하다: 31.1%). 대륙별 차이결과에 의하면, 유럽과 아시아 청소년의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라틴국가는 세계의 대륙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매우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 국가의 차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전반적인 중요도 응답결과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매우 중요하다는 반응에는 54.1%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Ⅲ-1-60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항상 법을 준수하기)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유럽	11139	63.8	4915	28.2	955	5.5	441	2.5	17450	100	1465.795***
	라틴아메리카	12723	52.5	8796	36.3	2073	8.5	660	2.7	24252	100	
	아시아	15730	67.3	6541	28.0	803	3.4	294	1.3	23368	100	
	전체	39592	60.8	20252	31.1	3831	5.9	1395	2.1	65070	100	
유럽	체코	2874	62.5	1367	29.7	248	5.4	111	2.4	4600	100	574.531***
	이탈리아	2688	80.2	562	16.8	60	1.8	42	1.3	3352	100	
	스페인	1891	57.9	1066	32.6	214	6.6	95	2.9	3266	100	
	스웨덴	1908	56.3	1069	31.6	282	8.3	127	3.8	3386	100	
	영국	1778	62.5	851	29.9	151	5.3	66	2.3	2846	100	
	전체	11139	63.8	4915	28.2	955	5.5	441	2.5	17450	100	
라틴아메리카	칠레	2876	56.1	1682	32.8	411	8.0	157	3.1	5126	100	246.773***
	콜롬비아	2834	48.1	2327	39.5	565	9.6	171	2.9	5897	100	
	도미니카	2106	56.3	1308	35.0	216	5.8	109	2.9	3739	100	
	멕시코	3099	48.3	2489	38.8	679	10.6	148	2.3	6415	100	
	파라과이	1808	58.8	990	32.2	202	6.6	75	2.4	3075	100	
	전체	12723	52.5	8796	36.3	2073	8.5	660	2.7	24252	100	
아시아	대만	3540	68.9	1411	27.5	127	2.5	61	1.2	5139	100	681.279***
	홍콩	1899	67.4	815	28.9	66	2.3	36	1.3	2816	100	
	인도네시아	3784	76.6	973	19.7	119	2.4	64	1.3	4940	100	
	한국	2834	54.1	2046	39.1	279	5.3	76	1.5	5235	100	
	태국	3673	70.1	1296	24.7	212	4.0	57	1.1	5238	100	
	전체	15730	67.3	6541	28.0	803	3.4	294	1.3	23368	100	

(3) 소결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청소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대륙 및 국가에 따라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활동, 역할과 행동에 대한 인식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그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수업 외의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정도는 각 대륙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가 높았으며, 아시아 청소년들은 이에 대한 참여가 매우 낮았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활동인 음악 혹은 드라마 활동에의 참여는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참여율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이들의 지역적 특성상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다양한 활동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학교 내 토론활동 참여는 유럽청소년들이 적극적이었는데, 이들의 참여정도는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의 청소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아시아의 경우 오직 13.3%만이 참여 경험이 있다는 반응을 보여,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학교 내외에서 토론문화가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으나, 아시아의 응답률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토론문화 형성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각 대륙 별 학교 수업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문항인 "수업 중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자율적인 토론문화가 형성"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인 지역은 유럽으로, 유럽의 학교문화는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발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예측되었는데, 이에 반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이와 같은 자율적 자발적, 보편적 활동 수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에서 학생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경우, 학생의 의견이 실제 학교정책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교수법, 수업내용, 교과서 및 학습자료, 수업시간표 등에 아시아나 유럽학생들은 학생의견의 영향력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영역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학교 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응답을 보여 학교에서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형성 및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섯째, 세계 청소년들은 민주시민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중 정치인의 공명정대함을 높은 가치로

두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하고 있어 정치지도자의 혈연이 정부에서 일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에서 이러한 의견이 강했으며, 라틴아메리카는 두 대륙의 청소년에 비하여 다소 허용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섯째, 유럽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기업과 정부의 언론 소유에 부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언론의 독립성을 중요한 민주사회의 모습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반응에 아시아는 국가별 큰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언론의 독립에 대해 강한 긍정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매우 동의함: 45.3%), 인도네시아는 오직 8.0%만이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여, 기업과 정부의 언론소유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일곱째, 라틴아메리카 청소년들은 정부 대표자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을 좋은 시민의 행동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어 한국청소년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오직 7.0%만이 정부대표자들에 대한 존경심표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 이들은 정부대표에 대한 존경표현과 좋은 시민의 행동은 별개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국민의 국가비판 권리에 대해 매우 동의 의견을 보여 아시아 뿐 아니라 다른 대륙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 비판할 권한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중 66.6%는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다는 데에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여, 한국 청소년들은 국민이 국가와 법, 정치, 사회가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본 절에서는 각 대륙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관련된 학교변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교생활 관련 민주시민 활동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각 대륙의 성별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학교교육 관련 변수 차이분석

가. 학교 내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정도

○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

세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 응답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여학생 31.8%의 지난 1년간 음악 및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25.2%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 모든 대륙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여학생의 방과 후 음악 혹은 드라마 등 다양한 예술적 활동에의 참여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 -1-61 성별에 따른 학교 내 활동(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 차이분석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8144	25.2	8936	27.6	15273	47.2	32353	100	1311.007***
	여학생	10553	31.8	11577	34.9	11068	33.3	33198	100	
	전체	18697	28.5	20513	31.3	26341	40.2	65551	100	
유럽	남학생	1936	21.8	2595	29.3	4334	48.9	8865	100	709.655***
	여학생	2579	30.1	3487	40.7	2500	29.2	8566	100	
	전체	4515	25.9	6082	34.9	6834	39.2	17431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3734	31.8	3535	30.1	4471	38.1	11740	100	214.892***
	여학생	4708	35.8	4586	34.9	3855	29.3	13149	100	
	전체	8442	33.9	8121	32.6	8326	33.5	24889	100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시아	남학생	2474	21.1	2806	23.9	6468	55.1	11748	100	458.997***
	여학생	3266	28.4	3504	30.5	4713	41.0	11483	100	
	전체	5740	24.7	6310	27.2	11181	48.1	23231	100	

○ 토론에 적극적 참여

다음으로 세계 청소년들이 학교 내 토론활동에 얼마나 적극적 참여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대륙별 성별에 따른 학급 토론에의 참여에 차이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토론에 적극적인 성별은 여성으로 전체 응답자의 23.6%가 지난 1년간 학교 내 토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을 보여 남학생의 21.2%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 대륙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각 대륙별 차이결과에 따르면, 유럽학생의 경우 여학생은 30.3%, 남학생은 26.4%가 지난 1년간 학급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여학생 28.0%, 남학생 25.5%로 그 다음, 아시아에서는 여학생 13.6%, 남학생 13.0%로 대륙 중에서는 가장 낮은 참여를 보였다. 남녀 간의 차이 정도는 유럽이 약 4%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 반면, 라틴아메리카는 2.5%, 아시아는 0.6%로 나타났다.

표 III-1-62 성별에 따른 학교 내 활동(토론에 적극적 참여) 차이분석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6801	21.2	6758	21.0	18552	57.8	32111	100	60.640***
	여학생	7742	23.6	6973	21.2	18134	55.2	32849	100	
	전체	14543	22.4	13731	21.1	36686	56.5	64960	100	
유럽	남학생	2329	26.4	1919	21.8	4573	51.8	8821	100	32.236***
	여학생	2574	30.3	1782	21.0	4148	48.8	8504	100	
	전체	4903	28.3	3701	21.4	8721	50.3	17325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2948	25.5	2720	23.5	5904	51.0	11572	100	20.554***
	여학생	3609	28.0	3002	23.3	6292	48.8	12903	100	
	전체	6557	26.8	5722	23.4	12196	49.8	24475	100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 시 아	남학생	1524	13.0	2119	18.1	8075	68.9	11718	100	7.452 ^{***}
	여학생	1559	13.6	2189	19.1	7694	67.2	11442	100	
	전체	3083	13.3	4308	18.6	15769	68.1	23160	100	

○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이들에게 지난 1년 이내에 학교 내의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은 54.7%가 참여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의 48.9%보다 월등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각 대륙별 세부적인 차이에 따르면, 유럽 여학생 51.6% 남학생:46.2% 라틴아메리카는 여학생:60.9%, 남학생 56.2%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아시아 역시 여학생 50.4%, 남학생 43.8%가 참여했다는 응답을 보였다. 반면, 1년 전에 활동하였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표 III-1-63 성별에 따른 학교 내 활동(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차이분석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15655	48.9	7994	25.0	8380	26.2	32029	100	319.557 ^{***}
	여학생	17954	54.8	8034	24.5	6773	20.7	32761	100	
	전체	33609	51.9	16028	24.7	15153	23.4	64790	100	
유 럽	남학생	4070	46.2	2242	25.4	2501	28.4	8813	100	100.127 ^{***}
	여학생	4399	51.6	2266	26.6	1868	21.9	8533	100	
	전체	8469	48.8	4508	26.0	4369	25.2	17346	100	
라 틴 아 메 리 카	남학생	6461	56.2	2666	23.2	2377	20.7	11504	100	58.617 ^{***}
	여학생	7792	60.9	2718	21.2	2282	17.8	12792	100	
	전체	14253	58.7	5384	22.2	4659	19.2	24296	100	
아 시 아	남학생	5124	43.8	3086	26.3	3502	29.9	11712	100	160.594 ^{***}
	여학생	5763	50.4	3050	26.7	2623	22.9	11436	100	
	전체	10887	47.0	6136	26.5	6125	26.5	23148	100	

○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세계 청소년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비율은 전체 평균이 22.8%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학교운영에의 의사결정 참여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여학생은 25.0%가 지난 1년간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응답을 보여 남학생의 20.6%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각 대륙별 세부적인 차이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여학생 20.2%, 남학생 17.2%가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라틴아메리카(여학생:29.9%, 남학생:24.8%) 및 아시아(여학생은 23.0%, 남학생은 19.1%)의 참여 정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륙별로는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참여율(27.5%)이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와 유럽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64 성별에 따른 학교 내 활동(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차이분석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6606	20.6	7017	21.9	18391	57.4	32014	100	227.834***
	여학생	8176	25.0	7539	23.0	17047	52.0	32762	100	
	전체	14782	22.8	14556	22.5	35438	54.7	64776	100	
유럽	남학생	1522	17.2	1843	20.9	5466	61.9	8831	100	55.266***
	여학생	1724	20.2	1991	23.4	4805	56.4	8520	100	
	전체	3246	18.7	3834	22.1	10271	59.2	17351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2845	24.8	2800	24.4	5837	50.8	11482	100	82.145***
	여학생	3822	29.9	3034	23.7	5945	46.4	12801	100	
	전체	6667	27.5	5834	24.0	11782	48.5	24283	100	
아시아	남학생	2239	19.1	2374	20.3	7088	60.6	11701	100	79.243***
	여학생	2630	23.0	2514	22.0	6297	55.0	11441	100	
	전체	4869	21.0	4888	21.1	13385	57.8	23142	100	

○ 학생회 토론 참여

세계 청소년들은 평균 22.4%가 지난 1년간 학생회 토론에 참여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유럽의 경우 15.9%, 라틴아메리카는 20.5%, 아시아는 34.9%의 참여비율을 보여 아시아, 라틴, 유럽 순으로 그 참여정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성별에 따른 학생회 토론 참여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의 학생회 토론 참여 비율은 26.4%로 남학생의 22.4%보다 지난 1년간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각 대륙별 세부적인 차이에 따르면, 유럽(여학생 :17.2%, 남학생:14.5%), 라틴아메리카(여학생:22.3%, 남학생:18.5%, 아시아(여학생:37.7%, 남학생:32.%) 모든 대륙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III-1-65 성별에 따른 학교 내 활동(학생회 토론 참여) 차이분석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7171	22.4	6673	20.8	18221	56.8	32065	100	207.093***
	여학생	8649	26.4	7245	22.1	16860	51.5	32754	100	
	전체	15820	24.4	13918	21.5	35081	54.1	64819	100	
유럽	남학생	1281	14.5	1655	18.7	5896	66.8	8832	100	54.153***
	여학생	1469	17.2	1816	21.3	5233	61.4	8518	100	
	전체	2750	15.9	3471	20.0	11129	64.1	17350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2128	18.5	2384	20.7	6988	60.8	11500	100	62.470***
	여학생	2849	22.3	2704	21.2	7210	56.5	12763	100	
	전체	4977	20.5	5088	21.0	14198	58.5	24263	100	
아시아	남학생	3762	32.1	2634	22.4	5337	45.5	11733	100	125.428***
	여학생	4331	37.7	2725	23.8	4417	38.5	11473	100	
	전체	8093	34.9	5359	23.1	9754	42.0	23206	100	

○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이들에게 지난 1년간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세계 청소년의 18.6%는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유럽은 16.6%, 라틴아메리카는 24.0%, 아시아는 14.3%로 라틴국가 청소년들의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비율은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성별에 따른 학생회 토론 참여에는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높은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체 평균 여학생의 학생회 토론 참여 비율은 19.6%로 남학생의 17.5%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각 대륙별 세부적인 차이에 따르면, 유럽은 여학생의 참여비율은 16.5%로 오히려 남학생의 참여율(16.7%)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으며, 아시아의 경우 여학생은 15.0%, 남학생은 13.7%가 참여했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여학생 25.7%, 남학생 22.1%의 참여를 보여 아시아 국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III-1-66 성별에 따른 학교 내 활동(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차이분석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5636	17.5	6082	18.9	20411	63.5	32129	100	103.609***
	여학생	6442	19.6	6832	20.8	19626	59.7	32900	100	
	전체	12078	18.6	12914	19.9	40037	61.6	65029	100	
유 럽	남학생	1475	16.7	1686	19.0	5694	64.3	8855	100	23.147***
	여학생	1414	16.5	1877	21.9	5266	61.5	8557	100	
	전체	2889	16.6	3563	20.5	10960	62.9	17412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2548	22.1	2525	21.9	6466	56.0	11539	100	54.224***
	여학생	3313	25.7	2884	22.4	6677	51.9	12874	100	
	전체	5861	24.0	5409	22.2	13143	53.8	24413	100	
아 시 아	남학생	1613	13.7	1871	15.9	8251	70.3	11735	100	30.476***
	여학생	1715	15.0	2071	18.1	7683	67.0	11469	100	
	전체	3328	14.3	3942	17.0	15934	68.7	23204	100	

나.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에 대한 질문은 학습 분위기의 민주성과, 학급교사의 지도 방법 등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에 여학생들은 22.7%가 종종 수업에서 일어난다는 반응과 42.0%가 때때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남학생들은 18.4%가 종종 수업에서 일어나며, 39.7%가 때때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에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세부 대륙별 차이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는데, 그 차이의 정도는 아시아에 비하여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서 크게 나타났다. 즉, 아시아는 0.9%차이를 보인 반면, 유럽국가의 경우 9.1%, 라틴아메리카는 4.5%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III-1-67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1) 차이분석

		전혀 일어 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 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4908	15.2	8662	26.8	12850	39.7	5941	18.4	32361	100	397.721 ***
	여학생	3791	11.4	7894	23.8	13908	42.0	7521	22.7	33114	100	
	전체	8699	13.3	16556	25.3	26758	40.9	13462	20.6	65475	100	
유 럽	남학생	679	7.7	1768	19.9	3714	41.9	2710	30.5	8871	100	305.088 ***
	여학생	328	3.8	1191	13.9	3655	42.7	3387	39.6	8561	100	
	전체	1007	5.8	2959	17.0	7369	42.3	6097	35.0	17432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1720	14.6	3078	26.2	5011	42.7	1932	16.5	11741	100	147.567 ***
	여학생	1481	11.3	3044	23.3	5797	44.3	2752	21.0	13074	100	
	전체	3201	12.9	6122	24.7	10808	43.6	4684	18.9	24815	100	
아 시 아	남학생	2509	21.4	3816	32.5	4125	35.1	1299	11.1	11749	100	77.348 ***
	여학생	1982	17.3	3659	31.9	4456	38.8	1382	12.0	11479	100	
	전체	4491	19.3	7475	32.2	8581	36.9	2681	11.5	23228	100	

○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 한다"는 질문에 여학생들이 42.3%가 종종 수업에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남학생은 33.8%만이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학생의 선생님의 학생의견 격려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륙별로도 같은 응답의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유럽은 여학생이 51.4%가 동의, 남학생은 39.5%가 동의하여 가장 높은 학교 개방성에 대한 인식을 보였으며,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여학생이 35.5% 동의, 남학생은 29.9%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III-1-68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2) 차이분석

		전혀 일어 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 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3871	12.0	6287	19.5	11130	34.6	10871	33.8	32159	100	588.379 ***
	여학생	3010	9.2	5143	15.7	10808	32.9	13893	42.3	32854	100	

		전혀 일어 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 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6881	10.6	11430	17.6	21938	33.7	24764	38.1	65013	100	
유럽	남학생	724	8.2	1544	17.4	3093	34.9	3497	39.5	8858	100	321.094 ***
	여학생	416	4.9	990	11.6	2747	32.1	4393	51.4	8546	100	
	전체	1140	6.6	2534	14.6	5840	33.6	7890	45.3	17404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1863	16.1	2283	19.7	3962	34.3	3459	29.9	11567	100	92.286 ***
	여학생	1835	14.3	2227	17.4	4217	32.9	4549	35.5	12828	100	
	전체	3698	15.2	4510	18.5	8179	33.5	8008	32.8	24395	100	
아 시 아	남학생	1284	10.9	2460	21.0	4075	34.7	3915	33.4	11734	100	324.983 ***
	여학생	759	6.6	1926	16.8	3844	33.5	4951	43.1	11480	100	
	전체	2043	8.8	4386	18.9	7919	34.1	8866	38.2	23214	100	

○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 한다.

반면,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 한다"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54.1%인 과반수이상의 청소년이 학교 수업에서 종종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들이 60.3%가 종종 수업에서 일어난다는 반응을, 남학생은 47.8%만이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여학생의 수업시간 내 자기의견 표현이 다소 자유롭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륙별로도 같은 응답의 양상을 보였는데, 유럽은 여학생이 63.5%가 동의, 남학생은 49.7%가 동의하고 있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여학생이 59.9% 동의, 남학생은 49.4%만이 동의하였고, 아시아는 여학생이 58.3%, 남학생은 44.7%가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9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3) 차이분석

		전혀 일어 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 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2417	7.5	4441	13.8	9912	30.9	15329	47.8	32099	100	1172.814 ***
	여학생	1349	4.1	3244	9.8	8521	25.8	19891	60.3	33005	100	
	전체	3766	5.8	7685	11.8	18433	28.3	35220	54.1	65104	100	
유 럽	남학생	531	6.0	1140	12.9	2769	31.4	4388	49.7	8828	100	443.175 ***
	여학생	173	2.0	719	8.4	2222	26.0	5429	63.5	8543	100	

		전혀 일어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704	4.1	1859	10.7	4991	28.7	9817	56.5	17371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836	7.2	1355	11.7	3678	31.7	5727	49.4	11596	100	297.454 ***
	여학생	606	4.7	1119	8.6	3498	26.9	7787	59.9	13010	100	
	전체	1442	5.9	2474	10.1	7176	29.2	13514	54.9	24606	100	
아시아	남학생	1050	9.0	1946	16.7	3465	29.7	5214	44.7	11675	100	477.010 ***
	여학생	570	5.0	1406	12.3	2801	24.5	6675	58.3	11452	100	
	전체	1620	7.0	3352	14.5	6266	27.1	11889	51.4	23127	100	

○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세계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는 질문에 10.3 %가 종종 일어난다는 반응을, 29.3%는 때때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여, 약 40%에 가까운 학교에서 정치적 사건을 종종 토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에 의하면, 여학생은 10.9%가 종종 정치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남학생은 9.7%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각 대륙별로도 같은 양상을 보였는데,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급토론이 개방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70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4) 차이분석

		전혀 일어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9157	28.5	11196	34.9	8629	26.9	3127	9.7	32109	100	418.580 ***
	여학생	7261	22.1	11653	35.4	10420	31.6	3593	10.9	32927	100	
	전체	16418	25.2	22849	35.1	19049	29.3	6720	10.3	65036	100	
유럽	남학생	2245	25.4	3284	37.2	2419	27.4	875	9.9	8823	100	116.831 ***
	여학생	1605	18.8	3349	39.3	2692	31.6	886	10.4	8532	100	
	전체	3850	22.2	6633	38.2	5111	29.4	1761	10.1	17355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3276	28.3	3786	32.8	3176	27.5	1322	11.4	11560	100	72.669 ***
	여학생	3076	23.8	4302	33.3	3949	30.6	1589	12.3	12916	100	
	전체	6352	26.0	8088	33.0	7125	29.1	2911	11.9	24476	100	

		전혀 일어 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 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 시 아	남학생	3636	31.0	4126	35.2	3034	25.9	930	7.9	11726	100	277.415 ***
	여학생	2580	22.5	4002	34.9	3779	32.9	1118	9.7	11479	100	
	전체	6216	26.8	8128	35.0	6813	29.4	2048	8.8	23205	100	

○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습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청소년들은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습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는 질문에 28.2%는 종종 일어난다는 반응을, 38.9%는 때때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여학생은 평균 32.2%가 남학생은 24.0%가 종종 수업시간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여학생의 학급 토론의 개방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 라틴국가 및 아시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유럽(9.4%)과 라틴아메리카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각각 9.4%로 아시아의 5.6%에 비하여 높은 성별 차이를 보였다.

표 III -1-71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5) 차이분석

		전혀 일어 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 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3927	12.2	8306	25.8	12177	37.9	7726	24.0	32136	100	1061.235 ***
	여학생	2262	6.9	6915	21.0	13193	40.0	10620	32.2	32990	100	
	전체	6189	9.5	15221	23.4	25370	39.0	18346	28.2	65126	100	
유 럽	남학생	730	8.3	2058	23.3	3629	41.0	2425	27.4	8842	100	467.350 ***
	여학생	244	2.9	1379	16.1	3783	44.3	3142	36.8	8548	100	
	전체	974	5.6	3437	19.8	7412	42.6	5567	32.0	17390	100	
라 틴 아 메 리 카	남학생	1342	11.6	2776	24.0	4427	38.3	3017	26.1	11562	100	407.674 ***
	여학생	859	6.6	2486	19.2	5019	38.7	4594	35.5	12958	100	
	전체	2201	9.0	5262	21.5	9446	38.5	7611	31.0	24520	100	
아 시 아	남학생	1855	15.8	3472	29.6	4121	35.1	2284	19.5	11732	100	263.632 ***
	여학생	1159	10.1	3050	26.6	4391	38.2	2884	25.1	11484	100	
	전체	3014	13.0	6522	28.1	8512	36.7	5168	22.3	23216	100	

○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세계 청소년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는 질문에 전체 청소년들의 22.6%는 종종 일어난다는 응답을 34.8%는 때때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여, 평균 57.4%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여학생의 25.5%와 남학생의 19.6%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여학생의 학급토론의 개방적 인식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대륙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같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1-72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6) 차이분석

		전혀 일어 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 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6513	20.3	8546	26.6	10743	33.5	6287	19.6	32089	100	605.577 ***
	여학생	4939	15.0	7695	23.4	11869	36.1	8378	25.5	32881	100	
	전체	11452	17.6	16241	25.0	22612	34.8	14665	22.6	64970	100	
유 럽	남학생	1571	17.8	2608	29.5	3077	34.8	1577	17.9	8833	100	304.486 ***
	여학생	870	10.2	2227	26.1	3402	39.8	2049	24.0	8548	100	
	전체	2441	14.0	4835	27.8	6479	37.3	3626	20.9	17381	100	
라 틴 아 메 리 카	남학생	2389	20.7	2903	25.2	3858	33.5	2376	20.6	11526	100	103.103 ***
	여학생	2338	18.2	2862	22.3	4389	34.1	3265	25.4	12854	100	
	전체	4727	19.4	5765	23.6	8247	33.8	5641	23.1	24380	100	
아 시 아	남학생	2553	21.8	3035	25.9	3808	32.5	2334	19.9	11730	100	295.634 ***
	여학생	1731	15.1	2606	22.7	4078	35.5	3064	26.7	11479	100	
	전체	4284	18.5	5641	24.3	7886	34.0	5398	23.3	23209	100	

○ 선생님들이 학습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관점을 제시해 준다.

세계 청소년들은 "선생님들이 학습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질문에 37.0%는 종종 일어난다는 반응을, 35.9 %는 때때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여, 평균 72.9%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학습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여학생들의 40.9%가 남학생들은 32.9%가 종종 수업에서 일어난다는 반응을 보여, 여학생의 학급토론에 대한 의견비율이 남학생보다 개방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럽,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아시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10.3%로 대륙 중 가장 큰 성별에 따른 의견 차이를 보였다.

표 III-1-73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7) 차이분석

		전혀 일어 나지 않음		일부수업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 에서 일어남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3636	11.3	6409	19.9	11528	35.9	10577	32.9	32150	100	758.924 ***
	여학생	2251	6.8	5385	16.4	11821	35.9	13478	40.9	32935	100	
	전체	5887	9.0	11794	18.1	23349	35.9	24055	37.0	65085	100	
유럽	남학생	859	9.7	1992	22.6	3608	40.9	2365	26.8	8824	100	260.420 ***
	여학생	398	4.7	1585	18.6	3667	43.0	2875	33.7	8525	100	
	전체	1257	7.2	3577	20.6	7275	41.9	5240	30.2	17349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1033	8.9	1894	16.4	4082	35.2	4572	39.5	11581	100	130.643 ***
	여학생	804	6.2	1820	14.1	4450	34.4	5860	45.3	12934	100	
	전체	1837	7.5	3714	15.1	8532	34.8	10432	42.6	24515	100	
아 시 아	남학생	1744	14.8	2523	21.5	3838	32.7	3640	31.0	11745	100	382.864 ***
	여학생	1049	9.1	1980	17.3	3704	32.3	4743	41.3	11476	100	
	전체	2793	12.0	4503	19.4	7542	32.5	8383	36.1	23221	100	

다. 학교에서의 영향력

이번에는 성별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 학교정책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의견이 학교의 교수법, 수업내용, 교과서 및 학습자료, 수업시간표 등에 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 교수법(선생님의 수업방식 또는 수업방법)

세계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견이 선생님의 수업방식 또는 수업방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25.6%는 많이 반영되며, 40.6%는 보통 반영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 의하면, 여학생들은 25.3%가 남학생은 25.9%가 많이 반영된다는 의견을 보여

남학생들은 학생의견의 학교에서 영향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 대륙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유럽(남: 12.2%, 여:9.7%)과 라틴아메리카(남:35.4%, 여:33.8%)에서는 남학생의 긍정 의견이 여학생보다 높았던 것에 반해 아시아의 경우 여학생(27.2%)들의 학생 의견이 교수법에 반영된다는 의견이 남학생(26.6%)에 비하여 높았다.

표 III-1-74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교수법) 차이분석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 반영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8358	25.9	13027	40.3	7130	22.1	3794	11.7	32309	100	43.375***
	여학생	8388	25.3	13558	40.9	7761	23.4	3445	10.4	33152	100	
	전체	16746	25.6	26585	40.6	14891	22.7	7239	11.1	65461	100	
유럽	남학생	1078	12.2	3338	37.9	2947	33.4	1450	16.5	8813	100	64.876***
	여학생	831	9.7	3181	37.3	3278	38.4	1242	14.6	8532	100	
	전체	1909	11.0	6519	37.6	6225	35.9	2692	15.5	17345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4153	35.4	4698	40.0	2174	18.5	707	6.0	11732	100	11.123*
	여학생	4435	33.8	5300	40.4	2614	19.9	776	5.9	13125	100	
	전체	8588	34.5	9998	40.2	4788	19.3	1483	6.0	24857	100	
아시아	남학생	3127	26.6	4991	42.4	2009	17.1	1637	13.9	11764	100	17.077**
	여학생	3122	27.2	5077	44.2	1869	16.3	1427	12.4	11495	100	
	전체	6249	26.9	10068	43.3	3878	16.7	3064	13.2	23259	100	

○ 수업내용

다음으로 학생 의견이 수업내용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28.1%가 학생의 의견은 수업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여학생은 28.3%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여 남학생의 27.9%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별 차이결과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남학생(13.6%)의 학생의 수업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여학생(11.6%)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학생의 영향력에 대해 남녀 모두 다른 대륙에 비하여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여학생의 동의 의견(29.6%)이 남학생(28.2%)의 그것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III-1-75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수업내용) 차이분석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 반영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8968	27.9	12325	38.4	6349	19.8	4481	13.9	32123	100	8.602 [*]
	여학생	9322	28.3	12326	37.4	6732	20.4	4548	13.8	32928	100	
	전체	18290	28.1	24651	37.9	13081	20.1	9029	13.9	65051	100	
유 럽	남학생	1197	13.6	2855	32.5	2607	29.7	2130	24.2	8789	100	46.433 ^{***}
	여학생	989	11.6	2503	29.4	2789	32.8	2224	26.1	8505	100	
	전체	2186	12.6	5358	31.0	5396	31.2	4354	25.2	17294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4461	38.5	4523	39.1	1845	15.9	752	6.5	11581	100	9.956 [*]
	여학생	4928	38.1	4893	37.8	2223	17.2	892	6.9	12936	100	
	전체	9389	38.3	9416	38.4	4068	16.6	1644	6.7	24517	100	
아 시 아	남학생	3310	28.2	4947	42.1	1897	16.1	1599	13.6	11753	100	16.194 ^{**}
	여학생	3405	29.6	4930	42.9	1720	15.0	1432	12.5	11487	100	
	전체	6715	28.9	9877	42.5	3617	15.6	3031	13.0	23240	100	

○ 교과서 및 학습자료

다음으로 학생 의견이 교과서 및 학습 자료가 활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24.7%가 많이 반영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25.2%가 남학생은 24.2%가 응답하여 여학생의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륙별 성별의 차이 인식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유럽국가에서는 남학생의 의견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았으나, 아시아 국가의 여학생들은 학생의견이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76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교과서 및 학습자료) 차이분석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 반영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7733	24.2	11901	37.2	7624	23.8	4752	14.8	32010	100	17.407 ^{**}
	여학생	8268	25.2	12143	37.0	7841	23.9	4560	13.9	32812	100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 반영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6001	24.7	24044	37.1	15465	23.9	9312	14.4	64822	100	
유럽	남학생	1027	11.7	2718	31.0	2933	33.5	2087	23.8	8765	100	23.311 [*]
	여학생	873	10.3	2544	29.9	3119	36.6	1975	23.2	8511	100	
	전체	1900	11.0	5262	30.5	6052	35.0	4062	23.5	17276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3697	32.1	4407	38.3	2653	23.1	749	6.5	11506	100	2.834
	여학생	4225	32.9	4910	38.3	2858	22.3	832	6.5	12825	100	
	전체	7922	32.6	9317	38.3	5511	22.7	1581	6.5	24331	100	
아 시 아	남학생	3009	25.6	4776	40.7	2038	17.4	1916	16.3	11739	100	17.018 ^{**}
	여학생	3170	27.6	4689	40.9	1864	16.2	1753	15.3	11476	100	
	전체	6179	26.6	9465	40.8	3902	16.8	3669	15.8	23215	100	

○ 수업시간표

다음으로 학생의견이 학교의 수업시간표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많이 반영된다는 문항에는 26.2%의 의견에 남학생은 26.9%가 그렇다는 응답을, 여학생은 26.2%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여 남학생의 응답률이 여학생보다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아시아 국가에서는 여학생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 다른 대륙과는 차이를 보였다.

표 III-1-77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수업시간표) 차이분석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 반영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8605	26.9	9787	30.6	6005	18.8	7613	23.8	32010	100	48.358 ^{***}
	여학생	8606	26.2	9597	29.2	6060	18.5	8571	26.1	32834	100	
	전체	17211	26.5	19384	29.9	12065	18.6	16184	25.0	64844	100	
유 럽	남학생	1471	16.8	1916	21.8	1991	22.7	3396	38.7	8774	100	82.108 ^{***}
	여학생	1119	13.1	1663	19.5	1963	23.0	3774	44.3	8519	100	
	전체	2590	15.0	3579	20.7	3954	22.9	7170	41.5	17293	100	
라틴 아메	남학생	4286	37.3	3668	31.9	1989	17.3	1546	13.5	11489	100	39.558 ^{***}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 반영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리카	여학생	4574	35.6	3872	30.2	2341	18.2	2050	16.0	12837	100	
	전체	8860	36.4	7540	31.0	4330	17.8	3596	14.8	24326	100	
아시아	남학생	2848	24.2	4203	35.8	2025	17.2	2671	22.7	11747	100	20.230***
	여학생	2913	25.4	4062	35.4	1756	15.3	2747	23.9	11478	100	
	전체	5761	24.8	8265	35.6	3781	16.3	5418	23.3	23225	100	

○ 학급수칙

학생의견이 학급수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청소년들의 32.0%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여학생들은 33.2%가 남학생은 30.8%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여학생의 학급에서의 학생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 라틴국가, 아시아 등 대륙별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에서는 여학생 23.4 %, 남학생 21.8%, 라틴아메리카는 여학생 42.0%, 남학생 40.5%가 그렇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경우 여학생 30.7%, 남학생은 28.0%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표 III-1-78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학급수칙) 차이분석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 반영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9849	30.8	10955	34.2	6776	21.2	4420	13.8	32000	100	139.408***
	여학생	10905	33.2	11787	35.9	6363	19.4	3764	11.5	32819	100	
	전체	20754	32.0	22742	35.1	13139	20.3	8184	12.6	64819	100	
유럽	남학생	1917	21.8	2731	31.1	2320	26.4	1824	20.7	8792	100	46.942***
	여학생	1989	23.4	2887	33.9	2175	25.6	1456	17.1	8507	100	
	전체	3906	22.6	5618	32.5	4495	26.0	3280	19.0	17299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4638	40.5	3805	33.2	2141	18.7	876	7.6	11460	100	17.943***
	여학생	5388	42.0	4330	33.7	2138	16.7	980	7.6	12836	100	
	전체	10026	41.3	8135	33.5	4279	17.6	1856	7.6	24296	100	
아시아	남학생	3294	28.0	4419	37.6	2315	19.7	1720	14.6	11748	100	73.890***
	여학생	3528	30.7	4570	39.8	2050	17.9	1328	11.6	11476	100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 반영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6822	29.4	8989	38.7	4365	18.8	3048	13.1	23224	100	

○ 학교규칙

학생의견이 학교규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들의 34.7%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26.9%는 보통 반영된다는 반응을 보여, 학생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학교규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직 유럽국가에서만 남학생(21.4%)의 학생의견이 학교규칙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여학생(19.5 %)들에 비하여 다소 높은 긍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9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학교규칙) 차이분석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 반영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11106	34.7	8594	26.9	5570	17.4	6731	21.0	32001	100	0.081
	여학생	11387	34.7	8828	26.9	5685	17.3	6886	21.0	32786	100	
	전체	22493	34.7	17422	26.9	11255	17.4	13617	21.0	64787	100	
유 럽	남학생	1881	21.4	1945	22.1	1824	20.7	3144	35.8	8794	100	11.051***
	여학생	1659	19.5	1866	21.9	1847	21.7	3138	36.9	8510	100	
	전체	3540	20.5	3811	22.0	3671	21.2	6282	36.3	17304	100	
라 틴 아 메 리 카	남학생	5077	44.3	3269	28.5	1842	16.1	1273	11.1	11461	100	5.895
	여학생	5519	43.2	3718	29.1	2030	15.9	1522	11.9	12789	100	
	전체	10596	43.7	6987	28.8	3872	16.0	2795	11.5	24250	100	
아 시 아	남학생	4148	35.3	3380	28.8	1904	16.2	2314	19.7	11746	100	4.539
	여학생	4209	36.6	3244	28.2	1808	15.7	2226	19.4	11487	100	
	전체	8357	36.0	6624	28.5	3712	16.0	4540	19.5	23233	100	

○ 방과 후 활동

학생의견이 학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질문은 방과 후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즉 방과 후 활동에 학생의견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견에는 전체

청소년의 21.2%가 매우 반영된다는 응답을 37.8%는 보통 반영된다는 반응을 보여 58%의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여학생은 21.4%가 남학생은 20.9%가 반영된다는 의견을 보여,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영향력 인식률이 남남학생보다 높았다.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 다른 대륙별 차이에서도 여학생의 학생 의견의 방과 후 활동에의 반영에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표 III-1-80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방과 후 활동) 차이분석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 반영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6687	20.9	11656	36.5	8568	26.8	5046	15.8	31957	100	167.197***
	여학생	6992	21.4	12815	39.1	8879	27.1	4049	12.4	32735	100	
	전체	13679	21.1	24471	37.8	17447	27.0	9095	14.1	64692	100	
유럽	남학생	1727	19.7	3220	36.7	2454	28.0	1376	15.7	8777	100	51.206***
	여학생	1698	20.0	3346	39.4	2424	28.6	1019	12.0	8487	100	
	전체	3425	19.8	6566	38.0	4878	28.3	2395	13.9	17264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2528	22.1	3933	34.4	3427	30.0	1534	13.4	11422	100	11.077*
	여학생	2859	22.4	4494	35.2	3876	30.4	1533	12.0	12762	100	
	전체	5387	22.3	8427	34.8	7303	30.2	3067	12.7	24184	100	
아 시 아	남학생	2432	20.7	4503	38.3	2687	22.9	2136	18.2	11758	100	134.950***
	여학생	2435	21.2	4975	43.3	2579	22.5	1497	13.0	11486	100	
	전체	4867	20.9	9478	40.8	5266	22.7	3633	15.6	23244	100	

라.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준다.

세계 청소년들은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준다는 의견에 전체 청소년의 33.8%가 매우 동의하였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34.9%, 남학생이 32.7%의 공정을 보여 여학생이 학교 교사에 대해 보다 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륙별로 성별에 따른 인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유럽과 라틴 국가의

경우 여학생의 교사의 공정대우에 대한 인식이 남학생보다 높았던 것에 반해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남학생의 27.2%가 매우 공정하다는 반응을, 여학생은 26.8%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남학생의 공정 대우에 대한 인식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표 III -1-81 성별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공정대우)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10609	32.7	16687	51.4	3799	11.7	1348	4.2	32443	100	214.754***
	여학생	11599	34.9	17584	52.9	3172	9.5	876	2.6	33231	100	
	전체	22208	33.8	34271	52.2	6971	10.6	2224	3.4	65674	100	
유럽	남학생	2206	24.9	4755	53.6	1410	15.9	498	5.6	8869	100	132.598***
	여학생	2299	26.8	4991	58.2	997	11.6	283	3.3	8570	100	
	전체	4505	25.8	9746	55.9	2407	13.8	781	4.5	17439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5195	44.1	5206	44.2	1025	8.7	358	3.0	11784	100	45.382***
	여학생	6209	47.2	5696	43.3	919	7.0	323	2.5	13147	100	
	전체	11404	45.7	10902	43.7	1944	7.8	681	2.7	24931	100	
아 시 아	남학생	3208	27.2	6726	57.0	1364	11.6	492	4.2	11790	100	70.190***
	여학생	3091	26.8	6897	59.9	1256	10.9	270	2.3	11514	100	
	전체	6299	27.0	13623	58.5	2620	11.2	762	3.3	23304	100	

○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세계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는 질문에 전체 청소년의 22.3%가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53.4%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어, 전체 청소년의 75.7%가 전반적으로 학교 교사들과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선생님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각 대륙별 성별에 따른 차이에 의하면, 유럽과 라틴 국가의 경우 남학생은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단순히 동의한다는 의견에는 여학생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매우동의, 동의 모두에서 여학생의 인식이 높았다.

표 III-1-82 성별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어울림)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7059	21.8	17017	52.7	6723	20.8	1514	4.7	32313	100	86.740***
	여학생	7490	22.6	17955	54.2	6560	19.8	1126	3.4	33131	100	
	전체	14549	22.2	34972	53.4	13283	20.3	2640	4.0	65444	100	
유 럽	남학생	1000	11.3	4528	51.1	2739	30.9	597	6.7	8864	100	43.404***
	여학생	945	11.0	4690	54.8	2522	29.4	409	4.8	8566	100	
	전체	1945	11.2	9218	52.9	5261	30.2	1006	5.8	17430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3314	28.4	5504	47.2	2341	20.1	510	4.4	11669	100	14.677**
	여학생	3598	27.5	6341	48.5	2665	20.4	465	3.6	13069	100	
	전체	6912	27.9	11845	47.9	5006	20.2	975	3.9	24738	100	
아 시 아	남학생	2745	23.3	6985	59.3	1643	13.9	407	3.5	11780	100	64.606***
	여학생	2947	25.6	6924	60.2	1373	11.9	252	2.2	11496	100	
	전체	5692	24.5	13909	59.8	3016	13.0	659	2.8	23276	100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이들에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통해 학교의 복지 분위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청소년의 33.4%가 매우 동의한다, 50.3 %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여 전체 청소년의 83.7%가 선생님의 학생복지 관심에 긍정하는 응답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응답차이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의 34.5%는 선생님의 학생복지에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남학생은 32.4%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여학생의 긍정 강도는 더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1-83 성별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학생복지 관심)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남학생	10420	32.4	15832	49.2	4543	14.1	1378	4.3	32173	100	249.548***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북	여학생	11408	34.5	16963	51.3	3825	11.6	867	2.6	33063	100	
	전체	21828	33.5	32795	50.3	8368	12.8	2245	3.4	65236	100	
유럽	남학생	2266	25.7	4841	54.9	1315	14.9	402	4.6	8824	100	136.352***
	여학생	2378	27.9	5018	58.8	941	11.0	193	2.3	8530	100	
	전체	4644	26.8	9859	56.8	2256	13.0	595	3.4	17354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5387	46.4	4720	40.7	1129	9.7	373	3.2	11609	100	52.455***
	여학생	6231	47.7	5513	42.2	1003	7.7	306	2.3	13053	100	
	전체	11618	47.1	10233	41.5	2132	8.6	679	2.8	24662	100	
아 시 아	남학생	2767	23.6	6271	53.4	2099	17.9	603	5.1	11740	100	68.137***
	여학생	2799	24.4	6432	56.0	1881	16.4	368	3.2	11480	100	
	전체	5566	24.0	12703	54.7	3980	17.1	971	4.2	23220	100	

○ 나는 우리학교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반면 세계 청소년은 "나는 우리학교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는 질문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그렇다는 응답을 보여 이들이 학교 왕따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세계 남자 청소년은 4.7%가 본인이 학교에서 아웃사이더 인 것 같다는 것에 매우 동의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10.6%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여학생은 각각 3.4%, 8.4%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 모든 대륙의 청소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즉,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의 아웃사이더로서 문제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III-1-84 성별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아웃사이더)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1501	4.7	3400	10.6	11901	37.2	15231	47.5	32033	100	209.728***
	여학생	1110	3.4	2747	8.4	13389	40.8	15605	47.5	32851	100	
	전체	2611	4.0	6147	9.5	25290	39.0	30836	47.5	64884	100	
유	남학생	294	3.4	675	7.7	2774	31.6	5031	57.3	8774	100	23.245***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러 업	여학생	208	2.5	569	6.7	2853	33.7	4833	57.1	8463	100	
	전체	502	2.9	1244	7.2	5627	32.6	9864	57.2	17237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686	6.0	1145	9.9	3892	33.8	5801	50.3	11524	100	46.171***
	여학생	649	5.0	1038	8.0	4701	36.4	6528	50.5	12916	100	
	전체	1335	5.5	2183	8.9	8593	35.2	12329	50.4	24440	100	
아 시 아	남학생	521	4.4	1580	13.5	5235	44.6	4399	37.5	11735	100	196.317***
	여학생	253	2.2	1140	9.9	5835	50.9	4244	37.0	11472	100	
	전체	774	3.3	2720	11.7	11070	47.7	8643	37.2	23207	100	

○ 대부분이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주신다.

이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주신다는 질문에 23.2%가 매우 동의함, 54.7%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77.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학생은 24.1%가 매우 동의한다, 55.6%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22.1%, 53.7%의 반응을 보인 남학생보다 교사의 경청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각 대륙별로 그 응답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성별에 따라 여학생의 긍정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은 같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1-85 성별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경청)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7105	22.1	17236	53.7	5990	18.7	1746	5.4	32077	100	190.954***
	여학생	7954	24.1	18326	55.6	5470	16.6	1208	3.7	32958	100	
	전체	15059	23.2	35562	54.7	11460	17.6	2954	4.5	65035	100	
유 럽	남학생	1587	17.9	4778	54.0	1946	22.0	536	6.1	8847	100	103.885***
	여학생	1704	19.9	4933	57.6	1642	19.2	286	3.3	8565	100	
	전체	3291	18.9	9711	55.8	3588	20.6	822	4.7	17412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3871	33.7	5549	48.3	1538	13.4	531	4.6	11489	100	40.792***
	여학생	4599	35.6	6363	49.3	1491	11.5	461	3.6	12914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8470	34.7	11912	48.8	3029	12.4	992	4.1	24403	100	
아시아	남학생	1647	14.0	6909	58.8	2506	21.3	679	5.8	11741	100	45.690***
	여학생	1651	14.4	7030	61.2	2337	20.4	461	4.0	11479	100	
	전체	3298	14.2	13939	60.0	4843	20.9	1140	4.9	23220	100	

○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질문에 전체 청소년의 29.8%가 매우 그렇다, 53.7%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대륙별 성별에 따른 차이결과를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 여학생 26.7%가 매우 동의, 57.8%는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으며, 남학생은 26.1%가 매우 동의, 55.4%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여 여학생의 응답비율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았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성별 차이결과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1-86 성별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도움)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9379	29.2	17100	53.2	4176	13.0	1462	4.6	32117	100	88.559***
	여학생	10042	30.5	17828	54.1	3997	12.1	1080	3.3	32947	100	
	전체	19421	29.8	34928	53.7	8173	12.6	2542	3.9	65064	100	
유럽	남학생	2307	26.1	4897	55.4	1254	14.2	382	4.3	8840	100	40.684***
	여학생	2284	26.7	4946	57.8	1082	12.7	240	2.8	8552	100	
	전체	4591	26.4	9843	56.6	2336	13.4	622	3.6	17392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4235	36.8	5236	45.5	1442	12.5	598	5.2	11511	100	23.211***
	여학생	4794	37.2	6060	47.0	1515	11.8	524	4.1	12893	100	
	전체	9029	37.0	11296	46.3	2957	12.1	1122	4.6	24404	100	
아시아	남학생	2837	24.1	6967	59.2	1480	12.6	482	4.1	11766	100	38.068***
	여학생	2964	25.8	6822	59.3	1400	12.2	316	2.7	11502	100	
	전체	5801	24.9	13789	59.3	2880	12.4	798	3.4	23268	100	

○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릴까봐 두렵다

마지막으로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릴까봐 두렵다는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응답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8.4%는 매우 동의함, 16.1%는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24.5%가 학교폭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에는 남녀 간의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의한다는 의견에는 여학생의 17.1%, 남학생의 15.1%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여 아웃사이더의 질문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유럽학생의 경우 여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III-1-87 성별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2682	8.3	4865	15.1	10018	31.2	14563	45.3	32128	100	88.377***
	여학생	2777	8.4	5631	17.1	10680	32.4	13826	42.0	32914	100	
	전체	5459	8.4	10496	16.1	20698	31.8	28389	43.6	65042	100	
유 럽	남학생	385	4.3	764	8.6	2184	24.7	5522	62.4	8855	100	156.178***
	여학생	467	5.5	1020	11.9	2513	29.4	4550	53.2	8550	100	
	전체	852	4.9	1784	10.2	4697	27.0	10072	57.9	17405	100	
라 틴 아 메 리 카	남학생	1169	10.2	1821	15.8	3851	33.5	4665	40.5	11506	100	9.049*
	여학생	1321	10.3	2217	17.2	4219	32.8	5117	39.7	12874	100	
	전체	2490	10.2	4038	16.6	8070	33.1	9782	40.1	24380	100	
아 시 아	남학생	1128	9.6	2280	19.4	3983	33.8	4376	37.2	11767	100	14.282*
	여학생	989	8.6	2394	20.8	3948	34.4	4159	36.2	11490	100	
	전체	2117	9.1	4674	20.1	7931	34.1	8535	36.7	23257	100	

마.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에 대한 의견

○ 학교운영방법에 대한 학생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이번에는 성별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그 첫 번째 문항으로

"학교 운영방법에 대한 학생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37.8%가 매우 동의함, 53.1%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여 전체의 90.0%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성별 차이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여학생은 38.5%가 매우 동의함, 54.2 %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남학생(매우동의:37.0%, 동의:52.0%)보다 학생 참여가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데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국가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표 III-1-88 성별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1)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11962	37.0	16801	52.0	2616	8.1	950	2.9	32329	100	358.319***
	여학생	12781	38.5	17969	54.2	2020	6.1	398	1.2	33168	100	
	전체	24743	37.8	34770	53.1	4636	7.1	1348	2.1	65497	100	
유 럽	남학생	2289	25.9	5014	56.8	1154	13.1	376	4.3	8833	100	180.788***
	여학생	2312	27.1	5266	61.7	827	9.7	125	1.5	8530	100	
	전체	4601	26.5	10280	59.2	1981	11.4	501	2.9	17363	100	
라 틴 아 메 리 카	남학생	5518	47.1	5392	46.0	574	4.9	234	2.0	11718	100	49.549***
	여학생	6334	48.3	6125	46.7	496	3.8	150	1.1	13105	100	
	전체	11852	47.7	11517	46.4	1070	4.3	384	1.5	24823	100	
아 시 아	남학생	4155	35.3	6395	54.3	888	7.5	340	2.9	11778	100	124.789***
	여학생	4135	35.9	6578	57.0	697	6.0	123	1.1	11533	100	
	전체	8290	35.6	12973	55.7	1585	6.8	463	2.0	23311	100	

○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세계 청소년들은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질문에 43.7%는 매우 동의함, 48.8%는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92.5%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특히 여학생들은 46.3%가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여 남학생의 41.1%응답률보다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각 대륙별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에 따르면,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국가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유럽은 여학생 38.0%, 남학생 32.2%가 매우 동의하고 있었으며, 라틴아메리카는 여학생 59.1%, 남학생 54.7%, 아시아에서는 여학생 37.7%, 남학생 34.4%의 응답비

율을 보였다.

표 III-1-89 성별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2)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13292	41.1	15978	49.5	2333	7.2	707	2.2	32310	100	450.275***
	여학생	15375	46.3	16001	48.1	1548	4.7	312	0.9	33236	100	
	전체	28667	43.7	31979	48.8	3881	5.9	1019	1.6	65546	100	
유럽	남학생	2841	32.2	4972	56.3	796	9.0	224	2.5	8833	100	266.493***
	여학생	3255	38.0	4865	56.9	367	4.3	68	0.8	8555	100	
	전체	6096	35.1	9837	56.6	1163	6.7	292	1.7	17388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6412	54.7	4461	38.1	627	5.4	219	1.9	11719	100	66.635***
	여학생	7774	59.1	4673	35.5	558	4.2	156	1.2	13161	100	
	전체	14186	57.0	9134	36.7	1185	4.8	375	1.5	24880	100	
아시아	남학생	4039	34.4	6545	55.7	910	7.7	264	2.2	11758	100	151.070***
	여학생	4346	37.7	6463	56.1	623	5.4	88	0.8	11520	100	
	전체	8385	36.0	13008	55.9	1533	6.6	352	1.5	23278	100	

○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질문에 세계 청소년들은 33.5%가 매우 동의함, 54.7%는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전체 88.2%가 학생조직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라틴국가 청소년들의 학교경영에 학생조직을 통한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긍정비율이 남학생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륙별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럽은 여학생 26.9%가 매우 동의함, 24.7%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여 여학생이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조직의 필요성에 남학생보다 더욱 동의하고 있었으며, 라틴아메리카 역시 여학생 44.8%, 여학생 41.5%로 같은 양상을 보였다.

표 III-1-90 성별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3)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10383	32.3	17176	53.5	3603	11.2	965	3.0	32127	100	415.921***
	여학생	11490	34.8	18446	55.8	2629	8.0	465	1.4	33030	100	
	전체	21873	33.6	35622	54.7	6232	9.6	1430	2.2	65157	100	
유럽	남학생	2178	24.7	5082	57.7	1268	14.4	275	3.1	8803	100	181.89***
	여학생	2296	26.9	5323	62.4	814	9.5	103	1.2	8536	100	
	전체	4474	25.8	10405	60.0	2082	12.0	378	2.2	17339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4802	41.5	5460	47.2	998	8.6	313	2.7	11573	100	82.635***
	여학생	5813	44.8	6092	46.9	876	6.7	201	1.5	12982	100	
	전체	10615	43.2	11552	47.0	1874	7.6	514	2.1	24555	100	
아시아	남학생	3403	29.0	6634	56.5	1337	11.4	377	3.2	11751	100	165.486***
	여학생	3381	29.4	7031	61.1	939	8.2	161	1.4	11512	100	
	전체	6784	29.2	13665	58.7	2276	9.8	538	2.3	23263	100	

○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가져야만 한다.

이들은 성별에 따라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질문도 다수가 긍정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들은 46.0%는 매우 동의함, 41.3%는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87.3%가 학생회의 필요성에 긍정하고 있었다. 특히 성별에 따라 여학생은 47.5%가 매우 동의, 42.2%는 동의를 보여 남학생(매우 동의:44.4%, 동의:40.3%) 보다 학생회와 같은 특정 조직을 통한 학생들의 의견 개진의 필요성에 상당히 동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유럽 및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학생들에게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III-1-91 성별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4)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14287	44.4	12961	40.3	3637	11.3	1263	3.9	32148	100	444.517***
	여학생	15698	47.5	13957	42.2	2805	8.5	588	1.8	33048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유럽	전체	29985	46.0	26918	41.3	6442	9.9	1851	2.8	65196	100	128.429***
	남학생	3426	38.9	3653	41.5	1290	14.6	444	5.0	8813	100	
	여학생	3304	38.7	3932	46.1	1115	13.1	184	2.2	8535	100	
	전체	6730	38.8	7585	43.7	2405	13.9	628	3.6	17348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6578	56.9	4034	34.9	626	5.4	330	2.9	11568	100	90.978***
	여학생	7726	59.4	4587	35.3	460	3.5	223	1.7	12996	100	
	전체	14304	58.2	8621	35.1	1086	4.4	553	2.3	24564	100	
	전체	14304	58.2	8621	35.1	1086	4.4	553	2.3	24564	100	
아 시 아	남학생	4283	36.4	5274	44.8	1721	14.6	489	4.2	11767	100	239.697***
	여학생	4668	40.5	5438	47.2	1230	10.7	181	1.6	11517	100	
	전체	8951	38.4	10712	46.0	2951	12.7	670	2.9	23284	100	
	전체	8951	38.4	10712	46.0	2951	12.7	670	2.9	23284	100	

○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학생들은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 남학생보다 강하게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여학생은 공동의 활동을 통해 학교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학생은 전체적으로 90%가 넘는 비율이 함께 행동의 가치를 긍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등 모든 대륙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표 III-1-92 성별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5)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11932	37.2	15695	48.9	3263	10.2	1209	3.8	32099	100	341.146***
	여학생	13246	40.1	16526	50.1	2605	7.9	620	1.9	32997	100	
	전체	25178	38.7	32221	49.5	5868	9.0	1829	2.8	65096	100	
	전체	25178	38.7	32221	49.5	5868	9.0	1829	2.8	65096	100	
유 럽	남학생	2815	32.0	4648	52.9	986	11.2	342	3.9	8791	100	200.437***
	여학생	2933	34.4	4839	56.8	636	7.5	107	1.3	8515	100	
	전체	5748	33.2	9487	54.8	1622	9.4	449	2.6	17306	100	
	전체	5748	33.2	9487	54.8	1622	9.4	449	2.6	17306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5159	44.6	4957	42.9	996	8.6	443	3.8	11555	100	124.321***
	여학생	6412	49.4	5463	42.1	777	6.0	323	2.5	12975	100	
	전체	11571	47.2	10420	42.5	1773	7.2	766	3.1	24530	100	
아 시 아	남학생	3958	33.7	6090	51.8	1281	10.9	424	3.6	11753	100	91.662***
	여학생	3901	33.9	6224	54.1	1192	10.4	190	1.7	11507	100	
	전체	7859	33.8	12314	52.9	2473	10.6	614	2.6	23260	100	

(2) 성별에 따른 민주 시민의식 역량의 차이분석

다음으로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과 올바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먼저 전 세계 청소년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견에 97%이상의 대부분 학생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동의 69.1%, 동의 28.6%). 이 중 특히 여학생들은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남학생보다 높아 강도 높게 자유로운 의견표현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뿐 아니라 아시아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III-1-93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21662	66.7	9816	30.2	756	2.3	255	0.8	32489	100	290.339***
	여학생	23883	71.5	9011	27.0	435	1.3	94	0.3	33423	100	
	전체	45545	69.1	18827	28.6	1191	1.8	349	0.5	65912	100	
유럽	남학생	6155	69.3	2477	27.9	181	2.0	65	0.7	8878	100	68.797***
	여학생	6275	73.2	2189	25.5	89	1.0	20	0.2	8573	100	
	전체	12430	71.2	4666	26.7	270	1.5	85	0.5	17451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8840	74.8	2703	22.9	191	1.6	88	0.7	11822	100	141.140***
	여학생	10617	79.7	2553	19.2	104	0.8	49	0.4	13323	100	
	전체	19457	77.4	5256	20.9	295	1.2	137	0.5	25145	100	
아시아	남학생	6667	56.6	4636	39.3	384	3.3	102	0.9	11789	100	98.775***
	여학생	6991	60.6	4269	37.0	242	2.1	25	0.2	11527	100	
	전체	13658	58.6	8905	38.2	626	2.7	127	0.5	23316	100	

○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세계청소년들은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23.8%가 매우 동의함, 41.0%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63.8%가 정치지도자의 혈연이 정부에서 일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이 정치지도자에게 좀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은 25.6%로 여학생의 2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럽,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표 III-1-94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2)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8232	25.6	12889	40.1	8433	26.3	2567	8.0	32121	100	221.757***
	여학생	7265	22.1	13757	41.9	9731	29.6	2092	6.4	32845	100	
	전체	15497	23.9	26646	41.0	18164	28.0	4659	7.2	64966	100	
유 럽	남학생	2349	26.7	3654	41.5	2116	24.0	692	7.9	8811	100	124.908***
	여학생	1860	22.0	4004	47.3	2170	25.6	436	5.1	8470	100	
	전체	4209	24.4	7658	44.3	4286	24.8	1128	6.5	17281	100	
라 틴 아 메 리 카	남학생	2636	22.8	4383	37.9	3308	28.6	1229	10.6	11556	100	103.844***
	여학생	2432	18.9	4895	38.0	4341	33.7	1219	9.5	12887	100	
	전체	5068	20.7	9278	38.0	7649	31.3	2448	10.0	24443	100	
아 시 아	남학생	3247	27.6	4852	41.3	3009	25.6	646	5.5	11754	100	56.518***
	여학생	2973	25.9	4858	42.3	3220	28.0	437	3.8	11488	100	
	전체	6220	26.8	9710	41.8	6229	26.8	1083	4.7	23242	100	

○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 등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의 응답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27.5%가 매우 동의함, 39.9%가 동의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67.4%가 긍정적인 반응으로 기업과 정부의 언론소유에 부정하고 있었다. 성별 특성에 따르면, 남학생은 정부나 기업의 언론소유 부정을 강하게 긍정하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는데, 유럽은 33.7%, 라틴아메리카는 30.8%, 아시아 남학생들은 28.0%로 각 대륙의 여학생(유

럽:21.3%, 라틴:25.7%, 아시아:21.3%)보다 언론과 정부 혹은 기업의 연계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95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3)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9802	30.6	12413	38.7	7268	22.7	2584	8.1	32067	100	414.495***
	여학생	8081	24.6	13507	41.1	9007	27.4	2232	6.8	32827	100	
	전체	17883	27.6	25920	39.9	16275	25.1	4816	7.4	64894	100	
유럽	남학생	2968	33.7	3726	42.3	1603	18.2	508	5.8	8805	100	145.375***
	여학생	2332	27.5	4136	48.8	1710	20.2	306	3.6	8484	100	
	전체	5300	30.7	7862	45.5	3313	19.2	814	4.7	17289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3550	30.8	3837	33.3	2801	24.3	1329	11.5	11517	100	134.204***
	여학생	3309	25.7	4675	36.3	3658	28.4	1227	9.5	12869	100	
	전체	6859	28.1	8512	34.9	6459	26.5	2556	10.5	24386	100	
아시아	남학생	3284	28.0	4850	41.3	2864	24.4	747	6.4	11745	100	217.753***
	여학생	2440	21.3	4696	40.9	3639	31.7	699	6.1	11474	100	
	전체	5724	24.7	9546	41.1	6503	28.0	1446	6.2	23219	100	

○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을 통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

세계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을 통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남학생은 23.5%가 매우 동의, 32.8%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여 여학생의 17.0%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강도 높은 경찰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 모든 대륙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라틴계 국가 남학생(29.4%)의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라틴계 여학생(21.9%)들의 반응보다 월등히 높아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II-1-96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4)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7536	23.5	10529	32.8	9241	28.8	4750	14.8	32056	100	618.648***
	여학생	5568	17.0	10773	32.8	11871	36.2	4619	14.1	32831	100	
	전체	13104	20.2	21302	32.8	21112	32.5	9369	14.4	64887	100	
유 럽	남학생	2177	24.7	3266	37.0	2277	25.8	1098	12.5	8818	100	195.653***
	여학생	1487	17.5	3490	41.0	2676	31.5	849	10.0	8502	100	
	전체	3664	21.2	6756	39.0	4953	28.6	1947	11.2	17320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3373	29.4	3572	31.1	2996	26.1	1539	13.4	11480	100	224.096***
	여학생	2806	21.9	4005	31.2	4177	32.6	1842	14.4	12830	100	
	전체	6179	25.4	7577	31.2	7173	29.5	3381	13.9	24310	100	
아 시 아	남학생	1986	16.9	3691	31.4	3968	33.7	2113	18.0	11758	100	307.810***
	여학생	1275	11.1	3278	28.5	5018	43.6	1928	16.8	11499	100	
	전체	3261	14.0	6969	30.0	8986	38.6	4041	17.4	23257	100	

○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들은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상당한 긍정을 표하고 있었는데, 세계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61.3%가 매우 동의함, 34.3%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94.6%가 긍정하고 있어 모든 사람의 권리 존중은 민주시민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전체적으로 여학생의 64.4%가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남학생들은 58.2%가 매우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각 대륙별 성별에 차이분석 결과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였는데, 유럽은 여학생이 59.7%, 남학생이 53.4%의 매우 동의하는 응답을 보였으며, 라틴국가에서는 여학생 72.3%, 남학생 65.6%, 아시아는 여학생이 58.9%, 남학생이 54.6%로 성별에 따라 최소 5%이상의 응답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1-97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5)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18672	58.2	11490	35.8	1388	4.3	534	1.7	32084	100	529.058***
	여학생	21191	64.4	10821	32.9	692	2.1	223	0.7	32927	100	
	전체	39863	61.3	22311	34.3	2080	3.2	757	1.2	65011	100	
유럽	남학생	4711	53.4	3529	40.0	418	4.7	162	1.8	8820	100	198.352***
	여학생	5092	59.7	3213	37.7	183	2.1	35	0.4	8523	100	
	전체	9803	56.5	6742	38.9	601	3.5	197	1.1	17343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7552	65.6	3242	28.1	503	4.4	223	1.9	11520	100	189.806***
	여학생	9325	72.3	3159	24.5	292	2.3	130	1.0	12906	100	
	전체	16877	69.1	6401	26.2	795	3.3	353	1.4	24426	100	
아시아	남학생	6409	54.6	4719	40.2	467	4.0	149	1.3	11744	100	146.849***
	여학생	6774	58.9	4449	38.7	217	1.9	58	0.5	11498	100	
	전체	13183	56.7	9168	39.4	684	2.9	207	0.9	23242	100	

○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바른 사회의 모습 중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에 전 세계 청소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정부 공개 비판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33.7%가 매우 동의함, 44.3%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78.0%가 공개적인 정부 비판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 의하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강도 높게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남학생의 39.0%가 매우 동의한다는 보인 반면, 여학생은 28.6%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남학생보다 10%이상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 모든 대륙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III-1-98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6)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12478	39.0	13673	42.7	4730	14.8	1137	3.6	32018	100	1045.201***
	여학생	9380	28.6	15083	46.0	7288	22.2	1067	3.3	32818	100	
	전체	21858	33.7	28756	44.4	12018	18.5	2204	3.4	64836	100	
유 럽	남학생	3520	39.9	3868	43.9	1186	13.5	238	2.7	8812	100	473.007***
	여학생	2195	25.9	4346	51.2	1794	21.1	150	1.8	8485	100	
	전체	5715	33.0	8214	47.5	2980	17.2	388	2.2	17297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4713	41.1	4295	37.5	1875	16.4	582	5.1	11465	100	484.007***
	여학생	3925	30.6	4789	37.3	3416	26.6	710	5.5	12840	100	
	전체	8638	35.5	9084	37.4	5291	21.8	1292	5.3	24305	100	
아 시 아	남학생	4245	36.2	5510	46.9	1669	14.2	317	2.7	11741	100	211.133***
	여학생	3260	28.4	5948	51.8	2078	18.1	207	1.8	11493	100	
	전체	7505	32.3	11458	49.3	3747	16.1	524	2.3	23234	100	

○ 안전요원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안전요원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해야 한다는 설문내용에는 전체적으로 73.5%의 청소년들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여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평균 28.2%가 매우 동의함, 45.3%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에 따르면, 남학생은 매우 동의함이라는 응답을 여학생보다 많이 하였으며, 여학생은 동의한다는 의견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표 III-1-99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7)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9450	29.5	13725	42.8	5641	17.6	3219	10.0	32035	100	301.521***
	여학생	8860	27.0	15643	47.7	5997	18.3	2294	7.0	32794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8310	28.2	29368	45.3	11638	18.0	5513	8.5	64829	100	
유럽	남학생	2015	22.8	3583	40.6	1801	20.4	1421	16.1	8820	100	211.912***
	여학생	1679	19.8	4114	48.4	1868	22.0	840	9.9	8501	100	
	전체	3694	21.3	7697	44.4	3669	21.2	2261	13.1	17321	100	
라틴 아메리카	남학생	4263	37.2	4284	37.4	1829	16.0	1089	9.5	11465	100	41.441***
	여학생	4405	34.4	5150	40.2	2243	17.5	1001	7.8	12799	100	
	전체	8668	35.7	9434	38.9	4072	16.8	2090	8.6	24264	100	
아시아	남학생	3172	27.0	5858	49.9	2011	17.1	709	6.0	11750	100	106.149***
	여학생	2776	24.2	6379	55.5	1886	16.4	453	3.9	11494	100	
	전체	5948	25.6	12237	52.6	3897	16.8	1162	5.0	23244	100	

○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투표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 확인을 위해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의 응답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설문에 평균 63.7%가 매우 동의함, 32.6%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96.3%가 동의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통해 투표의 자유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갖추어져야 할 필수요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비율적으로 여학생의 매우 동의한다는 반응이 약간 높았는데, 유럽에서는 남학생이,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여학생이 상대 그룹에 비하여 투표 자유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1-100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8)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20424	63.2	10384	32.2	1111	3.4	374	1.2	32293	100	153.302***
	여학생	21333	64.3	10932	32.9	749	2.3	188	0.6	33202	100	
	전체	41757	63.8	21316	32.5	1860	2.8	562	0.9	65495	100	
유럽	남학생	5155	58.3	3294	37.2	282	3.2	117	1.3	8848	100	53.123***
	여학생	4834	56.6	3444	40.3	222	2.6	40	0.5	8540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9989	57.4	6738	38.8	504	2.9	157	0.9	17388	100	
라틴 아메리카	남학생	8353	71.4	2887	24.7	329	2.8	127	1.1	11696	100	41.153***
	여학생	9518	72.3	3325	25.2	246	1.9	82	0.6	13171	100	
	전체	17871	71.9	6212	25.0	575	2.3	209	0.8	24867	100	
아시아	남학생	6916	58.9	4203	35.8	500	4.3	130	1.1	11749	100	79.949***
	여학생	6981	60.8	4163	36.2	281	2.4	66	0.6	11491	100	
	전체	13897	59.8	8366	36.0	781	3.4	196	0.8	23240	100	

○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법에 대한 국민권한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자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문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세계 청소년들은 설문에 평균 45.6%가 매우 동의함, 44.6%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전체 90.2%가 동의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성별에 따라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은 남녀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그 강도에 있어서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은 남학생이, 동의한다는 의견에는 여학생의 응답이 높았다. 각 대륙별 차이분석에 따르면, 유럽의 남학생은 49.6%, 여학생은 44.4%가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여 약 5.2%의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3.0%, 아시아에서는 6.1%의 응답차이로 남학생의 동의 정도가 높았다.

표 III-1-101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9)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15423	48.0	13552	42.1	2470	7.7	708	2.2	32153	100	206.594***
	여학생	14340	43.4	15535	47.0	2665	8.1	498	1.5	33038	100	
	전체	29763	45.7	29087	44.6	5135	7.9	1206	1.8	65191	100	
유럽	남학생	4389	49.6	3824	43.2	492	5.6	149	1.7	8854	100	123.576***
	여학생	3794	44.4	4321	50.6	369	4.3	60	0.7	8544	100	
	전체	8183	47.0	8145	46.8	861	4.9	209	1.2	17398	100	
라틴	남학생	5810	50.2	4616	39.9	883	7.6	257	2.2	11566	100	36.089***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메리카	여학생	6137	47.2	5637	43.3	1004	7.7	227	1.7	13005	100	
	전체	11947	48.6	10253	41.7	1887	7.7	484	2.0	24571	100	
아시아	남학생	5224	44.5	5112	43.6	1095	9.3	302	2.6	11733	100	119.032***
	여학생	4409	38.4	5577	48.5	1292	11.2	211	1.8	11489	100	
	전체	9633	41.5	10689	46.0	2387	10.3	513	2.2	23222	100	

○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세계 청소년들은 항의 방법으로 비폭력적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즉,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평균 53.1%가 매우 동의함, 37.0%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전체 90.1%가 동의함으로 항의의 표현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여학생(56.2%)이 남학생(50.0%)에 비하여 비폭력적인 항의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대륙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였다. 각 대륙별 차이분석에 따르면, 유럽의 남학생은 44.2%, 여학생은 53.5%가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여 약 9.3%의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4.4%, 아시아에서는 5.5%의 응답차이로 여학생의 동의 정도가 높았다.

표 III-1-102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0)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16041	50.0	11928	37.2	2748	8.6	1339	4.2	32056	100	671.951***
	여학생	18491	56.2	12119	36.8	1570	4.8	720	2.2	32900	100	
	전체	34532	53.2	24047	37.0	4318	6.6	2059	3.2	64956	100	
유럽	남학생	3905	44.2	3596	40.7	893	10.1	439	5.0	8833	100	431.817***
	여학생	4580	53.5	3470	40.6	370	4.3	133	1.6	8553	100	
	전체	8485	48.8	7066	40.6	1263	7.3	572	3.3	17386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5972	51.9	3945	34.3	1026	8.9	554	4.8	11497	100	158.734***
	여학생	7262	56.3	4507	34.9	733	5.7	395	3.1	12897	100	
	전체	13234	54.3	8452	34.6	1759	7.2	949	3.9	24394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시아	남학생	6164	52.6	4387	37.4	829	7.1	346	3.0	11726	100	107.329***
	여학생	6649	58.1	4142	36.2	467	4.1	192	1.7	11450	100	
	전체	12813	55.3	8529	36.8	1296	5.6	538	2.3	23176	100	

○ 빈부간의 소득 격차는 적어야 한다.

이들은 역시나 빈부 격차에도 상당 수준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빈부간의 소득격차는 적어야 한다."는 질문에 78.4%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평균 39.4%가 매우 동의함, 39.0%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세계 청소년들은 빈부 격차가 적을수록 민주주의에서 문제가 적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여학생은 40.7%가 매우 동의한다는 반응을 남학생은 38.2%가 매우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여 여학생의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남학생보다 강력했으며,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청소년들 역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유럽 청소년들의 남녀 간의 의식 차이가 가장 컸으며(4.7%), 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대한 차이가 0.5% 차이에 불과하였다.

표 III-1-103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II)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12198	38.2	12635	39.5	5062	15.8	2076	6.5	31971	100	106.183***
	여학생	13350	40.7	12610	38.5	5207	15.9	1599	4.9	32766	100	
	전체	25548	39.5	25245	39.0	10269	15.9	3675	5.7	64737	100	
유럽	남학생	3158	35.8	3649	41.4	1410	16.0	596	6.8	8813	100	213.912***
	여학생	3439	40.5	3753	44.3	1052	12.4	237	2.8	8481	100	
	전체	6597	38.1	7402	42.8	2462	14.2	833	4.8	17294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4728	41.3	3916	34.2	1936	16.9	859	7.5	11439	100	33.972***
	여학생	5642	44.0	4059	31.6	2296	17.9	837	6.5	12834	100	
	전체	10370	42.7	7975	32.9	4232	17.4	1696	7.0	24273	100	
아시아	남학생	4312	36.8	5070	43.3	1716	14.6	621	5.3	11719	100	18.377***
	여학생	4269	37.3	4798	41.9	1859	16.2	525	4.6	11451	100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	전체	8581	37.0	9868	42.6	3575	15.4	1146	4.9	23170	100	

○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세계 청소년들은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도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평균 27.9%가 매우 동의함, 49.8%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77.7%가 극한 상황에서의 국가의 언론 통제력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 비율이 높았으며, 동의한다는 의견에는 오히려 여학생의 의견이 높았다.

표 III-1-104 성별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2) 차이분석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동의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9248	28.9	14912	46.6	5366	16.8	2465	7.7	31991	100	426.880***
	여학생	8840	26.9	17366	52.9	5112	15.6	1499	4.6	32817	100	
	전체	18088	27.9	32278	49.8	10478	16.2	3964	6.1	64808	100	
유럽	남학생	1974	22.4	4546	51.6	1655	18.8	629	7.1	8804	100	203.990***
	여학생	1644	19.4	5087	60.0	1469	17.3	275	3.2	8475	100	
	전체	3618	20.9	9633	55.7	3124	18.1	904	5.2	17279	100	
라틴 아메리카	남학생	4086	35.7	4719	41.2	1772	15.5	883	7.7	11460	100	90.621***
	여학생	4412	34.3	5924	46.0	1832	14.2	698	5.4	12866	100	
	전체	8498	34.9	10643	43.8	3604	14.8	1581	6.5	24326	100	
아시아	남학생	3188	27.2	5647	48.2	1939	16.5	953	8.1	11727	100	194.050***
	여학생	2784	24.3	6355	55.4	1811	15.8	526	4.6	11476	100	
	전체	5972	25.7	12002	51.7	3750	16.2	1479	6.4	23203	100	

나.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

다음으로 세계의 청소년들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선호하는지 그 유형을 확인해 보고자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을 확인해 보았다. 즉 각 대륙별 성별에 따라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선거 참여, 정당단체 가입, 역사학습, 미디어의 정치이슈 주시,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정치토론 참여,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인권 증진 운동 참여 등 다양한 기초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확인하였다. 각 대륙의 성별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선거 참여

전반적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상당히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매우중요:51.0%, 중요:33.6%). 특히 성별 차이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이러한 응답 강도는 남학생보다 아주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유럽의 경우 오히려 학생의 선거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럽 여학생보다 높아 아시아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표 III-1-105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모든 선거 참여)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16417	50.9	10746	33.3	3979	12.3	1099	3.4	32241	100	118.299***
	여학생	16913	51.2	11166	33.8	4295	13.0	676	2.0	33050	100	
	전체	33330	51.0	21912	33.6	8274	12.7	1775	2.7	65291	100	
유럽	남학생	2796	31.6	4024	45.4	1585	17.9	456	5.1	8861	100	145.568***
	여학생	2284	26.7	4376	51.1	1680	19.6	221	2.6	8561	100	
	전체	5080	29.2	8400	48.2	3265	18.7	677	3.9	17422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6999	60.4	2756	23.8	1404	12.1	437	3.8	11596	100	29.102***
	여학생	7794	60.1	3052	23.5	1767	13.6	362	2.8	12975	100	
	전체	14793	60.2	5808	23.6	3171	12.9	799	3.3	24571	100	
아 시	남학생	6622	56.2	3966	33.7	990	8.4	206	1.7	11784	100	60.674***
	여학생	6835	59.4	3738	32.5	848	7.4	93	0.8	11514	100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	전체	13457	57.8	7704	33.1	1838	7.9	299	1.3	23298	100	

○ 정당단체 가입

정당단체 가입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행동인지에 대한 의견에는 크게 높지 않은 응답결과가 나왔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12.2%, 중요하다는 의견이 27.0%로 세계 청소년의 총 39.2%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성별 차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이 12.9%, 여학생은 11.5%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여 남학생의 의견이 약간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행동요구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남학생의 중요인식 정도는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두 성별 모두 5.7%, 3.8% 등 매우 낮은 필요성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표 III-1-106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정당단체 가입)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4124	12.9	8846	27.6	15083	47.1	3962	12.4	32015	100	174.807***
	여학생	3778	11.5	8667	26.4	17024	51.9	3354	10.2	32823	100	
	전체	7902	12.2	17513	27.0	32107	49.5	7316	11.3	64838	100	
유럽	남학생	517	5.8	2042	23.1	4627	52.3	1655	18.7	8841	100	98.198***
	여학생	322	3.8	1836	21.5	5028	58.9	1352	15.8	8538	100	
	전체	839	4.8	3878	22.3	9655	55.6	3007	17.3	17379	100	
라틴 아메리카	남학생	2297	20.1	2652	23.2	5156	45.2	1313	11.5	11418	100	103.453***
	여학생	2460	19.2	2471	19.3	6566	51.3	1300	10.2	12797	100	
	전체	4757	19.6	5123	21.2	11722	48.4	2613	10.8	24215	100	
아시아	남학생	1310	11.1	4152	35.3	5300	45.1	994	8.5	11756	100	96.610***
	여학생	996	8.7	4360	38.0	5430	47.3	702	6.1	11488	100	
	전체	2306	9.9	8512	36.6	10730	46.2	1696	7.3	23244	100	

○ 역사학습

다음으로 역사학습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크게 동의하고 있었는데, 특히,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41.6%, 중요하다는 의견이 39.2%로 전체적으로 80.8%가 역사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역사학습의 중요성 인식에 차이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역사학습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과 아시아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유럽국가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역사학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에 비해 아시아 국가에서는 전체 경향과 동일한 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통해 대륙에 따라 역사학습의 중요성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표 III-1-107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역사학습)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13190	41.4	12218	38.3	5086	15.9	1395	4.4	31889	100	129.636***
	여학생	13699	41.9	13079	40.0	4995	15.3	915	2.8	32688	100	
	전체	26889	41.6	25297	39.2	10081	15.6	2310	3.6	64577	100	
유럽	남학생	2380	27.0	3488	39.5	2246	25.5	710	8.0	8824	100	41.847***
	여학생	2128	24.9	3529	41.3	2361	27.7	520	6.1	8538	100	
	전체	4508	26.0	7017	40.4	4607	26.5	1230	7.1	17362	100	
라틴 아메리카	남학생	5865	51.8	3912	34.6	1244	11.0	300	2.6	11321	100	39.779***
	여학생	6553	51.7	4631	36.5	1281	10.1	208	1.6	12673	100	
	전체	12418	51.8	8543	35.6	2525	10.5	508	2.1	23994	100	
아시아	남학생	4945	42.1	4818	41.0	1596	13.6	385	3.3	11744	100	87.086***
	여학생	5018	43.7	4919	42.9	1353	11.8	187	1.6	11477	100	
	전체	9963	42.9	9737	41.9	2949	12.7	572	2.5	23221	100	

○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정치이슈 주시

또한 청소년들은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미디어를 통한 정치이슈 주시가 과연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다소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인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평균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정치이슈 주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에 32.7%, 중요하다

는 의견이 43.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76.1%가 정치이슈 주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여학생들은 정치이슈의 주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럽국가나 아시아의 청소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Ⅲ-1-108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미디어 정치이슈 주시)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9925	31.0	13998	43.7	6520	20.4	1588	5.0	32031	100	229.979***
	여학생	11275	34.3	14163	43.1	6423	19.6	965	2.9	32826	100	
	전체	21200	32.7	28161	43.4	12943	20.0	2553	3.9	64857	100	
유 럽	남학생	1928	21.8	4137	46.8	2189	24.7	593	6.7	8847	100	129.179***
	여학생	2084	24.4	4283	50.1	1885	22.1	291	3.4	8543	100	
	전체	4012	23.1	8420	48.4	4074	23.4	884	5.1	17390	100	
라 틴 아 메 리 카	남학생	3873	33.9	4075	35.7	2799	24.5	673	5.9	11420	100	62.537***
	여학생	4442	34.7	4356	34.1	3473	27.1	521	4.1	12792	100	
	전체	8315	34.3	8431	34.8	6272	25.9	1194	4.9	24212	100	
아 시 아	남학생	4124	35.1	5786	49.2	1532	13.0	322	2.7	11764	100	191.020***
	여학생	4749	41.3	5524	48.1	1065	9.3	153	1.3	11491	100	
	전체	8873	38.2	11310	48.6	2597	11.2	475	2.0	23255	100	

○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견에 여학생의 동의정도는 남학생보다 높았다. 특히, 전체 학생의 차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은 매우 동의하다는 의견에 35.0%가, 동의한다는 의견에는 45.3%가 동의하고 있어 남학생의 31.4%, 42.9%보다 높은 수준의 동의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III-1-109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정부에 대한 존경심)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10050	31.4	13761	42.9	6204	19.4	2027	6.3	32042	100	445.292***
	여학생	11490	35.0	14850	45.3	5346	16.3	1118	3.4	32804	100	
	전체	21540	33.2	28611	44.1	11550	17.8	3145	4.8	64846	100	
유럽	남학생	1957	22.1	4058	45.9	2015	22.8	813	9.2	8843	100	203.910***
	여학생	2100	24.6	4417	51.7	1628	19.1	391	4.6	8536	100	
	전체	4057	23.3	8475	48.8	3643	21.0	1204	6.9	17379	100	
라틴 아메리카	남학생	4873	42.6	4458	39.0	1630	14.3	476	4.2	11437	100	107.585***
	여학생	6019	47.1	4925	38.5	1526	11.9	311	2.4	12781	100	
	전체	10892	45.0	9383	38.7	3156	13.0	787	3.2	24218	100	
아시아	남학생	3220	27.4	5245	44.6	2559	21.8	738	6.3	11762	100	124.854***
	여학생	3371	29.3	5508	47.9	2192	19.1	416	3.6	11487	100	
	전체	6591	28.3	10753	46.3	4751	20.4	1154	5.0	23249	100	

○ 정치토론 참여

다음으로 정치토론 참여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가에 대한 의견에서는 과반수 이하의 청소년만이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매우 중요함: 13.8%, 중요함:33.1%). 성별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남학생의 정치토론 참여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데 찬성하는 비율 정도가 여학생 보다 높았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 청소년에게서 이러한 경향을 강하게 들어났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정치토론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는 남학생의 긍정의견이 강했으나, 약간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여학생의 의견이 높아 단순히 "중요성" 만을 비교하자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1-110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정치토론 참여)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남학생	4838	15.2	10634	33.3	12305	38.6	4128	12.9	31905	100	156.852***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북 아 메 리 카	여학생	4050	12.4	10728	32.8	13884	42.5	4035	12.3	32697	100	
	전체	8888	13.8	21362	33.1	26189	40.5	8163	12.6	64602	100	
아 시 아	남학생	894	10.1	2968	33.6	3868	43.8	1103	12.5	8833	100	65.778***
	여학생	724	8.5	2962	34.7	4049	47.5	798	9.4	8533	100	
	전체	1618	9.3	5930	34.1	7917	45.6	1901	10.9	17366	100	
라 틴 아 메 리 카	남학생	1901	16.8	2575	22.7	4684	41.4	2167	19.1	11327	100	166.267***
	여학생	1691	13.3	2322	18.3	6047	47.7	2629	20.7	12689	100	
	전체	3592	15.0	4897	20.4	10731	44.7	4796	20.0	24016	100	
아 시 아	남학생	2043	17.4	5091	43.3	3753	32.0	858	7.3	11745	100	96.756***
	여학생	1635	14.2	5444	47.4	3788	33.0	608	5.3	11475	100	
	전체	3678	15.8	10535	45.4	7541	32.5	1466	6.3	23220	100	

○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다음으로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중요한 행동인가를 물어보는 의견에 세계 청소년들은 70%에 가까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매우 중요함:30.9%, 중요함:37.5%). 성별에 따른 차이에 의하면 불공정 법에 대한 평화적 항의를 강하게 긍정하는 비율은 남학생이 높았지만, 약간 중요하다는 인식은 여학생의 응답이 다소 높았다. 즉, 중요하다는 전반적인 인식에서는 남녀 간의 뚜렷한 의견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중요성 인식의 강도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아시아의 성별차이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의 34.5%가 비폭력적 항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데 비하여 여학생은 30.4%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가 다른 대륙에 비하여 가장 컸다.

표 III-1-III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평화적 항의참여)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10165	31.9	11685	36.7	7255	22.8	2748	8.6	31853	100	92.147***
	여학생	9809	30.0	12510	38.3	7994	24.5	2345	7.2	32658	100	
	전체	19974	31.0	24195	37.5	15249	23.6	5093	7.9	64511	100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유럽	남학생	1984	22.5	3419	38.8	2474	28.1	929	10.5	8806	100	62.126***
	여학생	1793	21.1	3654	42.9	2412	28.3	651	7.6	8510	100	
	전체	3777	21.8	7073	40.8	4886	28.2	1580	9.1	17316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4131	36.6	3548	31.4	2574	22.8	1049	9.3	11302	100	8.645***
	여학생	4528	35.7	3997	31.5	3054	24.1	1091	8.6	12670	100	
	전체	8659	36.1	7545	31.5	5628	23.5	2140	8.9	23972	100	
아 시 아	남학생	4050	34.5	4718	40.2	2207	18.8	770	6.6	11745	100	82.991***
	여학생	3488	30.4	4859	42.3	2528	22.0	603	5.3	11478	100	
	전체	7538	32.5	9577	41.2	4735	20.4	1373	5.9	23223	100	

○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또한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가에 대한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86%의 청소년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는데(매우 중요함: 42.3%, 중요함:43.4%), 성별에 따라 여학생의 공동체에 유익한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 모든 대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III-1-112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지역공동체 유익 활동 참여)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12843	40.3	13936	43.7	3983	12.5	1142	3.6	31904	100	307.815***
	여학생	14513	44.4	14103	43.1	3526	10.8	575	1.8	32717	100	
	전체	27356	42.3	28039	43.4	7509	11.6	1717	2.7	64621	100	
유럽	남학생	2360	26.8	4421	50.2	1577	17.9	447	5.1	8805	100	120.992***
	여학생	2490	29.2	4524	53.1	1304	15.3	199	2.3	8517	100	
	전체	4850	28.0	8945	51.6	2881	16.6	646	3.7	17322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5636	49.7	4132	36.4	1193	10.5	389	3.4	11350	100	48.491***
	여학생	6623	52.1	4505	35.4	1317	10.4	265	2.1	12710	100	
	전체	12259	51.0	8637	35.9	2510	10.4	654	2.7	24060	100	
아	남학생	4847	41.3	5383	45.8	1213	10.3	306	2.6	11749	100	172.086***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시 아	여학생	5400	47.0	5074	44.2	905	7.9	111	1.0	11490	100	
	전체	10247	44.1	10457	45.0	2118	9.1	417	1.8	23239	100	

○ 인권 증진 운동 참여

또한 인권 증진 운동 참여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세계 청소년들은 86.8%가 긍정적 응답을 보여(매우 중요함: 45.2%, 중요함:41.6%),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인권과 관련된 활동이 좋은 시민의 요건과 연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차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의 인권 증진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 여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에 다른 국가 혹은 같은 국가의 남학생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13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권 증진 운동 참여)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13735	43.1	13199	41.4	3869	12.1	1095	3.4	31898	100	445.363***
	여학생	15500	47.4	13681	41.8	3085	9.4	467	1.4	32733	100	
	전체	29235	45.2	26880	41.6	6954	10.8	1562	2.4	64631	100	
유 럽	남학생	3027	34.4	3967	45.0	1400	15.9	418	4.7	8812	100	165.601***
	여학생	3301	38.8	3939	46.3	1125	13.2	148	1.7	8513	100	
	전체	6328	36.5	7906	45.6	2525	14.6	566	3.3	17325	100	
라 틴 아 메 리 카	남학생	5950	52.5	3981	35.1	1052	9.3	345	3.0	11328	100	138.898***
	여학생	7138	56.0	4590	36.0	814	6.4	198	1.6	12740	100	
	전체	13088	54.4	8571	35.6	1866	7.8	543	2.3	24068	100	
아 시 아	남학생	4758	40.5	5251	44.7	1417	12.1	332	2.8	11758	100	133.920***
	여학생	5061	44.1	5152	44.9	1146	10.0	121	1.1	11480	100	
	전체	9819	42.3	10403	44.8	2563	11.0	453	1.9	23238	100	

○ 환경보호 운동 참여

다음으로 세계의 청소년들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환경 보호운동 참여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환경보호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에 51.7%, 약간 중요하다는 의견에 38.0%가 긍정을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90%에 가까운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시민은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성별 차이분석에 따르면, 남녀 간의 응답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의 환경운동 참여 필요성은 남학생 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유럽(여학생:43.8%, 남학생:38.7%)과 아시아국가의 청소년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여학생:55.1%, 남학생:48.1%), 라틴아메리카의 청소년들은 남녀 학생간의 응답차이는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표 III-1-114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환경보호운동 참여)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15732	49.3	11962	37.5	3161	9.9	1041	3.3	31896	100	705.988***
	여학생	17734	54.1	12621	38.5	2043	6.2	353	1.1	32751	100	
	전체	33466	51.8	24583	38.0	5204	8.0	1394	2.2	64647	100	
유럽	남학생	3412	38.7	3695	41.9	1298	14.7	417	4.7	8822	100	233.472***
	여학생	3740	43.8	3754	44.0	910	10.7	127	1.5	8531	100	
	전체	7152	41.2	7449	42.9	2208	12.7	544	3.1	17353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6663	58.9	3574	31.6	775	6.8	309	2.7	11321	100	189.444***
	여학생	7661	60.2	4409	34.6	517	4.1	141	1.1	12728	100	
	전체	14324	59.6	7983	33.2	1292	5.4	450	1.9	24049	100	
아시아	남학생	5657	48.1	4693	39.9	1088	9.3	315	2.7	11753	100	304.248***
	여학생	6333	55.1	4458	38.8	616	5.4	85	0.7	11492	100	
	전체	11990	51.6	9151	39.4	1704	7.3	400	1.7	23245	100	

○ 열심히 일하기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가에 대한 의견에 세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즉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47.0%, 약간 중요하다는 의견은 38.7%로 전체 85.7%의 청소년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에 의하면, 남학생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성에 대하여 여학생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모든 대륙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1-115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열심히 일하기)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륙	남학생	15386	48.1	11983	37.5	3466	10.8	1147	3.6	31982	100	123.638***
	여학생	15039	45.9	13073	39.9	3861	11.8	803	2.4	32776	100	
	전체	30425	47.0	25056	38.7	7327	11.3	1950	3.0	64758	100	
유럽	남학생	4202	47.5	3485	39.4	853	9.6	303	3.4	8843	100	71.790***
	여학생	3876	45.3	3643	42.6	892	10.4	141	1.6	8552	100	
	전체	8078	46.4	7128	41.0	1745	10.0	444	2.6	17395	100	
라틴아메리카	남학생	5544	48.8	4143	36.4	1261	11.1	423	3.7	11371	100	61.831***
	여학생	5778	45.4	5045	39.6	1570	12.3	333	2.6	12726	100	
	전체	11322	47.0	9188	38.1	2831	11.7	756	3.1	24097	100	
아시아	남학생	5640	47.9	4355	37.0	1352	11.5	421	3.6	11768	100	14.958**
	여학생	5385	46.8	4385	38.1	1399	12.2	329	2.9	11498	100	
	전체	11025	47.4	8740	37.6	2751	11.8	750	3.2	23266	100	

○ 항상 법을 준수하기

마지막으로 항상 법을 준수하는 것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가에 대한 의견에 대다수의 세계 청소년들은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매우 중요하다:60.8%, 약간 중요하다: 31.1%). 성별 차이분석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의 법 준수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럽과 아시아의 청소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오히려 남학생의 법 준수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륙별 차이를 보였다.

표 III-1-116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항상 법을 준수하기) 차이분석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 륙	남학생	19102	59.7	9873	30.8	2094	6.5	952	3.0	32021	100	271.969***
	여학생	20383	62.1	10297	31.4	1718	5.2	433	1.3	32831	100	
	전체	39485	60.9	20170	31.1	3812	5.9	1385	2.1	64852	100	
유 럽	남학생	5413	61.2	2494	28.2	616	7.0	327	3.7	8850	100	199.575***
	여학생	5697	66.7	2408	28.2	329	3.9	109	1.3	8543	100	
	전체	11110	63.9	4902	28.2	945	5.4	436	2.5	17393	100	
라틴 아메 리카	남학생	6125	53.7	3928	34.5	949	8.3	397	3.5	11399	100	72.146***
	여학생	6571	51.4	4839	37.8	1120	8.8	262	2.0	12792	100	
	전체	12696	52.5	8767	36.2	2069	8.6	659	2.7	24191	100	
아 시 아	남학생	7564	64.3	3451	29.3	529	4.5	228	1.9	11772	100	220.588***
	여학생	8115	70.6	3050	26.5	269	2.3	62	0.5	11496	100	
	전체	15679	67.4	6501	27.9	798	3.4	290	1.2	23268	100	

(3) 소결

이들은 성별에 따라서도 민주시민에 대한 의식과 시민활동 참여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들은 학교 내의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에 있어 남학생보다 적극적이었고, 이러한 경향은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를 막론하고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하여 방과 후 드라마 음악 활동과 같은 다양한 참여활동에서부터 토론에 적극적 참여, 반장 등 임원 투표,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등의 영역에서의 참여가 높았다.

둘째, 또한 여학생들의 경우 학급에서의 토론에 대한 개방성 인식이 높았다. 특히 이들은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를 비롯한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 한다."는 의견에 남학생보다 높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습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는 의견을 보여, 자기주장 표명에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남학생은 학생 의견의 학교에서의 영향력, 즉, 본인의 의견이 학교 교수법, 수업내용, 교과서 및 학습자료, 수업시간표 등에 반영될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학급수칙"이나 "방과 후 활동" 과 같은 자신이 속해 있는 작은 조직에서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의 인식이 높았다. 즉, 남학생들은 가시적이며 큰 틀에서의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을 여학생은 작지만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영향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여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공정한 대우, 관계, 선생님의 학생복지에 대한 관심에 남학생보다 긍정적이었으며, 학교경영에의 학생참여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변화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조직, 학생회 등 혼자보다는 조직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남학생보다 적극적이었다.

다섯째, 민주시민 사회의 모습에 대해 여학생들은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의 존중, 비폭력적 항의 등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부분을 남학생보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은 정치지도자의 청렴, 언론의 독립, 경찰의 권한 등 보다 대외적인 요인을 민주시민 사회의 중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좋은 민주시민의 행동에 대하여 여학생들은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인권 증진 운동 참여, 환경보호 운동 참여, 항상 법을 준수하기 등의 요인을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 정치토론 참여와 정당단체 가입과 같은 공적인 행동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4) 국가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다음으로는 각 국가별 차이에 따라 민주시민 역량의 추정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각 자료를 통해 ICCS 자체적으로 재구성한 점수표를 기준으로 하였다.

(1) 민주시민 지식

민주시민 지식 점수는 80개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지에서 구한 것으로 김태준 외(2010)의 연구에서 활용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시민지식 점수는 문항반응 이론을 이용하여 개인별로 5개의 추정치(plausible values)가 계산되었다. 모두 평균은 500, 표준편차는 100으로 문항반응이론(Lord, 1980)으로 척도화 되어 있다. 5개의 추정치는 표현 그대로 그럴싸한(plausible) 값(자세한 사항은 Mislevy, Beaton, Kaplan, & Sheehan, 1992 참조)이므로 어떤 값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 알 수 없다. 따라서 5개 추정치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 민주시민 지식(1)

먼저 민주시민 지식의 첫 번째 결과에 의하면, 유럽의 민주시민 지식(1)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평균 520점을 보여 아시아(511.99점)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448.98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유럽국가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535.97점)과 이탈리아(531.89점)의 민주시민 지식은 가장 뛰어난 수준이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전반적으로 500점미만의 점수를 보였는데, 도미니카는 380.85점을 받아 본 연구에 사용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민주시민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아시아의 경우 국가별 민주시민 지식 점수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대만(561.68점)과 한국(565.19점)이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온 반면, 인도네시아(436.28점)와 태국(457.54점)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III-1-117 국가에 따른 민주시민 지식(1)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 륙	유럽	17685	520.17	93.48	3957.842	0.000
	라틴아메리카	25960	448.98	89.87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아시아	23654	511.99	100.99		
	전체	67299	489.83	100.27		
유럽	체코	4630	510.21	87.60	67.913	0.000
	이탈리아	3366	531.89	88.09		
	스페인	3309	507.39	86.64		
	스웨덴	3464	535.97	99.98		
	영국	2916	518.18	103.29		
	전체	17685	520.17	93.48		
라틴 아메 리카	칠레	5192	493.88	88.87	1314.202	0.000
	콜롬비아	6204	466.02	81.82		
	도미니카	4589	380.85	66.08		
	멕시코	6576	455.66	83.19		
	파라과이	3399	428.34	87.94		
	전체	25960	448.98	89.87		
아 시 아	대만	5167	561.68	94.06	2850.046	0.000
	홍콩	2902	558.14	94.92		
	인도네시아	5068	436.28	71.19		
	한국	5254	565.19	80.15		
	태국	5263	457.54	77.37		
	전체	23654	511.99	100.99		

○ 민주시민 지식(2)

다음으로 민주시민 지식(2)의 결과에 의하면, 유럽의 민주시민 지식(2) 수준이 가장 높았고,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순으로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유럽은 평균 520.39점을 보여 아시아(512.12점)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448.97점에 비하여 높은 지식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유럽국가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은 536.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탈리아, 영국, 체코, 스페인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었다. 반면 라틴국가에서는 칠레의 민주시민 지식(2)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도미니카의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경우 우리나라는 566.07점을 보여 아시아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민주시민 지식수준을 보였는데, 이 점수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스웨덴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1-118 국가에 따른 민주시민 지식(2)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륙	유럽	17685	520.39	93.09	3981.953	0.000
	라틴아메리카	25960	448.97	89.78		
	아시아	23654	512.12	101.27		
	전체	67299	489.93	100.27		
유럽	체코	4630	510.23	87.31	72.799	0.000
	이탈리아	3366	532.13	87.11		
	스페인	3309	506.93	86.38		
	스웨덴	3464	536.81	98.94		
	영국	2916	518.71	103.70		
	전체	17685	520.39	93.09		
라틴아메리카	칠레	5192	494.10	89.45	1311.992	0.000
	콜롬비아	6204	465.46	81.50		
	도미니카	4589	380.97	66.70		
	멕시코	6576	455.76	82.77		
	파라과이	3399	428.60	87.25		
	전체	25960	448.97	89.78		
아시아	대만	5167	562.04	93.04	2855.933	0.000
	홍콩	2902	557.27	95.84		
	인도네시아	5068	436.22	70.75		
	한국	5254	566.07	80.58		
	태국	5263	457.45	78.86		
	전체	23654	512.12	101.27		

○ 민주시민 지식(3)

또한 민주시민 지식(3)의 결과 역시 유럽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었다. 유럽은 평균 519.91점을 보여 아시아(512.24점)이나 라틴 아메리카(448.65점)에 비하여 높은 지식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유럽국가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536.42점)과 이탈리아(531.95점)의 점수가 높은 수준이었으며, 모든 국가는 500점 이상의 민주시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 라틴국가에서는 모두 500점미만의 평균 점수를 보였는데, 오직 칠레만 493.21점을 보여 500에 근접한 모습이었다. 또한 아시아의 경우 한국이 565.98점을 보여 아시아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민주시민 지식수준을 보였고, 대만과 홍콩 역시 높은 수준의 민주시민 지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19 국가에 따른 민주시민 지식(3)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륙	유럽	17685	519.91	93.08	4013.912	0.000
	라틴아메리카	25960	448.65	89.66		
	아시아	23654	512.24	100.90		
	전체	67299	489.73	100.12		
유럽	체코	4630	509.61	87.08	74.097	0.000
	이탈리아	3366	531.95	88.11		
	스페인	3309	506.54	85.87		
	스웨덴	3464	536.42	98.09		
	영국	2916	517.93	104.37		
	전체	17685	519.91	93.08		
라틴아메리카	칠레	5192	493.21	89.52	1322.876	0.000
	콜롬비아	6204	466.04	81.05		
	도미니카	4589	380.11	66.97		
	멕시코	6576	455.09	82.11		
	파라과이	3399	428.91	87.62		
	전체	25960	448.65	89.66		
아시아	대만	5167	561.19	93.12	2854.724	0.000
	홍콩	2902	558.60	95.22		
	인도네시아	5068	436.50	70.25		
	한국	5254	565.98	80.26		
	태국	5263	457.90	78.52		
	전체	23654	512.24	100.90		

○ 민주시민 지식(4)

다음으로 민주시민 지식(4)의 결과에서도 이전의 결과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유럽의 수준은 아시아 및 라틴 국가들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었다. 특히, 유럽 국가는 5개국 모두에서 500점 이상의 민주시민 지식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민주시민 지식을 보이는 특성이 나타난 반면, 모든 라틴국가 역시 500점미만의 점수를 보여, 유럽 및 몇몇 아시아 국가와 큰 차이를 보였다. 아시아의 경우 국가별 차이가 월등히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은 민주시민 지식(4)의 평균이 565.66점으로 아시아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민주시민 지식수준을 보였고, 대만(562.28점)과 홍콩(557.00점) 역시 높은 수준의 민주시민 지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400점미만의 낮은 수준의 민주시민 지식을 보이고 있었다.

표 Ⅲ-1-120 국가에 따른 민주시민 지식(4)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 륙	유럽	17685	520.28	93.46	3957.815	0.000
	라틴아메리카	25960	449.05	89.61		
	아시아	23654	511.99	101.20		
	전체	67299	489.89	100.25		
유 럽	체코	4630	510.45	87.35	68.408	0.000
	이탈리아	3366	531.83	88.48		
	스페인	3309	507.29	85.55		
	스웨덴	3464	536.29	99.61		
	영국	2916	518.26	104.59		
	전체	17685	520.28	93.46		
라 틴 아 메 리 카	칠레	5192	493.51	89.27	1312.183	0.000
	콜롬비아	6204	466.26	80.72		
	도미니카	4589	381.04	67.03		
	멕시코	6576	455.79	82.02		
	파라과이	3399	428.51	88.71		
	전체	25960	449.05	89.61		
아 시 아	대만	5167	562.28	93.51	2860.444	0.000
	홍콩	2902	557.00	95.52		
	인도네시아	5068	436.25	70.73		
	한국	5254	565.66	80.75		
	태국	5263	457.15	78.00		
	전체	23654	511.99	101.20		

○ 민주시민 지식(5)

마지막으로 민주시민 지식(5) 역시 이전의 결과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전체적으로 유럽의 민주시민 지식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유럽의 5개국 모두에서 500점 이상의 민주시민 지식을 가지고 있어 국가들 간의 비슷한 민주시민 지식을 보이는 특성을 보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모두 지식수준이 500점미만으로 다른 대륙과 비교하여 민주시민 지식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아시아는 국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한국은 민주시민 지식(5)의 평균이 565.91점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분석에 활용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민주시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표 III-1-121 국가에 따른 민주시민 지식(5)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륙	유럽	17685	520.19	93.26	3951.443	0.000
	라틴아메리카	25960	449.13	89.53		
	아시아	23654	512.01	101.18		
	전체	67299	489.91	100.14		
유럽	체코	4630	510.11	86.41	69.751	0.000
	이탈리아	3366	531.27	88.32		
	스페인	3309	507.43	87.14		
	스웨덴	3464	536.79	99.93		
	영국	2916	518.15	102.94		
	전체	17685	520.19	93.26		
라틴아메리카	칠레	5192	494.42	89.37	1325.01	0.000
	콜롬비아	6204	465.64	80.77		
	도미니카	4589	381.14	66.36		
	멕시코	6576	455.85	82.28		
	파라과이	3399	428.62	87.70		
	전체	25960	449.13	89.53		
아시아	대만	5167	561.40	93.48	2834.977	0.000
	홍콩	2902	557.49	94.83		
	인도네시아	5068	436.59	71.24		
	한국	5254	565.91	81.55		
	태국	5263	457.26	77.72		
	전체	23654	512.01	101.18		

(2) 민주시민 역량 형성의 교육적 특성

○ 학교에서의 시민활동 참여

학교에서의 시민활동 참여에 대한 국가별 차이분석 결과 각 대륙 및 나라에 따른 학교에서의 시민활동 참여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럽은 학교 내 시민 활동에 중간 정도의 활동을 보였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학교 내 시민활동에 대한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고, 아시아는 세 대륙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학교 내 시민 활동참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22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시민활동 참여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륙	유럽	17524	49.49	9.68	604.9254	0.000
	라틴아메리카	24845	51.97	9.42		
	아시아	23355	49.11	9.97		
	전체	65724	50.29	9.78		
유럽	체코	4605	47.73	9.53	176.078	0.000
	이탈리아	3349	47.30	9.02		
	스페인	3279	52.36	9.01		
	스웨덴	3410	50.64	9.63		
	영국	2881	50.24	10.27		
	전체	17524	49.49	9.68		
라틴아메리카	칠레	5143	51.90	8.63	185.4935	0.000
	콜롬비아	6035	52.97	8.81		
	도미니카	4031	52.79	10.15		
	멕시코	6452	49.49	9.85		
	파라과이	3184	54.19	8.87		
	전체	24845	51.97	9.42		
아시아	대만	5145	49.90	9.20	353.0082	0.000
	홍콩	2815	47.86	10.10		
	인도네시아	4953	52.36	8.57		
	한국	5235	45.43	11.10		
	태국	5207	49.62	9.39		
	전체	23355	49.11	9.97		

각 대륙별 차이분석에 의하면, 유럽의 경우, 스페인 청소년들의 학교 시민활동 참여가 높았으며, 이탈리아와 체코는 낮은 수준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틴 국가의 경우 파라과이의 학교 내에서의 시민 활동 참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콜롬비아와 도미니카 역시 많은 참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참여율 52.36점으로 가장 높은 참여점수가 나온 반면, 한국은 45.43점으로 학교에서의 시민 활동 참여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미비한 수준이었다.

○ 학교 토론에서의 개방성

학교토론에서의 개방성은 유럽이 가장 개방적인 반면, 아시아는 가장 폐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영국이, 라틴 국가에서는 칠레가,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홍콩에 학교토론에 개방적이었다. 반면, 한국은 학교 토론에서의 개방성에 38.09점을 보여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토론 개방성을 보였다.

표 III-1-123 국가에 따른 학교 토론에서의 개방성 참여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 륙	유럽	17518	50.88	9.57	150.2755	0.000
	라틴아메리카	24855	50.06	9.51		
	아시아	23364	49.11	11.49		
	전체	65737	49.94	10.29		
유 럽	체코	4601	48.86	8.28	284.231	0.000
	이탈리아	3355	54.27	8.94		
	스페인	3279	48.03	9.37		
	스웨덴	3405	51.15	9.78		
	영국	2878	53.06	10.39		
	전체	17518	50.88	9.57		
라 틴 아 메 리 카	칠레	5128	52.37	10.09	173.3089	0.000
	콜롬비아	6038	50.23	8.80		
	도미니카	4030	47.21	9.88		
	멕시코	6459	50.10	9.40		
	파라과이	3200	49.55	8.51		
	전체	24855	50.06	9.51		
아 시	대만	5143	50.44	10.07	2298.21	0.000
	홍콩	2816	53.08	10.47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아	인도네시아	4961	54.71	9.54		
	한국	5230	38.09	10.61		
	태국	5214	51.39	8.11		
	전체	23364	49.11	11.49		

○ 학교에서의 학생의견 영향력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의 학생 의견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견에 의하면, 유럽에서의 학생 영향력은 가장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라틴아메리카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의 경우 이탈리아(51.11점)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평균점수는 50점미만으로 전통을 중시하는 유럽에서 학교문화는 다소 보수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모든 나라에서 50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보여 학생 의견의 학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으며, 도미니카와 콜롬비아의 영향력 인식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나라별 응답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인도네시아의 학생의견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반면, 한국은 43.23 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표 III-1-124 국가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생의견 영향력에 대한 인식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 륙	유럽	17442	47.96	9.00	3358.633	0.000
	라틴아메리카	24818	55.48	8.14		
	아시아	23367	52.92	10.64		
	전체	65627	52.57	9.79		
유 럽	체코	4584	45.93	8.93	247.172	0.000
	이탈리아	3326	51.11	7.55		
	스페인	3268	47.81	10.18		
	스웨덴	3405	49.63	7.78		
	영국	2859	45.73	9.10		
	전체	17442	47.96	9.00		
라틴 아메 리카	칠레	5118	52.88	8.87	313.6435	0.000
	콜롬비아	6027	56.12	7.38		
	도미니카	4040	58.64	7.42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멕시코	6452	54.97	7.67		
	파라과이	3181	55.44	8.51		
	전체	24818	55.48	8.14		
아시아	대만	5132	51.89	8.03	2782.688	0.000
	홍콩	2811	51.60	8.37		
	인도네시아	4953	59.24	9.99		
	한국	5234	43.23	10.29		
	태국	5237	58.34	6.41		
	전체	23367	52.92	10.64		

○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대한 인식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대한 인식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의 교사학생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와 유럽 순으로 관계 친밀성이 낮아지고 있었다. 먼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50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신뢰적이고 친밀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인식의 평균점수는 45.86점으로 인도네시아의 54.09점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의 관계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표 III-1-125 국가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대한 인식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륙	유럽	17530	49.42	9.57	1366.501	0.000
	라틴아메리카	24876	54.08	10.41		
	아시아	23394	50.46	9.50		
	전체	65800	51.55	10.07		
유럽	체코	4616	47.12	8.68	141.832	0.000
	이탈리아	3340	51.24	9.45		
	스페인	3276	50.20	9.92		
	스웨덴	3416	51.03	10.01		
	영국	2882	48.22	9.25		
	전체	17530	49.42	9.57		
라틴	칠레	5132	51.13	10.32	343.5848	0.000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아메리카	콜롬비아	6042	53.78	10.08		
	도미니카	4054	58.46	10.48		
	멕시코	6433	53.03	10.03		
	파라과이	3215	55.92	9.65		
	전체	24876	54.08	10.41		
아시아	대만	5134	50.59	11.02	608.0409	0.000
	홍콩	2818	49.03	9.77		
	인도네시아	4962	54.09	7.82		
	한국	5238	45.86	8.60		
	태국	5242	52.25	7.94		
	전체	23394	50.46	9.50		

○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 가치에 대한 인식

또한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 가치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라틴 국가의 학생참여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시아와 유럽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히 유럽은 모든 국가에서 50점미만으로 학교 경영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큰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칠레의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 가치에 대한 인식은 56.44점으로 높았으며, 이는 다른 대륙의 나라들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태국학생들의 학교 경영에의 학생 참여인식이 높았으며, 한국은 45.65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표 III-1-126 국가에 따른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 인식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륙	유럽	17465	48.62	9.55	1753.299	0.000
	라틴아메리카	24826	53.78	10.04		
	아시아	23391	49.58	9.75		
	전체	65682	50.92	10.06		
유럽	체코	4595	46.80	8.87	93.265	0.000
	이탈리아	3332	49.20	9.10		
	스페인	3270	50.80	9.86		
	스웨덴	3401	48.95	9.99		
	영국	2867	48.01	9.60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라틴 아메 리카	전체	17465	48.62	9.55	238.1302	0.000
	칠레	5149	56.44	9.96		
	콜롬비아	6032	53.93	9.33		
	도미니카	4034	54.57	10.56		
	멕시코	6434	50.91	10.09		
	파라과이	3177	54.02	9.19		
	전체	24826	53.78	10.04	380.8253	0.000
아 시 아	대만	5142	50.72	10.64		
	홍콩	2816	47.79	9.41		
	인도네시아	4966	51.82	8.10		
	한국	5235	45.65	10.43		
	태국	5232	51.24	8.28		
	전체	23391	49.58	9.75		

(3) 민주시민 사회 역량

○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라틴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순으로 긍정적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유럽의 스페인, 아시아의 한국학생들의 사회의 올바른 모습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칠레 청소년들이 사회 모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표 III-1-127 국가에 따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 륙	유럽	17530	50.32	9.94	238.4709	0.000
	라틴아메리카	25292	51.38	10.03		
	아시아	23419	49.39	10.19		
	전체	66241	50.39	10.10		
유 럽	체코	4616	49.26	9.30	101.091	0.000
	이탈리아	3357	51.31	9.40		
	스페인	3281	52.44	9.78		
	스웨덴	3406	50.68	10.77		
	영국	2870	48.00	10.02		
	전체	17530	50.32	9.94		
라 틴 아 메 리 카	칠레	5167	54.10	9.67	168.8023	0.000
	콜롬비아	6124	51.18	9.68		
	도미니카	4260	49.23	9.90		
	멕시코	6490	50.42	10.19		
	파라과이	3251	52.17	10.07		
	전체	25292	51.38	10.03		
아 시 아	대만	5141	50.35	9.98	481.2557	0.000
	홍콩	2816	47.15	9.84		
	인도네시아	4997	48.27	9.27		
	한국	5239	53.90	10.85		
	태국	5226	46.20	8.94		
	전체	23419	49.39	10.19		

○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 인식

마지막으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 인식에 있어서는 유럽은 그 올바른 행동인식 능력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올바른 행동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별 차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학생들의 시민행동 인식력이 높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도미니카가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인식력이 높았다.

표 III-1-128 국가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 인식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대륙	유럽	17505	47.93	10.00	1910.866	0.000
	라틴아메리카	24656	52.85	10.21		
	아시아	23396	53.73	9.55		
	전체	65557	51.85	10.21		
유럽	체코	4603	43.97	9.18	669.061	0.000
	이탈리아	3353	54.38	8.40		
	스페인	3269	48.94	9.62		
	스웨덴	3404	45.70	10.09		
	영국	2876	48.27	9.25		
	전체	17505	47.93	10.00		
라틴아메리카	칠레	5147	51.00	9.95	123.4725	0.000
	콜롬비아	6003	51.98	9.24		
	도미니카	3942	55.09	10.56		
	멕시코	6419	53.98	10.81		
	파라과이	3145	52.44	9.92		
	전체	24656	52.85	10.21		
아시아	대만	5138	50.19	10.09	553.9056	0.000
	홍콩	2817	51.64	9.58		
	인도네시아	4961	55.73	7.81		
	한국	5237	52.54	9.25		
	태국	5243	57.65	8.93		
	전체	23396	53.73	9.55		

(4) 소결

각 대륙 및 국가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민주시민 지식 결과에 따르면, 유럽의 민주시민 지식수준은 세 대륙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다. 특히, 유럽국가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과 이탈리아의 민주시민 지식은 전반적으로 가장 뛰어난 수준이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전반적으로 500점미만의 낮은 점수를 보였고, 도미니카는 380.85점을 받아 연구에 사용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민주시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아시아의 경우 국가별 민주시민 지식 점수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과 대만이 상당히 높은 민주시민 지식 점수가 나온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지식수준은 매우 낮았다.

둘째, 학교에서의 시민활동 참여에 대한 국가별 차이분석 결과 각 대륙 및 나라에 따른 학교에서의 시민활동 참여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라틴아메리카 학생들의 학교 내 시민활동에 대한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고, 아시아는 세 대륙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학교 내 시민 활동참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의 학교 내 시민 활동 참여 수준은 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 참여국 전체 중 가장 미비한 수준이었다.

셋째, 학교 토론에의 개방성은 유럽이 가장 개방적인 반면, 아시아는 가장 폐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영국이, 라틴 국가에서는 칠레가,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홍콩에 학교토론에 개방적인 반면, 한국은 학교 토론에서의 개방성에서 38.09점을 보여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토론 개방성을 보였다.

5) 대륙별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계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내기 위하여 ICCS의 국제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HLM을 활용한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층모형은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서로 다른 분석수준의 정보(개인수준 변수, 조직수준 변수)를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각 수준의 분석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HLM(Hierarchical Linear Model)은 여러 단계의 수준으로 나누어진 다층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여러 수준의 자료를 선형회귀분석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다층분석은 선형모형(HLM)에서 가장 단순한 모형인 일원변량분석 모형(the one-way ANOVA model)을 통해서 학생수준과 학교수준 각각에서 발생하는 성취도 변량의 비율을 산출 및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종속변수의 전체 분산 중 국가 간 차이에 의한 분산 비율을 추정할 수 있었다.

분석은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형성에 대륙별, 아시아 국가별 학교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 HLM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개인수준의 변수로는 청소년의 성별, 기대 교육수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독서학습 능력, 청소년의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및 커뮤니티 등을 통한 시민활동을 활용하였으며, 학교수준의 변수로는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민주시민 활동, 학생의 영향력,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을 활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학생들의 민주시민 지식 정도와 어른이 되었을 때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륙 및 국가별로 학교구분이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분석과 실제 각 변수들을 투입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자세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은 청소년 개인차원 및 학교차원의 변량구성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일체의 독립변인을 추가하지 않고 단순히 종속변수와 학교구분만이 반영된 모델로서,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형성에 학교 급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단계 분석의 바탕이 된다.

Level 1

$$\text{종속변수(민주시민 역량)}_{ij} = \beta_{0j} + r_{ij}$$

Level 2

$$\beta_{0j} = \gamma_{00} + u_{0j}$$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은 본 연구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각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투입을 통해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분석이다. 연구모형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종속변수에 개인요인만을 투입하는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Unconditional slope model)에 대한 검증이다. 이 검증을 통하여 청소년의 개인요인과 민주시민 역량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begin{aligned} PV1CIV_{ij} = & \beta_{0j} + \beta_{1j}*(\text{성별}_{ij}) + \beta_{2j}*(\text{기대교육수준}_{ij}) + \beta_{3j}*(\text{어머니학력}_{ij}) \\ & + \beta_{4j}*(\text{아버지학력}_{ij}) + \beta_{5j}*(\text{부모의 정치사회관심}_{ij}) \\ & + \beta_{6j}*(\text{가정독서분위기}_{ij}) + \beta_{7j}*(\text{청소년의 사회경제에 대한 관심}_{ij}) \\ & + \beta_{8j}*(\text{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참여}_{ij}) + r_{ij} \end{aligned}$$

$$\beta_{0j} = \gamma_{00} + u_{0j}$$

.....

$$\beta_{8j} = \gamma_{80} + u_{8j}$$

마지막으로 연구모형 2단계에서 개인 및 학교수준 전체 변수를 투입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Level 1(개인수준)

$$\begin{aligned} \text{종속변수}_{ij} = & \beta_{0j} + \beta_{1j}(\text{성별}_{ij}) + \beta_{2j}(\text{기대교육수준}_{ij}) + \beta_{3j}(\text{어머니 학력}_{ij}) \\ & + \beta_{4j}(\text{아버지 학력}_{ij}) + \beta_{5j}(\text{부모의 정치사회 관심}_{ij}) \\ & + \beta_{6j}(\text{가정독서 분위기}_{ij}) + \beta_{7j}(\text{청소년의 사회 경제에 대한 관심}_{ij}) \\ & + \beta_{8j}(\text{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참여}_{ij}) + r_{ij} \end{aligned}$$

Level 2(학교수준)

$$\begin{aligned} \beta_{0j} = & \gamma_{00} + \gamma_{01}(\text{청소년의 학교 민주시민 활동 참여정도}) + \gamma_{02}(\text{학급 토론에의 개방성}) \\ & + \gamma_{03}(\text{학생의 영향력}) + \gamma_{04}(\text{교사와 학생의 관계}) \\ & + \gamma_{05}(\text{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 u_{0j} \\ \beta_{1j} = & \gamma_{10} + \gamma_{11}(\text{청소년의 학교 민주시민 활동 참여정도}) + \gamma_{12}(\text{학급 토론에의 개방성}) \\ & + \gamma_{13}(\text{학생의 영향력}) + \gamma_{14}(\text{교사와 학생의 관계}) \\ & + \gamma_{15}(\text{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 u_{1j} \\ \beta_{2j} = & \gamma_{20} + \gamma_{21}(\text{청소년의 학교 민주시민 활동 참여정도}) + \gamma_{22}(\text{학급 토론에의 개방성}) \\ & + \gamma_{23}(\text{학생의 영향력}) + \gamma_{24}(\text{교사와 학생의 관계}) \\ & + \gamma_{25}(\text{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 \beta_{3j} = & \gamma_{30} + \gamma_{31}(\text{청소년의 학교 민주시민 활동 참여정도}) + \gamma_{32}(\text{학급 토론에의 개방성}) \\ & + \gamma_{33}(\text{학생의 영향력}) + \gamma_{34}(\text{교사와 학생의 관계}) \\ & + \gamma_{35}(\text{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 & \dots \\ & \dots \\ & \dots \\ \beta_{8j} = & \gamma_{80} + \gamma_{81}(\text{청소년의 학교 민주시민 활동 참여정도}) + \gamma_{82}(\text{학급 토론에의 개방성}) \\ & + \gamma_{83}(\text{학생의 영향력}) + \gamma_{84}(\text{교사와 학생의 관계}) \\ & + \gamma_{85}(\text{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end{aligned}$$

(1) 유럽

연구에 활용된 유럽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HLM분석에 활용된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은 총 14,863명으로 이들은 256개의 학교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은 모두 500점 이상으로 전 세계 평균 이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29 유럽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level 1 : 개인수준의 기초분석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14863	0.50	0.50	0.00	1.00
기대교육수준	14863	3.02	1.07	0.00	4.00
어머니 학력	14863	3.34	1.18	0.00	5.00
아버지 학력	14863	3.29	1.19	0.00	5.00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14863	1.87	0.75	0.00	3.00
독서 정도	14863	2.56	1.31	0.00	5.00
학생의 정치사회 관심	14863	48.88	10.09	26.58	73.8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참여정도	14863	46.70	8.92	38.68	86.34
level 2 : 학교수준의 기초분석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256	50.02	3.02	38.00	60.00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256	51.39	3.14	35.00	61.00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56	47.89	2.71	36.00	54.00
교사와 학생의 관계	256	49.68	2.94	39.00	60.00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256	48.84	2.35	41.00	57.00
종속변수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민주시민 지식1	14863	527.12	90.99	212.99	851.26
민주시민 지식2	14863	527.31	90.69	197.22	854.41
민주시민 지식3	14863	526.96	90.71	193.01	862.82
민주시민 지식4	14863	527.30	91.02	193.01	901.73
민주시민 지식5	14863	527.27	91.04	197.22	918.55
어른이 된 이후 투표참여 의사	14863	49.21	10.58	23.85	63.05

가. 민주시민 지식1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은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모형으로 이를 통해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및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검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정효과인 γ_{00} 은 종속변수의 전체 평균, 즉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의 점수이며, 무선효과는 종속변수의 변량구성, 즉, 학교 간 변량과 학교 내 변량을 나타낸다. 모형은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지식이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학교수준의 변수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다.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즉,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11.8%, 개인변수는 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3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27.912	2.175	242.737	255	<0.001
무선효과	변량		d.f.	$\times 2$	p-value
학교 간	1,007.096	11.8	255	1743.81	<0.001
학교 내	7,536.177	88.2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앞에서의 기초모형에서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수준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개인변수가 이들의 민주시민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어머니의 학력을 제외한 모든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1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131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0	34.310	1,177.197	239	355.5	<0.001
성별 slope, u1	10.114	102.298	239	303.174	0.003
기대교육수준 slope, u2	5.417	29.344	239	292.45	0.010
어머니 학력 slope, u3	5.133	26.345	239	262.567	0.141
아버지 학력 slope, u4	5.059	25.598	239	278.715	0.039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9.073	82.322	239	331.945	<0.001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6.126	37.522	239	325.909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651	0.424	239	299.875	0.005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552	0.305	239	322.73	<0.001
level-1, r	74.345	5,527.206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학교에서의 토론분위기, 학생영향력, 선생님과의 관계 등)하여 민주시민 지식1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3.9%,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6.1%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지식1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32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234.847	3.9	250	785.926	<0.001
개인수준(level1)r	5,790.176	96.1			
전체	6,025.023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어머니의 학력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청소년의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의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지식 1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33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80.751	3.925	97.015	25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675	1.690	0.399	250	0.6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2.108	1.872	1.126	250	0.26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5.829	2.129	-2.738	250	0.007
교사와 학생의 관계	3.929	2.116	1.856	250	0.06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91	2.416	0.079	250	0.937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1.314	1.509	7.5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176	0.647	1.818	14559	0.06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780	0.785	-0.994	14559	0.3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54	0.768	0.722	14559	0.47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596	0.848	-0.702	14559	0.48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27	0.842	-1.22	14559	0.222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23.781	0.793	29.99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92	0.364	-0.802	14559	0.42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22	0.372	0.865	14559	0.38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68	0.409	0.655	14559	0.51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9	0.414	-0.046	14559	0.96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363	0.488	-0.745	14559	0.456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3.825	0.731	5.23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9	0.358	0.024	14559	0.98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19	0.356	0.896	14559	0.3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62	0.415	-1.593	14559	0.11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13	0.358	-0.315	14559	0.75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30	0.436	2.362	14559	0.018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1.752	0.756	2.319	14559	0.020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45	0.358	0.684	14559	0.49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04	0.354	-1.139	14559	0.25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33	0.376	1.419	14559	0.156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42	0.377	0.64	14559	0.52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391	0.425	0.92	14559	0.357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6.610	1.083	6.105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685	0.497	-1.379	14559	0.16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09	0.503	-0.216	14559	0.82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12	0.513	0.804	14559	0.42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88	0.586	-1.686	14559	0.09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18	0.654	0.181	14559	0.857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5.454	0.689	22.437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83	0.312	1.229	14559	0.21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79	0.304	1.244	14559	0.21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57	0.372	0.153	14559	0.87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541	0.389	-1.39	14559	0.16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71	0.440	-1.527	14559	0.127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631	0.083	7.573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4	0.035	0.68	14559	0.49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4	0.038	0.1	14559	0.92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18	0.044	-2.711	14559	0.00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9	0.042	1.175	14559	0.2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1	0.052	-1.369	14559	0.171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963	0.082	-11.732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8	0.034	-0.825	14559	0.4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35	0.041	0.859	14559	0.3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56	0.044	-1.254	14559	0.2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63	0.044	-1.437	14559	0.15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97	0.054	1.776	14559	0.076

나. 민주시민 지식2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및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검증하는데 활용하는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의 평균은 527.864였고,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지식2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다.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즉,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11.7%, 개인변수는 8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34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27.864	2.161	244.213	255	<0.001
무선효과	변량		d.f.	$\times 2$	p-value
학교 간	993.801	11.7	255	1746.16	<0.001
학교 내	7484.676	88.3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수준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어머니, 아버지의 학력을 제외한 모든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2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Ⅲ-1-135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2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0	32.378	1,048.328	239	344.593	<0.001
성별 slope, u1	8.158	66.559	239	292.914	0.010
기대교육수준 slope, u2	5.481	30.045	239	285.268	0.021
어머니 학력 slope, u3	5.346	28.580	239	253.644	0.246
아버지 학력 slope, u4	5.031	25.310	239	252.382	0.264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8.597	73.906	239	321.507	<0.001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6.190	38.317	239	333.26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568	0.323	239	296.583	0.007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475	0.225	239	304.224	0.003
level-1, r	74.215	5,507.939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2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3.9%,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6.1%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1과 마찬가지로 2에 있어서도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1-136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232.854	3.9	250	790.134	<0.001
개인수준(level1)r	5,768.941	96.1			
전체	6,001.796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성별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어머니학력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가 청소년의 정치사회관심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참여와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 0.1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37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82.065	3.979	96.020	25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01	1.690	0.060	250	0.95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3.515	1.825	1.926	250	0.05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4.212	2.280	-1.847	250	0.066
교사와 학생의 관계	2.544	2.060	1.235	250	0.21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93	2.390	0.039	250	0.969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0.284	1.455	7.069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127	0.585	1.929	14559	0.05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353	0.762	-1.774	14559	0.07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09	0.768	0.663	14559	0.50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58	0.811	-0.318	14559	0.75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760	0.782	-0.973	14559	0.331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24.054	0.787	30.579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05	0.339	-0.605	14559	0.54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67	0.390	0.941	14559	0.34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10	0.425	0.259	14559	0.79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1	0.414	0.027	14559	0.97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67	0.442	-0.605	14559	0.545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3.654	0.729	5.012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80	0.356	0.223	14559	0.82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43	0.334	0.727	14559	0.46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42	0.371	-1.459	14559	0.14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5	0.338	0.103	14559	0.91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835	0.432	1.933	14559	0.053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1.680	0.746	2.253	14559	0.024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96	0.342	0.868	14559	0.38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86	0.364	-1.607	14559	0.10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95	0.354	0.834	14559	0.404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93	0.354	0.827	14559	0.40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316	0.439	0.719	14559	0.472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6.674	1.092	6.113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506	0.498	-1.016	14559	0.3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7	0.507	0.034	14559	0.97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2	0.535	0.040	14559	0.96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794	0.586	-1.356	14559	0.17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40	0.642	0.062	14559	0.95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5.054	0.688	21.871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54	0.328	1.082	14559	0.27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69	0.334	0.206	14559	0.83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21	0.366	0.332	14559	0.7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88	0.411	-1.188	14559	0.23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374	0.419	-0.891	14559	0.373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630	0.083	7.611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7	0.035	0.759	14559	0.44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3	0.036	0.353	14559	0.72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81	0.043	-1.875	14559	0.06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20	0.041	0.483	14559	0.62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8	0.047	-1.635	14559	0.102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899	0.079	-11.419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2	0.034	-0.345	14559	0.7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72	0.039	1.831	14559	0.06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53	0.044	-1.213	14559	0.22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61	0.043	-1.416	14559	0.15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54	0.053	1.031	14559	0.302

다. 민주시민 지식3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평균은 527.597 점으로, 전체적으로 이 변수 형성에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었는데, 즉,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차원의 변수는 11.8%, 개인변수는 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38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27.597	2.171	243.014	255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1004.120	11.8	255	1744.54	<0.001
학교 내	7488.309	88.2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수준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어머니의 학력을 제외한 모든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3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139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29.750	885.056	239	345.256	<0.001
성별 slope, u_1	8.718	75.995	239	296.67	0.007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5.935	35.223	239	287.71	0.017
어머니 학력 slope, u3	5.728	32.808	239	262.859	0.139
아버지 학력 slope, u4	5.190	26.931	239	283.506	0.025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7.425	55.123	239	302.071	0.004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6.680	44.625	239	357.895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480	0.231	239	281.499	0.03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453	0.205	239	289.802	0.014
level-1, r	74.091	5,489.420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3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4.0%,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6.0%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3에 있어서도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40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238.2871	4.0	250	795.64	<0.001
개인수준(level1)r	5741.543	96.0			
전체	5,979.830	100.00			

단계별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별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어머니학력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과 학교에서의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 0.1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41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80.149	3.797	100.124	250	<0.00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46	1.633	0.089	250	0.92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2.186	1.940	1.127	250	0.26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4.295	2.146	-2.001	250	0.046
교사와 학생의 관계	3.268	2.148	1.521	250	0.12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59	2.332	-0.111	250	0.912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0.063	1.455	6.917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180	0.591	1.996	14559	0.04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17	0.797	-0.773	14559	0.43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25	0.743	0.437	14559	0.66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617	0.856	-0.72	14559	0.47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979	0.754	-1.299	14559	0.194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24.031	0.805	29.836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23	0.342	-0.652	14559	0.51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74	0.407	0.675	14559	0.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56	0.433	0.823	14559	0.41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98	0.441	-0.222	14559	0.82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85	0.494	-1.184	14559	0.237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3.773	0.752	5.019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5	0.348	0.071	14559	0.94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02	0.351	1.147	14559	0.25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70	0.384	-1.483	14559	0.13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84	0.368	-0.772	14559	0.4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250	0.443	2.821	14559	0.005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1.544	0.758	2.036	14559	0.04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61	0.356	0.453	14559	0.6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86	0.397	-1.475	14559	0.1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60	0.359	1.002	14559	0.31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86	0.385	1.264	14559	0.20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37	0.437	1.002	14559	0.316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6.819	1.022	6.673	14559	<0.00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79	0.472	-0.167	14559	0.86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51	0.484	-0.106	14559	0.91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29	0.502	0.457	14559	0.64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817	0.574	-1.423	14559	0.15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28	0.635	-0.359	14559	0.72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5.653	0.698	22.418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18	0.333	0.653	14559	0.51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04	0.338	1.49	14559	0.13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45	0.371	-0.66	14559	0.50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92	0.408	-0.962	14559	0.33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58	0.433	-1.057	14559	0.29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610	0.079	7.717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5	0.033	0.452	14559	0.65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2	0.036	0.344	14559	0.73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72	0.042	-1.708	14559	0.08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1	0.042	0.976	14559	0.32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45	0.050	-0.893	14559	0.372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953	0.082	-11.606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7	0.034	-0.204	14559	0.83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0	0.043	0.243	14559	0.80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41	0.047	-0.866	14559	0.38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9	0.047	-0.837	14559	0.40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59	0.052	1.123	14559	0.262

라. 민주시민 지식4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민주시민지식 4의 기본모형 분석에 따르면, 유럽청소년 민주시민 지식4의 평균은 527.855였고,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지식 4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라,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다.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즉,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11.7%, 개인변수는 8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42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27.855	2.170	243.198	255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1002.035	11.7	255	1727.07	<0.001
학교 내	7548.512	88.3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성별, 기대 교육수준,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43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30.101	906.066	239	323.222	<0.001
성별 slope, u_1	7.939	63.025	239	286.963	0.018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5.823	33.910	239	284.903	0.022
어머니 학력 slope, u3	4.891	23.925	239	247.338	0.342
아버지 학력 slope, u4	4.667	21.782	239	261.888	0.148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7.646	58.461	239	277.538	0.044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6.838	46.761	239	346.674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532	0.283	239	270.14	0.08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558	0.311	239	283.316	0.026
level-1, r	74.676	5,576.465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수준의 변수는 3.5%,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6.5%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1과 마찬가지로 2에 있어서도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44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211.589	3.5	250	745.0793	<0.001
개인수준(level1)r	5,826.416	96.5			
전체	6,038.005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및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변수에서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 0.1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45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81.264	3.806	100.167	25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14	1.547	0.138	250	0.89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832	1.868	0.981	250	0.32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4.820	2.112	-2.282	250	0.023
교사와 학생의 관계	3.873	2.092	1.851	250	0.06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84	2.284	0.3	250	0.765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0.164	1.426	7.13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955	0.598	1.597	14559	0.1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746	0.780	-0.956	14559	0.33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15	0.784	0.403	14559	0.68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31	0.823	-0.523	14559	0.60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56	0.830	-1.273	14559	0.203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23.886	0.785	30.42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78	0.350	-0.796	14559	0.42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79	0.407	0.929	14559	0.35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83	0.426	0.194	14559	0.84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44	0.449	-0.32	14559	0.74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16	0.466	-0.463	14559	0.644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3.935	0.738	5.331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51	0.333	0.154	14559	0.87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87	0.368	0.779	14559	0.43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82	0.378	-1.275	14559	0.20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87	0.370	-0.775	14559	0.43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862	0.461	1.869	14559	0.062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1.325	0.762	1.739	14559	0.08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87	0.343	0.544	14559	0.58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02	0.395	-0.764	14559	0.44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98	0.348	1.43	14559	0.15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63	0.379	0.956	14559	0.33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78	0.447	0.621	14559	0.534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6.595	1.034	6.377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00	0.472	-0.635	14559	0.526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94	0.495	-0.593	14559	0.55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54	0.500	0.708	14559	0.47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740	0.571	-1.295	14559	0.19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88	0.639	0.295	14559	0.768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5.732	0.719	21.881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35	0.318	1.054	14559	0.29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16	0.326	1.279	14559	0.2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91	0.386	-0.496	14559	0.6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512	0.406	-1.261	14559	0.20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80	0.402	-1.443	14559	0.149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589	0.081	7.297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7	0.033	0.823	14559	0.41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7	0.037	0.451	14559	0.65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57	0.044	-1.288	14559	0.19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4	0.045	0.312	14559	0.75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40	0.049	-0.818	14559	0.413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892	0.085	-10.477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0	0.035	-1.133	14559	0.25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84	0.043	1.939	14559	0.05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82	0.048	-1.717	14559	0.08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62	0.046	-1.344	14559	0.17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82	0.054	1.515	14559	0.13

마. 민주시민 지식5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분석에 따르면, 민주시민 지식5의 평균은 527.864로 전체적으로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5 형성에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하였는데,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11.9%, 개인변수는 88.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46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27.722	2.185	241.531	255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1,018.129	11.9	255	1762.14	<0.001
학교 내	7,536.272	88.1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어머니, 아버지의 학력을 제외한 모든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1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147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32.711	1,070.032	239	346.169	<0.001
성별 slope, u_1	9.053	81.948	239	293.998	0.009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5.710	32.601	239	278.735	0.039
어머니 학력 slope, u3	4.888	23.897	239	236.819	>0.500
아버지 학력 slope, u4	4.512	20.355	239	252.122	0.267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6.557	42.999	239	270.724	0.078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6.763	45.736	239	370.114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477	0.228	239	273.701	0.06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483	0.233	239	291.767	0.011
level-1, r	74.167	5,500.756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5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4.0%,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6.0%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5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48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239.93	4.0	250	745.0793	<0.001
개인수준(level1)r	5,736.54	96.0			
전체	5,976.47	100.0			

분석에 따르면, 성별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와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이, 기대교육 수준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이, 어머니학력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가 아버지 학력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0.1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49 유럽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_0					
학교차이	377.361	3.901	96.744	250	<0.00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883	1.647	0.536	250	0.59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034	1.920	0.538	250	0.59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4.974	2.117	-2.349	250	0.02
교사와 학생의 관계	3.317	2.113	1.57	250	0.11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304	2.284	0.133	250	0.894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1.121	1.497	7.429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353	0.649	2.086	14559	0.03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371	0.768	-1.786	14559	0.07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34	0.757	0.573	14559	0.56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45	0.827	-0.538	14559	0.5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838	0.818	-1.024	14559	0.306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24.639	0.772	31.919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39	0.336	-1.009	14559	0.31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948	0.404	2.348	14559	0.01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26	0.427	0.295	14559	0.76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71	0.440	-0.843	14559	0.39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76	0.469	-0.588	14559	0.556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4.335	0.707	6.132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35	0.340	-0.104	14559	0.91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97	0.357	1.391	14559	0.16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50	0.367	-1.496	14559	0.13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31	0.347	-0.376	14559	0.70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838	0.428	1.957	14559	0.05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1.392	0.722	1.929	14559	0.054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39	0.325	0.735	14559	0.46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74	0.359	-1.879	14559	0.0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29	0.356	1.483	14559	0.13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88	0.370	1.047	14559	0.29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16	0.415	0.519	14559	0.603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6.569	0.988	6.651	14559	<0.00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523	0.458	-1.142	14559	0.25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32	0.466	-0.712	14559	0.47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67	0.492	0.136	14559	0.89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551	0.553	-0.995	14559	0.3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39	0.688	0.348	14559	0.728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5.548	0.707	21.998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73	0.329	1.134	14559	0.25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35	0.323	1.035	14559	0.3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27	0.396	0.32	14559	0.74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33	0.400	-0.831	14559	0.40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01	0.448	-1.119	14559	0.263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636	0.079	8.093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50	0.031	1.593	14559	0.11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1	0.034	-0.629	14559	0.52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11	0.041	-2.728	14559	0.00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4	0.039	0.869	14559	0.38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53	0.045	-1.159	14559	0.246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955	0.079	-12.053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1	0.033	-0.336	14559	0.73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32	0.037	0.855	14559	0.39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8	0.047	-0.598	14559	0.5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69	0.044	-1.561	14559	0.11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83	0.053	1.587	14559	0.113

바. 어른이 된 이후 선거투표 참여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다음으로 유럽청소년의 학교특성에 따른 선거 투표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기본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및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검증하는데 활용하는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럽청소년 투표참여 의지의 평균은 49.246점으로, 전체적으로 투표참여 의지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럽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6.1%, 개인변수는 9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5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9.246	0.193	255.673	255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6.852	6.1	255	1087.43	<0.001
학교 내	106.080	93.9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유럽청소년의 투표참여 인식정도가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성별, 부모학력,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은 청소년의 투표의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표 III-1-151 유럽 청소년의 투표여부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μ_0	3.531	12.466	239	320.012	<0.001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성별 slope, u1	0.768	0.591	239	247.863	0.333
기대교육수준 slope, u2	0.646	0.417	239	305.227	0.003
어머니 학력 slope, u3	0.354	0.125	239	223.799	>0.500
아버지 학력 slope, u4	0.293	0.086	239	210.597	>0.500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0.935	0.874	239	293.583	0.009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0.531	0.282	239	272.944	0.065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076	0.006	239	281.4	0.03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049	0.002	239	265.577	0.115
level-1, r	8.908	79.344			

또한 유럽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투표의지 영향변수를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2.2%,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7.8%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월등히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52 유럽 청소년의 투표참여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866	2.2	250	574.1796	<0.001
개인수준(level1)r	81.501	97.8			
전체	83.367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성별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기대교육수준과 교사와 학생의 관계 및 학생 참여 등 몇몇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유럽청소년의 선거투표 참여 의지에 0.1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53 유럽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9.072	0.411	95.133	250	<0.00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08	0.170	1.229	250	0.2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26	0.202	-0.626	250	0.53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44	0.218	1.117	250	0.26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32	0.215	1.546	250	0.12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37	0.241	1.809	250	0.072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0.182	0.151	-1.205	14559	0.228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67	0.067	2.485	14559	0.01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6	0.076	-0.342	14559	0.73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30	0.082	-0.37	14559	0.71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3	0.091	0.469	14559	0.63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5	0.105	-0.713	14559	0.476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549	0.089	17.341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33	0.042	-0.795	14559	0.42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5	0.047	0.101	14559	0.91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5	0.050	0.507	14559	0.61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94	0.052	1.832	14559	0.06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85	0.051	-1.661	14559	0.097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158	0.081	-1.943	14559	0.05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5	0.034	-0.725	14559	0.46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0	0.039	0.01	14559	0.99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9	0.043	-0.208	14559	0.83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3	0.041	-0.322	14559	0.74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50	0.046	1.105	14559	0.269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357	0.075	-4.734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89	0.031	2.876	14559	0.00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6	0.039	-0.657	14559	0.51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9	0.041	-0.709	14559	0.47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3	0.044	0.293	14559	0.7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5	0.041	0.37	14559	0.711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2.817	0.124	22.669	14559	<0.00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16	0.056	-2.07	14559	0.03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15	0.065	1.778	14559	0.07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1	0.058	-0.193	14559	0.84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53	0.070	-3.614	14559	<0.00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7	0.076	0.359	14559	0.72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0.792	0.074	10.759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9	0.032	-0.893	14559	0.37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2	0.039	-0.057	14559	0.95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42	0.038	-1.104	14559	0.2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62	0.046	1.347	14559	0.17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2	0.043	-0.737	14559	0.461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293	0.010	30.131	1455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2	0.005	0.451	14559	0.65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1	0.004	-0.346	14559	0.72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8	0.005	-1.49	14559	0.13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2	0.006	0.33	14559	0.74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8	0.007	-1.266	14559	0.206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011	0.009	1.193	14559	0.233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4	0.004	0.976	14559	0.32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1	0.005	-0.147	14559	0.88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3	0.005	0.643	14559	0.5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9	0.005	-1.788	14559	0.07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9	0.005	1.668	14559	0.095

(2) 라틴아메리카

연구에 활용된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HLM분석에 활용된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은 총 19,420명으로 이들은 238개의 학교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은 모두 460점대로 전 세계 평균 500점보다 낮은 수준인 반면, 투표참여 의지는 52.63점으로 세계 평균은 웃도는 수준이었다.

표 III-1-154 라틴아메리카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level 1 : 개인수준의 기초분석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19420	0.54	0.50	0.00	1.00
기대교육수준	19420	3.36	0.97	0.00	4.00
어머니 학력	19420	2.69	1.51	0.00	5.00
아버지 학력	19420	2.77	1.53	0.00	5.00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19420	1.72	0.90	0.00	3.00
독서 정도	19420	1.50	1.20	0.00	5.00
학생의 정치사회 관심	19420	52.36	9.84	26.58	73.8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참여정도	19420	53.90	10.01	38.68	86.34
level 2 : 학교수준의 기초분석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238	52.31	2.04	47.45	59.8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238	50.45	2.51	40.05	57.9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38	55.38	2.03	42.59	64.89
교사와 학생의 관계	238	54.00	2.63	45.46	61.4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238	53.69	2.50	42.61	60.08
종속변수					
민주시민 지식1	19420	465.95	86.32	190.91	790.27
민주시민 지식2	19420	465.93	86.17	198.27	810.25
민주시민 지식3	19420	465.64	86.02	194.07	818.66
민주시민 지식4	19420	466.04	85.82	161.47	761.88
민주시민 지식5	19420	466.04	85.80	189.86	782.91
어른이 된 이후 투표참여 의사	19420	52.63	10.10	23.85	63.05

가. 민주시민 지식1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은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모형으로 이를 통해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및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검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고정효과인 γ_{00} 은 종속변수의 전체 평균, 즉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의 점수이며, 무선효과는 종속변수의 변량구성, 즉, 학교 간 변량과 학교 내 변량을 나타낸다. 모형은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지식이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학교수준의 변수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었다.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라틴아메리카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1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11.4%, 개인변수는 8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5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62.861	2.063	224.391	237	<0.001
무선효과	변량		d.f.	$\times 2$	p-value
학교 간	876.038	11.4	237	2193.99	<0.001
학교 내	6786.020	88.6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앞에서의 기초모형에서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수준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개인변수가 이들의 민주시민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성별, 기대교육수준, 어머니학력, 독서분위기 등의 변수가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Ⅲ-1-156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0	36.004	1,296.322	220	469.426	<0.001
성별 slope, u1	10.714	114.795	220	298.492	<0.001
기대교육수준 slope, u2	5.463	29.848	220	306.859	<0.001
어머니 학력 slope, u3	4.268	18.218	220	273.164	0.009
아버지 학력 slope, u4	4.055	16.440	220	254.297	0.056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4.011	16.090	220	241.024	0.158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6.167	38.026	220	361.442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381	0.145	220	234.273	0.243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426	0.182	220	249.548	0.084
level-1, r	70.974	5,037.326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학교에서의 토론분위기, 학생영향력, 선생님과의 관계 등)하여 민주시민 지식1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4.2%,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5.8%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지식1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1-157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232.356	4.2	232.000	1018.08	<0.001
개인수준(level1)r	5,235.831	95.8			
전체	5,468.187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성별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교사와 학생의 관계, 기대교육 수준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및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아버지 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및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변수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이는 라틴 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1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158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36.998	3.091	109.025	232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3.991	1.926	-2.072	232	0.03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6.329	1.636	3.867	232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9.885	2.882	3.430	232	<0.0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1.658	1.938	-0.856	232	0.39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6.277	1.830	-3.430	232	<0.001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5.856	1.293	12.263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341	0.898	-1.494	19134	0.13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415	0.715	1.978	19134	0.04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117	1.070	-1.978	19134	0.048
교사와 학생의 관계	2.477	0.727	3.407	19134	<0.00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06	0.995	-0.509	19134	0.611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20.594	0.652	31.570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445	0.422	1.055	19134	0.29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145	0.346	-3.306	19134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893	0.532	-3.556	19134	<0.0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532	0.367	1.449	19134	0.14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771	0.367	2.100	19134	0.036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4.217	0.561	7.520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617	0.374	1.650	19134	0.09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38	0.305	1.109	19134	0.26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54	0.508	-1.091	19134	0.27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08	0.350	-0.596	19134	0.55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33	0.336	-0.396	19134	0.692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3.832	0.497	7.710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17	0.301	1.051	19134	0.29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92	0.225	-0.408	19134	0.68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485	0.429	-3.461	19134	<0.00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77	0.334	-0.230	19134	0.81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925	0.341	2.713	19134	0.007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5.904	0.682	8.659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34	0.449	-0.522	19134	0.60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87	0.384	-0.749	19134	0.45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55	0.632	-0.404	19134	0.68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44	0.436	-0.790	19134	0.4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285	0.393	3.271	19134	0.001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9.795	0.658	14.883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124	0.396	2.838	19134	0.00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05	0.398	0.767	19134	0.44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768	0.608	-1.263	19134	0.20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22	0.383	-1.102	19134	0.2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377	0.490	2.814	19134	0.005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804	0.063	-12.748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0	0.038	-1.581	19134	0.11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65	0.031	2.060	19134	0.03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43	0.052	-0.826	19134	0.40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72	0.034	-2.148	19134	0.03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7	0.035	-1.056	19134	0.291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1.437	0.064	-22.327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7	0.039	-1.183	19134	0.23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1	0.035	0.600	19134	0.54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81	0.048	3.747	19134	<0.0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0	0.036	-1.117	19134	0.26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5	0.041	-0.626	19134	0.531

나. 민주시민 지식2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및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분산비율을 검증하는데 활용하는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의 평균은 463.127로,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지식 2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인데, 학교차원의 변수는 11.7%, 개인변수는 88.3%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59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63.127	2.027	228.434	237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842.511	11.0	237	2124.3	<0.001
학교 내	6782.263	89.0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을 제외한 모든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2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160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μ_0	35.496	1,259.978	220	450.431	<0.001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성별 slope, u1	11.688	136.602	220	305.017	<0.001
기대교육수준 slope, u2	4.994	24.943	220	292.075	0.001
어머니 학력 slope, u3	4.013	16.103	220	262.929	0.025
아버지 학력 slope, u4	4.427	19.601	220	285.620	0.002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4.616	21.304	220	253.609	0.059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6.353	40.364	220	371.694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413	0.171	220	247.173	0.10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486	0.236	220	274.609	0.007
level-1, r	70.840	5,018.313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2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4.1%,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5.9%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1과 마찬가지로 2에 있어서도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61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226,2786	4.1	232	992.301	<0.001
개인수준(level1)r	5231.39	95.9			
전체	5,457.669	100.0			

차이분석에 따르면, 성별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기대교육 수준과 아버지 학력은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가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은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과 교사와 학생의 관계 변수에 있어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62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37.409	3.105	108.672	232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4.108	1.905	-2.156	232	0.03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5.120	1.689	3.031	232	0.00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8.203	2.680	3.061	232	0.00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91	1.817	-0.215	232	0.8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6.356	1.833	-3.467	232	<0.001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5.453	1.306	11.836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684	0.953	-1.767	19134	0.07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854	0.703	1.216	19134	0.22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3.369	1.149	-2.933	19134	0.003
교사와 학생의 관계	2.696	0.740	3.644	19134	<0.00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314	1.066	0.294	19134	0.768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20.633	0.648	31.850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458	0.452	1.014	19134	0.3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59	0.333	-1.676	19134	0.09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232	0.545	-2.258	19134	0.02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44	0.367	0.936	19134	0.34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760	0.376	2.021	19134	0.043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4.377	0.550	7.952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607	0.373	1.626	19134	0.10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76	0.293	0.602	19134	0.54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20	0.509	-1.020	19134	0.30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31	0.337	-0.686	19134	0.49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90	0.341	0.265	19134	0.791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3.878	0.528	7.350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12	0.335	0.931	19134	0.35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39	0.242	-0.163	19134	0.8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355	0.445	-3.041	19134	0.002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73	0.347	-0.498	19134	0.61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11	0.337	1.811	19134	0.07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5.644	0.689	8.186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5	0.470	-0.011	19134	0.99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19	0.412	-0.774	19134	0.43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60	0.695	-0.231	19134	0.81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531	0.469	-1.132	19134	0.25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36	0.436	2.378	19134	0.017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9.653	0.665	14.506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286	0.415	3.098	19134	0.00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27	0.392	0.323	19134	0.74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903	0.596	-1.516	19134	0.1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30	0.363	-1.184	19134	0.23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619	0.488	3.315	19134	<0.001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798	0.063	-12.568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70	0.038	-1.851	19134	0.06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77	0.035	2.215	19134	0.02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49	0.055	-0.896	19134	0.3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79	0.037	-2.131	19134	0.03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65	0.039	-1.674	19134	0.094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1.465	0.067	-21.736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7	0.043	-1.556	19134	0.1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32	0.038	0.835	19134	0.40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16	0.051	4.239	19134	<0.0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57	0.038	-1.499	19134	0.13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2	0.044	0.503	19134	0.615

다. 민주시민 지식3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평균은 462.658점으로, 전체적으로 변수형성에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었는데, 즉,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차원의 변수는 11.2%, 개인변수는 8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63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 00	462.658	2.037	227.145	237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852.009	11.2	237	2166.09	<0.001
학교 내	6746.852	88.8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수준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어머니의 학력을 제외한 모든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3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164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μ 0	36.149	1,306.774	220	456.781	<0.001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성별 slope, u1	12.564	157.855	220	329.780	<0.001
기대교육수준 slope, u2	5.052	25.520	220	285.001	0.002
어머니 학력 slope, u3	3.635	13.210	220	255.418	0.051
아버지 학력 slope, u4	4.722	22.302	220	286.715	0.002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4.537	20.582	220	249.899	0.081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6.248	39.038	220	360.400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441	0.194	220	250.638	0.076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499	0.249	220	276.999	0.006
level-1, r	70.566	4,979.616			

또한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3 영향 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4.2%,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5.8%로 학교수준 변수보다는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3에 있어서도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65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225.715	4.2	232	993.091	<0.001
개인수준(level1)r	5,202.996	95.8			
전체	5,428.712	100.0			

단계별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별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대교육수준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변수 역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또한 이들 변수는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66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37.257	3.184	105.920	232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3.116	1.964	-1.586	232	0.11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5.400	1.734	3.115	232	0.00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6.729	2.682	2.509	232	0.01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06	1.891	-0.162	232	0.87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6.191	1.886	-3.283	232	0.001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5.454	1.338	11.551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2.083	0.990	-2.104	19134	0.03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231	0.687	1.791	19134	0.07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523	1.169	-2.159	19134	0.031
교사와 학생의 관계	2.720	0.801	3.397	19134	<0.00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2	1.060	-0.030	19134	0.976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20.876	0.627	33.290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54	0.434	0.586	19134	0.55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17	0.365	-1.690	19134	0.09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918	0.504	-1.822	19134	0.06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37	0.352	0.390	19134	0.69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93	0.377	1.573	19134	0.116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4.202	0.547	7.677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575	0.377	1.525	19134	0.12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18	0.289	0.753	19134	0.45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20	0.427	-0.281	19134	0.77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05	0.304	-1.330	19134	0.18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9	0.356	-0.083	19134	0.934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3.621	0.518	6.997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560	0.321	1.745	19134	0.08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58	0.245	-0.647	19134	0.51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553	0.433	-3.584	19134	<0.00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42	0.338	-0.717	19134	0.47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17	0.345	2.950	19134	0.003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5.738	0.698	8.224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25	0.466	-0.482	19134	0.6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51	0.394	-0.892	19134	0.37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65	0.718	-0.368	19134	0.71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45	0.471	-0.732	19134	0.46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58	0.415	2.548	19134	0.011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9.704	0.679	14.289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074	0.411	2.612	19134	0.00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73	0.377	0.725	19134	0.46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054	0.585	-1.803	19134	0.07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1	0.365	-0.085	19134	0.93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283	0.488	2.628	19134	0.009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755	0.065	-11.666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5	0.038	-1.710	19134	0.08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84	0.036	2.354	19134	0.01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9	0.058	-0.506	19134	0.61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90	0.034	-2.655	19134	0.00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57	0.040	-1.405	19134	0.16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1.512	0.067	-22.483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81	0.041	-1.958	19134	0.0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0	0.035	0.561	19134	0.57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04	0.054	3.761	19134	<0.0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92	0.040	-2.290	19134	0.02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3	0.046	0.287	19134	0.774

라. 민주시민 지식4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4의 기본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 4의 평균은 463.028로 다소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전체적으로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다.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즉, 라틴아메리카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11.2%, 개인변수는 8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67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63.028	2.032	227.844	237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848.062	11.2	237	2148.37	<0.001
학교 내	6720.958	88.8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라틴청소년들은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68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36.537	1,334.947	220	462.656	<0.001
성별 slope, u_1	13.328	177.636	220	341.101	<0.001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4.949	24.497	220	300.319	<0.001
어머니 학력 slope, u3	3.915	15.328	220	279.942	0.004
아버지 학력 slope, u4	4.435	19.665	220	286.457	0.002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3.732	13.929	220	237.818	0.195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6.407	41.053	220	369.659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417	0.174	220	55.422	0.05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455	0.207	220	253.249	0.061
level-1, r	70.415	4,958.227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수준의 변수는 4.4%,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5.6%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69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238.065	4.4	232	1036.11	<0.001
개인수준(level1)r	5,174.327	95.6			
전체	5,412.392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몇몇의 개인변수 및 학교 변수들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성별과 교사와 학생의 관계, 아버지 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가정의 독서분위기와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은 높은 상호작용효과를 보였고, 이들 변수 상호효과는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서 0.001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70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36.244	3.126	107.6	232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4.735	1.914	-2.47	232	0.01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5.327	1.695	3.144	232	0.00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8.739	2.703	3.234	232	0.0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1.389	1.840	-0.76	232	0.45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5.509	1.856	-2.97	232	0.003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4.899	1.383	10.77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2.128	1.014	-2.1	19134	0.03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071	0.772	1.388	19134	0.16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3.079	1.168	-2.64	19134	0.008
교사와 학생의 관계	2.831	0.759	3.729	19134	<0.00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59	1.049	0.056	19134	0.955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21.128	0.633	33.38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578	0.404	1.43	19134	0.15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89	0.349	-1.97	19134	0.04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246	0.550	-2.26	19134	0.02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63	0.361	0.729	19134	0.46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94	0.385	1.54	19134	0.124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4.063	0.556	7.305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788	0.384	2.054	19134	0.0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36	0.297	0.795	19134	0.42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48	0.462	-1.19	19134	0.23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27	0.316	-0.4	19134	0.68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06	0.347	-0.3	19134	0.761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3.614	0.532	6.795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22	0.317	0.386	19134	0.69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54	0.244	-0.22	19134	0.82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540	0.425	-3.62	19134	<0.00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20	0.325	-0.37	19134	0.71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971	0.333	2.916	19134	0.004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6.368	0.690	9.226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38	0.459	0.3	19134	0.76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33	0.424	-0.79	19134	0.43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32	0.657	-0.05	19134	0.96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01	0.450	-0.89	19134	0.37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815	0.426	1.911	19134	0.056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9.614	0.671	14.34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157	0.416	2.782	19134	0.00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73	0.371	0.465	19134	0.64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756	0.579	-1.31	19134	0.19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71	0.363	-1.02	19134	0.30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622	0.495	3.277	19134	0.001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824	0.061	-13.4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3	0.037	-1.69	19134	0.09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79	0.033	2.378	19134	0.01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73	0.054	-1.36	19134	0.17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79	0.037	-2.16	19134	0.03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54	0.037	-1.46	19134	0.145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1.437	0.065	-22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8	0.042	-0.42	19134	0.67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39	0.035	1.09	19134	0.27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66	0.051	3.269	19134	0.0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7	0.037	-1.27	19134	0.20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3	0.044	-0.07	19134	0.941

마. 민주시민 지식5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에 따르면, 민주시민 지식5의 평균은 466.04로 전체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5 형성에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하였는데,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11.4%, 개인변수는 8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71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66.04	2.175	242.737	255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864.013	11.4	237	2195.39	<0.001
학교 내	6,703.792	88.6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 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부모의 정치사회관심을 제외한 모든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5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172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0	35.939	1,291.637	220	462.937	<0.001
성별 slope, u1	11.230	126.103	220	305.669	<0.001
기대교육수준 slope, u2	5.133	26.343	220	303.321	<0.001
어머니 학력 slope, u3	4.370	19.095	220	287.677	0.002
아버지 학력 slope, u4	4.691	22.002	220	304.988	<0.001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3.605	12.994	220	225.569	0.384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5.948	35.378	220	362.423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409	0.167	220	250.533	0.077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467	0.219	220	278.054	0.005
level-1, r	70.447	4,962.785			

라틴아메리카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5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4.1%,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5.9%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5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73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221.908	4.1	232	990.7	<0.001
개인수준(level1)r	5,167.801	95.9			
전체	5,389.709	100.0			

분석에 따르면, 성별과 교사와 학생의 관계, 아버지학력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참여와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라틴아메리카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0.1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74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36.696	3.134	107.426	232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4.238	1.933	-2.192	232	0.02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6.005	1.591	3.773	232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8.164	2.777	2.939	232	0.00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880	1.858	-0.474	232	0.63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6.904	1.779	-3.881	232	<0.001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4.963	1.291	11.588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916	0.936	-2.047	19134	0.04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788	0.685	1.150	19134	0.2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947	1.175	-2.508	19134	0.012
교사와 학생의 관계	2.443	0.745	3.279	19134	0.00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33	0.978	0.443	19134	0.658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20.572	0.642	32.037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60	0.445	0.809	19134	0.41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88	0.354	-1.941	19134	0.05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263	0.487	-2.594	19134	0.00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99	0.360	1.108	19134	0.26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793	0.365	2.170	19134	0.03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4.359	0.562	7.751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490	0.391	1.253	19134	0.2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48	0.308	1.780	19134	0.07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84	0.464	-1.259	19134	0.20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52	0.317	-1.113	19134	0.26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35	0.355	-0.380	19134	0.704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3.500	0.551	6.357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633	0.318	1.992	19134	0.04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89	0.253	-1.141	19134	0.25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273	0.452	-2.818	19134	0.005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71	0.333	-0.813	19134	0.41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128	0.346	3.263	19134	0.001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6.889	0.669	10.300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8	0.420	-0.044	19134	0.96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18	0.382	-1.617	19134	0.10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36	0.573	0.237	19134	0.81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29	0.433	-0.991	19134	0.32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34	0.404	2.560	19134	0.01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9.604	0.667	14.397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187	0.409	2.902	19134	0.00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01	0.374	0.271	19134	0.78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078	0.622	-1.734	19134	0.08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29	0.366	-0.352	19134	0.72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478	0.492	3.007	19134	0.003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751	0.063	-11.869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7	0.039	-1.200	19134	0.2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92	0.036	2.539	19134	0.01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5	0.055	-0.449	19134	0.65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68	0.035	-1.942	19134	0.05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87	0.037	-2.347	19134	0.019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1.443	0.068	-21.298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37	0.044	-0.848	19134	0.39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1	0.037	0.554	19134	0.5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05	0.053	3.834	19134	<0.0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71	0.039	-1.820	19134	0.06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0	0.046	0.214	19134	0.831

바. 어른이 된 이후 선거투표 참여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학교특성에 따른 선거 투표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기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및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검증하는 분석결과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는 평균 52.585점으로, 전체적으로 투표참여 의지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1.6%, 개인변수는 98.4%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수준의 변인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7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 00	52.585	0.114	460.006	237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1.641	1.6	237	548.876	<0.001
학교 내	100.396	98.4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아버지학력과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을 제외한 변인은 라틴 청소년의 투표의지를 형성하는데 특별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76 라틴 청소년의 투표참석 여부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0	2.862	8.190	220	301.669	<0.001
성별 slope, u1	1.198	1.436	220	272.245	0.009
기대교육수준 slope, u2	0.380	0.145	220	222.446	0.441
어머니 학력 slope, u3	0.388	0.151	220	244.765	0.121
아버지 학력 slope, u4	0.312	0.097	220	204.019	>0.500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0.579	0.335	220	249.605	0.083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0.258	0.066	220	216.095	>0.500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076	0.006	220	306.501	<0.00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050	0.002	220	255.097	0.052
level-1, r	9.355	87.518			

또한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투표의지 영향변수를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1.0%,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9.0%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77 라틴 청소년의 투표참여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0.885	1.0	232	413.8	<0.001
개인수준(level1)r	89.347	99.0			
전체	90.232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과 교사와 학생의 관계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가 높은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으며, 이 상호작용 효과는 라틴 청소년의 선거투표 참여 의지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78 라틴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46.376	0.339	136.702	232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75	0.210	0.837	232	0.40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29	0.186	0.693	232	0.48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14	0.316	-0.994	232	0.32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72	0.214	2.208	232	0.02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9	0.225	0.041	232	0.967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0.203	0.161	-1.261	19134	0.20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33	0.111	-1.199	19134	0.23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49	0.087	0.562	19134	0.57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98	0.138	-0.707	19134	0.4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03	0.097	1.063	19134	0.28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47	0.107	-1.370	19134	0.171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159	0.075	15.502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6	0.044	0.369	19134	0.71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8	0.039	-0.721	19134	0.47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08	0.067	1.606	19134	0.10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6	0.044	-1.051	19134	0.29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0	0.054	-0.373	19134	0.709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090	0.067	1.334	19134	0.18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7	0.040	1.668	19134	0.09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34	0.034	-0.972	19134	0.33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48	0.051	-0.947	19134	0.34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1	0.040	-0.755	19134	0.4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0	0.043	-0.237	19134	0.813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018	0.060	0.300	19134	0.764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5	0.043	-1.043	19134	0.29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32	0.034	0.923	19134	0.35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50	0.046	-1.083	19134	0.279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8	0.040	0.963	19134	0.33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4	0.042	0.569	19134	0.569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1.151	0.084	13.659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5	0.058	-1.120	19134	0.26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2	0.045	0.267	19134	0.78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74	0.084	0.878	19134	0.380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63	0.056	-1.128	19134	0.25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65	0.063	1.036	19134	0.300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0.102	0.062	1.661	19134	0.09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3	0.038	1.653	19134	0.09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7	0.034	0.495	19134	0.62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7	0.047	-0.143	19134	0.88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8	0.039	-0.459	19134	0.64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9	0.037	0.513	19134	0.608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252	0.009	26.898	1913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8	0.006	-1.293	19134	0.19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3	0.005	0.541	19134	0.58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4	0.008	0.529	19134	0.59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3	0.006	-2.170	19134	0.0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5	0.006	0.854	19134	0.393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028	0.009	3.120	19134	0.00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1	0.005	-0.276	19134	0.78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1	0.004	0.282	19134	0.77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4	0.007	-0.551	19134	0.58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4	0.005	-0.784	19134	0.43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2	0.006	2.010	19134	0.044

(3) 아시아

연구에 활용된 아시아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HLM분석에 활용된 아시아 청소년은 총 21,855명, 202개의 학교로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은 모두 500점 이상, 투표참여 의지 역시 51.40점으로 두 변수 모두 전 세계 평균 이상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1-179 아시아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level 1 : 개인수준의 기초분석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21855	0.50	0.50	0.00	1.00
기대교육수준	21855	3.44	0.91	0.00	4.00
어머니 학력	21855	2.71	1.37	0.00	5.00
아버지 학력	21855	2.89	1.42	0.00	5.00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21855	2.00	0.74	0.00	3.00
독서 정도	21855	2.04	1.34	0.00	5.00
학생의 정치사회 관심	21855	49.34	10.86	38.68	86.34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참여정도	21855	52.24	8.98	26.58	73.81
level 2 : 학교수준의 기초분석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202	49.37	2.21	43.17	61.5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202	49.42	2.75	40.98	62.30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02	53.47	2.78	44.96	66.11
교사와 학생의 관계	202	50.57	1.94	38.16	58.5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202	49.71	1.91	43.36	60.46
종속변수					
민주시민 지식1	21855	515.75	99.50	188.81	870.19
민주시민 지식2	21855	515.96	99.81	198.27	854.41
민주시민 지식3	21855	516.04	99.49	207.74	899.63
민주시민 지식4	21855	515.70	99.72	188.81	887.01
민주시민 지식5	21855	515.73	99.73	196.17	875.44
어른이 된 이후 투표참여 의사	21855	51.40	9.27	23.85	63.05

가. 민주시민 지식1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기본모형으로 이들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및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검증 할 수 있다. 고정효과인 γ_{00} 은 종속변수의 전체 평균, 즉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의 점수이며, 무선효과는 종속변수의 변량구성, 즉, 학교 간 변량과 학교 내 변량을 나타낸다. 모형은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지식이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학교수준의 변수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아시아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1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18.5%, 개인변수는 8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8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06.800	3.235	156.649	201	<0.001
무선효과	변량		d.f.	$\times 2$	p-value
학교 간	2002.323	18.5	201	3098.52	<0.001
학교 내	8816.923	81.5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앞의 기초모형에서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수준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개인변수가 이들의 민주시민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부모의 정치사회관심과 기대교육수준,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을 제외한 개인 변수가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181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0	53.161	2,826.043	189	459.703	<0.001
성별 slope, u1	14.786	218.635	189	328.384	<0.001
기대교육수준 slope, u2	4.441	19.719	189	215.751	0.089
어머니 학력 slope, u3	6.781	45.988	189	310.852	<0.001
아버지 학력 slope, u4	4.844	23.468	189	253.753	0.001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4.447	19.774	189	187.403	>0.50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5.295	28.034	189	307.316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863	0.746	189	390.097	<0.00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615	0.378	189	220.935	0.056
level-1, r	75.090	5,638.442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었다.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1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6.3%, 개인변수는 93.7%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학교수준의 변수에 비하여 종속변수인 민주시민 지식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82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400.873	6.3	196	1364	<0.001
개인수준(level1)r	5,923.713	93.7			
전체	6,324.586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몇몇 변수에서 개인과 학교수준의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어머니 학력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가정의 독서분위기와 교사와 학생의 관계,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참여가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에 높은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이들 변수는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1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183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66.552	4.536	80.810	19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777	2.504	-0.710	196	0.47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2.147	2.088	5.818	196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5.596	2.011	-2.782	196	0.006
교사와 학생의 관계	-4.882	3.280	-1.489	196	0.13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2.972	2.920	1.018	196	0.31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8.016	1.713	10.515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510	1.272	-0.401	21605	0.68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886	0.781	-1.135	21605	0.25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290	0.818	1.578	21605	0.11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41	1.150	0.818	21605	0.41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396	1.221	-0.324	21605	0.746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25.063	0.782	32.061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74	0.593	0.124	21605	0.90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47	0.346	1.291	21605	0.19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084	0.380	-2.853	21605	0.00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38	0.618	-0.547	21605	0.58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66	0.601	-0.775	21605	0.438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6.040	0.749	8.066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4	0.439	0.031	21605	0.97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599	0.368	-4.349	21605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63	0.381	-1.477	21605	0.1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35	0.602	1.553	21605	0.12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64	0.629	-0.101	21605	0.919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7.278	0.708	10.283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86	0.429	-0.201	21605	0.84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774	0.308	-2.515	21605	0.01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77	0.347	0.222	21605	0.825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01	0.553	0.183	21605	0.85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69	0.559	0.482	21605	0.63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7.142	0.826	-8.647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13	0.558	-0.381	21605	0.70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09	0.396	-0.780	21605	0.43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767	0.439	1.747	21605	0.08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53	0.731	0.210	21605	0.83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26	0.644	0.351	21605	0.726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1.951	0.583	20.502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091	0.455	2.399	21605	0.01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63	0.301	-2.203	21605	0.02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910	0.316	-2.880	21605	0.004
교사와 학생의 관계	1.667	0.416	4.005	21605	<0.00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69	0.484	-0.349	21605	0.727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2.311	0.086	-26.923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90	0.059	-1.519	21605	0.12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13	0.047	2.403	21605	0.01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16	0.047	2.444	21605	0.01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03	0.062	-1.658	21605	0.09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86	0.068	1.272	21605	0.203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389	0.080	4.853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31	0.051	0.619	21605	0.53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47	0.032	1.464	21605	0.14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54	0.041	-3.740	21605	<0.0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87	0.052	-1.658	21605	0.09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9	0.054	-0.346	21605	0.729

나. 민주시민 지식2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및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분산비율을 검증할 수 있는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의 평균은 507.006로,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지식 2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 총 변량은 학교차원의 변수는 18.5%, 개인변수는 81.5%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184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07.006	3.243	156.351	201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2011.298	18.5	201	3077.26	<0.001
학교 내	8879.464	81.5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부모의 정치사회관심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185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8.790	2,380.430	189	404.552	<0.001
성별 slope, u_1	15.386	236.730	189	327.206	<0.001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4.956	24.562	189	224.170	0.041
어머니 학력 slope, u_3	6.493	42.156	189	301.682	<0.001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아버지 학력 slope, u4	4.946	24.458	189	257.082	<0.001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4.595	21.110	189	187.081	>0.50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5.294	28.030	189	302.233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920	0.846	189	417.659	<0.00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637	0.406	189	221.723	0.052
level-1, r	75.517	5,702.881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개인 및 학교 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2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6.1%,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3.9%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1과 마찬가지로 2에 있어서도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86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388.208	6.1	196	1336	<0.001
개인수준(level1)r	5,983.831	93.9			
전체	6,372.039	100.0			

차이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청소년의 기대교육수준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어머니 학력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가정의 독서분위기와 교사와 학생의 관계,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변수가 상호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87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_0					
학교차이	366.247	4.362	83.962	19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923	2.310	-0.833	196	0.40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1.393	1.964	5.801	196	<0.00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5.158	1.952	-2.642	196	0.009
교사와 학생의 관계	-4.045	3.188	-1.269	196	0.20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3.621	2.700	1.341	196	0.181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8.835	1.723	10.932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49	1.330	0.112	21605	0.91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105	0.813	-1.359	21605	0.17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474	0.810	1.819	21605	0.069
교사와 학생의 관계	1.174	1.195	0.983	21605	0.32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3	1.243	0.010	21605	0.992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24.408	0.810	30.139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89	0.592	-0.318	21605	0.7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66	0.347	1.630	21605	0.10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240	0.354	-3.506	21605	<0.0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82	0.606	-0.466	21605	0.64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74	0.584	-0.983	21605	0.326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6.604	0.722	9.143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51	0.394	0.383	21605	0.70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693	0.377	-4.492	21605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27	0.354	-0.925	21605	0.35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66	0.549	1.759	21605	0.07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11	0.595	-0.187	21605	0.852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7.152	0.717	9.968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75	0.503	0.545	21605	0.58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94	0.322	-2.155	21605	0.03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0	0.332	-0.029	21605	0.97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78	0.515	-0.539	21605	0.5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64	0.530	0.310	21605	0.756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6.494	0.861	-7.547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468	0.564	-0.829	21605	0.40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60	0.417	0.144	21605	0.885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89	0.470	1.252	21605	0.2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50	0.784	0.064	21605	0.94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4	0.691	0.107	21605	0.915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1.997	0.583	20.568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178	0.479	2.458	21605	0.01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18	0.298	-2.077	21605	0.03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908	0.308	-2.950	21605	0.003
교사와 학생의 관계	1.557	0.385	4.042	21605	<0.00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63	0.464	-0.352	21605	0.725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2.285	0.086	-26.530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51	0.056	-0.913	21605	0.36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23	0.050	2.472	21605	0.01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33	0.048	2.748	21605	0.00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30	0.066	-1.980	21605	0.04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88	0.070	1.247	21605	0.212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319	0.078	4.090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34	0.051	0.668	21605	0.50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43	0.037	1.166	21605	0.24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68	0.043	-3.923	21605	<0.0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70	0.057	-1.238	21605	0.21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7	0.060	-0.454	21605	0.65

다. 민주시민 지식3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평균은 507.429점으로, 전체적으로 종속변수 형성에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었는데, 즉,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차원의 변수는 18.5%, 개인변수는 81.5%로 유럽 및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에 비하여 학교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나, 여전히 개인수준의 영향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88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07.429	3.236	156.786	201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2003.958	18.5	201	3098.37	<0.001
학교 내	8809.929	81.5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을 통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III-1-189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53.662	2,879.656	189	462.493	<0.001
성별 slope, u_1	15.452	238.779	189	329.590	<0.001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6.055	36.659	189	252.744	0.002
어머니 학력 slope, u_3	6.784	46.018	189	312.426	<0.001
아버지 학력 slope, u_4	4.254	18.092	189	229.444	0.024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_5	5.247	27.533	189	189.757	0.471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_6	5.084	25.846	189	293.310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_7	0.843	0.710	189	382.970	<0.00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_8	0.587	0.345	189	215.030	0.094
level-1, r	75.121	5,643.201			

분석에 따르면,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을 제외한 모든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3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3 영향 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6.6%,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3.4%로 학교수준 변수보다는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3에 있어서도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190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419.514	6.6	196	1414	<0.001
개인수준(level1)r	5,934.639	93.4			
전체	6,354.154	100.0			

단계별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어머니학력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가정의 독서분위기와 교사와 학생의 관계, 청소년의 정치사회관심 정도와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으며,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91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_0					
학교차이	368.224	4.686	78.575	19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335	2.573	-0.519	196	0.60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2.371	1.992	6.209	196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6.085	2.108	-2.887	196	0.004
교사와 학생의 관계	-4.860	3.288	-1.478	196	0.14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2.947	2.925	1.008	196	0.315
For 성별 slope, β_1					
학교차이	18.050	1.731	10.426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83	1.258	-0.066	21605	0.94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389	0.751	-1.851	21605	0.064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803	0.776	2.322	21605	0.0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01	1.173	0.171	21605	0.86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00	1.111	0.450	21605	0.653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24.340	0.855	28.481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31	0.611	0.051	21605	0.9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32	0.370	1.169	21605	0.24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172	0.399	-2.938	21605	0.00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88	0.622	-0.141	21605	0.88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90	0.653	-0.903	21605	0.366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6.461	0.764	8.453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7	0.453	0.059	21605	0.95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662	0.369	-4.503	21605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57	0.359	-1.553	21605	0.12
교사와 학생의 관계	1.130	0.627	1.801	21605	0.07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8	0.630	0.029	21605	0.977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7.120	0.670	10.620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05	0.451	-0.234	21605	0.81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56	0.295	-2.220	21605	0.02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2	0.332	-0.067	21605	0.94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69	0.515	-0.522	21605	0.60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45	0.529	0.463	21605	0.644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6.728	0.891	-7.552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98	0.567	-0.526	21605	0.59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51	0.406	-0.124	21605	0.9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928	0.478	1.943	21605	0.05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97	0.747	0.263	21605	0.79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9	0.727	-0.039	21605	0.969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1.921	0.583	20.444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088	0.414	2.628	21605	0.00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831	0.286	-2.907	21605	0.004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39	0.320	-2.000	21605	0.045
교사와 학생의 관계	1.475	0.425	3.473	21605	<0.00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63	0.522	-0.121	21605	0.904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2.321	0.084	-27.624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7	0.055	-1.219	21605	0.22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98	0.045	2.173	21605	0.0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28	0.046	2.754	21605	0.00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49	0.064	-2.335	21605	0.0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01	0.070	1.439	21605	0.15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372	0.079	4.724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38	0.048	0.803	21605	0.42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33	0.034	0.970	21605	0.33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36	0.042	-3.226	21605	0.0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64	0.050	-1.276	21605	0.20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41	0.059	-0.687	21605	0.492

라. 민주시민 지식4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4의 기본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 4의 형성에 전체적으로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18.6%, 개인변수는 8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92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 00	527.912	2.175	242.737	255	<0.001
무선효과	변량		d.f.	$\times$ 2	p-value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학교 간	2023.627	18.6	201	3050.39	<0.001
학교 내	8870.497	81.4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청소년들은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93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0	50.696	2,570.034	189	422.231	<0.001
성별 slope, u1	15.846	251.088	189	340.436	<0.001
기대교육수준 slope, u2	4.880	23.815	189	231.100	0.020
어머니 학력 slope, u3	7.073	50.026	189	317.398	<0.001
아버지 학력 slope, u4	5.151	26.537	189	272.823	<0.001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4.814	23.177	189	183.980	>0.50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5.677	32.231	189	318.203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938	0.879	189	425.386	<0.00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691	0.478	189	223.524	0.043
level-1, r	75.061	5,634.085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수준의 변수는 6.8%,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3.2%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94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403.556	6.8	196	1358	<0.001
개인수준(level1)r	5,943.585	93.2			
전체	6,347.141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몇몇의 개인변수 및 학교 변수들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어머니 학력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가정의 독서분위기와 교사와 학생의 관계,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은 서로 높은 상호작용효과를 보였고, 이들 변수 효과는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서 0.001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95 라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65.539	4.451	82.131	19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2.886	2.499	-1.155	196	0.24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2.572	2.083	6.036	196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5.930	2.008	-2.953	196	0.004
교사와 학생의 관계	-4.584	3.236	-1.416	196	0.15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3.120	2.837	1.100	196	0.273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7.405	1.821	9.557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63	1.327	0.123	21605	0.90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055	0.829	-1.274	21605	0.20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527	0.894	1.709	21605	0.08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24	1.285	0.330	21605	0.74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62	1.209	-0.051	21605	0.959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24.943	0.843	29.578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53	0.623	0.406	21605	0.68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75	0.385	0.713	21605	0.476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119	0.401	-2.787	21605	0.00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89	0.639	-0.139	21605	0.8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58	0.641	-0.402	21605	0.688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6.396	0.771	8.292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8	0.455	0.148	21605	0.88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560	0.417	-3.739	21605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67	0.378	-1.502	21605	0.13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22	0.601	1.534	21605	0.12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50	0.609	-0.083	21605	0.934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7.215	0.722	9.992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9	0.482	0.059	21605	0.95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877	0.332	-2.642	21605	0.00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2	0.339	0.036	21605	0.97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18	0.527	-0.603	21605	0.54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374	0.530	0.704	21605	0.481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6.743	0.851	-7.922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24	0.546	-0.593	21605	0.55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60	0.405	0.149	21605	0.88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013	0.457	2.219	21605	0.02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61	0.756	0.081	21605	0.93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18	0.651	-0.797	21605	0.425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2.106	0.629	19.247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196	0.488	2.452	21605	0.01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48	0.281	-2.310	21605	0.02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885	0.324	-2.730	21605	0.006
교사와 학생의 관계	1.838	0.430	4.274	21605	<0.00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18	0.462	-0.257	21605	0.797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2.284	0.088	-26.024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0	0.057	-0.700	21605	0.48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06	0.049	2.148	21605	0.032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43	0.049	2.892	21605	0.00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60	0.067	-2.378	21605	0.01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5	0.075	1.003	21605	0.316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337	0.080	4.237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8	0.054	-0.150	21605	0.88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68	0.034	1.997	21605	0.04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97	0.038	-5.165	21605	<0.0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53	0.049	-1.086	21605	0.27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4	0.060	-0.067	21605	0.947

마. 민주시민 지식5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에 따르면, 민주시민 지식5의 평균은 506.962로 전체적으로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5 형성에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18.6%, 개인변수는 8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96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 00	506.962	3.250	155.971	201	<0.001
무선효과	변량		d.f.	$\times$ 2	p-value
학교 간	2021.504	18.6	201	3068.71	<0.001
학교 내	8865.195	81.4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 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부모의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 및 청소년의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을 제외한 모든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5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197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0	55.486	3,078.713	189	463.749	<0.001
성별 slope, u1	15.118	228.546	189	322.132	<0.001
기대교육수준 slope, u2	5.024	25.242	189	226.324	0.033
어머니 학력 slope, u3	6.635	44.030	189	307.059	<0.001
아버지 학력 slope, u4	5.206	27.100	189	262.571	<0.001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5.215	27.195	189	196.197	0.344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5.194	26.976	189	305.615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943	0.889	189	434.204	<0.00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574	0.330	189	210.526	0.136
level-1, r	75.107	5,641.031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5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6.4%,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3.6%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5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198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406.183	6.4	196	1376	<0.001
개인수준(level1)r	5935.530	93.6			
전체	6341.713	100.0			

분석에 따르면, 어머니 학력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가정의 독서분위기와 교사와 학생의 관계,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참여와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0.001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99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66.984	4.544	80.755	19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2.908	2.441	-1.191	196	0.23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3.336	2.165	6.161	196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4.725	2.125	-2.223	196	0.027
교사와 학생의 관계	-4.496	3.215	-1.398	196	0.16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852	2.806	0.660	196	0.51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8.286	1.703	10.737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84	1.303	-0.064	21605	0.94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405	0.846	-1.661	21605	0.09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483	0.796	1.863	21605	0.06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98	1.187	0.841	21605	0.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63	1.197	-0.136	21605	0.892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24.494	0.824	29.728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71	0.590	0.289	21605	0.77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68	0.370	0.455	21605	0.64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212	0.386	-3.141	21605	0.00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46	0.585	-0.420	21605	0.67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99	0.589	-0.337	21605	0.736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6.213	0.722	8.603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55	0.434	-0.587	21605	0.55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552	0.365	-4.257	21605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69	0.387	-1.731	21605	0.083
교사와 학생의 관계	1.156	0.558	2.070	21605	0.03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06	0.603	0.175	21605	0.86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7.273	0.718	10.128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61	0.503	0.718	21605	0.47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845	0.335	-2.522	21605	0.01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02	0.344	0.298	21605	0.76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579	0.517	-1.120	21605	0.26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12	0.509	0.418	21605	0.676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6.947	0.868	-8.005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17	0.564	-0.385	21605	0.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78	0.394	-0.197	21605	0.84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66	0.451	1.034	21605	0.3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8	0.756	0.064	21605	0.94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75	0.674	0.260	21605	0.795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2.360	0.580	21.306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091	0.424	2.571	21605	0.0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45	0.270	-2.387	21605	0.01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723	0.312	-2.316	21605	0.021
교사와 학생의 관계	1.752	0.435	4.029	21605	<0.00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49	0.457	-0.108	21605	0.914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2.333	0.093	-25.197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73	0.059	-1.232	21605	0.21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97	0.048	2.032	21605	0.04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09	0.049	2.224	21605	0.02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97	0.067	-1.451	21605	0.14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90	0.070	1.282	21605	0.2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367	0.077	4.785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5	0.053	0.484	21605	0.62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80	0.031	2.549	21605	0.01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28	0.040	-3.241	21605	0.0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29	0.051	-2.522	21605	0.01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6	0.054	-0.662	21605	0.508

바. 어른이 된 이후 선거투표 참여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다음으로 아시아 청소년의 학교특성에 따른 선거 투표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기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및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검증하는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는 평균 51.434점으로, 전체적으로 투표참여 의지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2.4%, 개인변수는 97.6%로 민주시민 지식 형성정도에 미치는 학교수준의 영향보다 낮은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1-20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1.434	0.122	421.940	201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2.042	2.4	201	673.055	<0.001
학교 내	84.183	97.6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아버지학력을 제외한 변인은 아시아 청소년의 투표의지를 형성하는데 특별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01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3.197	10.223	189	281.960	<0.001
성별 slope, u_1	0.959	0.919	189	234.399	0.014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0.620	0.385	189	245.034	0.004
어머니 학력 slope, u3	0.485	0.235	189	239.930	0.007
아버지 학력 slope, u4	0.261	0.068	189	196.712	0.335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0.732	0.536	189	255.064	0.001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0.412	0.170	189	266.398	<0.00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056	0.003	189	239.698	0.007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072	0.005	189	256.387	0.001
level-1, r	8.363	69.940			

또한 아시아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투표의지 영향변수를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0.8%,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9.0%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02 아시아 청소년의 투표참여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0.554	0.8	196	371.3	<0.001
개인수준(level1)r	71.840	99.2			
전체	72.394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변수들 간의 높은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기대교육수준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부모의 정치사회관심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이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들은 아시아 청소년의 선거투표 참여 의지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0.05 수준에서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03 아시아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45.754	0.370	123.689	196	<0.00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98	0.238	0.410	196	0.68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92	0.159	-1.834	196	0.06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01	0.193	1.558	196	0.12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660	0.280	2.358	196	0.01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2	0.270	0.265	196	0.792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0.665	0.145	4.589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0	0.107	-0.190	21605	0.84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54	0.073	-0.744	21605	0.45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6	0.091	0.071	21605	0.94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88	0.131	-0.671	21605	0.50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66	0.140	0.473	21605	0.636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157	0.088	13.210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83	0.055	-1.497	21605	0.13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4	0.035	0.676	21605	0.49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8	0.047	-0.374	21605	0.70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98	0.065	-1.495	21605	0.13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45	0.066	2.190	21605	0.029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092	0.075	-1.228	21605	0.219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73	0.049	1.501	21605	0.13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5	0.037	0.407	21605	0.68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4	0.040	-0.096	21605	0.92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3	0.062	-0.529	21605	0.59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5	0.059	-0.597	21605	0.55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070	0.065	1.075	21605	0.28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9	0.045	0.653	21605	0.51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6	0.032	0.499	21605	0.61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8	0.035	-0.217	21605	0.82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27	0.053	-0.507	21605	0.61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0	0.054	-0.382	21605	0.703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553	0.109	5.081	21605	<0.00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91	0.077	-1.173	21605	0.24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32	0.051	2.569	21605	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6	0.062	0.259	21605	0.79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18	0.089	-1.321	21605	0.18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4	0.088	0.382	21605	0.702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0.186	0.066	2.827	21605	0.00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6	0.050	0.516	21605	0.60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6	0.034	-0.480	21605	0.63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46	0.034	-1.370	21605	0.17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91	0.057	1.590	21605	0.11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9	0.049	-0.589	21605	0.556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087	0.008	11.140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1	0.006	0.188	21605	0.85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8	0.004	1.716	21605	0.08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3	0.005	-0.691	21605	0.4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1	0.007	-1.696	21605	0.0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0	0.007	-0.034	21605	0.973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296	0.010	30.961	21605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5	0.007	0.811	21605	0.41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4	0.005	-0.979	21605	0.32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5	0.005	-0.966	21605	0.33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6	0.007	-0.946	21605	0.34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6	0.008	-0.846	21605	0.397

라. 소결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청소년의 대륙별 다층분석을 통한 민주시민 지식과 향후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대륙 중 유럽의 경우 민주시민 지식정도가 가장 높았지만, 향후 어른이 된 이후의 투표의지에 있어서는 평균이하의 점수를 보여 세 대륙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은 민주시민 지식은 낮았지만, 향후 투표 참여의지는 다소 높았다.

둘째, 유럽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층 분석결과에 의하면, 독립변수를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은 기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개인 뿐 아니라 학교수준의 변수 역시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수준은 10% 수준으로 라틴 아메리카 청소년의 11% 내외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아시아 청소년의 경우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 있어 총 변량 형성 중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18.0% 내외로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학교에 의한 영향을 받는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각 국가별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 청소년의 경우 개인변수 및 학교변수가 각각 작용하기 보다는 함께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성별과 교사와 학생의 관계, 아버지학력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참여와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등의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세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6) 아시아 국가의 민주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한국

연구에 활용된 한국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HLM분석에 활용된 한국 청소년은 총 5,044명으로 이들은 150개의 학교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은 모두 560점 이상으로 아시아 국가 중 월등히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투표의지에 있어서는 48.61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Ⅲ-1-204 한국청소년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level 1 : 개인수준의 기초분석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5044	0.43	0.50	0.00	1.00
기대교육수준	5044	3.68	0.65	0.00	4.00
어머니 학력	5044	3.56	1.03	0.00	5.00
아버지 학력	5044	3.81	1.09	0.00	5.00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5044	2.21	0.60	0.00	3.00
독서 정도	5044	2.74	1.31	0.00	5.00
학생의 정치사회 관심	5044	50.31	8.71	26.58	73.8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참여정도	5044	42.47	7.22	38.68	86.34
level 2 : 학교수준의 기초분석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50	45.52	2.73	39.86	55.6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50	38.15	2.73	31.43	44.3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50	43.26	2.29	37.39	49.85
교사와 학생의 관계	150	45.91	2.36	39.19	51.20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50	45.66	2.52	39.26	52.79
종속변수					
민주시민 지식1	5044	566.91	79.04	295.01	807.10
민주시민 지식2	5044	567.83	79.54	275.03	854.41
민주시민 지식3	5044	567.61	79.06	298.16	899.63
민주시민 지식4	5044	567.17	79.56	276.08	830.23

민주시민 지식5	5044	567.57	80.43	263.47	824.97
어른이 된 이후 투표참여 의사	5044	48.61	8.88	23.85	63.05

가. 민주시민 지식1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한국의 기초모형 분석에서 고정효과인 γ_{00} 은 종속변수의 전체 평균, 즉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의 점수이며, 무선효과는 종속변수의 변량구성, 즉, 학교 간 변량과 학교 내 변량을 나타낸다. 모형은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지식이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학교수준의 변수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1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6.5%, 개인변수는 9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0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66.1518	1.9702	287.3520	149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409.545	6.5	149	497.578	<0.001
학교 내	5844.346	93.5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앞에서의 기초모형에서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수준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개인변수가 이들의 민주시민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력,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정도,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등의 변수가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Ⅲ-1-206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0	42.721	1,825.068	91	116.552	0.037
성별 slope, u1	9.185	84.371	91	74.946	>0.500
기대교육수준 slope, u2	8.389	70.375	91	108.539	0.102
어머니 학력 slope, u3	8.625	74.395	91	119.232	0.025
아버지 학력 slope, u4	7.166	51.348	91	120.841	0.020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4.800	23.037	91	115.538	0.042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6.268	39.293	91	124.802	0.01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785	0.616	91	104.992	0.150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788	0.621	91	89.949	>0.500
level-1, r	74.345	5,527.206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학교에서의 토론분위기, 학생영향력, 선생님과의 관계 등)하여 민주시민 지식1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3.6%,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6.4%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지식1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1-207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65.8	3.6	144	320.345	<0.001
개인수준(level1)r	4,449.8	96.4			
전체	4,615.530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성별과 교사와 학생의 관계, 어머니 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부모의 정치경제 관심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변수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 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1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08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96.249	7.620	51.999	14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7.248	2.998	-2.418	144	0.01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2.924	3.553	0.823	144	0.41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3.841	3.679	-1.044	144	0.298
교사와 학생의 관계	4.442	3.759	1.182	144	0.23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91	3.089	-0.159	144	0.874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21.482	2.031	10.578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02	0.696	-0.290	4846	0.77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518	0.852	1.782	4846	0.07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837	0.974	-1.885	4846	0.059
교사와 학생의 관계	-2.061	0.898	-2.297	4846	0.02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255	0.791	-1.588	4846	0.112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32.460	1.787	18.168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850	0.798	1.066	4846	0.28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103	0.753	-1.464	4846	0.14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861	0.847	1.017	4846	0.309
교사와 학생의 관계	-1.138	0.651	-1.748	4846	0.08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15	0.702	0.306	4846	0.76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145	1.271	-0.114	4846	0.909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728	0.581	1.253	4846	0.2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86	0.573	1.022	4846	0.30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782	0.586	-3.042	4846	0.00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02	0.655	0.613	4846	0.5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72	0.520	1.292	4846	0.196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3.895	1.241	3.138	4846	0.002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75	0.475	-0.791	4846	0.42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10	0.497	0.222	4846	0.82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724	0.610	1.188	4846	0.23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878	0.598	-1.468	4846	0.14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92	0.509	0.181	4846	0.856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4.120	1.609	-2.561	4846	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406	0.636	2.211	4846	0.02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595	0.737	-2.164	4846	0.03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160	0.790	1.468	4846	0.14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72	0.863	0.547	4846	0.58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16	0.696	0.310	4846	0.756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3.173	0.939	14.028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57	0.373	0.153	4846	0.87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52	0.423	0.831	4846	0.40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84	0.501	0.168	4846	0.86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49	0.495	1.917	4846	0.05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81	0.481	-1.416	4846	0.157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1.667	0.125	13.323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83	0.054	-1.545	4846	0.12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32	0.062	2.128	4846	0.03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31	0.068	-1.939	4846	0.05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89	0.059	-1.519	4846	0.12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4	0.054	0.639	4846	0.523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1.000	0.150	-6.665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5	0.065	0.229	4846	0.81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37	0.074	-0.503	4846	0.61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56	0.068	-2.300	4846	0.02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2	0.066	0.032	4846	0.97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8	0.069	0.256	4846	0.798

나. 민주시민 지식2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2의 평균은 567.122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지식 2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인데, 학교차원의 변수는 6.7%, 개인변수는 93.3%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09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67.122	1.994	284.442	149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421.279	6.7	149	507.95	<0.001
학교 내	5906.932	93.3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성별, 기대교육 수준,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을 제외한 모든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2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10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3.652	1,905.453	91	116.341	0.038
성별 slope, u_1	7.447	55.458	91	78.230	>0.500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10.027	100.536	91	105.342	0.145
어머니 학력 slope, u3	8.298	68.858	91	140.216	<0.001
아버지 학력 slope, u4	7.205	51.910	91	119.983	0.022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8.616	74.238	91	134.631	0.002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5.181	26.847	91	124.757	0.01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879	0.773	91	123.907	0.012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784	0.615	91	91.517	0.465
level-1, r	65.648	4,309.713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2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3.8%,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6.2%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2에 있어서도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11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79.539	3.8	144	331.999	<0.001
개인수준(level1)r	4511.780	96.2			
전체	4691.316	100.0			

차이분석에 따르면, 성별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기대 교육수준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과는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등 세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12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평가척도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91.954	7.212	54.351	14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5.454	3.288	-1.659	144	0.09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4.144	3.103	1.335	144	0.18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5.648	3.330	-1.696	144	0.092
교사와 학생의 관계	4.329	3.366	1.286	144	0.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2.194	2.861	-0.767	144	0.444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22.838	2.009	11.369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699	0.740	-0.944	4846	0.34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2.223	0.955	2.328	4846	0.0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343	1.142	-1.175	4846	0.24
교사와 학생의 관계	-1.380	0.973	-1.418	4846	0.15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557	0.912	-1.706	4846	0.088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32.039	1.744	18.366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89	0.736	0.393	4846	0.69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691	0.764	-2.213	4846	0.02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63	0.874	0.759	4846	0.448
교사와 학생의 관계	-1.708	0.738	-2.316	4846	0.02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34	0.743	0.719	4846	0.472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1.168	1.305	0.895	4846	0.37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80	0.527	0.531	4846	0.59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49	0.649	1.000	4846	0.31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286	0.611	-2.105	4846	0.03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19	0.707	0.168	4846	0.86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54	0.588	1.793	4846	0.073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2.441	1.267	1.927	4846	0.054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0	0.515	0.078	4846	0.93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87	0.561	0.690	4846	0.4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902	0.587	1.536	4846	0.124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685	0.545	-1.258	4846	0.20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47	0.546	0.085	4846	0.932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318	1.678	-0.189	4846	0.8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836	0.568	3.230	4846	0.00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671	0.688	-2.429	4846	0.01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833	0.831	2.207	4846	0.027
교사와 학생의 관계	1.133	0.905	1.252	4846	0.21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17	0.626	0.187	4846	0.852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2.741	0.861	14.790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7	0.348	-0.049	4846	0.96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80	0.427	0.656	4846	0.51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67	0.481	-0.971	4846	0.33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88	0.444	2.227	4846	0.02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99	0.409	-1.711	4846	0.087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1.646	0.130	12.658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76	0.060	-1.255	4846	0.20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22	0.065	1.873	4846	0.06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43	0.067	-2.136	4846	0.03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58	0.062	-0.931	4846	0.35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9	0.061	0.145	4846	0.884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924	0.150	-6.168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3	0.062	1.015	4846	0.3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31	0.073	-0.429	4846	0.66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48	0.067	-0.719	4846	0.47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9	0.069	0.281	4846	0.77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8	0.065	0.438	4846	0.661

다. 민주시민 지식3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평균은 566.872 점으로, 전체적으로 변수 형성에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었는데, 즉,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차원의 변수는 7.4%, 개인변수는 9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13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66.872	2.059	275.366	149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465.060	7.4	149	550.521	<0.001
학교 내	5790.194	92.6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수준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부모 학력,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등이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3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14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4.883	2,014.492	91	104.896	0.151
성별 slope, u_1	10.371	107.551	91	83.930	>0.500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10.331	106.722	91	105.705	0.139
어머니 학력 slope, u3	7.799	60.820	91	120.320	0.021
아버지 학력 slope, u4	7.512	56.428	91	126.598	0.008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5.351	28.629	91	129.463	0.005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6.056	36.676	91	124.368	0.012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950	0.903	91	112.610	0.062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894	0.800	91	109.985	0.086
level-1, r	65.186	4,249.150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3 영향 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4.7%,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5.3 %로 학교수준 변수보다는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3에 있어서 월등히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15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221.846	4.7	144	376.5	<0.001
개인수준(level1)r	4492.91	95.3			
전체	4,714.760	100.0			

단계별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어머니 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정도와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청소년의 정치사회관심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변수 역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또한 이들 변수는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403.002	7.591	53.087	14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5.283	2.950	-1.791	144	0.07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4.286	3.179	1.348	144	0.1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4.250	3.803	-1.118	144	0.266
교사와 학생의 관계	1.690	3.156	0.536	144	0.59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2.165	2.833	0.764	144	0.446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20.763	2.284	9.091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274	0.831	-1.534	4846	0.12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676	1.026	1.634	4846	0.10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23	1.314	-0.474	4846	0.636
교사와 학생의 관계	-2.018	1.076	-1.875	4846	0.06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431	0.992	-1.442	4846	0.149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31.046	1.756	17.682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665	0.777	0.856	4846	0.39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298	0.846	-1.534	4846	0.12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54	0.899	0.504	4846	0.61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837	0.706	-1.187	4846	0.23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1	0.737	-0.015	4846	0.988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262	1.238	0.211	4846	0.833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797	0.597	1.335	4846	0.18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92	0.587	-0.328	4846	0.74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245	0.586	-2.124	4846	0.03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86	0.544	0.709	4846	0.47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25	0.528	0.995	4846	0.32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3.297	1.278	2.579	4846	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98	0.511	-0.388	4846	0.69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80	0.564	0.496	4846	0.6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18	0.606	0.689	4846	0.49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618	0.592	-1.043	4846	0.29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65	0.520	0.511	4846	0.61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2.579	1.677	-1.537	4846	0.124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220	0.621	1.964	4846	0.0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176	0.751	-1.566	4846	0.11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267	0.817	1.551	4846	0.121
교사와 학생의 관계	1.081	0.782	1.382	4846	0.16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838	0.639	-1.312	4846	0.19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2.203	0.931	13.109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01	0.390	-0.772	4846	0.4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40	0.443	1.447	4846	0.14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37	0.546	0.433	4846	0.66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517	0.428	1.208	4846	0.22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20	0.415	-1.251	4846	0.211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1.703	0.133	12.806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71	0.055	-1.286	4846	0.19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44	0.069	2.084	4846	0.03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60	0.067	-2.411	4846	0.01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83	0.060	-1.390	4846	0.16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9	0.059	0.493	4846	0.622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971	0.154	-6.322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7	0.066	0.414	4846	0.67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7	0.075	-0.229	4846	0.81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00	0.067	-1.489	4846	0.13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1	0.075	-0.542	4846	0.58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53	0.067	0.789	4846	0.43

라. 민주시민 지식4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4의 기본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 4의 평균은 566.450 로 매우 높았으며, 학교 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라,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었는데,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6.9%, 개인변수는 9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17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66.450	2.016	280.980	149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435.331	6.9	149	516.774	<0.001
학교 내	5,900.452	93.1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청소년들은 성별, 아버지 학력,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18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8.448	2,347.243	91	111.797	0.069
성별 slope, u_1	6.099	37.192	91	64.200	>0.500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10.352	107.172	91	110.787	0.078
어머니 학력 slope, u_3	8.264	68.289	91	123.587	0.013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아버지 학력 slope, u4	8.065	65.047	91	108.448	0.103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5.364	28.775	91	117.896	0.03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6.021	36.257	91	112.980	0.059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759	0.576	91	112.171	0.065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401	0.161	91	78.686	>0.500
level-1, r	65.930	4,346.756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수준의 변수는 3.5%,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6.5%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19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62.387	3.5	144	312.9	<0.001
개인수준(level1)r	4529.78	96.5			
전체	4,692.164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몇몇의 개인변수 및 학교 변수들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기대교육수준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어머니 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가정 독서분위기와 교사와 학생의 관계 및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변수에서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고, 이들 변수 상호효과는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서 0.05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20 한국청소년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_0					
학교차이	395.007	7.73	51.101	14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8.198	2.817	-2.91	144	0.004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5.140	3.202	1.605	144	0.11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650	3.697	-0.717	144	0.475
교사와 학생의 관계	1.675	3.806	0.44	144	0.6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745	3.246	-0.537	144	0.592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22.522	1.908	11.802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83	0.68	-0.122	4846	0.90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27	0.955	0.238	4846	0.81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17	0.97	-0.121	4846	0.90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36	1.023	-0.915	4846	0.3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969	0.812	-1.194	4846	0.233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32.811	1.782	18.416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995	0.661	1.506	4846	0.13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931	0.747	-2.586	4846	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46	0.856	0.755	4846	0.4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715	0.737	-0.971	4846	0.33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357	0.68	0.525	4846	0.6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278	1.258	-0.221	4846	0.82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973	0.594	1.636	4846	0.10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71	0.644	0.888	4846	0.37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344	0.628	-2.14	4846	0.03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38	0.708	0.618	4846	0.53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57	0.573	0.972	4846	0.331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3.689	1.284	2.874	4846	0.004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19	0.487	-0.656	4846	0.51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02	0.556	0.544	4846	0.58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17	0.62	0.671	4846	0.502
교사와 학생의 관계	-1.077	0.551	-1.955	4846	0.05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62	0.528	0.874	4846	0.382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3.113	1.626	-1.914	4846	0.056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013	0.681	1.488	4846	0.137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168	0.661	-1.767	4846	0.07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49	0.772	0.84	4846	0.4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779	0.86	0.905	4846	0.36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89	0.679	0.719	4846	0.472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2.736	0.916	13.906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93	0.344	0.561	4846	0.57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99	0.434	0.688	4846	0.49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33	0.515	-0.258	4846	0.797
교사와 학생의 관계	1.049	0.432	2.425	4846	0.01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895	0.457	-1.959	4846	0.05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1.629	0.125	13.047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2	0.055	-1.114	4846	0.26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82	0.06	1.354	4846	0.17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13	0.064	-1.756	4846	0.07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79	0.062	-1.265	4846	0.20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55	0.059	0.933	4846	0.351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962	0.143	-6.718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9	0.059	0.317	4846	0.75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6	0.069	-0.084	4846	0.93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82	0.067	-1.23	4846	0.21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5	0.066	-0.225	4846	0.82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6	0.059	-0.261	4846	0.794

마. 민주시민 지식5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의 평균은 566.813로 전체적으로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5 형성에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 산출 결과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6.7%, 개인변수는 9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21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66.813	2.024	280.079	149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436.247	6.7	149	509.537	<0.001
학교 내	6038.494	93.3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 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등의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5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22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0.382	1,630.736	91	105.112	0.148
성별 slope, u_1	8.388	70.350	91	76.807	>0.500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7.856	61.721	91	84.795	>0.500
어머니 학력 slope, u3	7.104	50.469	91	111.568	0.071
아버지 학력 slope, u4	5.775	33.345	91	110.160	0.084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9.593	92.024	91	133.557	0.003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5.986	35.838	91	123.759	0.013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861	0.741	91	107.357	0.116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668	0.446	91	91.864	0.455
level-1, r	66.525	4,425.597			

또한 이들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5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3.6%,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6.4%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5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23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72.728	3.6	144	320.3	<0.001
개인수준(level1)r	4,614.229	96.4			
전체	4,786.957	100.0			

분석에 따르면, 성별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어머니 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청소년의 정치사회관심 정도와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및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0.1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24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94.166	7.288	54.086	14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7.576	2.859	-2.650	144	0.00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2.964	3.225	0.919	144	0.3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216	3.284	-0.675	144	0.5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2.084	3.671	0.568	144	0.57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9	3.239	0.003	144	0.998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22.365	2.083	10.739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90	0.686	-0.277	4846	0.78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2.022	0.996	2.030	4846	0.04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130	1.082	-1.970	4846	0.049
교사와 학생의 관계	-1.803	1.122	-1.608	4846	0.10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25	0.868	-1.181	4846	0.238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32.184	1.753	18.358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761	0.691	1.101	4846	0.27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114	0.692	-1.609	4846	0.10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72	0.823	0.209	4846	0.83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20	0.675	-1.363	4846	0.17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781	0.706	1.107	4846	0.268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450	1.254	0.359	4846	0.719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054	0.583	1.809	4846	0.07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28	0.613	0.536	4846	0.59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398	0.609	-2.296	4846	0.02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35	0.670	0.500	4846	0.61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41	0.587	0.751	4846	0.453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3.161	1.195	2.644	4846	0.008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66	0.454	-0.807	4846	0.4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48	0.528	0.090	4846	0.92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27	0.614	0.858	4846	0.39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1.089	0.571	-1.906	4846	0.05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78	0.495	0.359	4846	0.72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2.955	1.795	-1.646	4846	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533	0.706	2.173	4846	0.0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419	0.876	-1.620	4846	0.10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187	0.831	1.429	4846	0.153
교사와 학생의 관계	1.360	1.046	1.301	4846	0.19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01	0.709	-0.707	4846	0.479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3.707	0.912	15.036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43	0.369	-0.930	4846	0.35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44	0.423	1.286	4846	0.19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50	0.497	0.303	4846	0.76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54	0.472	2.020	4846	0.04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74	0.422	-1.598	4846	0.11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1.653	0.131	12.577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3	0.054	-0.799	4846	0.42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37	0.065	2.099	4846	0.03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36	0.067	-2.029	4846	0.04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99	0.068	-1.460	4846	0.14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1	0.060	0.519	4846	0.604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990	0.148	-6.703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75	0.058	1.298	4846	0.19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81	0.065	-1.252	4846	0.21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98	0.067	-1.462	4846	0.14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20	0.067	-0.307	4846	0.75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58	0.067	0.866	4846	0.387

바. 어른이 된 이후 선거투표 참여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이번에는 학교수준에 따른 한국 청소년의 선거 투표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기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및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검증하는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는 평균 48.61점으로, 전체적으로 투표참여 의지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1.9%, 개인변수는 98.1%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수준의 변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2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8.61	0.122	421.940	201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1.466	1.9	149	245.32	<0.001
학교 내	77.433	98.1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정도가 한국 청소년의 투표의지를 형성하는데 특별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26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393	19.302	91	125.153	0.010
성별 slope, u_1	0.751	0.564	91	73.820	>0.500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0.800	0.640	91	95.347	0.357
어머니 학력 slope, u3	0.232	0.054	91	86.545	>0.500
아버지 학력 slope, u4	0.775	0.600	91	110.456	0.081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0.871	0.758	91	91.763	0.458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0.567	0.322	91	109.182	0.094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122	0.015	91	127.305	0.007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073	0.005	91	103.038	0.183
level-1, r	7.790	60.679			

또한 한국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투표의지 영향변수를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1.2%,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8.8%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27 한국청소년 청소년의 투표참여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0.754	1.2	144	198.4	0.002
개인수준(level1)r	63.437	98.8			
전체	64.191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성별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청소년의 정치사회관심 정도와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에서만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으며, 효과는 한국 청소년의 선거투표 참여 의지에 있어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28 한국청소년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8.425	0.837	45.913	14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3	0.326	-0.133	144	0.89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16	0.384	0.301	144	0.76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6	0.359	-0.044	144	0.96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06	0.435	0.244	144	0.80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44	0.401	0.608	144	0.544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0.840	0.227	3.708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6	0.094	0.166	4846	0.86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76	0.110	0.687	4846	0.49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76	0.103	-1.708	4846	0.08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29	0.143	-0.202	4846	0.8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17	0.107	1.092	4846	0.275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441	0.197	7.326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6	0.078	-0.592	4846	0.55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2	0.090	-0.019	4846	0.98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31	0.085	-1.530	4846	0.12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57	0.103	-0.553	4846	0.5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7	0.081	0.088	4846	0.93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134	0.128	-1.052	4846	0.293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8	0.052	0.550	4846	0.58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3	0.062	0.048	4846	0.96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32	0.067	0.478	4846	0.63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2	0.056	0.749	4846	0.45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9	0.059	0.481	4846	0.631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034	0.144	-0.238	4846	0.81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39	0.053	0.737	4846	0.46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45	0.064	-0.705	4846	0.48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96	0.072	1.334	4846	0.182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52	0.069	-0.743	4846	0.45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45	0.063	0.707	4846	0.48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1.393	0.201	6.930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8	0.089	0.310	4846	0.75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56	0.105	-0.528	4846	0.59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8	0.097	0.187	4846	0.85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29	0.125	1.035	4846	0.30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07	0.096	-1.117	4846	0.264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0.743	0.099	7.473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2	0.043	0.055	4846	0.95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70	0.049	1.412	4846	0.15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4	0.049	-0.087	4846	0.93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23	0.048	0.490	4846	0.62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0	0.044	-1.588	4846	0.112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312	0.017	18.837	484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2	0.006	0.241	4846	0.80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7	0.008	0.860	4846	0.3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6	0.009	-1.864	4846	0.06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1	0.008	-1.495	4846	0.13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5	0.008	0.690	4846	0.49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043	0.018	2.392	4846	0.01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4	0.007	-0.479	4846	0.63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3	0.010	-0.336	4846	0.73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3	0.008	0.457	4846	0.64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3	0.009	-1.454	4846	0.14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8	0.008	-1.016	4846	0.31

(2) 대만

대만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HLM분석에 활용된 대만 청소년은 총 4,936명으로 이들은 150개의 학교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은 모두 560점 이상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투표참여 의사 역시 50점 이상으로 평균이상의 역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29 대만 청소년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level 1 : 개인수준의 기초분석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4936	0.48	0.50	0.00	1.00
기대교육수준	4936	3.43	0.85	0.00	4.00
어머니 학력	4936	3.15	1.02	0.00	5.00
아버지 학력	4936	3.23	1.13	0.00	5.00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4936	1.55	0.73	0.00	3.00
독서 정도	4936	2.31	1.38	0.00	5.00
학생의 정치사회 관심	4936	47.47	9.85	26.58	73.8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참여정도	4936	43.79	7.70	38.68	86.34
level 2 : 학교수준의 기초분석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50	49.95	2.39	40.00	55.00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50	50.56	3.26	42.00	58.00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50	51.94	2.04	47.00	58.00
교사와 학생의 관계	150	50.64	3.30	41.00	59.00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50	50.73	2.57	44.00	57.00
종속변수					
민주시민 지식1	4936	563.32	93.23	228.77	846.00
민주시민 지식2	4936	563.65	92.29	225.61	844.95
민주시민 지식3	4936	562.84	92.41	230.87	842.85
민주시민 지식4	4936	563.89	92.75	230.87	887.01
민주시민 지식5	4936	562.95	92.72	223.51	875.44
어른이 된 이후 투표참여 의사	4936	51.03	9.68	23.85	63.05

가. 민주시민 지식1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1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17.2%, 개인변수는 8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3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60.525	3.370	166.325	149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1491.503	17.2	149	1177.05	<0.001
학교 내	7200.502	82.8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앞에서의 기초모형에서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수준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개인변수가 이들의 민주시민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변수는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31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56.454	3,187.073	146	236.7	<0.001
성별 slope, u_1	9.908	98.164	146	172.843	0.064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9.291	86.321	146	181.671	0.024
어머니 학력 slope, u3	8.155	66.501	146	175.794	0.047
아버지 학력 slope, u4	5.445	29.644	146	185.13	0.016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6.092	37.111	146	172.474	0.066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4.132	17.077	146	172.427	0.067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641	0.411	146	176.912	0.04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284	0.081	146	134.756	>0.500
level-1, r	71.410	5,099.390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1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 8.0%,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2.0%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1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32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460.703	8.0	144	544.416	<0.001
개인수준(level1)r	5298.64	92.0			
전체	5759.347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어머니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가정의 독서분위기와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변수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이는 대만 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1 형성에 9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33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I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76.116	7.210	52.169	14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428	3.914	0.365	144	0.71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4.525	2.763	1.638	144	0.10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36	3.639	-0.175	144	0.861
교사와 학생의 관계	-6.427	2.864	-2.244	144	0.02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210	2.943	3.469	144	<0.001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8.751	2.055	9.126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436	0.960	-1.496	4738	0.13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972	0.823	1.182	4738	0.23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24	1.107	-0.383	4738	0.70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9	0.939	0.041	4738	0.96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145	1.015	-1.128	4738	0.259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37.053	1.542	24.030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0	0.883	-0.012	4738	0.99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10	0.613	-0.669	4738	0.50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30	0.854	-0.504	4738	0.61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817	0.652	1.254	4738	0.2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718	0.720	-2.387	4738	0.017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2.087	1.422	1.468	4738	0.14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44	0.694	0.207	4738	0.83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04	0.529	-0.386	4738	0.69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922	0.687	-2.797	4738	0.00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776	0.565	1.374	4738	0.1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54	0.582	-1.125	4738	0.261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6.693	1.283	5.217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422	0.664	0.635	4738	0.52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32	0.471	-0.068	4738	0.94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41	0.663	0.363	4738	0.717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81	0.542	0.518	4738	0.60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21	0.594	-0.878	4738	0.38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745	1.533	0.486	4738	0.62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9	0.751	0.091	4738	0.92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85	0.543	-1.262	4738	0.20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959	0.796	1.205	4738	0.22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85	0.645	0.286	4738	0.77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768	0.730	1.052	4738	0.293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8.709	0.860	10.130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60	0.388	-0.670	4738	0.50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78	0.327	-1.156	4738	0.24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82	0.529	-0.156	4738	0.87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94	0.381	0.772	4738	0.4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78	0.446	2.415	4738	0.016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1.227	0.125	9.845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2	0.058	1.073	4738	0.28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39	0.045	0.861	4738	0.38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07	0.056	-1.904	4738	0.05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4	0.055	-0.081	4738	0.93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8	0.052	-0.161	4738	0.872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1.231	0.137	-8.967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10	0.069	-1.598	4738	0.1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88	0.053	1.658	4738	0.09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38	0.075	-0.509	4738	0.61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4	0.062	-0.070	4738	0.94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0	0.066	1.050	4738	0.294

나. 민주시민 지식2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및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분산비율을 검증하는데 활용하는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의 평균은 560.996로,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지식 2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학교차원의 변수는 16.6%, 개인변수는 83.4%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34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60.996	3.287	170.673	149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1410.839	16.6	149	1130.12	<0.001
학교 내	7110.648	83.4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및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수준 변수들은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2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35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8.361	2,338.827	146	205.719	0.001
성별 slope, u_1	11.715	137.231	146	162.277	0.169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8.256	68.156	146	168.116	0.102
어머니 학력 slope, u3	6.405	41.028	146	160.921	0.189
아버지 학력 slope, u4	5.715	32.666	146	180.438	0.028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4.845	23.477	146	141.069	>0.50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4.188	17.540	146	169.726	0.087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766	0.586	146	180.798	0.026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322	0.103	146	133.625	>0.500
level-1, r	71.453	5,105.493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2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7.6%,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2.4%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1과 마찬가지로 2에 있어서도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36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438.32	7.6	144	524.176	<0.001
개인수준(level1)r	5,309.81	92.4			
전체	5,748.132	100.0			

차이분석에 따르면, 어머니 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부모의 정치사회관심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가정의 독서분위기와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에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37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80.376	7.003	54.315	14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656	3.968	0.165	144	0.86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4.419	2.802	1.577	144	0.11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031	3.194	-0.323	144	0.747
교사와 학생의 관계	-4.011	2.630	-1.525	144	0.12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8.267	2.825	2.926	144	0.004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9.098	2.100	9.094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985	1.020	-0.965	4738	0.33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941	0.876	1.073	4738	0.28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27	1.135	-0.112	4738	0.91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84	0.968	0.087	4738	0.93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08	1.073	-0.474	4738	0.636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36.275	1.488	24.378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63	0.803	0.327	4738	0.74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50	0.610	-0.246	4738	0.80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49	0.852	-0.644	4738	0.5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78	0.645	0.432	4738	0.66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730	0.627	-2.759	4738	0.006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3.245	1.374	2.362	4738	0.018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852	0.659	1.294	4738	0.19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67	0.541	-0.864	4738	0.38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998	0.707	-2.826	4738	0.005
교사와 학생의 관계	1.044	0.542	1.925	4738	0.05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830	0.535	-1.553	4738	0.12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5.799	1.282	4.522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73	0.680	0.108	4738	0.91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29	0.494	0.262	4738	0.79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70	0.707	0.382	4738	0.703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90	0.535	-0.168	4738	0.86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11	0.549	-0.384	4738	0.701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085	1.466	0.058	4738	0.954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99	0.771	-0.388	4738	0.69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950	0.521	-1.823	4738	0.06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739	0.740	2.349	4738	0.01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64	0.657	-0.098	4738	0.92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130	0.716	1.579	4738	0.114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8.197	0.858	9.551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546	0.359	-1.521	4738	0.12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33	0.351	-0.949	4738	0.34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50	0.509	-0.688	4738	0.49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92	0.375	1.046	4738	0.29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122	0.433	2.593	4738	0.01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1.113	0.126	8.854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82	0.061	1.339	4738	0.18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69	0.050	1.368	4738	0.17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27	0.067	-1.910	4738	0.05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1	0.054	-0.016	4738	0.98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8	0.055	-0.678	4738	0.498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1.219	0.144	-8.490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3	0.066	-0.354	4738	0.72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51	0.057	0.892	4738	0.37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45	0.082	0.546	4738	0.58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1	0.061	0.180	4738	0.85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4	0.063	-0.064	4738	0.949

다. 민주시민 지식3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평균은 560.261 점으로, 전체적으로 변수형성에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었는데, 즉,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차원의 변수는 16.3%, 개인변수는 8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38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60.261	3.272	171.219	149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1395.073	16.3	149	1115.03	<0.001
학교 내	7147.619	83.7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수준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성별, 어머니 학력, 가정의 독서분위기 등의 개인수준의 변수가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3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39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5.050	2,029.508	146	208.381	<0.001
성별 slope, u_1	9.587	91.916	146	176.659	0.042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7.194	51.748	146	160.961	0.188
어머니 학력 slope, u3	7.420	55.053	146	180.829	0.026
아버지 학력 slope, u4	4.769	22.741	146	161.805	0.176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5.358	28.708	146	165.412	0.13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4.479	20.061	146	180.393	0.028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612	0.375	146	156.643	0.259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478	0.229	146	139.256	>0.500
level-1, r	71.754	5,148,659			

또한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3 영향 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6.8%,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3.2%로 학교수준 변수보다는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3에 있어서도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40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388.884	6.8	144	478.855	<0.001
개인수준(level1)r	5337.156	93.2			
전체	5726.039	100.0			

단계별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대교육수준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어머니 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정의 독서분위기와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변수 역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또한 이들 변수는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41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77.498	6.827	55.295	14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2.015	3.727	0.541	144	0.58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3.953	2.622	1.508	144	0.13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059	3.676	-0.288	144	0.774
교사와 학생의 관계	-3.340	2.692	-1.241	144	0.21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7.333	3.109	2.359	144	0.02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8.765	2.071	9.059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345	1.025	-1.312	4738	0.1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043	0.828	1.260	4738	0.20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92	1.016	0.090	4738	0.92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828	0.975	-0.849	4738	0.39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68	0.933	0.073	4738	0.942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36.085	1.452	24.848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94	0.785	0.374	4738	0.70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33	0.542	-0.614	4738	0.53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31	0.881	-0.149	4738	0.88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565	0.665	0.850	4738	0.39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732	0.745	-2.324	4738	0.02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3.980	1.409	2.824	4738	0.00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92	0.682	0.135	4738	0.89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28	0.525	-0.244	4738	0.80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314	0.662	-1.984	4738	0.04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852	0.510	1.670	4738	0.09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17	0.561	-0.387	4738	0.699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5.977	1.208	4.948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49	0.635	0.550	4738	0.58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7	0.424	-0.017	4738	0.98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5	0.680	0.036	4738	0.97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15	0.459	-0.468	4738	0.6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326	0.534	-0.611	4738	0.542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074	1.495	0.049	4738	0.96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03	0.712	-0.426	4738	0.6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004	0.565	-1.775	4738	0.07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89	0.735	0.802	4738	0.42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79	0.626	-0.126	4738	0.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90	0.648	1.682	4738	0.093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8.274	0.886	9.336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533	0.388	-1.374	4738	0.1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73	0.354	-0.772	4738	0.4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778	0.523	-1.488	4738	0.13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94	0.411	0.958	4738	0.33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984	0.454	2.166	4738	0.03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1.119	0.121	9.242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3	0.056	0.771	4738	0.44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59	0.047	1.263	4738	0.20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93	0.062	-1.495	4738	0.13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6	0.051	0.306	4738	0.7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3	0.047	-0.494	4738	0.621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1.304	0.139	-9.410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8	0.073	-0.661	4738	0.50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78	0.057	1.360	4738	0.17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4	0.085	0.045	4738	0.96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8	0.062	-0.132	4738	0.89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6	0.059	1.294	4738	0.196

라. 민주시민 지식4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4의 기본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 4의 평균은 561.40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학교 간 차이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을 통해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16.6%, 개인변수는 8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42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61.404	3.310	169.596	149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1431.989	16.6	149	1135.46	<0.001
학교 내	7174.571	83.4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대만청소년들은 성별, 기대교육수준, 아버지 학력, 가정의 독서분위기 등의 개인변수가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43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52.323	2,737.652	146	214.857	<0.001
성별 slope, u_1	12.631	159.536	146	197.864	0.003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10.507	110.387	146	182.194	0.022
어머니 학력 slope, u3	5.417	29.345	146	165.279	0.131
아버지 학력 slope, u4	4.609	21.244	146	175.677	0.047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4.666	21.775	146	142.719	>0.50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4.593	21.096	146	181.361	0.025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647	0.418	146	165.798	0.126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685	0.469	146	155.891	0.272
level-1, r	71.422	5,101.066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수준의 변수는 7.8%,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2.2%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44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448.862	7.8	144	531	<0.001
개인수준(level1)r	5,327.684	92.2			
전체	5,776.546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개인변수 및 학교 변수들 간에 상호작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정 독서분위기와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청소년의 정치사회관심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변수들간에 상호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효과는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서 95%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45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78.415	7.341	51.546	14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2.448	3.599	0.680	144	0.49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3.223	2.788	1.156	144	0.2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613	3.764	-0.429	144	0.669
교사와 학생의 관계	-3.390	2.779	-1.220	144	0.22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8.955	2.849	3.143	144	0.002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7.750	2.250	7.891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466	1.090	-1.344	4738	0.17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751	0.950	0.790	4738	0.42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15	1.143	-0.450	4738	0.65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30	1.025	0.126	4738	0.89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89	1.025	-0.575	4738	0.566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36.553	1.663	21.986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32	0.813	-0.409	4738	0.68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58	0.628	0.411	4738	0.68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89	1.009	-0.484	4738	0.62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81	0.731	-0.111	4738	0.91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263	0.721	-1.752	4738	0.08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3.346	1.373	2.437	4738	0.01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11	0.696	0.303	4738	0.76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79	0.486	-0.778	4738	0.43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163	0.740	-1.573	4738	0.11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03	0.507	1.783	4738	0.07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02	0.522	-1.152	4738	0.249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6.086	1.267	4.804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44	0.604	0.404	4738	0.68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0	0.464	-0.042	4738	0.96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93	0.777	0.120	4738	0.905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8	0.496	0.097	4738	0.92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38	0.475	-1.133	4738	0.257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051	1.486	0.034	4738	0.973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4	0.765	-0.006	4738	0.99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914	0.561	-1.629	4738	0.10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279	0.708	1.806	4738	0.07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28	0.618	0.046	4738	0.96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358	0.644	0.556	4738	0.578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8.618	0.878	9.815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9	0.396	-0.174	4738	0.86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94	0.345	-1.141	4738	0.25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76	0.499	-0.953	4738	0.34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510	0.392	1.300	4738	0.19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56	0.421	2.509	4738	0.012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1.160	0.125	9.303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5	0.059	0.418	4738	0.67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56	0.045	1.232	4738	0.21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40	0.064	-2.193	4738	0.02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0	0.052	0.188	4738	0.85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43	0.054	-0.797	4738	0.426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1.284	0.155	-8.308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22	0.067	-1.814	4738	0.0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18	0.065	1.824	4738	0.06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00	0.086	1.163	4738	0.24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80	0.065	-1.244	4738	0.21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4	0.069	1.070	4738	0.285

마. 민주시민 지식5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에 따르면, 민주시민 지식5의 평균은 560.366점 이었으며,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5 형성에 학교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 변량산출 결과에 따르면, 민주시민 지식5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16.6%, 개인변수는 8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46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60.366	3.304	169.596	149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1425.469	16.6	149	1126.53	<0.001
학교 내	7182.464	83.4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 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성별, 부모 학력 등의 개인수준 변수가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47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4.432	1,974.220	146	199.859	0.002
성별 slope, u_1	10.883	118.435	146	167.631	0.106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7.847	61.577	146	154.556	0.298
어머니 학력 slope, u_3	8.811	77.634	146	192.21	0.006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아버지 학력 slope, u4	5.380	28.949	146	183.138	0.020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5.483	30.068	146	155.384	0.282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4.063	16.510	146	174.152	0.056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457	0.209	146	157.973	0.235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569	0.324	146	148.243	0.433
level-1, r	72.046	5,190.670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5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7.0%,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3.0%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5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48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405.507	7.0	144	490	<0.001
개인수준(level1)r	5381.51	93.0			
전체	5,787.018	100.0			

분석에 따르면, 어머니 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가정의 독서분위기와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0.5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49 대만 청소년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78.223	6.932	54.565	14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87	3.457	-0.025	144	0.9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3.722	2.549	1.46	144	0.14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326	3.893	-0.597	144	0.551
교사와 학생의 관계	-3.123	2.711	-1.152	144	0.25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6.657	2.79	2.386	144	0.018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8.998	2.058	9.232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838	1.143	-1.608	4738	0.10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917	0.911	1.006	4738	0.31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42	1.042	-0.137	4738	0.89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66	1.034	-0.354	4738	0.72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18	1.134	-0.369	4738	0.712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35.766	1.539	23.237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74	0.763	0.359	4738	0.71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12	0.58	-0.366	4738	0.71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96	0.943	0.314	4738	0.75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82	0.686	0.265	4738	0.79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165	0.691	-1.686	4738	0.092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3.625	1.472	2.463	4738	0.014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656	0.693	0.947	4738	0.34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17	0.514	-0.616	4738	0.53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439	0.708	-2.032	4738	0.04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63	0.56	1.718	4738	0.08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33	0.625	-0.854	4738	0.393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6.099	1.279	4.768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33	0.658	0.202	4738	0.8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52	0.463	0.329	4738	0.74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69	0.686	-0.101	4738	0.92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93	0.509	-0.772	4738	0.4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12	0.519	-0.216	4738	0.829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344	1.562	0.22	4738	0.826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73	0.788	0.22	4738	0.82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31	0.613	-0.541	4738	0.58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240	0.774	1.602	4738	0.10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40	0.69	-0.203	4738	0.83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768	0.768	1.001	4738	0.317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8.432	0.861	9.796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91	0.403	-0.97	4738	0.33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41	0.328	-1.646	4738	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853	0.542	-1.573	4738	0.11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694	0.37	1.877	4738	0.06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31	0.419	2.463	4738	0.014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1.114	0.122	9.149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2	0.061	0.19	4738	0.8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50	0.046	1.075	4738	0.28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08	0.059	-1.822	4738	0.06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4	0.053	-0.651	4738	0.51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7	0.049	-0.338	4738	0.735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1.310	0.149	-8.778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00	0.07	-1.437	4738	0.15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90	0.057	1.567	4738	0.11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64	0.087	0.739	4738	0.4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9	0.066	-0.589	4738	0.55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00	0.064	1.557	4738	0.12

바. 어른이 된 이후 선거투표 참여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다음으로 대만 청소년의 학교수준에 따른 선거 투표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기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만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는 평균 50.972점으로, 전 세계 평균 수준이었으며, 전체적으로 투표참여 의지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만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학교차원의 변수는 4.0%, 개인변수는 96.0%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인수준의 변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5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0.972	0.208	245.184	149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3.755	4.0	149	354.321	<0.001
학교 내	89.885	96.0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어머니 학력과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등의 개인변수가 대만 청소년의 투표의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51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877	23.787	146	209.205	<0.001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성별 slope, u1	0.930	0.865	146	157.763	0.239
기대교육수준 slope, u2	0.652	0.426	146	168.131	0.102
어머니 학력 slope, u3	0.889	0.791	146	176.076	0.045
아버지 학력 slope, u4	0.452	0.204	146	160.764	0.191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0.746	0.556	146	168.022	0.103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0.559	0.312	146	196.361	0.004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089	0.008	146	171.583	0.073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057	0.003	146	139.681	>0.500
level-1, r	8.320	69.226			

또한 대만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투표의지 영향변수를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1.9%,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8.1%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52 대만 청소년 투표참여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396	1.9	144	233	<0.001
개인수준(level1)r	71.933	98.1			
전체	73.329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대만 청소년의 투표참여의지에 있어서는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 간 특별한 상호 작용을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다만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에 있어서는 상호효과를 보였으며 이 효과는 이들의 선거투표 참여 의지에 있어서도 95%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53 대만 청소년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41.764	0.774	53.971	14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41	0.338	0.418	144	0.67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92	0.289	-0.317	144	0.75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93	0.442	-1.341	144	0.18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21	0.317	1.011	144	0.31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11	0.310	1.971	144	0.051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0.329	0.244	1.351	4738	0.17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69	0.133	-1.273	4738	0.20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5	0.101	0.248	4738	0.80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7	0.139	0.052	4738	0.95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01	0.110	0.920	4738	0.35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6	0.105	0.058	4738	0.954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774	0.158	11.241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4	0.062	0.062	4738	0.9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44	0.054	0.807	4738	0.4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57	0.090	0.642	4738	0.52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00	0.072	-1.378	4738	0.16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48	0.062	-2.385	4738	0.017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096	0.164	-0.584	4738	0.559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53	0.079	1.933	4738	0.05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45	0.062	-0.731	4738	0.46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43	0.105	-0.407	4738	0.68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71	0.070	1.016	4738	0.3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2	0.069	0.465	4738	0.642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076	0.128	0.600	4738	0.549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99	0.054	-1.850	4738	0.06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68	0.052	1.325	4738	0.18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85	0.071	1.189	4738	0.235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77	0.062	-1.254	4738	0.2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9	0.051	0.372	4738	0.71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1.261	0.176	7.148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1	0.076	0.536	4738	0.59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89	0.060	-1.476	4738	0.1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80	0.094	-0.847	4738	0.39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55	0.075	0.735	4738	0.46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81	0.062	1.294	4738	0.196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0.476	0.108	4.421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4	0.051	-0.080	4738	0.93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6	0.043	-0.366	4738	0.71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87	0.065	1.341	4738	0.1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6	0.045	0.135	4738	0.89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40	0.048	-0.841	4738	0.4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323	0.015	21.818	4738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2	0.006	0.244	4738	0.80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2	0.005	0.383	4738	0.70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1	0.009	-0.140	4738	0.88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5	0.006	-0.712	4738	0.47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4	0.006	-0.755	4738	0.451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031	0.016	1.930	4738	0.054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1	0.007	-1.505	4738	0.13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7	0.006	1.121	4738	0.26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4	0.008	0.448	4738	0.65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6	0.007	-0.790	4738	0.4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1	0.006	1.756	4738	0.079

(3) 인도네시아

연구에 활용된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HLM분석에 활용된 인도네시아 청소년은 총 4,399명으로 이들은 142개의 학교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은 모두 450점 미만으로 전 세계 평균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향후 투표참여 의사에 있어서는 평균 53.00점을 보여 비교적 높은 참여의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54 인도네시아 청소년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level 1 : 개인수준의 기초분석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4399	0.53	0.50	0.00	1.00
기대교육수준	4399	3.23	1.05	0.00	4.00
어머니 학력	4399	2.12	1.30	0.00	5.00
아버지 학력	4399	2.34	1.36	0.00	5.00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4399	2.13	0.74	0.00	3.00
독서 정도	4399	1.59	1.08	0.00	5.00
학생의 정치사회 관심	4399	55.16	7.02	26.58	73.8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참여정도	4399	54.47	9.59	38.68	86.34
level 2 : 학교수준의 기초분석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42	52.42	2.86	45.43	59.4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42	54.68	3.88	43.63	66.4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42	59.15	3.13	49.64	66.54
교사와 학생의 관계	142	54.13	2.14	49.48	60.0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42	51.85	2.63	43.37	59.09
종속변수					
민주시민 지식1	4399	441.15	69.67	206.68	686.17
민주시민 지식2	4399	441.15	69.18	203.53	656.73
민주시민 지식3	4399	441.28	68.94	207.74	676.71
민주시민 지식4	4399	440.84	69.24	188.81	657.78
민주시민 지식5	4399	441.43	69.64	196.17	677.76
어른이 된 이후 투표참여 의사	4399	53.00	7.96	23.85	63.05

가. 민주시민 지식1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의 기초모형 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지식이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학교수준의 변수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1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45.2%, 개인변수는 54.8 %로 다른 대륙 및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학교차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5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37.340	4.018	108.841	141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2216.771	45.2	141	3718.86	<0.001
학교 내	2684.219	54.8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고,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256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7.517	2,257.858	136	277.010	<0.001
성별 slope, u_1	8.324	69.283	136	146.389	0.256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3.235	10.466	136	163.837	0.052
어머니 학력 slope, u_3	4.216	17.776	136	147.550	0.235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아버지 학력 slope, u4	4.264	18.181	136	161.610	0.066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4.131	17.063	136	154.772	0.129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2.008	4.032	136	101.491	>0.500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397	0.158	136	143.327	0.316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401	0.161	136	163.793	0.052
level-1, r	48.607	2,362.667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학교에서의 토론분위기, 학생영향력, 선생님과 관계 등)하여 민주시민 지식1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35.4%,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64.6%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1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57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342.26	35.4	136	2377.58	<0.001
개인수준(level1)r	2447.91	64.6			
전체	3790.167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어머니 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가정의 독서분위기와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변수가 상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1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58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99.979	5.280	75.747	13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2.153	2.169	0.993	136	0.32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013	1.730	0.585	136	0.55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091	1.825	-1.146	136	0.254
교사와 학생의 관계	-4.284	3.321	-1.290	136	0.19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8.206	2.547	3.222	136	0.002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4.016	1.641	8.542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114	0.659	-1.690	4209	0.09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34	0.553	0.785	4209	0.43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29	0.601	0.215	4209	0.83
교사와 학생의 관계	-1.215	1.119	-1.085	4209	0.27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58	0.751	0.211	4209	0.833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9.465	0.827	11.451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45	0.366	-0.396	4209	0.69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14	0.303	1.036	4209	0.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92	0.261	0.735	4209	0.46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68	0.516	-0.131	4209	0.89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01	0.478	-0.211	4209	0.833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010	0.887	0.011	4209	0.99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26	0.351	0.929	4209	0.35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7	0.258	0.064	4209	0.94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99	0.270	-2.214	4209	0.02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21	0.498	-0.443	4209	0.65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49	0.376	-1.194	4209	0.232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1.660	0.870	1.907	4209	0.05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438	0.325	-1.346	4209	0.17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62	0.265	-0.609	4209	0.54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66	0.275	-0.240	4209	0.81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30	0.512	0.645	4209	0.51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61	0.436	0.600	4209	0.548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822	1.095	0.750	4209	0.453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57	0.377	0.683	4209	0.49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15	0.385	1.080	4209	0.2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23	0.408	-0.547	4209	0.58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773	0.700	1.106	4209	0.26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761	0.611	-1.245	4209	0.213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4.339	0.662	-6.557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25	0.283	-0.794	4209	0.42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06	0.207	2.444	4209	0.01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45	0.212	-0.686	4209	0.49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639	0.437	1.461	4209	0.14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17	0.317	-1.631	4209	0.103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149	0.105	1.417	4209	0.15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9	0.040	0.468	4209	0.6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53	0.033	1.598	4209	0.1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47	0.034	-1.382	4209	0.16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11	0.069	1.617	4209	0.10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2	0.059	-1.222	4209	0.222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833	0.087	-9.527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34	0.037	-0.911	4209	0.36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3	0.031	-0.089	4209	0.92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6	0.029	0.563	4209	0.57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5	0.049	-0.310	4209	0.75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3	0.045	0.513	4209	0.608

나. 민주시민 지식2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의 평균은 437.099로,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지식 2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인데, 학교차원의 변수는 45.5%, 개인변수는 54.5%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59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37.099	4.005	109.138	141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2203.156	45.5	141	3739.65	<0.001
학교 내	2641.130	54.5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학교수준의 절편만이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60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39.587	1,567.138	136	215.869	<0.001
성별 slope, u_1	6.885	47.405	136	141.998	0.345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2.973	8.840	136	147.051	0.244
어머니 학력 slope, u_3	1.645	2.705	136	135.518	>0.500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아버지 학력 slope, u4	3.788	14.347	136	129.562	>0.500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3.867	14.950	136	132.941	>0.50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3.610	13.031	136	152.095	0.164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238	0.057	136	130.956	>0.500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193	0.037	136	122.639	>0.500
level-1, r	48.442	2,346.662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2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35.1%,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64.9 %로 다른 아시아 국가의 특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수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61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299.2	35.1	136	2358.3	<0.001
개인수준(level1)r	2403.4	64.9			
전체	3,702.533	100.0			

차이분석에 따르면, 기대 교육수준과 교사와 학생의 관계, 어머니 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가정의 독서분위기와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및 교사와 학생의 관계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62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97.65	4.89	81.314	13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6638	1.807	0.921	136	0.35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795	1.711	0.28	136	0.7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3.54	1.636	-2.164	136	0.032
교사와 학생의 관계	-1.746	3.223	-0.542	136	0.58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6.2858	2.278	2.759	136	0.007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4.069	1.566	8.986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415	0.628	-0.66	4209	0.50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857	0.625	0.137	4209	0.89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138	0.593	1.036	4209	0.3
교사와 학생의 관계	-1.439	1.194	-1.205	4209	0.22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311	0.792	0.671	4209	0.502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9.1203	0.807	11.306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6	0.345	-0.074	4209	0.94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636	0.296	1.566	4209	0.11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927	0.254	1.547	4209	0.12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841	0.497	-1.691	4209	0.09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669	0.446	0.374	4209	0.708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61	0.777	-0.785	4209	0.433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921	0.331	1.183	4209	0.23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87	0.254	-0.344	4209	0.73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15	0.237	-1.752	4209	0.0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34	0.415	-0.564	4209	0.57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06	0.397	-0.519	4209	0.604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1.9823	0.8	2.477	4209	0.013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81	0.359	-0.505	4209	0.61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03	0.287	-1.056	4209	0.29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59	0.24	-1.498	4209	0.134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79	0.472	0.804	4209	0.42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041	0.403	0.506	4209	0.613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1.2476	1.085	1.15	4209	0.2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59	0.363	-0.99	4209	0.32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324	0.377	1.678	4209	0.09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701	0.369	0.19	4209	0.84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71	0.732	0.969	4209	0.33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375	0.579	-0.647	4209	0.518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2.744	0.731	-3.756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54	0.281	-0.193	4209	0.84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7405	0.235	3.158	4209	0.00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4	0.219	-0.18	4209	0.85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867	0.437	1.984	4209	0.04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737	0.385	-1.914	4209	0.056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2272	0.109	2.089	4209	0.03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546	0.038	1.443	4209	0.14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532	0.036	1.494	4209	0.13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96	0.037	-2.601	4209	0.00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159	0.065	1.776	4209	0.07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2	0.055	-1.302	4209	0.193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882	0.075	-11.75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7	0.034	-0.487	4209	0.62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5	0.03	-0.513	4209	0.60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439	0.027	1.642	4209	0.1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04	0.044	0.009	4209	0.99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91	0.039	0.741	4209	0.459

다. 민주시민 지식3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평균은 437.510점 이었으며, 변수 형성에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었는데, 즉,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차원의 변수는 45.2%, 개인변수는 5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63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37.510	3.978	109.980	141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2172.816	45.2	141	3714	<0.001
학교 내	2629.805	54.8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수준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기대교육수준이 민주시민 지식3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64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7.792	2,284.096	136	273.518	<0.001
성별 slope, u_1	7.413	54.951	136	138.285	0.429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3.899	15.206	136	166.849	0.037
어머니 학력 slope, u_3	4.481	20.082	136	161.727	0.065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아버지 학력 slope, u4	3.596	12.928	136	134.756	>0.500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4.540	20.608	136	140.917	0.369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2.523	6.365	136	120.416	>0.500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630	0.397	136	145.609	0.27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305	0.093	136	140.724	0.373
level-1, r	48.022	2,306.113			

또한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3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35.4%, 개인변수는 64.6%가 민주시민 지식 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65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316.366	35.4	136	2378	<0.001
개인수준(level1)r	2,403.921	64.6			
전체	3,720.287	100.0			

단계별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별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머니 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변수 역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또한 이들 변수는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 9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66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99.243	5.330	74.900	13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3.263	2.052	1.590	136	0.11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887	1.719	0.516	136	0.60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714	1.969	-1.379	136	0.17
교사와 학생의 관계	-5.445	3.279	-1.661	136	0.09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7.678	2.554	3.006	136	0.003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3.843	1.581	8.755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426	0.698	-0.610	4209	0.54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43	0.519	-0.854	4209	0.39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74	0.492	0.761	4209	0.447
교사와 학생의 관계	-1.330	1.045	-1.273	4209	0.20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2.057	0.765	2.688	4209	0.007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8.841	0.826	10.706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36	0.371	-0.905	4209	0.36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17	0.304	1.702	4209	0.08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74	0.260	0.670	4209	0.50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84	0.594	0.814	4209	0.41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50	0.552	-1.177	4209	0.239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338	0.883	-0.383	4209	0.70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95	0.406	0.233	4209	0.81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67	0.279	-0.242	4209	0.80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86	0.296	-1.980	4209	0.04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74	0.533	-0.701	4209	0.48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61	0.407	0.395	4209	0.693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2.417	0.834	2.896	4209	0.004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92	0.291	-1.004	4209	0.31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5	0.273	-0.055	4209	0.95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97	0.247	-0.391	4209	0.695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64	0.438	-0.147	4209	0.88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29	0.384	0.336	4209	0.737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651	1.090	0.598	4209	0.5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17	0.368	-0.861	4209	0.38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56	0.361	1.264	4209	0.20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89	0.406	0.466	4209	0.64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860	0.715	1.203	4209	0.22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44	0.592	-1.087	4209	0.277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2.804	0.688	-4.076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43	0.273	0.525	4209	0.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02	0.239	0.844	4209	0.39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10	0.208	-1.006	4209	0.31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695	0.410	1.693	4209	0.09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352	0.398	-0.884	4209	0.377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221	0.110	2.010	4209	0.04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77	0.046	1.687	4209	0.09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63	0.038	1.668	4209	0.09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41	0.039	-1.055	4209	0.29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75	0.071	1.050	4209	0.29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49	0.067	-0.736	4209	0.462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878	0.084	-10.464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5	0.037	-0.665	4209	0.50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6	0.031	-0.846	4209	0.39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2	0.030	0.741	4209	0.45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9	0.050	0.180	4209	0.85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4	0.046	0.091	4209	0.928

라. 민주시민 지식4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4의 기본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 4의 평균은 436.984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45.5%, 개인변수는 54.5%로 개인수준의 영향이 학교수준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67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36.984	4.004	109.124	141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2202.576	45.5	141	3753.37	<0.001
학교 내	2640.280	54.5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의 기대교육수준은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68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2.185	1,779.536	136	243.655	<0.001
성별 slope, u_1	8.245	67.982	136	147.939	0.228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3.466	12.010	136	177.888	0.009
어머니 학력 slope, u_3	4.072	16.584	136	159.533	0.082
아버지 학력 slope, u_4	3.064	9.385	136	144.802	0.287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6.314	39.861	136	151.448	0.173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2.517	6.337	136	123.087	>0.500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508	0.258	136	137.096	0.458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227	0.052	136	152.846	0.154
level-1, r	48.300	2,332.925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수준의 변수는 35.2%,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64.8%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학교수준에 비하여 다소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69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312.053	35.2	136.000	2373	<0.001
개인수준(level1)r	2,413.123	64.8			
전체	3,725.176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어머니 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그리고 학교독서 분위기와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및 교사와 학생의 관계 변수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고, 이들 변수간의 상호효과는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서 0.001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70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95.492	4.922	80.358	13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2.480	1.975	1.256	136	0.21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776	1.631	-0.476	136	0.63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241	1.804	-1.242	136	0.216
교사와 학생의 관계	-4.249	3.317	-1.281	136	0.20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8.325	2.263	3.679	136	<0.001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1.622	1.555	7.474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950	0.665	-1.428	4209	0.15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3	0.530	-0.006	4209	0.99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763	0.512	1.490	4209	0.136
교사와 학생의 관계	-1.922	1.014	-1.896	4209	0.05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259	0.784	1.607	4209	0.108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9.884	0.833	1.868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6	0.394	0.067	4209	0.94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62	0.300	1.872	4209	0.06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5	0.260	-0.097	4209	0.92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24	0.537	-0.045	4209	0.96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57	0.414	-0.379	4209	0.704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248	0.861	-0.288	4209	0.773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32	0.344	0.674	4209	0.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03	0.267	-0.761	4209	0.44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741	0.235	-3.160	4209	0.00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4	0.462	-0.008	4209	0.99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86	0.411	0.210	4209	0.834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2.236	0.808	2.766	4209	0.006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459	0.293	-1.563	4209	0.11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9	0.299	-0.062	4209	0.95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12	0.283	-0.397	4209	0.692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45	0.547	0.448	4209	0.65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13	0.460	-0.246	4209	0.806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1.389	1.088	1.277	4209	0.20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63	0.434	-0.377	4209	0.70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938	0.363	2.584	4209	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67	0.389	0.429	4209	0.66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639	0.733	0.871	4209	0.38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945	0.630	-1.499	4209	0.134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3.239	0.628	-5.156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76	0.253	-0.695	4209	0.48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63	0.192	2.410	4209	0.01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5	0.198	-0.127	4209	0.89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862	0.426	2.023	4209	0.04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61	0.328	-1.712	4209	0.087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233	0.108	2.157	4209	0.03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2	0.047	1.310	4209	0.1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49	0.042	1.181	4209	0.23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81	0.040	-1.996	4209	0.04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00	0.073	1.359	4209	0.17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1	0.064	-1.118	4209	0.264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832	0.082	-10.085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33	0.040	-0.821	4209	0.41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4	0.030	-0.134	4209	0.89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3	0.028	-0.114	4209	0.9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28	0.053	0.527	4209	0.59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0	0.044	0.454	4209	0.65

마. 민주시민 지식5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에 따르면, 민주시민 지식5의 평균은 437.587로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5 형성에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변량분석에 의하면 민주시민 지식5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45.7%, 개인변수는 5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71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37.587	4.0418	108.266	141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2244.571	45.7	141	3762.66	<0.001
학교 내	2667.587	54.3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 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272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2.323	1,791.215	136	248.007	<0.001
성별 slope, u_1	10.452	109.254	136	145.898	0.265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3.582	12.830	136	157.605	0.099
어머니 학력 slope, u_3	3.876	15.021	136	146.366	0.257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아버지 학력 slope, u4	2.182	4.762	136	134.494	>0.500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3.968	15.741	136	150.084	0.193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3.023	9.136	136	154.260	0.136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485	0.235	136	132.818	>0.500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351	0.123	136	138.023	0.436
level-1, r	48.488	2,351.037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5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35.2%,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64.8%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5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73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325.604	35.2	136	2357	<0.001
개인수준(level1)r	2,442.886	64.8			
전체	3,768.490	100.0			

분석에 따르면, 가족의 독서분위기와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및 교사와 학생의 관계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0.1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74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96.604	4.897	80.986	13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3.421	1.983	1.725	136	0.08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187	1.528	0.776	136	0.43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3.586	1.964	-1.826	136	0.07
교사와 학생의 관계	-2.770	3.238	-0.855	136	0.39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5.455	2.255	2.419	136	0.017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3.400	1.725	7.770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599	0.715	-0.838	4209	0.40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60	0.592	-0.101	4209	0.91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49	0.632	0.393	4209	0.694
교사와 학생의 관계	-1.389	1.313	-1.058	4209	0.2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823	0.826	0.997	4209	0.319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8.847	0.840	10.529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32	0.390	-0.851	4209	0.39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70	0.287	1.291	4209	0.19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47	0.259	1.726	4209	0.08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709	0.601	-1.178	4209	0.23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58	0.490	0.934	4209	0.351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442	0.866	-0.511	4209	0.609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4	0.342	-0.129	4209	0.89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61	0.270	-0.224	4209	0.82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49	0.285	-1.927	4209	0.05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73	0.477	0.991	4209	0.32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90	0.400	-0.724	4209	0.469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2.569	0.778	3.303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44	0.297	-1.156	4209	0.24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25	0.279	-0.446	4209	0.65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50	0.265	-0.567	4209	0.57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73	0.506	-0.737	4209	0.46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95	0.431	1.147	4209	0.251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1.791	1.088	1.647	4209	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1	0.395	-0.105	4209	0.91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98	0.381	1.046	4209	0.29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1	0.421	-0.027	4209	0.979
교사와 학생의 관계	1.165	0.787	1.479	4209	0.13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90	0.582	-1.013	4209	0.311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2.560	0.728	-3.518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98	0.302	-0.324	4209	0.74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96	0.205	2.413	4209	0.01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23	0.239	-0.934	4209	0.3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08	0.454	1.998	4209	0.04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962	0.383	-2.512	4209	0.012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055	0.108	0.510	4209	0.6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57	0.048	1.194	4209	0.23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60	0.037	1.597	4209	0.1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9	0.036	-0.536	4209	0.59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9	0.073	0.531	4209	0.59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0	0.056	-0.181	4209	0.856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883	0.084	-10.501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4	0.040	0.101	4209	0.9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35	0.031	-1.130	4209	0.25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5	0.031	0.805	4209	0.42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2	0.052	-0.622	4209	0.53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52	0.046	1.130	4209	0.258

바. 어른이 된 이후 선거투표 참여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먼저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기본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및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검증하는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는 평균 51.434점으로, 전체적으로 투표참여 의지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5.7%, 개인변수는 94.3%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수준의 변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7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1.434	0.122	421.940	201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3.589	5.7	141	405.242	<0.001
학교 내	59.786	94.3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기대교육 수준과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변인은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투표 의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76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투표여부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3.940	15.527	136	170.599	0.024
성별 slope, u_1	1.207	1.456	136	141.531	0.355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0.935	0.874	136	179.807	0.007
어머니 학력 slope, u3	0.559	0.313	136	142.576	0.332
아버지 학력 slope, u4	0.245	0.060	136	139.081	0.411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1.282	1.644	136	164.587	0.048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0.515	0.265	136	159.635	0.081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124	0.015	136	156.312	0.112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072	0.005	136	151.749	0.169
level-1, r	7.361	54.185			

또한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투표의지 영향변수를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1.5%,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8.5%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77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투표참여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0.869	1.5	136	194	0.001
개인수준(level1)r	57.342	98.5			
전체	58.211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어머니 학력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아버지 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이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변수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으며, 이 상호작용 효과는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선거투표 참여 의지에 있어서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78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49.594	0.604	82.042	136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434	0.285	-1.524	136	0.1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01	0.207	1.452	136	0.14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88	0.201	1.430	136	0.15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66	0.425	-0.155	136	0.87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99	0.341	0.290	136	0.772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0.140	0.258	-0.542	4209	0.588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53	0.117	0.450	4209	0.65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33	0.093	-0.349	4209	0.72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2	0.083	0.260	4209	0.79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16	0.177	-0.652	4209	0.51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60	0.141	1.139	4209	0.255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0.676	0.130	5.184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0	0.063	0.950	4209	0.34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82	0.052	-1.571	4209	0.11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70	0.043	-1.643	4209	0.1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21	0.094	1.283	4209	0.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83	0.082	1.018	4209	0.309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121	0.125	0.965	4209	0.33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9	0.055	1.244	4209	0.21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92	0.047	-1.966	4209	0.04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3	0.043	-0.074	4209	0.94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08	0.069	1.581	4209	0.11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64	0.066	-0.970	4209	0.332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177	0.107	1.654	4209	0.098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31	0.051	-0.603	4209	0.54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2	0.039	0.053	4209	0.95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71	0.033	-2.160	4209	0.03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5	0.068	-0.671	4209	0.50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5	0.058	0.609	4209	0.543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286	0.201	1.427	4209	0.154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7	0.084	0.794	4209	0.42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25	0.061	2.072	4209	0.03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39	0.074	0.527	4209	0.59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66	0.145	-0.457	4209	0.64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5	0.123	-0.199	4209	0.842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0.111	0.115	-0.968	4209	0.333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3	0.049	0.058	4209	0.95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62	0.040	1.537	4209	0.12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3	0.040	-0.324	4209	0.74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90	0.077	-1.174	4209	0.2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0	0.065	-1.067	4209	0.286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179	0.020	8.983	420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0	0.007	1.349	4209	0.17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0	0.007	-1.409	4209	0.15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5	0.007	0.769	4209	0.44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2	0.013	0.122	4209	0.90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7	0.013	-0.534	4209	0.594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013	0.013	0.932	4209	0.35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5	0.007	0.775	4209	0.43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0	0.004	-0.030	4209	0.97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3	0.004	-0.663	4209	0.50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0	0.010	0.940	4209	0.34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8	0.008	-1.006	4209	0.315

(4) 홍콩

연구에 활용된 홍콩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HLM분석에 활용된 홍콩 청소년은 총 2,553명으로 이들은 75개의 학교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은 모두 500점 이상으로 전세계 평균 이상을 지니고 있었다.

표 III-1-279 홍콩 청소년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level 1 : 개인수준의 기초분석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2553	0.50	0.50	0.00	1.00
기대교육수준	2553	3.54	0.88	0.00	4.00
어머니 학력	2553	2.51	1.13	0.00	5.00
아버지 학력	2553	2.64	1.24	0.00	5.00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2553	1.84	0.74	0.00	3.00
독서 정도	2553	1.87	1.36	0.00	5.00
학생의 정치사회 관심	2553	52.80	9.42	26.58	73.8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참여정도	2553	47.49	9.22	38.68	86.34
level 2 : 학교수준의 기초분석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75	47.98	3.26	42.60	56.8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75	53.26	3.73	43.98	62.9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75	51.62	2.03	44.96	56.11
교사와 학생의 관계	75	49.06	3.23	38.16	57.8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75	47.76	2.94	39.14	55.78
종속변수					
민주시민 지식1	2553	560.31	93.02	228.77	870.19
민주시민 지식2	2553	559.73	94.32	247.69	838.64
민주시민 지식3	2553	561.00	93.97	245.59	827.07
민주시민 지식4	2553	559.67	93.43	246.64	870.19
민주시민 지식5	2553	559.64	93.46	246.64	822.87
어른이 된 이후 투표참여 의사	2553	48.93	9.73	23.85	63.05

가. 민주시민 지식1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 분석결과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에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간 변수는 39.6%, 학교 내 변수는 60.4%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학교 수준의 변수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1-28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56.062	6.985	79.612	74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3543.571	39.6	74	1619.89	<0.001
학교 내	5399.933	60.4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앞에서의 기초모형에서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수준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1-281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62.457	3,900.822	57	76.848	0.041
성별 slope, u_1	11.603	134.627	57	69.547	0.123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7.203	51.877	57	56.383	>0.500
어머니 학력 slope, u_3	3.822	14.609	57	58.524	0.419
아버지 학력 slope, u_4	3.348	11.211	57	44.534	>0.500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5.674	32.193	57	54.317	>0.50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3.061	9.368	57	44.561	>0.500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386	0.149	57	50.329	>0.500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855	0.730	57	69.817	0.119
level-1, r	70.211	4,929.603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1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18.7%,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81.3%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1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82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165.44	18.7	69	589.783	<0.001
개인수준(level1)r	5056.95	81.3			
전체	6,222.396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아버지 학력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부모의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상호 영향이 있었으며,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참여는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변수와 상호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홍콩 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1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83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512.953	8.899	57.644	6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4.937	3.225	1.531	69	0.1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750	3.107	-0.563	69	0.57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689	6.226	-0.271	69	0.787
교사와 학생의 관계	-3.590	4.376	-0.820	69	0.41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4.276	4.713	3.029	69	0.003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4.862	3.289	1.478	2430	0.139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803	1.202	1.500	2430	0.13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54	1.259	-0.281	2430	0.77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66	1.634	-0.102	2430	0.91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648	1.429	-0.453	2430	0.6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302	1.691	-0.770	2430	0.441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6.607	1.711	9.706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959	0.745	-1.286	2430	0.19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084	0.723	1.499	2430	0.13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062	1.099	-0.966	2430	0.33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20	0.916	0.022	2430	0.98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05	1.039	-0.582	2430	0.561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4.969	1.428	-3.480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666	0.605	1.100	2430	0.27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701	0.499	-1.407	2430	0.1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11	0.871	-0.701	2430	0.48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830	0.533	1.559	2430	0.11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124	0.733	-1.535	2430	0.125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952	1.339	-0.711	2430	0.47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129	0.580	-1.947	2430	0.05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65	0.371	0.444	2430	0.65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06	0.710	-0.431	2430	0.666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52	0.513	0.881	2430	0.37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281	0.630	2.033	2430	0.042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1.789	1.756	-1.019	2430	0.308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82	0.646	0.437	2430	0.66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04	0.542	0.193	2430	0.84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03	0.787	-0.766	2430	0.444
교사와 학생의 관계	2.239	0.805	2.780	2430	0.00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80	0.861	-1.255	2430	0.21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0.800	1.003	-0.797	2430	0.42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738	0.415	1.779	2430	0.07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70	0.379	0.448	2430	0.65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16	0.555	-0.751	2430	0.45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20	0.435	0.046	2430	0.96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7	0.512	-0.033	2430	0.974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1.108	0.149	7.461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72	0.064	1.118	2430	0.26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8	0.049	0.566	2430	0.57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21	0.068	-3.254	2430	0.0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0	0.061	-0.493	2430	0.62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52	0.073	0.712	2430	0.477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085	0.180	-0.472	2430	0.63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10	0.072	-1.514	2430	0.1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45	0.057	-0.783	2430	0.43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33	0.109	0.304	2430	0.76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67	0.072	-2.318	2430	0.02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33	0.087	2.666	2430	0.008

나. 민주시민 지식2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및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분산 비율을 검증하는데 활용하는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의 평균은 555.579로,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지식 2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인데, 학교차원의 변수는 40.1%, 개인변수는 59.9%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84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55.579	7.122	78.013	74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3687.021	40.1	74	1648.58	<0.001
학교 내	5513.012	59.9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 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어머니 학력과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등의 개인 수준의 변수들이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85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μ_0	61.281	3,755.326	57	79.517	0.026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성별 slope, u1	12.695	161.175	57	58.600	0.417
기대교육수준 slope, u2	3.502	12.267	57	46.671	>0.500
어머니 학력 slope, u3	7.050	49.697	57	82.779	0.014
아버지 학력 slope, u4	4.283	18.345	57	52.956	>0.500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7.119	50.680	57	73.947	0.065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4.274	18.270	57	45.561	>0.500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396	0.157	57	57.765	0.447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1.053	1.109	57	92.590	0.002
level-1, r	70.762	5,007.308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2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20.1%,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79.9%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1과 마찬가지로 2에 있어서도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86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299.449	20.1	69	634.8	<0.001
개인수준(level1)r	5,173.124	79.9			
전체	6,472.574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성별, 기대교육수준, 아버지 학력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으며, 가정의 독서분위기와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및 교사와 학생의 관계,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변수들에서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87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512.116	9.147	55.986	6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7.196	3.265	2.204	69	0.03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300	2.941	-0.442	69	0.6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067	5.633	-0.367	69	0.715
교사와 학생의 관계	-6.127	3.559	-1.722	69	0.0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5.711	4.398	3.572	69	<0.001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4.383	3.341	1.312	2430	0.19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2.853	1.243	2.296	2430	0.02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710	1.217	-0.583	2430	0.5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97	1.746	0.056	2430	0.956
교사와 학생의 관계	1.277	1.759	0.726	2430	0.46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925	1.681	-1.145	2430	0.252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5.930	1.498	10.636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309	0.617	-2.120	2430	0.03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786	0.606	1.296	2430	0.19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705	0.867	-0.814	2430	0.41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656	0.592	1.107	2430	0.26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22	0.707	-0.738	2430	0.46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5.352	1.769	-3.026	2430	0.003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928	0.704	1.317	2430	0.18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848	0.623	-1.362	2430	0.17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434	1.169	1.227	2430	0.2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01	0.729	0.138	2430	0.8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71	0.945	-1.134	2430	0.257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081	1.447	0.056	2430	0.95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448	0.580	-2.497	2430	0.01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66	0.465	0.358	2430	0.7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606	0.738	-2.176	2430	0.03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84	0.572	0.672	2430	0.50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330	0.734	1.812	2430	0.07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355	2.110	-0.168	2430	0.866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31	0.751	-0.440	2430	0.6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517	0.764	1.985	2430	0.04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319	0.966	-1.365	2430	0.172
교사와 학생의 관계	1.717	0.841	2.040	2430	0.04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723	1.087	-1.586	2430	0.113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395	1.139	-1.224	2430	0.22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691	0.474	1.456	2430	0.14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41	0.407	-1.085	2430	0.27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194	0.529	-2.256	2430	0.02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37	0.425	2.208	2430	0.02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46	0.549	-0.449	2430	0.654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954	0.159	6.003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57	0.070	0.814	2430	0.41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0	0.050	-0.410	2430	0.68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70	0.076	-2.224	2430	0.02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1	0.067	-0.612	2430	0.5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5	0.075	1.003	2430	0.316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052	0.195	-0.265	2430	0.79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50	0.074	-0.672	2430	0.50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31	0.062	-2.121	2430	0.03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2	0.106	0.208	2430	0.83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84	0.063	-1.317	2430	0.18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44	0.098	2.490	2430	0.013

다. 민주시민 지식3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평균은 556.719 점으로, 전체적으로 변수 형성에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었는데, 즉,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차원의 변수는 40.9%, 개인변수는 5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88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56.719	7.173	77.617	74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3745.502	40.9	74	1693.14	<0.001
학교 내	5413.861	59.1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수준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289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59.270	3,512.902	57	74.376	0.061
성별 slope, u_1	9.593	92.019	57	58.777	0.410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8.594	73.849	57	71.871	0.089
어머니 학력 slope, u_3	4.272	18.246	57	63.809	0.249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아버지 학력 slope, u4	1.659	2.751	57	44.958	>0.500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3.865	14.938	57	53.337	>0.50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3.318	11.011	57	55.650	>0.500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633	0.400	57	57.370	0.462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747	0.558	57	66.625	0.180
level-1, r	70.636	4,989.479			

또한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3 영향 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20.5%,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79.5%로 학교수준 변수보다는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3에 있어서도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90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325.734	20.5	69	645.5	<0.001
개인수준(level1)r	5,131.159	79.5			
전체	6,456.893	100.0			

단계별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은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와 상호효과를 보였으며,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은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과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은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변수와 상호 효과를 보였다.

표 III-1-291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512.524	8.675	59.083	6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6.170	3.480	1.773	69	0.08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738	2.898	-0.600	69	0.55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950	5.880	-0.502	69	0.617
교사와 학생의 관계	-4.582	3.935	-1.164	69	0.24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3.690	4.232	3.235	69	0.002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0.844	2.969	0.284	2430	0.776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605	1.379	1.164	2430	0.24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97	1.058	0.091	2430	0.92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08	1.762	-0.061	2430	0.951
교사와 학생의 관계	-1.106	1.519	-0.728	2430	0.46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68	1.623	-0.658	2430	0.511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7.155	1.806	9.497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202	0.765	-1.572	2430	0.11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830	0.802	1.035	2430	0.3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281	1.025	-1.250	2430	0.21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832	0.821	1.014	2430	0.31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9	0.871	0.091	2430	0.927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5.162	1.550	-3.330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941	0.603	1.560	2430	0.11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95	0.509	-1.366	2430	0.17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913	0.980	0.932	2430	0.35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64	0.627	0.262	2430	0.79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935	0.762	-1.228	2430	0.22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369	1.299	0.284	2430	0.776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017	0.551	-1.844	2430	0.06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06	0.455	0.674	2430	0.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93	0.657	-1.055	2430	0.292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00	0.550	0.365	2430	0.71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721	0.556	1.298	2430	0.195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2.270	1.547	-1.467	2430	0.14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11	0.604	0.183	2430	0.85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251	0.579	2.160	2430	0.03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50	0.675	-0.815	2430	0.415
교사와 학생의 관계	1.409	0.677	2.081	2430	0.03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646	0.805	-2.044	2430	0.041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256	1.098	-1.144	2430	0.253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37	0.474	0.711	2430	0.47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59	0.385	-0.932	2430	0.35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39	0.563	-0.956	2430	0.33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671	0.475	1.413	2430	0.15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91	0.607	0.314	2430	0.754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888	0.179	4.977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55	0.080	0.686	2430	0.49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0	0.058	0.178	2430	0.85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85	0.092	-2.014	2430	0.04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21	0.079	-0.273	2430	0.78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1	0.090	0.782	2430	0.434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089	0.164	-0.543	2430	0.58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4	0.057	-0.243	2430	0.80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20	0.055	-2.186	2430	0.02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32	0.101	0.313	2430	0.75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94	0.052	-1.818	2430	0.06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01	0.080	2.507	2430	0.012

라. 민주시민 지식4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4의 기본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 4의 평균은 555.275로 평균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 역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41.3%, 개인변수는 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92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55.275	7.177	77.361	74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3753.576	41.3	74	1712.06	<0.001
학교 내	5328.807	58.7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293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59.270	3,512.902	57	74.376	0.061
성별 slope, u_1	9.593	92.019	57	58.777	0.410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8.594	73.849	57	71.871	0.089
어머니 학력 slope, u_3	4.272	18.246	57	63.809	0.249
아버지 학력 slope, u_4	1.659	2.751	57	44.958	>0.500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3.865	14.938	57	53.337	>0.50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3.318	11.011	57	55.650	>0.500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633	0.400	57	57.370	0.462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747	0.558	57	66.625	0.180
level-1, r	70.636	4,989.479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수준의 변수는 21.0%,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79.0%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94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328.099	21.0	69	666.1	<0.001
개인수준(level1)r	4998.278	79.0			
전체	6326.377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몇몇의 개인변수 및 학교 변수들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정의 독서분위기는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와 청소년의 정치경제에 대한 관심은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과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은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와 변수간의 상호효과를 보였으며, 이들 변수는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서 95%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95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506.937	10.164	49.874	6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726	3.674	0.198	69	0.84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3.458	3.209	1.078	69	0.28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294	7.165	-0.181	69	0.857
교사와 학생의 관계	-7.539	4.552	-1.656	69	0.10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2.917	4.817	2.681	69	0.009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1.563	3.266	0.478	2430	0.63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927	1.219	1.581	2430	0.11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99	1.237	-0.403	2430	0.68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99	1.914	-0.156	2430	0.876
교사와 학생의 관계	-1.164	1.759	-0.662	2430	0.50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07	1.364	-0.298	2430	0.765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7.112	1.758	9.734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9	0.695	0.014	2430	0.98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81	0.663	-0.574	2430	0.56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296	1.201	-1.079	2430	0.281
교사와 학생의 관계	1.432	0.940	1.524	2430	0.12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9	0.906	0.032	2430	0.974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3.107	1.745	-1.781	2430	0.07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440	0.707	0.622	2430	0.53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947	0.608	-1.557	2430	0.1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06	1.004	-0.604	2430	0.54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626	0.721	0.869	2430	0.38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74	0.821	-0.334	2430	0.738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955	1.471	-0.649	2430	0.51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777	0.625	-1.243	2430	0.21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73	0.588	0.634	2430	0.52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05	0.688	-0.880	2430	0.379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04	0.635	0.321	2430	0.74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901	0.738	1.221	2430	0.222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1.807	2.065	-0.875	2430	0.38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81	0.720	0.112	2430	0.91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191	0.705	1.688	2430	0.09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24	0.969	-0.232	2430	0.817
교사와 학생의 관계	1.322	0.803	1.648	2430	0.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2.334	1.035	-2.256	2430	0.024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040	1.172	-0.888	2430	0.37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006	0.455	2.211	2430	0.02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65	0.448	-0.814	2430	0.41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36	0.596	-0.395	2430	0.69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811	0.499	1.625	2430	0.10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31	0.612	-0.377	2430	0.706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1.189	0.167	7.138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7	0.075	-0.095	2430	0.92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72	0.056	1.287	2430	0.19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03	0.078	-2.622	2430	0.00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7	0.069	-0.681	2430	0.49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16	0.082	1.419	2430	0.156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103	0.183	-0.566	2430	0.57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2	0.065	-0.335	2430	0.73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80	0.056	-1.418	2430	0.15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4	0.114	0.126	2430	0.89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30	0.071	-1.845	2430	0.06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73	0.078	2.204	2430	0.028

마. 민주시민 지식5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에 따르면, 민주시민 지식5의 평균은 555.477로 전체적으로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5 형성에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하였는데, 총 변량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변량을 합한 총 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41.0%, 개인변수는 59.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96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55.477	7.146	77.728	74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3718.940	41.0	74	1701.01	<0.001
학교 내	5345.745	59.0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 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개인 변수 중 부모의 정치사회관심은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297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66.462	4,417.139	57	87.513	0.006
성별 slope, u_1	14.135	199.805	57	60.820	0.340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7.005	49.069	57	54.832	>0.500
어머니 학력 slope, u3	5.470	29.916	57	51.921	>0.500
아버지 학력 slope, u4	3.342	11.171	57	48.601	>0.500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7.491	56.108	57	79.608	0.025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4.147	17.201	57	48.012	>0.500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581	0.337	57	60.394	0.354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913	0.833	57	61.002	0.334
level-1, r	69.222	4,791.751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5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20.9%,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79.1%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5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98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325.05	20.9	69	658.6	<0.001
개인수준(level1)r	5004.33	79.1			
전체	6329.39	100.0			

분석에 따르면, 몇몇 변수들 간의 상호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어머니 학력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아버지 학력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변수에서 상호 작용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변수 역시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1-299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509.920	8.686	58.706	6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3.127	3.439	0.909	69	0.36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62	3.472	-0.191	69	0.84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19	5.674	0.039	69	0.969
교사와 학생의 관계	-7.550	3.884	-1.944	69	0.05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6.179	4.292	3.770	69	<0.001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4.160	3.154	1.319	2430	0.18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448	1.163	1.245	2430	0.21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805	1.137	0.708	2430	0.47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919	1.747	0.526	2430	0.59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74	1.489	0.117	2430	0.90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2.526	1.625	-1.555	2430	0.12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7.087	1.802	9.480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74	0.761	-0.492	2430	0.62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96	0.768	0.776	2430	0.43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317	1.030	-1.278	2430	0.2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830	0.742	1.119	2430	0.26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59	0.890	-0.628	2430	0.53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3.930	1.537	-2.557	2430	0.01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427	0.604	0.707	2430	0.4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498	0.516	-2.905	2430	0.00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53	0.859	-0.411	2430	0.68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32	0.543	1.716	2430	0.08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36	0.895	-0.152	2430	0.879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1.295	1.479	-0.875	2430	0.38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987	0.579	-1.704	2430	0.08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76	0.554	0.860	2430	0.3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35	0.721	-0.881	2430	0.378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55	0.586	-0.436	2430	0.66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226	0.677	1.811	2430	0.07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2.346	1.572	-1.493	2430	0.136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55	0.598	0.427	2430	0.6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855	0.596	1.433	2430	0.15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404	0.779	-1.802	2430	0.072
교사와 학생의 관계	2.150	0.759	2.831	2430	0.00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2.168	0.827	-2.622	2430	0.009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0.937	1.150	-0.815	2430	0.41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951	0.498	1.910	2430	0.05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34	0.370	0.632	2430	0.52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45	0.631	-0.229	2430	0.81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676	0.482	1.404	2430	0.1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702	0.590	-1.189	2430	0.234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1.089	0.173	6.297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52	0.068	0.763	2430	0.44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60	0.058	1.025	2430	0.30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51	0.072	-2.103	2430	0.03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51	0.068	-0.751	2430	0.45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51	0.082	0.617	2430	0.537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234	0.178	-1.316	2430	0.188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51	0.061	-0.836	2430	0.40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83	0.070	-1.182	2430	0.23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80	0.097	0.829	2430	0.40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02	0.059	-1.715	2430	0.08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20	0.087	2.537	2430	0.011

바. 어른이 된 이후 선거투표 참여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다음으로 홍콩 청소년의 학교특성에 따른 선거 투표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기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홍콩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는 평균 48.83점으로, 전체적으로 투표참여 의지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홍콩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6.3%, 개인변수는 93.7%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수준의 변인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00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8.83	0.337	144.562	74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5.996	6.3	74	241.518	<0.001
학교 내	88.963	93.7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변인이 홍콩 청소년의 투표의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01 홍콩청소년의 투표참여 여부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5.291	27.990	57	72.391	0.082
성별 slope, u_1	1.534	2.353	57	53.572	>0.500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0.771	0.594	57	64.024	0.243
어머니 학력 slope, u_3	0.583	0.340	57	49.884	>0.500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아버지 학력 slope, u4	0.788	0.620	57	59.767	0.375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1.072	1.149	57	65.698	0.201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0.674	0.455	57	59.808	0.374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080	0.006	57	59.714	0.377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103	0.011	57	82.249	0.016
level-1, r	8.345	69.632			

또한 홍콩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투표의지 영향변수를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1.4%,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8.6%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302 홍콩 청소년의 투표참여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040	1.4	69	98.28	0.012
개인수준(level1)r	73.106	98.6			
전체	74.146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기대 교육수준과 교사와 학생의 관계, 아버지 학력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은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과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은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및 학생의견 반영 변수와 상호작용 효과로 홍콩 청소년의 선거투표 참여 의지에 있어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03 홍콩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43.705	1.051	41.570	69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07	0.431	0.249	69	0.80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925	0.410	-2.255	69	0.02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64	0.550	-0.844	69	0.40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762	0.356	2.137	69	0.03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166	0.468	2.492	69	0.015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0.367	0.368	-0.997	2430	0.319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43	0.144	1.686	2430	0.09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83	0.115	0.728	2430	0.46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75	0.203	0.371	2430	0.71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68	0.177	-0.949	2430	0.34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30	0.168	-1.363	2430	0.173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0.834	0.197	4.234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93	0.086	1.085	2430	0.27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43	0.077	1.851	2430	0.06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29	0.116	1.110	2430	0.26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35	0.076	-3.096	2430	0.00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58	0.086	-1.841	2430	0.066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035	0.185	-0.189	2430	0.8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46	0.077	-1.909	2430	0.05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52	0.054	-0.955	2430	0.3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21	0.092	1.311	2430	0.1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44	0.057	2.524	2430	0.01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3	0.101	0.128	2430	0.898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231	0.182	-1.268	2430	0.20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61	0.068	2.356	2430	0.01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7	0.063	-0.269	2430	0.78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08	0.110	-0.982	2430	0.326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7	0.064	0.258	2430	0.79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0	0.093	-0.754	2430	0.451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1.231	0.257	4.793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00	0.113	-1.765	2430	0.07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66	0.082	3.228	2430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3	0.144	-0.093	2430	0.92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03	0.124	-0.834	2430	0.40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17	0.125	0.937	2430	0.349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0.395	0.148	2.674	2430	0.008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8	0.063	-0.434	2430	0.66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6	0.049	-0.123	2430	0.90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75	0.076	-0.993	2430	0.32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7	0.056	0.837	2430	0.40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4	0.069	-0.486	2430	0.627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340	0.021	16.249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1	0.007	1.569	2430	0.11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7	0.008	-0.960	2430	0.33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7	0.011	0.580	2430	0.56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4	0.008	-0.489	2430	0.62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7	0.011	-0.608	2430	0.543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092	0.021	4.299	2430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1	0.009	-0.149	2430	0.88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1	0.009	-2.367	2430	0.01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6	0.010	-2.549	2430	0.01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9	0.010	0.876	2430	0.38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8	0.011	0.660	2430	0.509

(5) 태국

연구에 활용된 태국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HLM분석에 활용된 태국 청소년은 총 4,981명으로 이들은 149개의 학교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은 모두 500점 미만으로 전 세계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었다.

표 Ⅲ-1-304 태국 청소년 다층분석 기초분석 결과

level 1 : 개인수준의 기초분석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4981	0.55	0.50	0.00	1.00
기대교육수준	4981	3.33	1.01	0.00	4.00
어머니 학력	4981	2.01	1.49	0.00	5.00
아버지 학력	4981	2.25	1.52	0.00	5.00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4981	2.19	0.64	0.00	3.00
독서 정도	4981	1.53	1.13	0.00	5.00
학생의 정치사회 관심	4981	56.03	6.67	26.58	73.8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참여정도	4981	58.22	10.03	38.68	86.34
level 2 : 학교수준의 기초분석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49	50.07	3.31	41.90	61.5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49	51.31	3.04	42.88	58.5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49	58.47	1.78	53.64	62.51
교사와 학생의 관계	149	52.45	2.23	45.15	57.3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49	51.22	2.45	43.55	60.46
종속변수					
민주시민 지식1	4981	459.50	76.82	188.81	693.53
민주시민 지식2	4981	459.31	78.11	198.27	711.41
민주시민 지식3	4981	459.94	77.85	225.61	699.84
민주시민 지식4	4981	458.95	77.27	207.74	718.77
민주시민 지식5	4981	459.10	77.03	196.17	706.15
어른이 된 이후 투표참여 의사	4981	54.42	8.83	23.85	63.05

가. 민주시민 지식1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 분석의 무선효과는 종속변수의 변량구성, 즉, 학교 간 변량과 학교 내 변량을 나타낸다.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에 대한 기본모형은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지식이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구체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 1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46.3%, 개인변수는 53.7%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학교수준의 영향을 비교적 높게 받고 있었다.

표 III-1-30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51.698	4.329	104.342	148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2704.108	46.3	148	4635.16	<0.001
학교 내	3135.896	53.7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개인변수가 이들의 민주시민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개인 변수 중 성별과 아버지 학력이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306 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36.954	1,365.621	132	191.636	<0.001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성별 slope, u1	12.122	146.949	132	178.366	0.005
기대교육수준 slope, u2	4.558	20.774	132	144.270	0.220
어머니 학력 slope, u3	2.366	5.599	132	134.113	0.433
아버지 학력 slope, u4	2.556	6.531	132	163.564	0.032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1.980	3.922	132	116.822	>0.50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2.620	6.863	132	134.810	0.416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527	0.278	132	148.879	0.150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377	0.142	132	132.017	0.483
level-1, r	51.402	2,642.160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1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22.9%,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77.1%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지식1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307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810.566	22.9	143	1535.4	<0.001
개인수준(level1)r	2,726.489	77.1			
전체	3,537.054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아버지 학력은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및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과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은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참여는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변수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이는 태국 아메리카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1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308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1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89.172	4.883	79.693	143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80	1.511	-0.252	143	0.80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7.982	1.982	4.027	143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4.005	3.030	-1.322	143	0.18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757	2.381	-0.318	143	0.75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46	2.386	-0.271	143	0.787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29.202	2.022	14.440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768	0.586	1.311	4784	0.1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75	0.814	-0.829	4784	0.40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0	1.278	-0.008	4784	0.99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6	1.062	0.034	4784	0.97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38	1.115	0.124	4784	0.901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3.910	0.948	14.675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91	0.349	-1.121	4784	0.26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30	0.405	0.567	4784	0.57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26	0.631	-0.358	4784	0.72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57	0.561	-1.708	4784	0.08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885	0.510	1.735	4784	0.083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424	0.787	-0.539	4784	0.59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83	0.249	0.332	4784	0.7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31	0.346	-0.379	4784	0.70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48	0.528	-0.469	4784	0.63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45	0.356	-1.250	4784	0.21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04	0.377	1.338	4784	0.181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641	0.801	0.800	4784	0.424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650	0.291	-2.234	4784	0.02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30	0.314	2.007	4784	0.04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515	0.523	0.985	4784	0.324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57	0.374	0.686	4784	0.49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92	0.366	-1.343	4784	0.179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562	1.071	-0.525	4784	0.6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78	0.350	0.509	4784	0.6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33	0.414	1.287	4784	0.19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07	0.671	-0.159	4784	0.87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0	0.521	-0.057	4784	0.95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65	0.598	0.444	4784	0.657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0.946	0.772	1.225	4784	0.2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85	0.251	0.340	4784	0.73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61	0.224	-0.273	4784	0.78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92	0.434	-0.213	4784	0.83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19	0.332	1.260	4784	0.20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91	0.314	-0.607	4784	0.544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387	0.120	-3.216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1	0.040	0.027	4784	0.97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9	0.039	-0.240	4784	0.81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65	0.068	2.425	4784	0.01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13	0.059	-1.905	4784	0.05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97	0.058	1.677	4784	0.094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570	0.079	-7.247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36	0.025	-1.437	4784	0.15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44	0.031	1.390	4784	0.16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19	0.057	-2.086	4784	0.03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3	0.039	1.098	4784	0.27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43	0.041	-1.051	4784	0.293

나. 민주시민 지식2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민주시민 지식 2의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의 평균은 450.988로,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지식 2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 총 변량 중 학교차원의 변수는 46.6%, 개인변수는 53.4%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309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50.988	4.421	102.014	148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2821.100	46.6	148	4655.27	<0.001
학교 내	3239.167	53.4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개인변수 중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은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310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0.395	1,631.724	132	200.497	<0.001
성별 slope, u_1	11.253	126.628	132	155.799	0.077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5.591	31.258	132	154.795	0.085
어머니 학력 slope, u_3	1.485	2.204	132	131.538	>0.500
아버지 학력 slope, u_4	3.579	12.812	132	147.767	0.165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5.369	28.828	132	135.738	0.394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2.916	8.503	132	122.943	>0.500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534	0.286	132	160.013	0.049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259	0.067	132	127.262	>0.500
level-1, r	52.090	2,713.335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2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22.6%,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77.4%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1과 마찬가지로 2에 있어서도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311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822.03	22.6	143	1519.8	<0.001
개인수준(level1)r	2812.10	77.4			
전체	3634.14	100.0			

차이분석에 따르면, 가정변수가 상호작용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특히 어머니 학력은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와 아버지 학력은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과 상호 작용 효과를 보였고, 가정의 독서분위기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있어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12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2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88.067	5.230	74.204	143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29	1.482	-0.222	143	0.82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8.312	2.195	3.786	143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3.567	3.274	-1.089	143	0.278
교사와 학생의 관계	-1.018	2.606	-0.391	143	0.69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5	2.408	-0.002	143	0.998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31.351	2.040	15.365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70	0.661	0.257	4784	0.79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446	0.895	-1.616	4784	0.10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1.885	1.330	-1.417	4784	0.15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677	1.055	0.642	4784	0.52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14	1.141	0.889	4784	0.374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3.123	0.988	13.280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57	0.314	-1.135	4784	0.25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44	0.413	0.592	4784	0.55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03	0.641	0.317	4784	0.752
교사와 학생의 관계	-1.132	0.611	-1.854	4784	0.06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08	0.560	0.908	4784	0.364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032	0.744	0.044	4784	0.96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6	0.275	0.168	4784	0.86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24	0.312	-1.359	4784	0.17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74	0.473	-0.156	4784	0.87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90	0.372	-1.317	4784	0.18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54	0.331	1.975	4784	0.048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973	0.823	1.182	4784	0.23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559	0.304	-1.840	4784	0.06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752	0.286	2.630	4784	0.00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96	0.524	0.183	4784	0.855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0	0.395	0.100	4784	0.9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74	0.342	-1.676	4784	0.094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434	1.261	-0.344	4784	0.73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41	0.379	0.109	4784	0.91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004	0.543	1.851	4784	0.064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04	0.811	-0.252	4784	0.80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91	0.704	0.129	4784	0.89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82	0.672	0.122	4784	0.903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199	0.772	1.553	4784	0.12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83	0.272	1.039	4784	0.29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36	0.241	-1.808	4784	0.07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03	0.445	-0.681	4784	0.49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772	0.367	2.102	4784	0.03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4	0.300	0.247	4784	0.805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388	0.117	-3.312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31	0.040	-0.784	4784	0.43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1	0.043	0.027	4784	0.97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41	0.075	1.876	4784	0.06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63	0.061	-1.036	4784	0.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71	0.059	1.198	4784	0.231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558	0.082	-6.841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35	0.024	-1.415	4784	0.15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41	0.031	1.325	4784	0.18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97	0.060	-1.625	4784	0.10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57	0.046	1.239	4784	0.21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9	0.042	-0.939	4784	0.348

다. 민주시민 지식3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평균은 451.739 점으로, 전체적으로 변수 형성에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 중 학생 및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할 수 있었는데, 즉,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차원의 변수는 46.6%, 개인변수는 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13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51.739	4.408	102.481	148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2805.123	46.6	148	4679.63	<0.001
학교 내	3208.601	53.4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수준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성별과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변수가 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314 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2.821	1,833.618	132	223.253	<0.001
성별 slope, u_1	11.612	134.837	132	170.214	0.014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4.854	23.563	132	157.624	0.063
어머니 학력 slope, u_3	1.585	2.512	132	130.685	>0.500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아버지 학력 slope, u4	3.284	10.786	132	130.380	>0.500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4.482	20.084	132	123.279	>0.50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2.446	5.984	132	136.227	0.383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455	0.207	132	160.489	0.046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225	0.051	132	123.111	>0.500
level-1, r	52.046	2,708.833			

또한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3 영향 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24.2 %,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75.8%로 학교수준 변수보다는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3에 있어서도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315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891.679	24.2	143	1634.3	<0.001
개인수준(level1)r	2,788.685	75.8			
전체	3,680.364	100.0			

단계별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족변수 중 아버지 학력에서만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및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에 있어 상호작용효과를 보였으며 95% 수준에서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16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3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89.172	5.113	76.109	143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1.176	1.507	-0.780	143	0.43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9.793	1.997	4.905	143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7.753	3.160	-2.453	143	0.015
교사와 학생의 관계	-2.071	2.877	-0.720	143	0.47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24	2.654	0.047	143	0.963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30.764	1.981	15.528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636	0.590	1.078	4784	0.28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857	0.885	-0.968	4784	0.33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685	1.296	-0.528	4784	0.597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03	1.216	0.249	4784	0.80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310	1.143	-0.271	4784	0.787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3.152	1.005	13.088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62	0.335	-1.081	4784	0.2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89	0.374	0.238	4784	0.81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56	0.640	0.557	4784	0.57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78	0.577	-1.695	4784	0.0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745	0.496	1.502	4784	0.133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675	0.764	0.884	4784	0.37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22	0.241	1.336	4784	0.18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08	0.286	-1.074	4784	0.28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22	0.459	0.483	4784	0.62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59	0.364	-1.263	4784	0.20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09	0.387	0.282	4784	0.778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269	0.785	-0.342	4784	0.73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996	0.293	-3.400	4784	<0.00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841	0.297	2.830	4784	0.00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0	0.530	0.037	4784	0.97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99	0.378	0.791	4784	0.42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27	0.329	-0.690	4784	0.49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219	1.235	0.177	4784	0.859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566	0.430	1.317	4784	0.18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10	0.519	0.405	4784	0.68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727	0.791	0.919	4784	0.35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20	0.703	0.598	4784	0.5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24	0.802	0.154	4784	0.877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1.063	0.706	1.507	4784	0.13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83	0.284	0.645	4784	0.51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383	0.257	-1.487	4784	0.13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44	0.391	0.113	4784	0.9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92	0.457	0.639	4784	0.52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0	0.465	0.066	4784	0.948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291	0.122	-2.380	4784	0.017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2	0.035	0.625	4784	0.53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4	0.038	-0.627	4784	0.53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31	0.076	0.408	4784	0.68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20	0.062	0.319	4784	0.7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9	0.062	0.470	4784	0.639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616	0.077	-8.044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5	0.024	-0.225	4784	0.82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40	0.029	1.352	4784	0.17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77	0.053	-1.457	4784	0.14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9	0.043	-0.218	4784	0.82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7	0.040	-0.416	4784	0.677

라. 민주시민 지식4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4의 기본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 4의 평균은 450.954로 다소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전체적으로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46.3%, 개인변수는 5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17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50.954	4.391	102.705	148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2784.651	46.3	148	4733.66	<0.001
학교 내	3142.007	52.2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태국청소년의 개인 변수 중 성별은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18 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39.843	1,587.468	132	208.177	<0.001
성별 slope, u_1	11.760	138.305	132	180.138	0.004
기대교육수준 slope, u_2	4.752	22.578	132	141.133	0.277
어머니 학력 slope, u_3	2.488	6.188	132	122.412	>0.500
아버지 학력 slope, u_4	3.383	11.445	132	156.916	0.068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3.369	11.353	132	125.741	>0.50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2.135	4.558	132	119.749	>0.500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435	0.189	132	156.178	0.074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402	0.162	132	143.070	0.241
level-1, r	51.402	2,642.144			

또한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수준의 변수는 24.2%,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75.8%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319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873.108	24.2	143	1615.9	<0.001
개인수준(level1)r	2733.638	75.8			
전체	3606.746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몇몇의 개인변수 및 학교 변수들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는데, 기대 교육수준과 교사와 학생의 관계, 아버지 학력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가정의 독서분위기와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참여는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과 변수 상호효과를 보였고, 이러한 효과는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있어 95%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20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4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87.341	4.986	77.689	143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721	1.507	-0.479	143	0.63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9.434	1.870	5.045	143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6.054	2.891	-2.094	143	0.038
교사와 학생의 관계	-1.368	2.586	-0.529	143	0.59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292	2.589	-0.499	143	0.619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29.707	1.986	14.955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571	0.615	0.927	4784	0.35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54	0.800	-0.692	4784	0.48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2.173	1.301	-1.671	4784	0.095
교사와 학생의 관계	1.367	1.202	1.137	4784	0.256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43	1.180	0.545	4784	0.585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3.582	0.961	14.139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57	0.329	-0.780	4784	0.43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203	0.374	-0.542	4784	0.58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91	0.593	0.490	4784	0.624
교사와 학생의 관계	-1.098	0.558	-1.967	4784	0.04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004	0.570	1.764	4784	0.078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507	0.800	-0.634	4784	0.526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22	0.288	0.422	4784	0.67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07	0.380	-0.280	4784	0.77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81	0.562	0.678	4784	0.498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75	0.403	-1.177	4784	0.23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67	0.442	1.056	4784	0.291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714	0.800	0.893	4784	0.37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598	0.290	-2.060	4784	0.03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540	0.343	1.572	4784	0.116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28	0.562	-0.407	4784	0.684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73	0.409	0.178	4784	0.85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530	0.357	-1.486	4784	0.137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453	1.146	0.396	4784	0.69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93	0.407	0.229	4784	0.81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943	0.497	1.898	4784	0.05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490	0.746	0.656	4784	0.51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468	0.666	0.703	4784	0.48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70	0.697	-0.243	4784	0.808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0.952	0.702	1.356	4784	0.17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31	0.261	0.501	4784	0.61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05	0.216	-2.805	4784	0.005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30	0.386	0.338	4784	0.73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283	0.357	0.794	4784	0.42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463	0.294	1.576	4784	0.115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478	0.117	-4.096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60	0.032	-1.838	4784	0.06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9	0.039	0.224	4784	0.82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78	0.060	1.294	4784	0.19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04	0.048	-2.158	4784	0.03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2	0.056	0.564	4784	0.573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494	0.082	-5.995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8	0.024	-0.345	4784	0.7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9	0.033	0.902	4784	0.36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15	0.057	-2.002	4784	0.04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54	0.045	1.192	4784	0.23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7	0.047	-0.787	4784	0.431

마. 민주시민 지식5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기본모형 분석에 따르면, 민주시민 지식5의 평균은 450.926로 전체적으로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5 형성에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 차이에 따른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차원의 변수는 46.5% 개인변수는 51.7%가 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21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450.926	4.400	102.495	148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2797.220	46.5	148	4775.7	<0.001
학교 내	3110.275	51.7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기초모형에서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이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 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성별, 기대교육 수준 및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등은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III-1-322 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43.142	1,861.253	132	208.663	<0.001
성별 slope, u_1	11.977	143.440	132	169.984	0.014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기대교육수준 slope, u2	5.336	28.473	132	171.102	0.012
어머니 학력 slope, u3	2.259	5.104	132	143.110	0.240
아버지 학력 slope, u4	3.608	13.018	132	152.372	0.109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4.606	21.215	132	131.233	>0.50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2.922	8.541	132	122.608	>0.500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559	0.312	132	180.398	0.004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271	0.073	132	121.357	>0.500
level-1, r	50.950	2,595.917			

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민주시민 지식5 영향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23.7%,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76.3%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민주시민 지식5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323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838.485	23.7	143	1593.04	<0.001
개인수준(level1)r	2694.380	76.3			
전체	3532.865	100.0			

분석에 따르면, 아버지 학력과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과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며,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9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24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5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389.569	5.008	77.790	143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558	1.466	-0.380	143	0.70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0.570	1.845	5.729	143	<0.00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3.593	3.111	-1.155	143	0.2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777	2.271	-0.342	143	0.73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2.212	2.194	-1.008	143	0.315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29.546	1.999	14.782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652	0.582	1.119	4784	0.26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914	0.896	-1.020	4784	0.30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860	1.324	-0.650	4784	0.51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66	1.148	0.319	4784	0.7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73	1.066	0.631	4784	0.528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3.827	0.949	14.568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460	0.326	-1.410	4784	0.15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57	0.379	-0.152	4784	0.8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85	0.638	0.133	4784	0.89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989	0.549	-1.801	4784	0.07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620	0.512	1.212	4784	0.226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703	0.754	-0.933	4784	0.35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54	0.240	-0.644	4784	0.5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56	0.290	-0.536	4784	0.59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79	0.489	-0.366	4784	0.71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76	0.330	-1.139	4784	0.25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66	0.343	0.775	4784	0.438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954	0.820	1.163	4784	0.24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372	0.302	-1.231	4784	0.218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697	0.317	2.202	4784	0.02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1	0.592	-0.036	4784	0.971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77	0.392	0.197	4784	0.84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51	0.333	-0.752	4784	0.452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871	1.228	-0.709	4784	0.478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201	0.413	0.488	4784	0.62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50	0.485	0.104	4784	0.91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350	0.775	-0.451	4784	0.652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4	0.663	0.021	4784	0.98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362	0.677	2.012	4784	0.044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0.733	0.698	1.051	4784	0.293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91	0.251	0.762	4784	0.44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415	0.236	-1.760	4784	0.07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54	0.409	0.132	4784	0.89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93	0.340	1.154	4784	0.24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260	0.332	-0.783	4784	0.434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396	0.126	-3.137	4784	0.00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4	0.042	-0.346	4784	0.729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2	0.040	-0.309	4784	0.757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96	0.087	1.102	4784	0.27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79	0.070	-1.130	4784	0.25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1	0.069	0.303	4784	0.762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526	0.082	-6.432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11	0.028	-0.384	4784	0.70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28	0.034	0.844	4784	0.39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93	0.057	-1.615	4784	0.10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39	0.042	0.925	4784	0.355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24	0.045	-0.538	4784	0.591

바. 어른이 된 이후 선거투표 참여

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다음으로 태국 청소년의 학교특성에 따른 선거 투표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기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및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검증하는 분석결과에 따르면, 태국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의 계수는 54.096으로, 전체적으로 투표참여 의지는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태국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9.9%, 개인변수는 90.1%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수준의 변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25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Coefficient	표준오차	t-ratio	d.f.	p-value
INTRCPT2, γ_{00}	54.096	0.258	209.529	148	<0.001
무선효과	변량		d.f.	χ^2	p-value
학교 간	7.695	9.9	148	710.742	<0.001
학교 내	70.145	90.1			

나) 연구모형(conditional model)

연구모형 분석 중 개인변수들을 투입하는 기초 기울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태국 청소년의 성별과 이들의 정치사회 관심 변인은 태국 청소년의 투표의지를 형성하는데 특별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표 III-1-326 태국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무선효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INTRCPT1, u_0	2.982	8.895	132	137.047	0.364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d.f.	χ^2	p-value
성별 slope, u1	1.658	2.748	132	173.161	0.009
기대교육수준 slope, u2	0.757	0.573	132	130.402	>0.500
어머니 학력 slope, u3	0.313	0.098	132	154.662	0.087
아버지 학력 slope, u4	0.301	0.090	132	142.952	0.243
부모의 정치사회관심 slope, u5	0.799	0.639	132	131.878	>0.500
가정의 독서분위기 수준 slope, u6	0.459	0.210	132	126.546	>0.500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u7	0.172	0.029	132	163.834	0.031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활동 slope, u8	0.056	0.003	132	123.912	>0.500
level-1, r	8.018	64.284			

또한 태국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지에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 관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1, 2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투표의지 영향 변수를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학교수준의 변수는 2.3%, 개인변수에 의한 영향은 97.7%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투표참여 의지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327 태국 청소년의 투표참여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	d.f.	χ^2	p-value
학교수준(Level2)	1.559	2.3	143	246.83	<0.001
개인수준(level1)r	67.316	97.7			
전체	68.875	100.0			

구체적인 차이분석에 따르면, 개인 및 학교수준의 변수간 특별한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및 교사와 학생의 관계,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및 교사와 학생의 관계 변수들은 90% 수준에서 상호작용 및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28 태국 청소년의 투표참여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For 학교차이1, β 0					
학교차이	49.095	0.649	75.624	143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130	0.216	-0.600	143	0.5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66	0.215	0.770	143	0.44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956	0.382	-2.505	143	0.013
교사와 학생의 관계	0.330	0.298	1.110	143	0.269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11	0.289	0.384	143	0.702
For 성별 slope, β 1					
학교차이	0.423	0.305	1.389	4784	0.16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56	0.099	0.572	4784	0.56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00	0.123	0.806	4784	0.42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194	0.162	-1.198	4784	0.231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3	0.193	0.065	4784	0.94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39	0.182	0.760	4784	0.447
For 기대 교육수준 slope, β 2					
학교차이	1.044	0.152	6.872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57	0.048	-1.189	4784	0.234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71	0.059	1.201	4784	0.23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58	0.095	0.605	4784	0.545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4	0.076	0.046	4784	0.96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3	0.082	0.406	4784	0.685
For 어머니 학력 slope, β 3					
학교차이	-0.214	0.127	-1.688	4784	0.09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20	0.037	-0.532	4784	0.595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8	0.039	-0.452	4784	0.65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60	0.069	-0.871	4784	0.384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53	0.060	-0.876	4784	0.38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1	0.059	0.530	4784	0.596
For 아버지 학력 slope, β 4					
학교차이	0.251	0.109	2.311	4784	0.02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39	0.036	1.087	4784	0.27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7	0.041	0.429	4784	0.66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62	0.055	1.129	4784	0.259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자유도	p-value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2	0.053	0.226	4784	0.82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68	0.053	-1.284	4784	0.199
For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5					
학교차이	0.592	0.194	3.057	4784	0.00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74	0.064	1.161	4784	0.24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45	0.066	0.676	4784	0.49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260	0.136	1.912	4784	0.05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160	0.094	-1.707	4784	0.088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6	0.085	0.423	4784	0.672
For 가정의 독서분위기 slope, β 6					
학교차이	-0.155	0.117	-1.326	4784	0.185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6	0.041	-0.136	4784	0.89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5	0.034	-0.139	4784	0.889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21	0.078	-0.271	4784	0.786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49	0.069	0.715	4784	0.474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35	0.057	0.611	4784	0.541
For 청소년의 정치사회 관심 slope, β 7					
학교차이	0.189	0.024	7.742	4784	<0.001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6	0.009	0.632	4784	0.52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13	0.011	-1.223	4784	0.221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12	0.015	0.774	4784	0.43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05	0.013	0.370	4784	0.711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06	0.014	0.434	4784	0.664
For 커뮤니티를 통한 민주시민 활동 slope, β 8					
학교차이	0.030	0.013	2.324	4784	0.02
학교에서의 민주시민활동 참여정도	-0.008	0.004	-1.811	4784	0.07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007	0.005	1.448	4784	0.148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0.006	0.009	-0.676	4784	0.499
교사와 학생의 관계	0.014	0.008	1.810	4784	0.07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011	0.007	-1.518	4784	0.129

(6) 소결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확인을 위한 국가별 다층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초모형 분석에서 민주시민 지식 형성 총 변량 중 학교차원의 변수는 6%내외, 개인변수는 94% 내외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교수준에 의한 영향정도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는 개인변수 및 학교 변수들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는데 특히, 가족변수가 학교변수와 상호작용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 예를들어, 어머니 학력과 학생의견 반영 및 영향력, 가정 독서분위기와 교사와 학생의 관계 및 학생 참여 변수에서 서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고, 이들은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

셋째, 한국 청소년의 향후 투표참여 의지에 학교차원의 영향정도는 매우 1%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 전반적으로 같은 경향을 보여, 아시아 청소년들의 향후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수준의 변수라기 보다는 개인수준의 변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경우 민주시민 지식은 낮았지만, 선거참여 의지는 높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은 전체적으로 450점 미만으로 전 세계 평균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향후 투표참여 의사에 있어서는 평균 53.00점을 보여 비교적 높은 참여의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 형성의 기초모형 분석에 따르면, 학교차원의 변수는 45%, 개인변수는 55% 수준으로 다른 대륙 및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학교차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홍콩의 경우 기본적인 민주시민지식 형성의 과정에서 학교 간 변수는 40%, 학교 내 변수는 60%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개인과 학교수준 변수의 상호효과가 민주시민 지식에 영향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기초모형 분석에서 민주시민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차원의 변수는 46%, 개인변수는 54%로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학교수준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었으며, 개인변수 중 가정변인의 의한 영향 역시 높았다.

2. 아시아 설문 조사결과

1)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분석결과

(1) 기초분석

한국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 및 신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각 설문 내용의 동의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진행되었으며, 각 요인 합의 평균을 전체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청소년의 경우 정부와 공무원의 부정행위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문화에 대한 긍정과 자랑스러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치인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전체 요인 평균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정부나 공무원이 연줄이나 네트워크의 관계에 따라 일할 수 있다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평균 3.17점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반면, 아시아 및 아시아 문화, 경제, 민주주의,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평균 1.84로 비교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요인 전체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요인1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5202	1	4	3.17	0.46
요인2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5233	1	4	1.84	0.51
요인3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5232	1	4	2.89	0.52
요인4	바람직한 시민의식	5225	1	4	2.00	0.45
요인5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5241	1	4	2.31	0.45
요인6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5240	1	4	1.96	0.54
요인7	정치인에 대한 인식	5238	1	4	1.74	0.62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또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나오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고위직, 어른 및 사회적 권위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89의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민주주의에서의 본인 의견을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바람직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성과 정신적 성숙, 영성 등에 대해 평균 2점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 각 요인별 평균 비교

각 요인별 세부항목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요인 1

한국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세부 요인에서 4점 척도 중 3점 이상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정부와 공무원은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마땅히 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에는 3.47점, "공무원이 정부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3.34점으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아 공무원의 공명정대함을 높은 가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2 한국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무원이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5247	1	4	3.34	0.71
공무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5246	1	4	2.91	0.82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5246	1	4	3.16	0.76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5244	1	4	3.12	0.81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5247	1	4	3.24	0.77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5240	1	4	3.15	0.67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5236	1	4	3.47	0.70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5235	1	4	3.23	0.70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5241	1	4	3.22	0.75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5241	1	4	3.17	0.81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5246	1	4	3.05	0.76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5243	1	4	3.11	0.72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242	1	4	3.00	0.79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2

한국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가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와 아시아문화에 대해 평균 1.71~1.91점으로 다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라고 생각 한다"와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 각각 1.71점과 1.75점을 보여 아시아인이라는 인식과 아시아의 지역연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 -2-3 한국청소년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5244	1	4	1.71	0.63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5242	1	4	1.75	0.63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5241	1	4	1.91	0.70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5242	1	4	1.95	0.73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5239	1	4	1.88	0.69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5241	1	4	1.88	0.70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	5245	1	4	1.82	0.63

○ 요인 3

다음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인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의 각 세부요인에는 평균 2.73~3.04점의 반응을 보여,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와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대해서는 각각 3.04, 3.01점 등 평균 3점 이상의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고위직이나 선생님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른이나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도 평균 2.73 및 2.84점의 반응을 보여, 역시나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III -2-4 한국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5247	1	4	2.73	0.74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5246	1	4	2.84	0.74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5243	1	4	3.04	0.72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5243	1	4	3.01	0.74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5244	1	4	2.78	0.78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5241	1	4	2.94	0.71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4

이들은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한 요소로 도덕성, 자기수양, 높은 영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는 질문에 평균 2.11점을 보여 정신적 성숙이 바람직한 행동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Ⅲ-2-5 한국청소년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5242	1	4	2.25	0.75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5242	1	4	1.92	0.64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5233	1	4	1.92	0.58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5244	1	4	1.81	0.58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5242	1	4	2.11	0.72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5

한국청소년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이들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에는 평균 2.70의 응답을 보여 크게 동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6 한국청소년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	5246	1	4	2.46	1.00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5245	1	4	2.13	0.91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5243	1	4	1.97	0.76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5243	1	4	2.70	0.94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6

한국청소년의 전통문화 인식정도에 따르면, 이들은 전반적으로 전통문화의 보존에 대한 책임 및 전통문화가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평균 1.82점의 높은 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한국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우리 정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5244	1	4	2.01	0.69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5242	1	4	1.82	0.68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5240	1	4	2.06	0.73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7

마지막으로 한국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은 평균 1.67점~1.86점으로 강하게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평균 1.86점)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평균 1.67점)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평균 1.77점)의 평균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2-8 한국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5236	1	4	1.86	0.70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5238	1	4	1.67	0.68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5239	1	4	1.77	0.7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2)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각 민주시민 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민주시민 역량 변수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전체 평균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바람직한 시민의식",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여학생과 남학생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 의하면, 한국 여학생의 경우 정부와 공무원이 사적일 수 있다는 의견에 남학생에 비하여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으며,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어른, 선생님, 부모, 사회적 권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여학생은 본인의견 고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시아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치인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9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전체 평균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요인1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남학생	2937	3.11	0.49	-10.381	0.000
		여학생	2256	3.24	0.42		
요인2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남학생	2957	1.83	0.54	-1.192	0.233
		여학생	2267	1.85	0.47		
요인3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남학생	2957	2.84	0.55	-8.345	0.000
		여학생	2266	2.96	0.47		
요인4	바람직한 시민의식	남학생	2955	1.99	0.47	-2.146	0.032
		여학생	2262	2.02	0.43		
요인5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남학생	2963	2.34	0.46	3.958	0.000
		여학생	2269	2.29	0.43		
요인6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남학생	2962	1.99	0.57	4.730	0.000
		여학생	2269	1.92	0.49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요인7	정치인에 대한 인식	남학생	2957	1.75	0.64	1.172	0.241
		여학생	2272	1.73	0.6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나. 각 요인별 차이 분석

○ 요인 1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 인식의 세부 항목별 차이에 의하면,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정부와 공무원이 공정해야 한다는데 보다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었다.

표 Ⅲ-2-10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공무원이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남학생	2965	3.29	0.76	-6.099	0.000
	여학생	2272	3.41	0.64		
공무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남학생	2965	2.86	0.86	-5.505	0.000
	여학생	2272	2.98	0.76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남학생	2964	3.10	0.81	-6.736	0.000
	여학생	2273	3.24	0.69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남학생	2965	3.03	0.85	-10.224	0.000
	여학생	2270	3.25	0.74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남학생	2966	3.16	0.81	-9.272	0.000
	여학생	2272	3.35	0.68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남학생	2956	3.42	0.75	-4.792	0.000
	여학생	2271	3.52	0.64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남학생	2959	3.11	0.72	-4.802	0.000
	여학생	2272	3.20	0.61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남학생	2955	3.19	0.74	-4.194	0.000
	여학생	2271	3.27	0.63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남학생	2963	3.16	0.80	-7.030	0.000
	여학생	2269	3.30	0.68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남학생	2963	3.10	0.86	-7.191	0.000
	여학생	2269	3.26	0.73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남학생	2965	2.99	0.81	-6.744	0.000
	여학생	2272	3.13	0.67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남학생	2963	3.06	0.76	-4.901	0.000
	여학생	2271	3.16	0.66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학생	2964	2.95	0.83	-5.122	0.000
	여학생	2269	3.07	0.74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2

그러나 이들의 성별에 따라 아시아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다만,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 위한 설문인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는 항목에 있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자신감과 자랑스러움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 -2-11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남학생	2963	1.71	0.66	-0.153	0.879
	여학생	2271	1.71	0.58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남학생	2962	1.75	0.68	-0.229	0.819
	여학생	2271	1.75	0.57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962	1.88	0.74	-3.080	0.002
	여학생	2270	1.94	0.65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963	1.93	0.77	-1.476	0.140
	여학생	2270	1.96	0.67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961	1.89	0.73	0.915	0.360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여학생	2269	1.87	0.62	-0.844	0.399
	남학생	2962	1.88	0.74		
	여학생	2270	1.89	0.63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965	1.81	0.67	-1.261	0.207
	여학생	2270	1.83	0.58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3

다음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에 있어서는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여학생들은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어른, 선생님, 사회적 권위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반응을 보여, 한국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들에 비하여 본인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2-12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965	2.69	0.78	-3.879	0.000
	여학생	2272	2.77	0.67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남학생	2964	2.77	0.78	-7.422	0.000
	여학생	2273	2.93	0.67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963	2.98	0.76	-7.372	0.000
	여학생	2271	3.12	0.66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963	2.96	0.78	-5.600	0.000
	여학생	2271	3.07	0.68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964	2.71	0.82	-7.648	0.000
	여학생	2271	2.87	0.71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남학생	2963	2.91	0.75	-3.232	0.001
	여학생	2269	2.98	0.64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4

반면 한국청소년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는 항목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강하게 동의하고 있어, 한국 남학생은 정신적 성숙에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요인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2-13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남학생	2961	2.24	0.78	-0.312	0.755
	여학생	2272	2.25	0.71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학생	2965	1.91	0.67	-1.955	0.051
	여학생	2268	1.94	0.60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남학생	2960	1.92	0.60	0.669	0.504
	여학생	2265	1.91	0.55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남학생	2965	1.81	0.61	-0.912	0.362
	여학생	2270	1.82	0.54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남학생	2964	2.07	0.75	-4.574	0.000
	여학생	2269	2.16	0.68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5

한국청소년들의 성별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응답에 여학생보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동의정도가 남학생에 비하여 높았다.

표 III-2-14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	남학생	2964	2.44	1.03	-1.085	0.278
	여학생	2272	2.47	0.96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남학생	2964	2.15	0.95	1.710	0.087
	여학생	2272	2.11	0.85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학생	2963	1.99	0.80	2.756	0.006
	여학생	2271	1.94	0.68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학생	2964	2.76	0.96	4.824	0.000
	여학생	2270	2.63	0.9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6

이들은 성별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역시 다르게 하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책임과 배움의 기회열망,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5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나는 우리 정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남학생	2962	2.05	0.72	5.249	0.000
	여학생	2272	1.95	0.65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 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남학생	2962	1.84	0.72	2.142	0.032
	여학생	2271	1.79	0.63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남학생	2962	2.09	0.77	3.540	0.000
	여학생	2269	2.02	0.68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7

마지막으로 한국청소년의 정치인의 가족의 법적 행동과 도덕적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으나,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2-16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학생	2957	1.78	0.72	0.797	0.425
	여학생	2272	1.76	0.67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남학생	2957	1.69	0.71	1.583	0.114
	여학생	2272	1.66	0.64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학생	2955	1.86	0.72	0.801	0.423
	여학생	2272	1.85	0.67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3) 소결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의 기초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청소년은 정부와 공무원은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마땅히 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의견과 공무원의 친분에 따른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공무원의 공명정대함을 높은 가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국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가 아시아인으로서는 아시아와 아시아문화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아시아 시민의식이 높았다. 또한,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 높은 찬성을 보여 아시아의 지역연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한국청소년은 다음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인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른, 선생님, 부모님, 사회적 권위자 등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의견에 찬성하지 않고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소신을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한 요소로 도덕성, 자기수양, 높은 영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넷째, 한국청소년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이들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아, 법제도에 문제가 있을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다섯째, 한국청소년의 전통문화 인식정도에 따르면, 이들은 전반적으로 전통문화의 보존에 대한 책임 및 전통문화가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전통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도 가지고 있었다.

여섯째, 이들은 정치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정치인 가족의 불법적이거나 부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생각에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 여학생의 경우 정부와 공무원의 학연, 지연, 혈연등에 의한 사적인 행위의 허용가능성에 있어서 남학생에 비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며,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어른, 선생님, 부모, 사회적 권위자의 의견을 무조건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역시 본인의견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정치인 가족의 법적 행동과 도덕적 행동에 대한 정치인의 사회적 책임 인식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으나,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2) 아시아 국가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비교분석

(1) 아시아 국가 전체의 민주시민의식

가. 기초분석

다음으로는 아시아 전체 5개 국가(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확인해 보기 위하여 아시아 5개국 청소년의 각 요인별 평균값을 조사하였다.

가) 전체 요인 평균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아시아 전체 청소년의 경우, 정부나 공무원이 연줄이나 네트워크의 관계에 따라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평균 2.84점으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반면, 아시아 및 아시아 문화, 경제, 민주주의,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평균 1.84로 비교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나오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고위직, 어른 및 사회적 권위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균 2.33의 보통에서 긍정사이의 반응을 보여 민주시민사회에서 의견 충돌 시 어른 및 사회적 고위직의 의견수렴을 역시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정치인의 법적 도덕적 책임 대하여 동의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7 아시아청소년의 민주시민 요인 전체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요인1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20275	1	4	2.82	0.61
요인2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23192	1	4	1.84	0.51
요인3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23220	1	4	2.33	0.64
요인4	바람직한 시민의식	23207	1	4	1.86	0.47
요인5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23325	1	4	2.15	0.46
요인6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23351	1	4	1.70	0.53
요인7	정치인에 대한 인식	23327	1	4	1.81	0.59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나) 각 요인별 평균 비교

각 요인별 세부항목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요인 1

아시아 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련 세부 요인에서 평균 2점 후반의 다소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에는 평균 3.09점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2-18 아시아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무원이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23309	1	4	2.83	0.87
공무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23304	1	4	2.66	0.86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23290	1	4	2.95	0.85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23287	1	4	2.80	0.93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23292	1	4	2.92	0.92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23349	1	4	2.97	0.86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23369	1	4	3.09	0.97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23330	1	4	2.92	0.88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23323	1	4	2.86	0.87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20620	1	4	2.94	0.93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23355	1	4	2.75	0.84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23342	1	4	2.76	0.83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3352	1	4	2.51	0.91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2

아시아 청소년들은 스스로가 아시아인으로서는 아시아와 아시아문화, 경제,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러운지에 대한 질문에 평균 1.79~1.89점으로 다소 동의하고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항목에 1.79점의 다소강한 긍정을 보여, 아시아 발전을 위한 지역연합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2-19 아시아청소년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23374	1	4	1.84	0.75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23359	1	4	1.79	0.65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23355	1	4	1.86	0.67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23347	1	4	1.89	0.73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23347	1	4	1.84	0.70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23347	1	4	1.86	0.68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	23333	1	4	1.83	0.65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3

아시아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인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요인에 평균 2.12~2.56사이에서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평균 2.12점의 긍정 수준을 보여,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었으며,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 평균 2.21점의 을 보여, 전반적으로 어른의 의견을 신뢰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20 아시아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23381	1	4	2.21	0.79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23358	1	4	2.51	0.88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23351	1	4	2.56	0.85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23339	1	4	2.35	0.89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23345	1	4	2.12	0.89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23349	1	4	2.21	0.82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4

또한 아시아 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하여 도덕성, 자기수양, 높은 영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평균 1.75점~2.03점의 비교적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III-2-21 아시아청소년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23293	1	4	1.89	0.74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23308	1	4	1.82	0.69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23296	1	4	1.75	0.60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23313	1	4	1.79	0.64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23311	1	4	2.03	0.73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5

또한 아시아 청소년의 법과 정의의 인식 정도에 따르면, 이들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반면,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 자의 편이다."에는 평균 2.66점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2 아시아청소년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	23370	1	4	2.66	0.93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23368	1	4	1.87	0.81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23367	1	4	1.80	0.73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3363	1	4	2.28	0.95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6

또한 이들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 전통문화의 보존에 대한 책임 및 전통문화가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평균 1.61점에서 1.76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III-2-23 아시아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23379	1	4	1.72	0.65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23368	1	4	1.61	0.66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23364	1	4	1.76	0.67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7

마지막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치인의 가족의 범법행위 및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보는 인식에 대해 평균 1.75점에서 1.94점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의 세부적인 응답결과에 따르면,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평균 1.77점)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평균 1.94점)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평균 1.75점)의 평균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2-24 아시아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23301	1	4	1.77	0.66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3355	1	4	1.94	0.81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23344	1	4	1.75	0.66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나. 아시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가) 전체 평균 차이

아시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각 민주시민 역량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아시아 여학생들의 경우, 공무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공공의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평균 2.92점으로 남학생의 평균 2.76점에 비하여 강하게 부정을 보였다.

표 III-2-25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전체 평균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요인1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남학생	11534	2.76	0.64	-18.941	0.000
		여학생	11332	2.92	0.56		
요인2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남학생	11654	1.82	0.53	-6.319	0.000
		여학생	11403	1.86	0.48		
요인3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남학생	11673	2.33	0.65	0.117	0.907
		여학생	11409	2.33	0.62		
요인4	바람직한 시민의식	남학생	11668	1.86	0.48	2.671	0.008
		여학생	11405	1.85	0.45		
요인5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남학생	11738	2.17	0.49	3.873	0.000
		여학생	11447	2.14	0.43		
요인6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남학생	11751	1.73	0.56	9.482	0.000
		여학생	11461	1.66	0.49		
요인7	정치인에 대한 인식	남학생	11723	1.83	0.62	4.404	0.000
		여학생	11464	1.80	0.57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나) 각 요인별 차이 분석

○ 요인 1

아시아 청소년의 경우 정부와 공무원이 개인적 필요, 연고에 따른 혹은 필요에 의해 뇌물 등에 주는 행위와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즉, 아시아 여학생의 경우 정부와 공무원은 항상 공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2-26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공무원이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남학생	11720	2.77	0.93	-11.028	0.000
	여학생	11449	2.89	0.81		
공무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남학생	11717	2.57	0.90	-15.451	0.000
	여학생	11449	2.75	0.81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 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남학생	11710	2.84	0.91	-21.295	0.000
	여학생	11442	3.07	0.78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남학생	11711	2.73	0.95	-12.296	0.000
	여학생	11439	2.88	0.90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남학생	11710	2.81	0.97	-19.748	0.000
	여학생	11444	3.04	0.86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남학생	11752	3.03	1.00	-9.724	0.000
	여학생	11475	3.15	0.93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남학생	11741	2.89	0.89	-14.146	0.000
	여학생	11467	3.05	0.81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남학생	11726	2.87	0.93	-9.629	0.000
	여학생	11463	2.98	0.83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남학생	11733	2.77	0.91	-15.438	0.000
	여학생	11451	2.95	0.82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남학생	10385	2.86	0.97	-11.626	0.000
	여학생	10153	3.02	0.89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남학생	11749	2.68	0.88	-14.194	0.000
	여학생	11467	2.83	0.79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남학생	11745	2.69	0.87	-13.225	0.000
	여학생	11458	2.84	0.79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학생	11749	2.49	0.93	-3.351	0.001
	여학생	11464	2.53	0.88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2

또한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인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롭다."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성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학생이 아시아인 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또한 "아시아 국가도 유럽처럼 아시아지역 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긍정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III-2-27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확률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남학생	11762	1.80	0.76	-8.056	0.000
	여학생	11470	1.88	0.74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남학생	11753	1.76	0.68	-7.641	0.000
	여학생	11466	1.82	0.61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롭다	남학생	11751	1.84	0.71	-3.755	0.000
	여학생	11464	1.87	0.63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롭다	남학생	11750	1.87	0.76	-4.406	0.000
	여학생	11456	1.91	0.71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롭다	남학생	11751	1.83	0.74	-1.624	0.104
	여학생	11455	1.85	0.66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롭다	남학생	11742	1.85	0.72	-2.798	0.005
	여학생	11465	1.87	0.63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롭다	남학생	11734	1.82	0.69	-3.635	0.000
	여학생	11461	1.85	0.61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3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남학생은 사회적 권위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학생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세부결과에 따르면,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의견에 남학생들은 사회적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여학생보다 높은 동의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들은 선생님과 부모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8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11763	2.21	0.82	0.051	0.959
	여학생	11476	2.20	0.76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남학생	11748	2.47	0.89	-7.297	0.000
	여학생	11469	2.55	0.86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11752	2.53	0.87	-5.897	0.000
	여학생	11459	2.60	0.82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11737	2.37	0.91	3.343	0.001
	여학생	11461	2.33	0.86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11743	2.14	0.90	4.237	0.000
	여학생	11461	2.09	0.88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남학생	11747	2.24	0.86	5.753	0.000
	여학생	11463	2.18	0.78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4

반면,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바람직한 시민의식 항목에 대해 아시아 청소년들은 몇 가지 항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은 도덕적 인간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남학생에 비하여 강하게 동의한 반면,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위한 높은 영성 및 정신적 성숙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29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남학생	11717	1.92	0.77	6.891	0.000
	여학생	11438	1.85	0.71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학생	11733	1.81	0.70	-3.302	0.001
	여학생	11437	1.84	0.68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남학생	11719	1.77	0.63	4.883	0.000
	여학생	11440	1.73	0.57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남학생	11732	1.80	0.67	1.691	0.091
	여학생	11444	1.78	0.62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남학생	11731	2.03	0.76	-0.706	0.480
	여학생	11441	2.03	0.7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5

아시아청소년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여학생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며,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동의정도가 남학생에 비하여 높았다.

표 Ⅲ-2-30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	남학생	11760	2.62	0.97	-7.209	0.000
	여학생	11469	2.71	0.88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남학생	11759	1.90	0.84	4.341	0.000
	여학생	11469	1.85	0.77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학생	11756	1.83	0.78	6.153	0.000
	여학생	11471	1.77	0.69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학생	11756	2.31	0.98	6.060	0.000
	여학생	11466	2.24	0.92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6

아시아청소년들은 성별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역시 다르게 하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남녀학생 모두 전통문화의 보존에 동의하고 있었으나, 여학생의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책임과 배움의 기회열망,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1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나는 우리 정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남학생	11762	1.75	0.68	7.254	0.000
	여학생	11475	1.69	0.61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남학생	11756	1.66	0.69	10.790	0.000
	여학생	11473	1.56	0.62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남학생	11756	1.78	0.72	4.791	0.000
	여학생	11469	1.74	0.62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7

마지막으로 아시아청소년들은 정치인의 가족의 법적 도덕적 행위에 대한 공적인 책임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학생들의 공무원의 가족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2 아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차이

		N	평균	표준편 차	t	유의 확률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학생	11716	1.78	0.69	2.756	0.006
	여학생	11443	1.76	0.62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남학생	11733	1.77	0.70	4.586	0.000
	여학생	11470	1.73	0.62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학생	11739	1.95	0.83	2.270	0.023
	여학생	11475	1.92	0.79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다. 소결

아시아 5개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민주시민 역량 의식 및 신념의 기초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청소년이 경우, 정부나 공무원이 연줄에 의한 네트워크 허용성에 대해 평균 2.84점으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특히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에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보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아시아 청소년들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아시아와 아시아문화, 경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강한 긍정을 보여, 아시아 발전을 위한 지역연합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아시아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인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요인에 있어,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와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하고 있어, 부모님과 어른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신뢰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넷째, 이들은 한국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하여 도덕성, 자기수양, 높은 영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제도에 대해서는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은 돈과 권위여부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다섯째, 아시아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치인의 가족의 범법행위 및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보는 인식에 대해 평균 1.75점에서 1.94점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여 정치인인 주변사람들에 대한 법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여섯째, 아시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 차이에 의하면, 여학생은 정부와 공무원이 개인적 필요, 연고에 따른 혹은 필요에 의해 뇌물 등에 주는 행위와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학생에 비하여 크게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공무원의 공명정대함을 기본으로 삼고 있었다.

일곱째,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남학생은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는 사회적 권위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학생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청소년들의 법과 정의 및 정치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여학생에 비하여 다소 높은 반면,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동의정도가 남학생에 비하여 높아, 법제도의 신뢰정도가 강했다. 또한 정치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었다.

(2) 대만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가. 기초분석

이번 부분에서는 각 아시아 국가(대만,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민주시민의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변수는 기존의 변수와 마찬가지로 7개 변수를 민주시민역량 요인을 대상으로 각 세부 변수별 평균을 기준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 전체 요인 평균

대만 청소년의 경우, 정부나 공무원의 사적인 원인에 의한 불공정한 일처리의 허용을 묻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 평균 3.19점으로 강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반면, 아시아 및 아시아 문화, 경제, 민주주의,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평균 1.82로 비교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나오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고위직, 어른 및 사회적 권위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평균 2.56점의 보통에서 긍정사이의 반응을 보여 민주시민사회에서 의견 충돌 시 어른 및 사회적 고위직의 의견수렴을 역시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위한 도덕성의 중요성 및 전통문화의 중요성, 가족들의 법적 도덕적 행동에 대한 정치인의 책임 역시 대체적으로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표 III-2-33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요인 전체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요인1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5076	1	4	3.19	0.52
요인2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5122	1	4	1.82	0.57
요인3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5110	1	4	2.56	0.53
요인4	바람직한 시민의식	5115	1	4	1.84	0.51
요인5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5114	1	4	2.37	0.44
요인6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5121	1	4	1.70	0.55
요인7	정치인에 대한 인식	5132	1	4	1.95	0.63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2) 각 요인별 평균 비교

○ 요인 1

대만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의 사적 목적에 의한 공공재원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요인에서 3점 이상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여, 정부와 공무원은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마땅히 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는 질문에 3.51점,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에는 평균 3.39점으로 강한 부정을 보였다.

표 Ⅲ-2-34 대만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공무원이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5130	1	4	3.06	0.71
공무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5127	1	4	2.99	0.79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5125	1	4	3.13	0.78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5125	1	4	3.26	0.83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5126	1	4	3.25	0.82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5135	1	4	3.28	0.86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5145	1	4	3.51	0.73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5134	1	4	3.33	0.75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5127	1	4	3.13	0.80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5138	1	4	3.39	0.78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5140	1	4	3.14	0.80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5134	1	4	3.06	0.79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137	1	4	2.92	0.86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2

대만청소년들은 스스로가 아시아인으로서는 아시아와 아시아문화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평균 1.67~1.92점으로 대체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만청소년들은 한국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라고 생각한다"와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 각각 1.67점과 1.70점을 보여 아시아 시민의식과 지역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2-35 대만청소년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5143	1	4	1.67	0.71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5143	1	4	1.70	0.67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5136	1	4	1.90	0.73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5141	1	4	1.85	0.75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5142	1	4	1.81	0.72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5144	1	4	1.91	0.69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	5136	1	4	1.92	0.7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3

다음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인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의 세부 항목에 평균 2.22~3.06점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대만 청소년의 경우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에 대해서는

평균 3.06점의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대해서는 평균 2.23점을 보여, 어른의견은 전반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표 Ⅲ-2-36 대만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5144	1	4	2.23	0.78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5137	1	4	3.06	0.79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5132	1	4	2.79	0.83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5131	1	4	2.63	0.83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5133	1	4	2.43	0.80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5136	1	4	2.22	0.71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4

대만청소년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에 따르면, 이들은 아시아 및 한국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한 요소로 도덕성, 자기수양, 높은 영성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평균 1.68점~1.74점으로의 다소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7 대만청소년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5133	1	4	2.04	0.73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5131	1	4	1.68	0.67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5132	1	4	1.71	0.62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5138	1	4	1.74	0.64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5137	1	4	2.04	0.75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5

또한 이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이들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각각 평균 2.04점과 2.10점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에는 평균 2.73점의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8 대만청소년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	5125	1	4	2.59	0.93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5120	1	4	2.04	0.82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5119	1	4	2.10	0.77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5120	1	4	2.73	0.81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6

대만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이들은 전통문화의 보존에 대한 책임 및 전통문화가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나는 우리 정통문화에 대한 배우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는 질문에 평균 1.68점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에 강한 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9 대만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우리 정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5126	1	4	1.68	0.65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5123	1	4	1.70	0.67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5122	1	4	1.73	0.67

주: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7

대만청소년의 정치인의 가족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 인식에 평균 1.65점에서 2.29점으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세부 응답결과에 따르면,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에 평균 1.65점,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에는 평균 1.78점으로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고,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질문에는 2.29점을 보였다.

표 Ⅲ-2-40 대만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5116	1	4	1.65	0.67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5139	1	4	2.29	0.87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5135	1	4	1.78	0.71

주: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나.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가) 전체 평균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에 대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부 및 공무원이 상황에 따라 불합리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물어보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으며,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나와 의견이 다를 경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데에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표 III-2-41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전체 평균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요인1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남학생	2617	3.10	0.56	-13.621	0.000
		여학생	2444	3.29	0.45		
요인2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남학생	2643	1.81	0.61	-2.135	0.033
		여학생	2464	1.84	0.52		
요인3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남학생	2642	2.52	0.57	-5.226	0.000
		여학생	2452	2.60	0.48		
요인4	바람직한 시민의식	남학생	2641	1.85	0.54	2.008	0.045
		여학생	2459	1.83	0.48		
요인5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남학생	2646	2.37	0.47	0.632	0.527
		여학생	2453	2.36	0.40		
요인6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남학생	2647	1.70	0.59	0.237	0.813
		여학생	2459	1.70	0.51		
요인7	정치인에 대한 인식	남학생	2650	1.95	0.65	0.209	0.835
		여학생	2467	1.95	0.6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나) 각 요인별 차이 분석

○ 요인 1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 인식에 대한 세부 항목별 차이에 의하면,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정부와 공무원이 공정해야 한다는데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2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공무원이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남학생	2649	2.99	0.78	-6.502	0.000
	여학생	2465	3.12	0.61		
공무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남학생	2647	2.90	0.85	-8.665	0.000
	여학생	2464	3.09	0.71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남학생	2647	3.03	0.84	-10.344	0.000
	여학생	2462	3.25	0.70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남학생	2646	3.15	0.89	-10.138	0.000
	여학생	2463	3.39	0.74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남학생	2647	3.11	0.88	-13.340	0.000
	여학생	2463	3.41	0.70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남학생	2660	3.42	0.80	-9.426	0.000
	여학생	2469	3.61	0.63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남학생	2654	3.17	0.91	-9.041	0.000
	여학생	2465	3.39	0.78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남학생	2653	3.28	0.79	-4.983	0.000
	여학생	2466	3.38	0.70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남학생	2648	3.02	0.85	-10.783	0.000
	여학생	2463	3.26	0.72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남학생	2655	3.30	0.85	-9.261	0.000
	여학생	2467	3.50	0.68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남학생	2658	3.04	0.87	-9.399	0.000
	여학생	2466	3.25	0.70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남학생	2655	2.97	0.85	-8.383	0.000
	여학생	2463	3.15	0.70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학생	2655	2.85	0.89	-5.934	0.000
	여학생	2466	2.99	0.82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특히 남녀청소년간의 차이에 있어서"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의 세부질문에 대한 여학생의 반대의견이 높았다.

○ 요인 2

다음으로 대만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남학생의 동의하는 정도가 여학생에 비하여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표 Ⅲ-2-43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확률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남학생	2659	1.67	0.75	0.189	0.850
	여학생	2468	1.67	0.67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남학생	2659	1.68	0.71	-2.315	0.021
	여학생	2468	1.72	0.62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655	1.87	0.77	-3.157	0.002
	여학생	2466	1.93	0.69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658	1.85	0.80	-0.653	0.514
	여학생	2467	1.86	0.69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659	1.80	0.78	-0.807	0.420
	여학생	2467	1.82	0.66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659	1.89	0.75	-2.716	0.007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확률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	여학생	2469	1.94	0.63	-2.044	0.041
	남학생	2653	1.90	0.75		
	여학생	2467	1.94	0.64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3

성별에 따른 이들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에 있어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나와 의견이 다를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시에 고위직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는 항목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이웃의 그릇된 행동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표 Ⅲ-2-44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658	2.22	0.82	-1.175	0.240
	여학생	2470	2.24	0.74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남학생	2656	2.94	0.85	-11.471	0.000
	여학생	2465	3.19	0.71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654	2.72	0.87	-6.637	0.000
	여학생	2462	2.87	0.78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652	2.62	0.87	-0.632	0.527
	여학생	2463	2.63	0.78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654	2.42	0.83	-1.665	0.096
	여학생	2463	2.45	0.76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남학생	2655	2.23	0.76	0.735	0.462
	여학생	2465	2.21	0.65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4

반면 바람직한 시민의식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다만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하여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질문인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와,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즉, 대만 여학생의 경우 민주시민의 조건으로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표 Ⅲ-2-45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남학생	2653	2.06	0.76	2.331	0.020
	여학생	2464	2.01	0.69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학생	2653	1.69	0.70	2.110	0.035
	여학생	2462	1.66	0.63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남학생	2650	1.72	0.65	0.699	0.485
	여학생	2467	1.70	0.59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남학생	2654	1.76	0.68	1.972	0.049
	여학생	2468	1.72	0.61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남학생	2654	2.03	0.78	0.508	0.612
	여학생	2467	2.03	0.71		

주: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5

반면,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표 Ⅲ-2-46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	남학생	2650	2.60	0.96	1.426	0.154
	여학생	2460	2.57	0.89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남학생	2647	2.05	0.86	0.043	0.965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여학생	2458	2.04	0.77	-0.150	0.881
	남학생	2648	2.10	0.81		
	여학생	2456	2.10	0.72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학생	2648	2.73	0.85	-0.148	0.882
	여학생	2457	2.73	0.76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6

대만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다만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있어, 여학생의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책임이 높았다.

표 III-2-47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나는 우리 정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남학생	2650	1.66	0.68	-1.327	0.184
	여학생	2461	1.69	0.62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남학생	2649	1.72	0.71	2.038	0.042
	여학생	2459	1.68	0.63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남학생	2647	1.73	0.70	-0.188	0.851
	여학생	2460	1.73	0.62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7

마지막으로 대만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정치인 가족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이들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 시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표 III-2-48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학생	2652	1.80	0.74	1.874	0.061
	여학생	2468	1.76	0.66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남학생	2655	2.26	0.90	-2.458	0.014
	여학생	2468	2.32	0.84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학생	2639	1.68	0.71	3.412	0.001
	여학생	2461	1.61	0.61		

주: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다. 소결

대만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기초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 청소년의 경우, 정부나 공무원의 개인적인, 혈연 및 연고주의에 의한 불공정한 일처리의 허용을 강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반면, 아시아 및 아시아 문화, 경제, 민주주의,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이들은 중요한 의사결정 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인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에서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웃의 그릇된 행동은 지적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대해서는 평균 2.23점의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전반적으로 어른의견을 존중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셋째,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부 및 공무원이 상황에 따라 불합리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물어보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의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정부와 공무원이 공정해야 한다는데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청소년간의 차이에 있어서"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

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의 세부질문에 대한 여학생의 반대의견이 높았다.

넷째, 대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에 있어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나와 의견이 다를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시에 고위직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는 항목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이웃의 그릇된 행동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대만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시민의식에 있어서 도덕성, 자기수양, 정신적 성숙의 필요성이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홍콩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가. 기초분석

다음으로는 홍콩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각 설문의 동의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진행되었으며, 각 요인 합의 평균을 전체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가) 전체 요인 평균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홍콩청소년의 경우, 정부나 공무원이 연줄이나 네트워크의 관계에 따라 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항목인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평균 3.06점으로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위한 도덕성의 필요성" 및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표 III-2-49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요인 전체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요인1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2673	1	4	3.06	0.49
요인2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2703	1	4	1.90	0.48
요인3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2708	1	4	2.54	0.51
요인4	바람직한 시민의식	2713	1	4	1.92	0.49
요인5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2728	1	4	2.24	0.39
요인6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2730	1	4	1.84	0.53
요인7	정치인에 대한 인식	2728	1	4	2.02	0.6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나) 각 요인별 평균 비교

각 요인별 세부항목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요인 1

홍콩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부분의 세부 요인에서 3점 이상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정부와 공무원은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마땅히 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친분허용, 연고자 후보 추천, 뇌물허용 등의 세부 항목에서 강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표 Ⅲ-2-50 홍콩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무원이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2711	1	4	3.15	0.70
공무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2710	1	4	2.97	0.77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2711	1	4	3.14	0.78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2711	1	4	3.19	0.80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2710	1	4	3.22	0.78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2724	1	4	3.20	0.80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2729	1	4	3.44	0.76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2727	1	4	3.13	0.78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2714	1	4	2.95	0.79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2717	1	4	2.86	0.80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2715	1	4	2.80	0.78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2715	1	4	2.66	0.79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2

홍콩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가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와 아시아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에 평균 1.76~2.01점으로 전반적으로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와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 각각 1.76점과 1.82점을 보여 한국, 대만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시민이라는 의식이 강했으며, 동시에 아시아의 지역 연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1 홍콩청소년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2730	1	4	1.76	0.62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2728	1	4	1.82	0.58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2728	1	4	1.93	0.64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2727	1	4	1.91	0.64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2730	1	4	1.88	0.65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2730	1	4	1.96	0.67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	2715	1	4	2.01	0.66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3

다음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인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에는 평균 2.34점~2.89점의 보통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홍콩청소년의 경우, 의견 충돌시 어른의 의견을 따른다는 응답이 평균 2.34점, 부모의 의견을 따른다는 의견이 평균 2.37점으로 이들의 대한 신뢰가 높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표 Ⅲ-2-52 홍콩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2733	1	4	2.34	0.75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2729	1	4	2.89	0.81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2729	1	4	2.59	0.76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2730	1	4	2.48	0.77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2730	1	4	2.37	0.77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2716	1	4	2.55	0.74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4

홍콩청소년 역시 다른 아시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한 요소로 도덕성, 자기수양, 높은 영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표 Ⅲ-2-53 홍콩청소년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2715	1	4	2.00	0.70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2717	1	4	1.77	0.68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2717	1	4	1.76	0.58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2715	1	4	1.86	0.65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2717	1	4	2.19	0.73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5

홍콩청소년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이들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평균 1.92점과 1.94점으로 동의하고 있는 반면,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와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 자의 편이다."에 대해서는 예는 평균 2.39점과 2.70점의 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4 홍콩청소년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	2732	1	4	2.70	0.85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2732	1	4	1.92	0.78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2729	1	4	1.94	0.69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731	1	4	2.39	0.75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6

홍콩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 전통문화 보존의 책임통감, 전통문화에 대한 배움 기회 희망, 이의 보존에 대한 의견에 평균 1.80~1.91점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5 홍콩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나는 우리 정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2730	1	4	1.91	0.66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2730	1	4	1.80	0.64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2730	1	4	1.82	0.67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7

마지막으로 홍콩 청소년들은 가족의 법 준수 및 도덕적 행위에 대한 정치인의 책임에 평균 1.79점에서 2.34점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6 홍콩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2726	1	4	1.79	0.66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729	1	4	2.34	0.82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2728	1	4	1.87	0.67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나.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가) 전체 평균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정부와 공무원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으며, "아시아인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자긍심의 물어보는"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7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전체 평균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요인1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남학생	1331	3.00	0.53	-6.472	0.000
		여학생	1286	3.12	0.42		
요인2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남학생	1352	1.88	0.51	-2.064	0.039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요인3	대한 인식	여학생	1293	1.91	0.43	0.256	0.798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남학생	1354	2.54	0.56		
		여학생	1297	2.53	0.44		
요인4	바람직한 시민의식	남학생	1359	1.92	0.52	0.275	0.783
		여학생	1297	1.92	0.45		
요인5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남학생	1364	2.22	0.44	-2.032	0.042
		여학생	1305	2.25	0.34		
요인6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남학생	1366	1.84	0.57	-0.345	0.730
		여학생	1305	1.85	0.49		
요인7	정치인에 대한 인식	남학생	1366	2.03	0.64	0.742	0.458
		여학생	1303	2.01	0.56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나) 각 요인별 차이 분석

○ 요인 1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 인식의 세부 항목별 차이에 의하면,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질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이 외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정부와 공무원은 항상 공정해야 한데는 보다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2-58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공무원이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말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남학생	1352	3.12	0.79	-2.382	0.017
	여학생	1300	3.19	0.59		
공무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남학생	1351	2.90	0.83	-4.653	0.000
	여학생	1300	3.04	0.69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남학생	1352	3.08	0.84	-4.424	0.000
	여학생	1300	3.21	0.70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뽑아주어야 한다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남학생	1352	3.12	0.86	-4.434	0.000
	여학생	1300	3.26	0.73		
우리과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남학생	1351	3.16	0.84	-4.559	0.000
	여학생	1300	3.30	0.69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남학생	1366	3.36	0.83	-5.872	0.000
	여학생	1304	3.53	0.66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남학생	1364	3.12	0.86	-4.768	0.000
	여학생	1302	3.27	0.73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남학생	1365	3.09	0.84	-2.462	0.014
	여학생	1303	3.17	0.71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남학생	1359	2.86	0.87	-5.396	0.000
	여학생	1298	3.03	0.68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남학생	1360	2.78	0.88	-5.222	0.000
	여학생	1300	2.94	0.69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남학생	1358	2.72	0.85	-4.864	0.000
	여학생	1300	2.87	0.69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남학생	1359	2.65	0.85	-0.206	0.837
	여학생	1299	2.66	0.73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2

다음으로 홍콩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변수에서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다만,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지역연합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다.

표 III-2-59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남학생	1366	1.74	0.67	-1.649	0.099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여학생	1305	1.78	0.55	-3.430	0.001
	남학생	1365	1.78	0.63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1304	1.85	0.52	-1.814	0.070
	여학생	1366	1.91	0.69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1303	1.95	0.58	-1.192	0.233
	여학생	1365	1.89	0.69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1303	1.92	0.59	-0.944	0.345
	여학생	1367	1.87	0.70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1304	1.89	0.58	-1.282	0.200
	여학생	1367	1.94	0.74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1304	1.97	0.59	-0.261	0.794
	여학생	1359	2.01	0.72		
	남학생	1298	2.02	0.58		
	여학생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3

홍콩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인식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표 Ⅲ-2-60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1367	2.35	0.81	0.855	0.392
	여학생	1307	2.32	0.67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남학생	1364	2.84	0.88	-3.368	0.001
	여학생	1306	2.94	0.72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1365	2.60	0.81	0.503	0.615
	여학생	1305	2.58	0.70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1365	2.51	0.80	1.800	0.072
	여학생	1306	2.45	0.72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남학생	1365	2.37	0.80	0.108	0.914
	여학생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여학생	1306	2.37	0.73	1.350	0.177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남학생	1360	2.57	0.79		
	여학생	1299	2.53	0.67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4

또한 이들은 바람직한 시민의식 인식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는데, 모든 항목에서 남녀학생들은 도덕적인 인간과, 자기수양, 높은 영성 등이 민주시민이 되는데 중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1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남학생	1360	2.02	0.75	1.663	0.096
	여학생	1297	1.98	0.65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학생	1361	1.76	0.71	-1.113	0.266
	여학생	1298	1.79	0.63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남학생	1361	1.76	0.62	-0.106	0.916
	여학생	1298	1.77	0.53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남학생	1360	1.86	0.69	0.142	0.887
	여학생	1298	1.86	0.61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남학생	1361	2.20	0.78	0.369	0.712
	여학생	1298	2.19	0.67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5

홍콩청소년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분석 결과에서도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62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	남학생	1367	2.68	0.91	-1.525	0.127
	여학생	1306	2.73	0.78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남학생	1367	1.92	0.82	-0.129	0.897
	여학생	1306	1.92	0.73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학생	1365	1.93	0.75	-0.622	0.534
	여학생	1305	1.94	0.62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학생	1366	2.37	0.82	-1.714	0.087
	여학생	1306	2.42	0.68		

주: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6

이들의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에 있어서 이들은 전반적으로 전통문화 보존 및 배움 기회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2-63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나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남학생	1366	1.90	0.70	-0.576	0.565
	여학생	1305	1.92	0.60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의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남학생	1366	1.81	0.67	0.712	0.477
	여학생	1305	1.79	0.59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남학생	1366	1.81	0.73	-0.934	0.350
	여학생	1305	1.83	0.59		

주: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7

마지막으로 홍콩청소년의 정치인의 가족의 범위반 및 도덕적 행동에 대한 공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남녀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2-64 홍콩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학생	1365	1.79	0.70	0.342	0.732
	여학생	1302	1.78	0.61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남학생	1366	2.35	0.87	0.911	0.362
	여학생	1304	2.32	0.76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학생	1366	1.87	0.72	0.448	0.654
	여학생	1303	1.86	0.61		

주: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다. 소결

홍콩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의 기초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콩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부분의 세부 요인에서 3점 이상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정부와 공무원은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마땅히 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친분허용, 연고자 후보 추천, 뇌물허용 등의 세부 항목에서 강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둘째, 홍콩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가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와 아시아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평균 1.76~2.01점으로 전반적으로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와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 각각 1.76점과 1.82점을 보여 한국, 대만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시민이라는 의식이 강했으며, 동시에 아시아의 지역 연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 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본인의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기 보다는 어른의 의견을 따른다는 응답이 평균 2.34점, 부모의 의견을 따른다는 의견이 평균 2.37점으로 이들의 대한 신뢰가 높음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한 요소로 도덕성, 자기수양, 높은 영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넷째, 홍콩청소년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이들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

야 하며,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평균 1.92점과 1.94점으로 동의하고 있는 반면,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와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 자의 편이다."에 대해서는 평균 2.39점과 2.70점의 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홍콩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 전통문화 보존의 책임통감, 전통문화에 대한 배움 기회 희망, 이의 보존에 대한 당위성 등의 의견에 평균 1.80~1.91점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동의하고 있었으며, 정치인 가족의 법 준수 및 도덕적 행위에 대한 정치인의 사회적 책임에 평균 1.79점에서 2.34점으로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홍콩청소년은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의 특성과는 달리 민주시민 역량 의식의 세부 요인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특히, 아시아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바람직한 시민의식 인식,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및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등 대부분의 민주시민 역량에서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4)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가. 기초분석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 아시아 국가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각 설문 내용의 동의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진행되었으며, 각 요인 합의 평균을 전체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가) 전체 요인 평균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경우, 정부나 공무원이 연줄이나 사적인 네트워크를 허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평균 2.52점으로 동의도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닌 보통이라는 답변을 한 반면, 아시아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도인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타인의 의견을 따르는 정도[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한 도덕성의 필요성을 묻는 바람직한 시민의식, 법과 정의의 공정성, 정치인의 가족의 법적 도덕적 행동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보는 인식에 대해서는 평균 1.53점~1.99점의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III-2-65 인도네시아청소년의 민주시민 요인 전체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요인1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4820	1	4	2.52	0.46
요인2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4924	1	4	1.87	0.52
요인3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4944	1	4	1.94	0.42
요인4	바람직한 시민의식	4958	1	4	1.89	0.41
요인5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5002	1	4	1.99	0.40
요인6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5008	1	4	1.53	0.42
요인7	정치인에 대한 인식	4997	1	4	1.76	0.52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나) 각 요인별 평균 비교

각 요인별 세부항목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요인 1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질문에 평균 2점대의 평균을 보여, 정부와 공무원의 친분과 연고주의에 대해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에 비하여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2-66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무원이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4983	1	4	2.33	0.83
공무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4984	1	4	2.20	0.75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4974	1	4	2.73	0.86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4977	1	4	2.48	0.80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4976	1	4	2.70	0.90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5006	1	4	2.75	0.79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5015	1	4	2.97	0.96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4996	1	4	2.51	0.89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4998	1	4	2.69	0.80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4986	1	4	2.79	0.94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5003	1	4	2.30	0.70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5000	1	4	2.30	0.75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009	1	4	1.92	0.69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특히,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에 평균 1.92점의 오히려 동의하고 있었으며, "공무원 채용 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평균 2.20점으로 어느 정도 허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 요인 2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가 아시아인으로서는 아시아와 아시아문화가 자랑스럽다는 질문에 대해 평균 1.74~1.99점으로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특히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는 질문에는 1.74점으로 다른 질문에 비하여 아시아의 인권신장을 중요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III-2-67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5009	1	4	1.99	0.91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5001	1	4	1.90	0.67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5001	1	4	1.82	0.64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4996	1	4	1.90	0.81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4989	1	4	1.87	0.74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4998	1	4	1.89	0.72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	5000	1	4	1.74	0.65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3

다음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인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으로는 선생님, 부모님, 어른의 의견에 따른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으나, 항상 사회적 권위자의 말을 따른다는 질문에는 2.49점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을 보내고 있었다. 반면, 특이할만한 점은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에서 1.73점으로 다소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영적 삶과 국가의 역할을 연관 지어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Ⅲ-2-68 인도네시아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5004	1	4	2.01	0.72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4995	1	4	1.90	0.57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4993	1	4	2.49	0.79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4989	1	4	1.91	0.71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4994	1	4	1.62	0.67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5003	1	4	1.73	0.62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4

이들은 다른 아시아국가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한 요소로 도덕성, 자기수양, 높은 영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자기수양(평균 1.68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표 Ⅲ-2-69 인도네시아청소년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4989	1	4	1.71	0.64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4986	1	4	2.03	0.73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4984	1	4	1.68	0.57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4982	1	4	1.95	0.69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4981	1	4	2.07	0.71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5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이들은 법은 상당히 신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는데, 특히,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의 응답과는 다르게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질문에 평균 1.73점으로 동의하고 있어, 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았으며,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평균 1.71점) 및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평균 1.56점)는 질문에도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 자의 편이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2평균 2.96점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표 III-2-70 인도네시아청소년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	5015	1	4	2.96	0.84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5016	1	4	1.71	0.72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5023	1	4	1.56	0.61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5019	1	4	1.73	0.87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6

이들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이들은 전통문화의 보존에 대한 책임 및 전통문화가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강하게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전통문화 보존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에는 평균 1.44점의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71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우리 정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5019	1	4	1.57	0.54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5020	1	4	1.44	0.60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5016	1	4	1.58	0.6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7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은 평균 1.73점에서 1.82점으로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평균 1.82점)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평균 1.81점)"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평균 1.73점)의 평균을 보이고 있었다.

표 Ⅲ-2-72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4981	1	4	1.82	0.62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5010	1	4	1.81	0.72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5003	1	4	1.73	0.6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나.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가) 전체 평균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바람직한 시민의식",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여학생과 남학생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인 차이에 의하면,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여학생의 경우 정부와 공무원의 부정허용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며, 아시아인으로서는 또는 아시아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3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전체 평균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요인1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남학생	2250	2.42	0.45	-14.558	0.000
		여학생	2535	2.61	0.45		
요인2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남학생	2305	1.83	0.52	-4.509	0.000
		여학생	2584	1.90	0.52		
요인3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남학생	2313	1.90	0.40	-6.409	0.000
		여학생	2591	1.98	0.43		
요인4	바람직한 시민의식	남학생	2325	1.87	0.41	-3.378	0.001
		여학생	2597	1.91	0.41		
요인5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남학생	2348	1.99	0.41	-0.588	0.557
		여학생	2614	1.99	0.39		
요인6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남학생	2351	1.54	0.43	1.602	0.109
		여학생	2618	1.52	0.42		
요인7	정치인에 대한 인식	남학생	2341	1.77	0.54	1.518	0.129
		여학생	2617	1.74	0.5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나) 각 요인별 차이 분석

○ 요인 1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 인식의 세부 항목별 차이에 의하면,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정부와 공무원이 공정해야 한다는데 보다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2-74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공무원이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남학생	2336	2.22	0.83	-9.028	0.000
	여학생	2610	2.43	0.81		
공무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남학생	2335	2.08	0.74	-10.952	0.000
	여학생	2613	2.31	0.74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남학생	2331	2.56	0.88	-13.390	0.000
	여학생	2607	2.88	0.80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남학생	2336	2.38	0.80	-8.825	0.000
	여학생	2606	2.58	0.79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남학생	2332	2.52	0.92	-14.034	0.000
	여학생	2608	2.87	0.84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남학생	2350	2.90	0.99	-5.557	0.000
	여학생	2625	3.05	0.93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남학생	2345	2.65	0.80	-8.898	0.000
	여학생	2621	2.84	0.77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남학생	2339	2.41	0.91	-7.371	0.000
	여학생	2617	2.59	0.86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남학생	2342	2.58	0.82	-9.523	0.000
	여학생	2616	2.79	0.77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남학생	2340	2.71	0.97	-6.095	0.000
	여학생	2606	2.87	0.91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남학생	2343	2.23	0.70	-6.073	0.000
	여학생	2620	2.35	0.70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남학생	2345	2.24	0.75	-5.732	0.000
	여학생	2615	2.36	0.74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2

다음으로 이들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다만,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위한 질문인 아시아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 아시아 문화전통의 자랑스러움, 아시아의 경제발전의 자랑스러운 인식에서 인도네시아 남학생의 동의정도가 여학생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5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남학생	2350	1.94	0.90	-4.216	0.000
	여학생	2620	2.05	0.92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남학생	2345	1.85	0.69	-5.088	0.000
	여학생	2618	1.95	0.65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345	1.80	0.66	-1.841	0.066
	여학생	2617	1.83	0.63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345	1.86	0.79	-3.725	0.000
	여학생	2612	1.95	0.82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343	1.85	0.75	-1.908	0.056
	여학생	2607	1.89	0.74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342	1.87	0.73	-1.673	0.094
	여학생	2618	1.90	0.71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342	1.70	0.65	-4.204	0.000
	여학생	2622	1.78	0.65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3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학생들은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어른, 선생님, 사회적 권위자의 의견을 따른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사회화합을 위해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고, 정부의 역할을 종교와 영적 삶의 고취를 포함시키는 등 영적인 삶을 중시하는 것에는 남녀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2-76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347	1.95	0.70	-5.220	0.000
	여학생	2617	2.06	0.74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남학생	2341	1.87	0.57	-3.538	0.000
	여학생	2614	1.92	0.58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343	2.38	0.79	-9.308	0.000
	여학생	2610	2.59	0.77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336	1.89	0.70	-2.433	0.015
	여학생	2613	1.94	0.72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339	1.60	0.67	-1.421	0.155
	여학생	2615	1.63	0.67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남학생	2344	1.73	0.63	0.006	0.995
	여학생	2619	1.73	0.61		

주: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4

반면 바람직한 시민의식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경우,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수양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학생들은 도덕성과 정신적 성숙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표 III-2-77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남학생	2344	1.70	0.64	-0.875	0.381
	여학생	2608	1.72	0.64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학생	2342	1.95	0.71	-6.987	0.000
	여학생	2607	2.10	0.74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남학생	2338	1.71	0.59	2.607	0.009
	여학생	2608	1.66	0.56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남학생	2339	1.94	0.70	-1.368	0.171
	여학생	2606	1.96	0.68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남학생	2336	2.04	0.73	-2.406	0.016
	여학생	2607	2.09	0.7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5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분석 결과,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는 없었다. 즉, 다른 모든 항목에서는 남녀 학생들 모두 법은 동등하고 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으나 다만, 여학생의 경우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에 남학생에 비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높게 하고 있었다.

표 III-2-78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	남학생	2352	2.92	0.88	-3.255	0.001
	여학생	2623	3.00	0.80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남학생	2355	1.72	0.73	1.364	0.173
	여학생	2621	1.69	0.71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학생	2354	1.56	0.63	0.145	0.885
	여학생	2629	1.56	0.59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학생	2355	1.74	0.87	0.901	0.367
	여학생	2623	1.72	0.87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6

또한 이들의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도 통계적으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이들은 그들의 전통문화에 대해 강한 긍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표 III-2-79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나는 우리 정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남학생	2353	1.58	0.55	1.663	0.096
	여학생	2626	1.55	0.54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남학생	2353	1.46	0.62	2.026	0.043
	여학생	2628	1.42	0.57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남학생	2353	1.58	0.63	0.030	0.976
	여학생	2624	1.58	0.58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7

마지막으로 이들 청소년의 정치인의 가족의 법적 도덕적 잘못된 행위에 대한 공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에서도 아주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에 대해서만 여학생의 동의하는 비율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았다.

표 III-2-80 인도네시아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학생	2344	1.73	0.62	0.206	0.837
	여학생	2620	1.73	0.57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남학생	2348	1.84	0.74	2.935	0.003
	여학생	2623	1.78	0.70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학생	2338	1.81	0.65	-1.519	0.129
	여학생	2603	1.83	0.59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다. 소결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및 역량의 기초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질문에 평균 2점대의 평균을 보여, 정부와 공무원의 친분에 따른 일 처리 및 연고주의에 대해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에 비하여 다소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동의하고 있었으며, "공무원 채용 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허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가 아시아인으로서는 아시아와 아시아문화가 자랑스럽다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특히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는 질문에는 1.74점으로 다른 질문에 비하여 아시아의 인권신장을 중요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셋째, 이들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상대방이 본인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으로는 선생님, 부모님, 어른의 의견에 따른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으나, 항상 사회적 권위자의 말을 따른다는 질문에는 2.49점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을 보내고 있었다. 반면, 특이할만한 점은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에서 다소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영적 삶과 국가의 역할을 연관 지어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넷째, 이들은 다른 아시아국가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한 요소로 도덕성, 자기수양, 높은 영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자기수양을 강조하고 있었다.

다섯째,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이들은 법은 상당히 신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는데, 특히,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의 응답과는 다르게 "법을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질문에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어, 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여섯째,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바람직한 시민의식",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여학생과 남학생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들의 정부와 공무원 인식의 세부 항목별 차이에 의하면,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정부와 공무원이 공정해야

한데는 보다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는 반면,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에 있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어른, 선생님, 사회적 권위자의 의견을 따른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동의정도가 여학생의 그것보다 강했다.

(5)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가. 기초분석

마지막으로 태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전체 요인 평균

태국 청소년의 경우, 정부나 공무원이 연줄이나 네트워크의 관계에 따라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평균 2.39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에 비하여 부정부패를 수용하는 정도는 높았다. 반면, 아시아인으로서는 혹은 아시아 문화와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나와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고위직, 어른 및 사회적 권위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1.78점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태국청소년들의 경우 본인의 전통문화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응답정도는 1.52로 아주 강한 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1 태국청소년의 민주시민 요인 전체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요인1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5177	1	4	2.39	0.52
요인2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5210	1	4	1.81	0.43
요인3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5226	1	4	1.78	0.38
요인4	바람직한 시민의식	5196	1	4	1.66	0.42
요인5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5240	1	4	1.90	0.40
요인6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5252	1	4	1.52	0.43
요인7	정치인에 대한 인식	5232	1	4	1.71	0.54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나) 각 요인별 평균 비교

각 요인별 세부항목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요인 1

태국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련 세부 요인인 공무원의 부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 평균 2.3점미만의 보통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인도네시아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공무원의 부정부패에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82 태국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공무원이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5238	1	4	2.41	0.84
공무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5237	1	4	2.35	0.82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5234	1	4	2.68	0.91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5230	1	4	2.13	0.78
우리와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5233	1	4	2.33	0.90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5244	1	4	2.57	0.90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5244	1	4	2.22	0.92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5238	1	4	2.52	0.86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5243	1	4	2.34	0.86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5255	1	4	2.41	0.89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5249	1	4	2.45	0.79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5250	1	4	2.57	0.82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249	1	4	2.11	0.78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특히"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에는 평균 2.13점으로 다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응을 보였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던,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의 질문에도 평균 2.22점의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 요인 2

태국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가 아시아인으로서는 아시아와 아시아문화에 대해 평균 1.72~2.03점으로 다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2.03점을 보여 다른 항목에 비하여 낮은 동의정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거나(평균 1.72점), 아시아지역의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는 점에 있어서(평균 1.75점)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3 태국청소년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5248	1	4	2.03	0.73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5245	1	4	1.79	0.65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5249	1	4	1.76	0.61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5241	1	4	1.86	0.69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5247	1	4	1.78	0.68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5234	1	4	1.72	0.56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	5237	1	4	1.75	0.58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3

다음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인과 의견이 다를 경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에는 평균 1.48~2.03점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의견 충돌 시 부모님 의견을 따른다는 응답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으며,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평균 2.03점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 통합을 위하여 의견충돌을 기피하는 특성을 엿볼 수 있었다.

표 III-2-84 태국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5253	1	4	1.78	0.58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5251	1	4	2.03	0.73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5254	1	4	1.92	0.64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5246	1	4	1.76	0.66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5244	1	4	1.48	0.62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5253	1	4	1.74	0.58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4

태국청소년의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한 요소로 도덕성, 자기수양, 높은 영성이 중요하다는 인식(평균 1.50~1.82점)을 하고 있었다.

표 III-2-85 태국청소년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5214	1	4	1.50	0.62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5232	1	4	1.70	0.66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5230	1	4	1.68	0.61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5234	1	4	1.62	0.61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5234	1	4	1.82	0.71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5

태국청소년들은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이들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질문에도 평균 1.88점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 자의 편이라는 질문에는 평균 2.63점을 보여 보통 이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표 Ⅲ-2-86 태국청소년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	5252	1	4	2.63	0.88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5255	1	4	1.59	0.63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5253	1	4	1.51	0.62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5250	1	4	1.88	0.8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6

태국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이들은 전통문화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평균 1.52점), 전통문화 보존의 당위성(평균 1.39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긍정하고 있었다.

표 Ⅲ-2-87 태국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는 우리 정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5260	1	4	1.52	0.54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5253	1	4	1.39	0.57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5256	1	4	1.64	0.59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7

태국청소년의 정치인이 그들의 가족의 법 준수 및 도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평균 1.67점에서 1.78점으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평균 1.67점) 을 보여, 정치인은 가족의 도덕적인 행동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표 Ⅲ-2-88 태국청소년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평균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5242	1	4	1.74	0.64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5239	1	4	1.78	0.75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5239	1	4	1.67	0.63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나.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가) 전체 평균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바람직한 시민의식",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등 모든 민주시민 역량 요소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부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강하게 동의하지 않고 있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자랑스러워하는 인식이나 정치인의 가족의 법적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쪽 역시 여학생이었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아시아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강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 자신의 의견보다는 어른, 부모, 선생님, 사회적 권위자 등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에 의견을 높였다.

표 III-2-89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 전체 평균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요인1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	남학생	2375	2.22	0.48	-23.751	0.000
		여학생	2785	2.54	0.50		
요인2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	남학생	2397	1.78	0.43	-4.717	0.000
		여학생	2795	1.84	0.43		
요인3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남학생	2407	1.77	0.38	-2.579	0.010
		여학생	2803	1.80	0.38		
요인4	바람직한 시민의식	남학생	2388	1.68	0.43	3.458	0.001
		여학생	2790	1.64	0.41		
요인5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남학생	2417	1.88	0.41	-4.094	0.000
		여학생	2806	1.92	0.39		
요인6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남학생	2425	1.56	0.45	7.211	0.000
		여학생	2810	1.48	0.40		
요인7	정치인에 대한 인식	남학생	2409	1.75	0.56	5.510	0.000
		여학생	2805	1.67	0.52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나) 각 요인별 차이 분석

○ 요인 1

태국청소년의 정부와 공무원 인식의 세부 항목별 차이에 의하면,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정부와 공무원이 공정해야 한다는데 보다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었다.

표 Ⅲ-2-90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요인1)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공무원이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남학생	2418	2.21	0.86	-15.650	0.000
	여학생	2802	2.57	0.79		
공무원 채용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남학생	2419	2.16	0.80	-16.500	0.000
	여학생	2800	2.52	0.80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	남학생	2416	2.43	0.93	-18.701	0.000
	여학생	2800	2.89	0.84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	남학생	2412	2.01	0.77	-9.991	0.000
	여학생	2800	2.23	0.78		
우리과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	남학생	2414	2.11	0.87	-16.096	0.000
	여학생	2801	2.51	0.89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	남학생	2420	2.05	0.87	-12.642	0.000
	여학생	2806	2.37	0.94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남학생	2419	2.41	0.92	-12.164	0.000
	여학생	2807	2.71	0.87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남학생	2414	2.35	0.89	-13.512	0.000
	여학생	2806	2.67	0.80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	남학생	2421	2.16	0.84	-14.127	0.000
	여학생	2805	2.49	0.85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남학생	2427	2.26	0.88	-11.240	0.000
	여학생	2811	2.53	0.87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남학생	2423	2.26	0.76	-16.794	0.000
	여학생	2809	2.62	0.77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남학생	2424	2.37	0.83	-16.485	0.000
	여학생	2809	2.74	0.78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2

다음으로 태국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아시아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러움,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있어 남녀학생 간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별히, 위의 세 항목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들에 비하여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91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인식(요인2)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남학생	2424	1.96	0.74	-6.840	0.000
	여학생	2806	2.10	0.71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남학생	2422	1.74	0.68	-4.731	0.000
	여학생	2805	1.83	0.63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423	1.76	0.65	-0.438	0.661
	여학생	2808	1.76	0.57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419	1.82	0.70	-3.447	0.001
	여학생	2804	1.89	0.69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421	1.76	0.69	-1.850	0.064
	여학생	2808	1.79	0.66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412	1.70	0.59	-1.561	0.119
	여학생	2804	1.73	0.54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	남학생	2415	1.74	0.62	-1.681	0.093
	여학생	2804	1.77	0.55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3

태국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에 있어서는 몇몇 항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남학생들은 중요한 의사결정 시 나오는 의견이 다를 경우 항상 사회적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여학생보다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의 의견에 남학생보다 순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2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요인3)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426	1.76	0.60	-1.911	0.056
	여학생	2810	1.79	0.57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	남학생	2423	1.95	0.71	-6.983	0.000
	여학생	2811	2.09	0.75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427	1.89	0.65	-3.039	0.002
	여학생	2811	1.94	0.62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421	1.76	0.69	-0.569	0.570
	여학생	2808	1.77	0.64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학생	2421	1.53	0.65	5.382	0.000
	여학생	2806	1.44	0.59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남학생	2425	1.73	0.61	-1.233	0.217
	여학생	2811	1.75	0.55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4

태국청소년 중 여학생들은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에 있어서 남학생보다 도덕성, 자기수양, 높은
영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표 III-2-93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의식(요인4)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남학생	2399	1.53	0.64	3.746	0.000
	여학생	2797	1.47	0.59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학생	2412	1.70	0.66	0.154	0.878
	여학생	2802	1.70	0.65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남학생	2410	1.71	0.65	3.009	0.003
	여학생	2802	1.66	0.59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남학생	2414	1.65	0.64	3.147	0.002
	여학생	2802	1.59	0.58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남학생	2416	1.84	0.74	1.889	0.059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여학생	2800	1.81	0.68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5

또한 이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질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에서 남학생에 비하여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강했으며, 남학생은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항목에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표 III-2-94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5)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	남학생	2427	2.52	0.93	-8.690	0.000
	여학생	2808	2.73	0.83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남학생	2426	1.58	0.64	-0.277	0.782
	여학생	2812	1.59	0.63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학생	2426	1.55	0.67	4.585	0.000
	여학생	2810	1.48	0.57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학생	2423	1.85	0.81	-2.059	0.040
	여학생	2810	1.90	0.79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6

또한 태국청소년의 경우 여학생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이를 보존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통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도 강했다.

표 III-2-95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6)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나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남학생	2431	1.55	0.56	3.843	0.000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여학생	2811	1.49	0.53	11.356	0.000
	남학생	2426	1.48	0.63		
	여학생	2810	1.30	0.51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	남학생	2428	1.65	0.64	1.187	0.235
	여학생	2811	1.63	0.55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 요인 7

마지막으로 태국청소년의 정치인의 가족의 법 준수 및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법적책임, 비도덕적 행위 모두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6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7)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학생	2419	1.76	0.67	2.054	0.040
	여학생	2805	1.73	0.61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남학생	2414	1.72	0.67	5.378	0.000
	여학생	2807	1.63	0.59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학생	2413	1.81	0.77	2.963	0.003
	여학생	2808	1.75	0.73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다. 소결

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의 각 요소별 기초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국청소년들은 정부나 공무원이 연줄이나 네트워크의 관계에 따라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평균 2.39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에 비하여 부정부패를 수용하는 정도는 높았다.

둘째, 태국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가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와 아시아문화에 대해 다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으며(평균 1.72점), 아시아지역의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는 점에 있어서(평균 1.75점)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음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인과 의견이 다를 경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를 물어보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에 이들은 의견 충돌 시 부모님의 의견을 따른다는 응답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으며,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 통합을 위하여 의견충돌을 기피하는 특성을 엿볼 수 있었다.

넷째, 태국청소년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이들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질문에도 평균 1.88점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 자의 편이라는 질문에는 보통 이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즉, 이를 통해 태국청소년의 경우 자국의 법제도에 신뢰가 다소 높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부와 공무원 인식의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정부와 공무원이 공정해야 한다는데 보다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었으며, 남학생은 전반적인 아시아의 경제발전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있어 여학생들에 비하여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태국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에 있어서는 몇몇 항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남학생들은 중요한 의사결정 시 나오는 의견이 다를 경우 항상 사회적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여학생보다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의 의견에 남학생보다 순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태국청소년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질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 자의 편이다."에서 남학생에 비하여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강했으며, 남학생은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항목에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태국청소년의 정치인의 가족의 법 준수 및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법적책임, 비도덕적 행위 모두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과 아시아 국가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비교

(1) 요인1 :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가치신념

본 단원에서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하여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사회와 체제에 대한 가치신념을 비교해보았다. 비교분석에서는 공무원들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정치개입 허용, 연공서열에 의한 선거, 공무원 사적인 요구에 의한 공공의 자원 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을 통해 국가의 도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가치체계를 조사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한국, 대만, 홍콩의 청소년들의 경우 정부의 부정부패 및 공무원 사적인 정치개입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정부의 연공서열에 의한 정치운영 등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통계적인 결과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한국과 대만 학생들의 경우 정부의 공공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반면, 홍콩 청소년들은 반대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강도는 다소 약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학생들은 오히려 정부의 타락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응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과 대만학생들은 정부의 공정정대하고 공무원의 공사구분이 명확한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태국 및 인도네시아 학생의 경우 이러한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표 III-2-97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가치신념(요인 1)의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076	3.17		0.52
홍콩	2673	3.06		0.49
인도네시아	4867	2.49		0.46
한국	5204	3.17		0.47
태국	5178	2.39		0.52
합계	22998	2.84		0.61
분산분석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2,879.98	4	720.00	2,958.611 (0.000)
집단-내	5,595.49	22993	0.24	
합계	8,475.47	22997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115*	0.012	0.000
	인도네시아	0.680*	0.010	0.000
	한국	0.006	0.010	0.981
	태국	0.783*	0.010	0.000
홍콩	대만	-0.115*	0.012	0.000
	인도네시아	0.566*	0.012	0.000
	한국	-0.108*	0.012	0.000
	태국	0.668*	0.012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680*	0.010	0.000
	홍콩	-0.566*	0.012	0.000
	한국	-0.674*	0.010	0.000
	태국	0.103*	0.010	0.000
한국	대만	-0.006	0.010	0.981
	홍콩	0.108*	0.012	0.000
	인도네시아	0.674*	0.010	0.000
	태국	0.776*	0.010	0.000
태국	대만	-0.783*	0.010	0.000
	홍콩	-0.668*	0.012	0.000
	인도네시아	-0.103*	0.010	0.000
	한국	-0.776*	0.010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먼저,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가치신념의 세부요인 중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는 설문 응답결과에 따르면, 대만과 한국, 홍콩 청소년들은 이의 허용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태국과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은 다소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표 III-2-98

아시아 청소년들의 "공무원이 정부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0	3.06		0.71
홍콩		2711	3.15		0.70
인도네시아		4983	2.33		0.83
한국		5247	3.34		0.71
태국		5238	2.41		0.84
합계		23309	2.83		0.87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4,120.54	4	1030.134	1751.869
집단-내		13,703.22	23,304	0.58802	
합계		17,823.76	23,308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99	0.018		0.000
	인도네시아	0.730	0.015		0.000
	한국	-0.283	0.015		0.000
	태국	0.651	0.015		0.000
홍콩	대만	0.099	0.018		0.000
	인도네시아	0.828	0.018		0.000
	한국	-0.185	0.018		0.000
	태국	0.750	0.018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730	0.015		0.000
	홍콩	-0.828	0.018		0.000
	한국	-0.013	0.015		0.000
	태국	-0.078	0.015		0.000
한국	대만	0.283	0.015		0.000
	홍콩	0.185	0.018		0.000
	인도네시아	1.013	0.015		0.000
	태국	0.935	0.015		0.000
태국	대만	-0.651	0.015		0.000
	홍콩	-0.750	0.018		0.000
	인도네시아	0.078	0.015		0.000
	한국	-0.935	0.015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또한 이들은 "공무원 채용 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는 설문 응답결과 역시 대만, 홍콩, 한국청소년들은 이의 허용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나, 태국과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은 평균 2.20~2.35점으로 다소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표 III-2-99

아시아 청소년들의 "공무원 채용 시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27	2.99		0.79
홍콩		2710	2.97		0.77
인도네시아		4984	2.20		0.75
한국		5246	2.91		0.82
태국		5237	2.35		0.82
합계		23304	2.66		0.86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2,689.22	4	672.3052	1066.722
집단-내		14,684.28	23,299	0.630254	
합계		17,373.50	23,303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25	0.019		0.790
	인도네시아	0.790	0.016		0.000
	한국	0.079	0.016		0.000
	태국	0.637	0.016		0.000
홍콩	대만	-0.025	0.019		0.790
	인도네시아	0.765	0.019		0.000
	한국	0.054	0.019		0.078
	태국	0.612	0.019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790	0.016		0.000
	홍콩	-0.765	0.019		0.000
	한국	-0.711	0.016		0.000
	태국	-0.153	0.016		0.000
한국	대만	-0.079	0.016		0.000
	홍콩	-0.054	0.019		0.078
	인도네시아	0.711	0.016		0.000
	태국	0.558	0.016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태국	태국	-0.637	0.016	0.000
	홍콩	-0.612	0.019	0.000
	인도네시아	0.153	0.016	0.000
	한국	-0.558	0.016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또한 이들은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는 설문 응답결과에 따르면, 한국, 홍콩, 대만 순으로 이의 허용에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다.

표 III-2-100 아시아 청소년들의 "만일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 혹은 친인척이라면 최적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뽑아주어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25	3.13		0.78
홍콩		2711	3.14		0.78
인도네시아		4974	2.73		0.86
한국		5246	3.16		0.76
태국		5234	2.68		0.91
합계		23290	2.95		0.85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1,127.68	4	281.9211	414.2652
집단-내		15,846.21	23,285	0.680533	
합계		16,973.89	23,289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11	0.020		0.990
	인도네시아	0.404	0.016		0.000
	한국	-0.029	0.016		0.512
	태국	0.451	0.016		0.000
홍콩	대만	0.011	0.020		0.990
	인도네시아	0.414	0.020		0.000
	한국	-0.019	0.020		0.921
	태국	0.462	0.020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인도네시아	대만	-0.404	0.016	0.000
	홍콩	-0.414	0.020	0.000
	한국	-0.433	0.016	0.000
	태국	0.047	0.016	0.078
한국	대만	0.029	0.016	0.512
	홍콩	0.019	0.020	0.921
	인도네시아	0.433	0.016	0.000
	태국	0.480	0.016	0.000
태국	태국	-0.451	0.016	0.000
	홍콩	-0.462	0.020	0.000
	인도네시아	-0.047	0.016	0.078
	한국	-0.480	0.016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또한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는 설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과에 의하면 국가별 인식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대만, 홍콩, 한국 순으로 이의 허용에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반면, 태국은 평균 2.13점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표 III-2-101

아시아 청소년들의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연고나 또는 고향출신의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어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25	3.26	0.83
홍콩	2711	3.19	0.80
인도네시아	4977	2.48	0.80
한국	5244	3.12	0.81
태국	5230	2.13	0.78
합계	23287	2.80	0.93
분산분석표	제공함	자유도	평균제곱
집단-간	4,913.38	4	1228.346
집단-내	15,126.86	23,282	0.649723
F(유의확률)			
1890.568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합계		20,040.24	23,286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75	0.019	0.004
	인도네시아	0.783	0.016	0.000
	한국	0.139	0.016	0.000
	태국	1.133	0.016	0.000
홍콩	대만	-0.075	0.019	0.004
	인도네시아	0.708	0.019	0.000
	한국	0.064	0.019	0.023
	태국	1.058	0.019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783	0.016	0.000
	홍콩	-0.708	0.019	0.000
	한국	-0.644	0.016	0.000
	태국	0.350	0.016	0.000
한국	대만	-0.139	0.016	0.000
	홍콩	-0.064	0.019	0.023
	인도네시아	0.644	0.016	0.000
	태국	0.994	0.016	0.000
태국	태국	-1.133	0.016	0.000
	홍콩	-1.058	0.019	0.000
	인도네시아	-0.350	0.016	0.000
	한국	-0.994	0.016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또한 "우리과 직접적 연고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할 것이다"는 설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만,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청소년 순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했는데, 태국학생의 경우 여전히 지역연고주의가 다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26	3.25		0.82
홍콩		2710	3.22		0.78
인도네시아		4976	2.70		0.90
한국		5247	3.24		0.77
태국		5233	2.33		0.90
합계		23292	2.92		0.92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3,440.17	4	860.0415	1222.381
집단-내		16,384.25	23,287	0.703579	
합계		19,824.41	23,291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30	0.020		0.677
	인도네시아	0.549	0.017		0.000
	한국	0.011	0.016		0.979
	태국	0.927	0.016		0.000
홍콩	대만	-0.030	0.020		0.677
	인도네시아	0.518	0.020		0.000
	한국	-0.019	0.020		0.917
	태국	0.897	0.020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549	0.017		0.000
	홍콩	-0.518	0.020		0.000
	한국	-0.538	0.017		0.000
	태국	0.378	0.017		0.000
한국	대만	-0.011	0.016		0.979
	홍콩	0.019	0.020		0.917
	인도네시아	0.538	0.017		0.000
	태국	0.916	0.016		0.000
태국	태국	-0.927	0.016		0.000
	홍콩	-0.897	0.020		0.000
	인도네시아	-0.378	0.017		0.000
	한국	-0.916	0.016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또한 "우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설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아시아 청소년들은 평균 2.5점 이상의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 즉, 아시아 청소년들은 공무원의 사적인 목적에 의한 재원활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103

아시아 청소년들의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괜찮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5	3.28		0.86
홍콩		2724	3.20		0.80
인도네시아		5006	2.75		0.79
한국		5240	3.15		0.67
태국		5244	2.57		0.90
합계		23349	2.97		0.86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1,869.26	4	467.315	712.3729
집단-내		15,313.61	23,344	0.655998	
합계		17,182.87	23,348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81	0.019		0.001
	인도네시아	0.529	0.016		0.000
	한국	0.130	0.016		0.000
	태국	0.706	0.016		0.000
홍콩	대만	-0.081	0.019		0.001
	인도네시아	0.448	0.019		0.000
	한국	0.049	0.019		0.163
	태국	0.625	0.019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529	0.016		0.000
	홍콩	-0.448	0.019		0.000
	한국	-0.399	0.016		0.000
	태국	0.177	0.016		0.000
한국	대만	-0.130	0.016		0.000
	홍콩	-0.049	0.019		0.163
	인도네시아	0.399	0.016		0.000
	태국	0.576	0.016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태국	태국	-0.706	0.016	0.000
	홍콩	-0.625	0.019	0.000
	인도네시아	-0.177	0.016	0.000
	한국	-0.576	0.016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특히, 효과적 문제해결을 위한 뇌물허용에 대해서는 나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대만 청소년의 경우 평균 3.51점으로 강하게 요인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3.47점)과 홍콩(3.44점) 역시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국 청소년들은 2.22점의 반대수준을 보여, 오히려 조금은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표 III-2-104 아시아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45	3.51		0.73
홍콩		2729	3.44		0.76
인도네시아		5015	2.97		0.96
한국		5236	3.47		0.70
태국		5244	2.22		0.92
합계		23369	3.09		0.97
분산분석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5,978.29	4	1494.572	2183.604
집단-내		15,991.53	23,364	0.684452	
합계		21,969.82	23,368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77	0.020		0.004
	인도네시아	0.540	0.016		0.000
	한국	0.046	0.016		0.089
	태국	1.287	0.016		0.000
홍콩	대만	-0.077	0.020		0.004
	인도네시아	0.464	0.020		0.000
	한국	-0.030	0.020		0.656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인도네시아	태국	1,211	0.020	0.000
	대만	-0.540	0.016	0.000
	홍콩	-0.464	0.020	0.000
	한국	-0.494	0.016	0.000
	태국	0.747	0.016	0.000
한국	대만	-0.046	0.016	0.089
	홍콩	0.030	0.020	0.656
	인도네시아	0.494	0.016	0.000
	태국	1.241	0.016	0.000
태국	태국	-1.287	0.016	0.000
	홍콩	-1.211	0.020	0.000
	인도네시아	-0.747	0.016	0.000
	한국	-1.241	0.016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다음으로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 는 질문에 대부분의 아시아 청소년들은 보통이상의 동의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보였다.

표 Ⅲ-2-105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치인 정부는 종종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4	3.33		0.75
홍콩	2727	3.13		0.78
인도네시아	4996	2.51		0.89
한국	5235	3.23		0.70
태국	5238	2.52		0.86
합계	23330	2.92		0.88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3,149.69	4	787.4229	1233.938
집단-내	14,884.57	23,325	0.638138	
합계	18,034.26	23,329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홍콩	0.202	0.019	0.000
	인도네시아	0.821	0.016	0.000
	한국	0.100	0.016	0.000
	태국	0.806	0.016	0.000
홍콩	대만	-0.202	0.019	0.000
	인도네시아	0.620	0.019	0.000
	한국	-0.102	0.019	0.000
	태국	0.604	0.019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821	0.016	0.000
	홍콩	-0.620	0.019	0.000
	한국	-0.722	0.016	0.000
	태국	-0.016	0.016	0.914
한국	대만	-0.100	0.016	0.000
	홍콩	0.102	0.019	0.000
	인도네시아	0.722	0.016	0.000
	태국	0.706	0.016	0.000
태국	태국	-0.806	0.016	0.000
	홍콩	-0.604	0.019	0.000
	인도네시아	0.016	0.016	0.914
	한국	-0.706	0.016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또한, "정부가 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면,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에 대해 한국 청소년은 3.22점으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주의 사회와 효율성보다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27	3.13		0.80
홍콩		2714	2.95		0.79
인도네시아		4998	2.69		0.80
한국		5241	3.22		0.75
태국		5243	2.34		0.86
합계		23323	2.86		0.87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2,664.74	4	666.1854	1038.548
집단-내		14,957.52	23,318	0.641458	
합계		17,622.26	23,322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187	0.019		0.000
	인도네시아	0.447	0.016		0.000
	한국	-0.086	0.016		0.000
	태국	0.797	0.016		0.000
홍콩	대만	-0.187	0.019		0.000
	인도네시아	0.260	0.019		0.000
	한국	-0.272	0.019		0.000
	태국	0.610	0.019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447	0.016		0.000
	홍콩	-0.260	0.019		0.000
	한국	-0.532	0.016		0.000
	태국	0.350	0.016		0.000
한국	대만	0.086	0.016		0.000
	홍콩	0.272	0.019		0.000
	인도네시아	0.532	0.016		0.000
	태국	0.882	0.016		0.000
태국	대만	-0.797	0.016		0.000
	홍콩	-0.610	0.019		0.000
	인도네시아	-0.350	0.016		0.000
	한국	-0.882	0.016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아시아 국가 청소년의 경우, 국민 모두가 번영하다면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부정하고 있었다. 다만,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경우, 평균 2.30점으로, 크게 반대하지는 않고 있어, 민주주의와 국민 번영사이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III-2-107

아시아 청소년들의 국민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40	3.14		0.80
홍콩		2717	2.86		0.80
인도네시아		5003	2.30		0.70
한국		5246	3.05		0.76
태국		5249	2.45		0.79
합계		23355	2.75		0.84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2,773.00	4	693.2512	1179.226
집단-내		13,727.15	23,350	0.587887	
합계		16,500.16	23,354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202	0.019		0.000
	인도네시아	0.821	0.016		0.000
	한국	0.100	0.016		0.000
	태국	0.806	0.016		0.000
홍콩	대만	-0.202	0.019		0.000
	인도네시아	0.620	0.019		0.000
	한국	-0.102	0.019		0.000
	태국	0.604	0.019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821	0.016		0.000
	홍콩	-0.620	0.019		0.000
	한국	-0.722	0.016		0.000
	태국	-0.016	0.016		0.914
한국	대만	-0.100	0.016		0.000
	홍콩	0.102	0.019		0.000
	인도네시아	0.722	0.016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태국	태국	0.706	0.016	0.000
	태국	-0.806	0.016	0.000
	홍콩	-0.604	0.019	0.000
	인도네시아	0.016	0.016	0.914
	한국	-0.706	0.016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또한,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에 대해 한국과 대만 청소년은 평균 3점 이상의 반대 의견을 보인 반면, 나머지 국가 청소년들은 보통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표 III-2-108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부가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정부의 민주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4	3.06		0.79
홍콩		2715	2.80		0.78
인도네시아		5000	2.30		0.75
한국		5243	3.11		0.72
태국		5250	2.57		0.82
합계		23342	2.76		0.83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2,350.22	4	587.5554	986.4548
집단-내		13,900.06	23,337	0.595623	
합계		16,250.28	23,341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259	0.018		0.000
	인도네시아	0.759	0.015		0.000
	한국	-0.050	0.015		0.027
	태국	0.490	0.015		0.000
홍콩	대만	-0.259	0.018		0.000
	인도네시아	0.500	0.018		0.000
	한국	-0.310	0.018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인도네시아	태국	0.231	0.018	0.000
	대만	-0.759	0.015	0.000
	홍콩	-0.500	0.018	0.000
	한국	-0.809	0.015	0.000
	태국	-0.269	0.015	0.000
한국	대만	0.050	0.015	0.027
	홍콩	0.310	0.018	0.000
	인도네시아	0.809	0.015	0.000
	태국	0.540	0.015	0.000
태국	태국	-0.490	0.015	0.000
	홍콩	-0.231	0.018	0.000
	인도네시아	0.269	0.015	0.000
	한국	-0.540	0.015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마지막으로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는 항목에 대해 한국학생들은 부정하고 있었으나, 인도네시아와 태국학생들은 다소 긍정하는 반응을 보여 힘 있는 국가가 국민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표 III-2-109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7	2.92		0.86
홍콩	2715	2.66		0.79
인도네시아	5009	1.92		0.69
한국	5242	3.00		0.79
태국	5249	2.11		0.78
합계	23352	2.51		0.91
분산분석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4,741.82	4	1185.455	1921.113
집단-내	14,406.65	23,347	0.617067	
합계	19,148.47	23,351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257	0.019	0.000
	인도네시아	0.996	0.016	0.000
	한국	-0.086	0.015	0.000
	태국	0.802	0.015	0.000
홍콩	대만	-0.257	0.019	0.000
	인도네시아	0.739	0.019	0.000
	한국	-0.343	0.019	0.000
	태국	0.545	0.019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996	0.016	0.000
	홍콩	-0.739	0.019	0.000
	한국	-1.082	0.016	0.000
	태국	-0.194	0.016	0.000
한국	대만	0.086	0.015	0.000
	홍콩	0.343	0.019	0.000
	인도네시아	1.082	0.016	0.000
	태국	0.888	0.015	0.000
태국	대만	-0.802	0.015	0.000
	홍콩	-0.545	0.019	0.000
	인도네시아	0.194	0.016	0.000
	한국	-0.888	0.015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2) 요인2 : 아시아 청소년들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가치신념

여기서는 아시아인, 아시아의 민주적, 경제적, 인권적 발전, 아시아의 전통문화 등에 대한 자부심과 아시아시민에 대한 정체성을 아시아 정체성을 대변하는 주요 주제로 설정하여 청소년들의 가치신념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아시아 국가들 간 청소년들의 아시아 가치신념에는 나라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F=17.530$, $p=.0.000$). 그러나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1.84 표준편차=0.51). 그러나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시아인으로서는 아시아인 및 아시아 문화 전반에 대한 자부심은 태국, 대만, 한국, 인도네시아, 홍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태국, 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와 홍콩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2-110 아시아 청소년들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가치신념(요인 2)의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22	1.82		0.57
홍콩		2703	1.90		0.48
인도네시아		4924	1.87		0.52
한국		5233	1.84		0.51
태국		5210	1.81		0.43
합계		23192	1.84		0.51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17.99	4	4.50	17.530 (0.000)
집단-내		5,947.92	23187	0.26	
합계		5,965.91	23191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74*	0.012		0.000
	인도네시아	-0.046*	0.010		0.000
	한국	-0.019	0.010		0.444
	태국	0.011	0.010		0.891
홍콩	대만	0.074*	0.012		0.000
	인도네시아	0.028	0.012		0.253
	한국	0.055*	0.012		0.000
	태국	0.084*	0.012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인도네시아	대만	0.046*	0.010	0.000
	홍콩	-0.028	0.012	0.253
	한국	0.026	0.010	0.139
	태국	0.056*	0.010	0.000
한국	대만	0.019	0.010	0.444
	홍콩	-0.055*	0.012	0.000
	인도네시아	-0.026	0.010	0.139
	태국	0.030	0.010	0.060
태국	태국	-0.011	0.010	0.891
	홍콩	-0.084*	0.012	0.000
	인도네시아	-0.056*	0.010	0.000
	한국	-0.030	0.010	0.06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아시아 청소년의 아시아 및 아시아문화에 대한 가치신념 중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은 모두 그렇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응답의 강도에서 국가 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대만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 인식이 가장 강했으며, 태국학생들의 인식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III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43	1.67		0.71
홍콩	2730	1.76		0.62
인도네시아	5009	1.99		0.91
한국	5244	1.71		0.63
태국	5248	2.03		0.73
합계	23374	1.84		0.75
분산분석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570.74	4	142.68	263.593
집단-내	12,649.76	23,369	0.54	
합계	13,220.50	23,373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홍콩	-0.091	0.017	0.000
	인도네시아	-0.322	0.015	0.000
	한국	-0.036	0.014	0.173
	태국	-0.363	0.014	0.000
홍콩	대만	0.091	0.017	0.000
	인도네시아	-0.231	0.018	0.000
	한국	0.055	0.017	0.041
	태국	-0.272	0.017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322	0.015	0.000
	홍콩	0.231	0.018	0.000
	한국	0.286	0.015	0.000
	태국	-0.040	0.015	0.101
한국	대만	0.036	0.014	0.173
	홍콩	-0.055	0.017	0.041
	인도네시아	-0.286	0.015	0.000
	태국	-0.326	0.014	0.000
태국	태국	0.363	0.014	0.000
	홍콩	0.272	0.017	0.000
	인도네시아	0.040	0.015	0.101
	한국	0.326	0.014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또한 이들은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지역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가장 강력하게 그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112

아시아 청소년들의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43	1.70	0.67
홍콩	2728	1.82	0.58
인도네시아	5001	1.90	0.67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		5242	1.75		0.63
태국		5245	1.79		0.65
합계		23359	1.79		0.65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110.86	4	27.71	65.966
집단-내		9,811.88	23,354	0.42	
합계		9,922.74	23,358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116	0.015		0.000
	인도네시아	-0.198	0.013		0.000
	한국	-0.049	0.013		0.005
	태국	-0.090	0.013		0.000
홍콩	대만	0.116	0.015		0.000
	인도네시아	-0.082	0.015		0.000
	한국	0.067	0.015		0.001
	태국	0.026	0.015		0.568
인도네시아	대만	0.198	0.013		0.000
	홍콩	0.082	0.015		0.000
	한국	0.149	0.013		0.000
	태국	0.109	0.013		0.000
한국	대만	0.049	0.013		0.005
	홍콩	-0.067	0.015		0.001
	인도네시아	-0.149	0.013		0.000
	태국	-0.041	0.013		0.036
태국	태국	0.090	0.013		0.000
	홍콩	-0.026	0.015		0.568
	인도네시아	-0.109	0.013		0.000
	한국	0.041	0.013		0.036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이들은 역시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는 설문에 대해서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 동의정도는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한국, 홍콩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6	1.90		0.73
홍콩		2728	1.93		0.64
인도네시아		5001	1.82		0.64
한국		5241	1.91		0.70
태국		5249	1.76		0.61
합계		23355	1.86		0.67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96.88	4	24.22	54.057
집단-내		10,461.73	23,350	0.45	
합계		10,558.61	23,354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35	0.016		0.310
	인도네시아	0.084	0.013		0.000
	한국	-0.010	0.013		0.967
	태국	0.139	0.013		0.000
홍콩	대만	0.035	0.016		0.310
	인도네시아	0.118	0.016		0.000
	한국	0.025	0.016		0.649
	태국	0.173	0.016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084	0.013		0.000
	홍콩	-0.118	0.016		0.000
	한국	-0.094	0.013		0.000
	태국	0.055	0.013		0.002
한국	대만	0.010	0.013		0.967
	홍콩	-0.025	0.016		0.649
	인도네시아	0.094	0.013		0.000
	태국	0.148	0.013		0.000
태국	태국	-0.139	0.013		0.000
	홍콩	-0.173	0.016		0.000
	인도네시아	-0.055	0.013		0.002
	한국	-0.148	0.013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이들의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롭다"는 설문에 대해서도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114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롭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41	1.85		0.75
홍콩		2727	1.91		0.64
인도네시아		4996	1.90		0.81
한국		5242	1.95		0.73
태국		5241	1.86		0.69
합계		23347	1.89		0.73
분산분석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32.40	4	8.10	15.080
집단-내		12,538.61	23,342	0.54	
합계		12,571.01	23,346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60	0.017		0.017
	인도네시아	-0.052	0.015		0.014
	한국	-0.094	0.014		0.000
	태국	-0.004	0.014		0.999
홍콩	대만	0.060	0.017		0.017
	인도네시아	0.009	0.017		0.993
	한국	-0.034	0.017		0.418
	태국	0.056	0.017		0.031
인도네시아	대만	0.052	0.015		0.014
	홍콩	-0.009	0.017		0.993
	한국	-0.043	0.014		0.068
	태국	0.048	0.014		0.028
한국	대만	0.094	0.014		0.000
	홍콩	0.034	0.017		0.418
	인도네시아	0.043	0.014		0.068
	태국	0.091	0.014		0.000
태국	태국	0.004	0.014		0.999
	홍콩	-0.056	0.017		0.031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인도네시아	-0.048	0.014	0.028
	한국	-0.091	0.014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아시아 청소년들은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는 질문에 모두 동의하는 반응을 보여, 이들 모두 아시아 문화전통을 아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Ⅲ-2-115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는 아시아 문화전통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42	1.81		0.72
	홍콩	2730	1.88		0.65
	인도네시아	4989	1.87		0.74
	한국	5239	1.88		0.69
	태국	5247	1.78		0.68
합계		23347	1.84		0.70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45.83	4	11.46	23.377
집단-내		11,440.29	23,342	0.49	
합계		11,486.12	23,346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74	0.017		0.001
	인도네시아	-0.058	0.014		0.002
	한국	-0.072	0.014		0.000
	태국	0.036	0.014		0.146
홍콩	대만	0.074	0.017		0.001
	인도네시아	0.016	0.017		0.923
	한국	0.001	0.017		1.000
	태국	0.110	0.017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058	0.014		0.002
	홍콩	-0.016	0.017		0.923
	한국	-0.015	0.014		0.891
	태국	0.094	0.014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	대만	0.072	0.014	0.000
	홍콩	-0.001	0.017	1.000
	인도네시아	0.015	0.014	0.891
	태국	0.108	0.014	0.000
태국	태국	-0.036	0.014	0.146
	홍콩	-0.110	0.017	0.000
	인도네시아	-0.094	0.014	0.000
	한국	-0.108	0.014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아시아의 인권신장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국가 국가 청소년의 아시아 지역의 인권신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태국 청소년의 이러한 인식은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에 비하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16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신장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44	1.91		0.69
홍콩		2730	1.96		0.67
인도네시아		4998	1.89		0.72
한국		5241	1.88		0.70
태국		5234	1.72		0.56
합계		23347	1.86		0.68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156.60	4	39.15	87.047
집단-내		10,498.40	23,342	0.45	
합계		10,655.00	23,346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47	0.016		0.064
	인도네시아	0.026	0.013		0.426
	한국	0.028	0.013		0.334
	태국	0.197	0.013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홍콩	대만	0.047	0.016	0.064
	인도네시아	0.074	0.016	0.000
	한국	0.076	0.016	0.000
	태국	0.244	0.016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026	0.013	0.426
	홍콩	-0.074	0.016	0.000
	한국	0.002	0.013	1.000
	태국	0.170	0.013	0.000
한국	대만	-0.028	0.013	0.334
	홍콩	-0.076	0.016	0.000
	인도네시아	-0.002	0.013	1.000
	태국	0.168	0.013	0.000
태국	태국	-0.197	0.013	0.000
	홍콩	-0.244	0.016	0.000
	인도네시아	-0.170	0.013	0.000
	한국	-0.168	0.013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아시아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의 마지막 질문인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들은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태국 청소년들이 지역연합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홍콩 청소년의 인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17 아시아 청소년들의 "아시아 국가가 유럽처럼 아시아 지역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6	1.92	0.70
홍콩	2715	2.01	0.66
인도네시아	5000	1.74	0.65
한국	5245	1.82	0.63
태국	5237	1.75	0.58
합계	23333	1.83	0.65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202.04	4	50.51	122.430
집단-내		9,624.06	23,328	0.41	
합계		9,826.09	23,332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94	0.015		0.000
	인도네시아	0.178	0.013		0.000
	한국	0.104	0.013		0.000
	태국	0.165	0.013		0.000
홍콩	대만	0.094	0.015		0.000
	인도네시아	0.272	0.015		0.000
	한국	0.197	0.015		0.000
	태국	0.258	0.015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178	0.013		0.000
	홍콩	-0.272	0.015		0.000
	한국	-0.074	0.013		0.000
	태국	-0.013	0.013		0.892
한국	대만	-0.104	0.013		0.000
	홍콩	-0.197	0.015		0.000
	인도네시아	0.074	0.013		0.000
	태국	0.061	0.013		0.000
태국	태국	-0.165	0.013		0.000
	홍콩	-0.258	0.015		0.000
	인도네시아	0.013	0.013		0.892
	한국	-0.061	0.013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3) 요인3 :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가치신념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및 가치신념요소에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주제로 하여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사회와 체제에 대한 가치신념을 비교한 것이다. 비교분석에서 권위에 대한 복종은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어른, 고위직, 교사, 부모에 대하여 복종하여야 하는 시민사회의 체계적 가치로 구체화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가치신념에 있어 권위에 대한 복종의 체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신념에는 아시아 국가들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884.782$, $p<0.000$). 즉, 아시아 청소년들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시민적 가치에 모두 전반적인 동의를 보였지만, 동의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본 가치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 4개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 어른, 고위직, 교사, 부모에 대하여 순종을 강요하는 가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 청소년들은 권위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가치신념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권위의 복종에 대한 태국 청소년들의 가치신념이 가장 강하였고,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적 수준에서 본 시민적 가치에 동의하였다.

표 III-2-118 아시아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가치신념(요인 3)의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10	2.56		0.53
홍콩		2708	2.54		0.51
인도네시아		4944	1.94		0.42
한국		5232	2.89		0.52
태국		5226	1.78		0.38
합계		23192	1.84		0.51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4,329.67	4	1,082.42	4884.782 (0.000)
집단-내		5,144.21	23215	0.22	
합계		9,473.88	23219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24	0.011		0.346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인도네시아	0.619*	0.009	0.000
	한국	-0.329*	0.009	0.000
	태국	0.776*	0.009	0.000
홍콩	대만	-0.024	0.011	0.346
	인도네시아	0.596*	0.011	0.000
	한국	-0.353*	0.011	0.000
	태국	0.753*	0.011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619*	0.009	0.000
	홍콩	-0.596*	0.011	0.000
	한국	-0.948*	0.009	0.000
	태국	0.157*	0.009	0.000
한국	대만	0.329*	0.009	0.000
	홍콩	0.353*	0.011	0.000
	인도네시아	0.948*	0.009	0.000
	태국	1.105*	0.009	0.000
태국	태국	-0.776*	0.009	0.000
	홍콩	-0.753*	0.011	0.000
	인도네시아	-0.157*	0.009	0.000
	한국	-1.105*	0.009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다음으로 아시아 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 가치신념의 각 세부항목별 차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태국 학생들이 가장 강한 동의를 보았다면,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의 의견을 고수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표 III-2-119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44	2.23	0.78
홍콩	2733	2.34	0.75
인도네시아	5004	2.01	0.72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		5247	2.73		0.74
태국		5253	1.78		0.58
합계		23381	2.21		0.79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2,618.10	4	654.53	1284.7
집단-내		11,909.54	23,376	0.51	
합계		14,527.64	23,380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109	0.017		0.000
	인도네시아	0.218	0.014		0.000
	한국	-0.500	0.014		0.000
	태국	0.447	0.014		0.000
홍콩	대만	0.109	0.017		0.000
	인도네시아	0.327	0.017		0.000
	한국	-0.391	0.017		0.000
	태국	0.556	0.017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218	0.014		0.000
	홍콩	-0.327	0.017		0.000
	한국	-0.717	0.014		0.000
	태국	0.229	0.014		0.000
한국	대만	0.500	0.014		0.000
	홍콩	0.391	0.017		0.000
	인도네시아	0.717	0.014		0.000
	태국	0.947	0.014		0.000
태국	태국	-0.447	0.014		0.000
	홍콩	-0.556	0.017		0.000
	인도네시아	-0.229	0.014		0.000
	한국	-0.947	0.014		0.000

다음으로 "사회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을 참아야 한다"는 질문에 대만 학생들은 반대의견을 고수한 반면,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경우 찬성하고 있어, 전혀 다른 의견을 보였다. 즉, 대만은 회합을 해치더라도 올바른 행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회합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7	3.06		0.79
홍콩		2729	2.89		0.81
인도네시아		4995	1.90		0.57
한국		5246	2.84		0.74
태국		5251	2.03		0.73
합계		23358	2.51		0.88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5,628.80	4	1407.20	2665.169
집단-내		12,330.31	23,353	0.53	
합계		17,959.12	23,357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171	0.017		0.000
	인도네시아	1.165	0.014		0.000
	한국	0.219	0.014		0.000
	태국	1.032	0.014		0.000
홍콩	대만	-0.171	0.017		0.000
	인도네시아	0.994	0.017		0.000
	한국	0.048	0.017		0.101
	태국	0.861	0.017		0.000
인도네시아	대만	-1.165	0.014		0.000
	홍콩	-0.994	0.017		0.000
	한국	-0.946	0.014		0.000
	태국	-0.133	0.014		0.000
한국	대만	-0.219	0.014		0.000
	홍콩	-0.048	0.017		0.101
	인도네시아	0.946	0.014		0.000
	태국	0.813	0.014		0.000
태국	태국	-1.032	0.014		0.000
	홍콩	-0.861	0.017		0.000
	인도네시아	0.133	0.014		0.000
	한국	-0.813	0.014		0.000

이들은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 나라별 다른 응답결과를 보였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동의하지 않는 반면, 태국 학생들은 그렇다는 응답을 보여, 한국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에 보다 독립적임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표 III-2-121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고위직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2	2.79		0.83
홍콩		2729	2.59		0.76
인도네시아		4993	2.49		0.79
한국		5243	3.04		0.72
태국		5254	1.92		0.64
합계		23351	2.56		0.85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3,680.94	4	920.23	1642.435
집단-내		13,080.46	23,346	0.56	
합계		16,761.40	23,350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206	0.018		0.000
	인도네시아	0.304	0.015		0.000
	한국	-0.246	0.015		0.000
	태국	0.876	0.015		0.000
홍콩	대만	-0.206	0.018		0.000
	인도네시아	0.099	0.018		0.000
	한국	-0.452	0.018		0.000
	태국	0.670	0.018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304	0.015		0.000
	홍콩	-0.099	0.018		0.000
	한국	-0.551	0.015		0.000
	태국	0.572	0.015		0.000
한국	대만	0.246	0.015		0.000
	홍콩	0.452	0.018		0.000
	인도네시아	0.551	0.015		0.000
	태국	1.122	0.015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태국	태국	-0.876	0.015	0.000
	홍콩	-0.670	0.018	0.000
	인도네시아	-0.572	0.015	0.000
	한국	-1.122	0.015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이들은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질문 역시 나라별 다른 응답결과를 보였다. 한국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도 크게 동의하지 않는 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경우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표 III-2-122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1	2.63		0.83
홍콩		2730	2.48		0.77
인도네시아		4989	1.91		0.71
한국		5243	3.01		0.74
태국		5246	1.76		0.66
합계		23339	2.35		0.89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5,473.87	4	1,368.47	2488.79
집단-내		12,830.25	23,334	0.55	
합계		18,304.12	23,338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142	0.018		0.000
	인도네시아	0.714	0.015		0.000
	한국	-0.382	0.015		0.000
	태국	0.862	0.015		0.000
홍콩	대만	-0.142	0.018		0.000
	인도네시아	0.573	0.018		0.000
	한국	-0.524	0.018		0.000
	태국	0.721	0.017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인도네시아	대만	-0.714	0.015	0.000
	홍콩	-0.573	0.018	0.000
	한국	-1.097	0.015	0.000
	태국	0.148	0.015	0.000
한국	대만	0.382	0.015	0.000
	홍콩	0.524	0.018	0.000
	인도네시아	1.097	0.015	0.000
	태국	1.245	0.014	0.000
태국	태국	-0.862	0.015	0.000
	홍콩	-0.721	0.017	0.000
	인도네시아	-0.148	0.015	0.000
	한국	-1.245	0.014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이들은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그 수준에 있어 나라별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의 의견에 가장 순종적인 나라는 태국이었으며, 인도, 홍콩, 대만, 한국 순으로 의견 대립 시 부모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III-2-123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항상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3	2.43		0.80
홍콩	2730	2.37		0.77
인도네시아	4994	1.62		0.67
한국	5244	2.78		0.78
태국	5244	1.48		0.62
합계	23345	2.12		0.89
분산분석표	제공함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6,368.77	4	1,592.19	3027.71
집단-내	12,273.88	23,340	0.53	
합계	18,642.64	23,344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59	0.017	0.019
	인도네시아	0.816	0.014	0.000
	한국	-0.348	0.014	0.000
	태국	0.951	0.014	0.000
홍콩	대만	-0.059	0.017	0.019
	인도네시아	0.757	0.017	0.000
	한국	-0.407	0.017	0.000
	태국	0.892	0.017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816	0.014	0.000
	홍콩	-0.757	0.017	0.000
	한국	-1.164	0.014	0.000
	태국	0.135	0.014	0.000
한국	대만	0.348	0.014	0.000
	홍콩	0.407	0.017	0.000
	인도네시아	1.164	0.014	0.000
	태국	1.299	0.014	0.000
태국	대만	-0.951	0.014	0.000
	홍콩	-0.892	0.017	0.000
	인도네시아	-0.135	0.014	0.000
	한국	-1.299	0.014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마지막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의 경우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는 질문에는 다소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강한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 청소년들은 국민의 종교와 영적 삶의 고취가 정부의 역할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6	2.22		0.71
홍콩		2716	2.55		0.74
인도네시아		5003	1.73		0.62
한국		5241	2.94		0.71
태국		5253	1.74		0.58
합계		23349	2.21		0.82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5,453.70	4	1,363.43	3080.863
집단-내		10,330.81	23,344	0.44	
합계		15,784.52	23,348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336	0.016		0.000
	인도네시아	0.491	0.013		0.000
	한국	-0.721	0.013		0.000
	태국	0.481	0.013		0.000
홍콩	대만	0.336	0.016		0.000
	인도네시아	0.827	0.016		0.000
	한국	-0.386	0.016		0.000
	태국	0.817	0.016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491	0.013		0.000
	홍콩	-0.827	0.016		0.000
	한국	-1.213	0.013		0.000
	태국	-0.010	0.013		0.959
한국	대만	0.721	0.013		0.000
	홍콩	0.386	0.016		0.000
	인도네시아	1.213	0.013		0.000
	태국	1.202	0.013		0.000
태국	대만	-0.481	0.013		0.000
	홍콩	-0.817	0.016		0.000
	인도네시아	0.010	0.013		0.959
	한국	-1.202	0.013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4) 요인4 : 바람직한 시민의식 가치

아시아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갖추기 위하여 도덕성, 자기수양,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통되게 동의하였으나, 각 나라별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태국청소년들은 정신수양 및 영적능력을 강하여 요구하였으면, 한국의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에 비하여 이에 대한 요구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25 아시아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시민의식 가치(요인 4)의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15	1.84		0.51
홍콩		2713	1.92		0.49
인도네시아		4958	1.89		0.41
한국		5225	2.00		0.45
태국		5196	1.66		0.42
합계		23207	1.86		0.47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322.25	4	80.56	389.9244 (0.000)
집단-내		4,793.77	23202	0.21	
합계		5,116.02	23206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76*	0.011		0.000
	인도네시아	-0.045	0.009		0.000
	한국	-0.161*	0.009		0.000
	태국	0.179*	0.009		0.000
홍콩	대만	0.076*	0.011		0.000
	인도네시아	0.031	0.011		0.085
	한국	-0.085*	0.011		0.000
	태국	0.255*	0.011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045*	0.009		0.000
	홍콩	-0.031	0.011		0.085
	한국	-0.116*	0.009		0.000
	태국	0.224*	0.009		0.000
한국	대만	0.161*	0.009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홍콩	0.085*	0.011	0.000
	인도네시아	0.116*	0.009	0.000
	태국	0.340*	0.009	0.000
태국	태국	-0.179*	0.009	0.000
	홍콩	-0.255*	0.011	0.000
	인도네시아	-0.224*	0.009	0.000
	한국	-0.340*	0.009	0.000

아시아 청소년들의 경우의 바람직한 시민의식 가치의 세부요소인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질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아시아 국가들을 도덕성의 필요에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하였으나, 태국과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의 이에 대한 의견이 타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강했다.

표 Ⅲ-2-126

아시아 청소년들의 도덕적 인간만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다.
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3	2.04		0.73
홍콩		2715	2.00		0.70
인도네시아		4989	1.71		0.64
한국		5242	2.25		0.75
태국		5214	1.50		0.62
합계		23293	1.89		0.74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1779.780	4	444.945	943.599
집단-내		10981.230	23288	.472	
합계		12761.010	23292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43	0.016		0.146
	인도네시아	0.332	0.014		0.000
	한국	-0.205	0.013		0.000
	태국	0.543	0.014		0.000
홍콩	대만	-0.043	0.016		0.146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인도네시아	0.290	0.016	0.000
	한국	-0.248	0.016	0.000
	태국	0.501	0.016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332	0.014	0.000
	홍콩	-0.290	0.016	0.000
	한국	-0.537	0.014	0.000
	태국	0.211	0.014	0.000
한국	대만	0.205	0.013	0.000
	홍콩	0.248	0.016	0.000
	인도네시아	0.537	0.014	0.000
	태국	0.748	0.013	0.000
태국	태국	-0.543	0.014	0.000
	홍콩	-0.501	0.016	0.000
	인도네시아	-0.211	0.014	0.000
	한국	-0.748	0.013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아시아 청소년들은 모두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대만과 태국, 홍콩청소년의 이러한 인식이 강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청소년 역시 일반적인 수준에서 동의하고 있었다.

표 III-2-127

아시아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1	1.68	0.67
홍콩	2717	1.77	0.68
인도네시아	4986	2.03	0.73
한국	5242	1.92	0.64
태국	5232	1.70	0.66
합계	23308	1.82	0.69
분산분석표	제공함	자유도	평균제공
집단-간	448,691	4	112,173
			F(유의확률)
			246,162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집단-내		10618.856	23303	.456
합계		11067.546	23307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98	0.016	0.000
	인도네시아	-0.349	0.013	0.000
	한국	-0.248	0.013	0.000
	태국	-0.027	0.013	0.368
홍콩	대만	0.098	0.016	0.000
	인도네시아	-0.251	0.016	0.000
	한국	-0.149	0.016	0.000
	태국	0.071	0.016	0.001
인도네시아	대만	0.349	0.013	0.000
	홍콩	0.251	0.016	0.000
	한국	0.101	0.013	0.000
	태국	0.322	0.013	0.000
한국	대만	0.248	0.013	0.000
	홍콩	0.149	0.016	0.000
	인도네시아	-0.101	0.013	0.000
	태국	0.220	0.013	0.000
태국	태국	0.027	0.013	0.368
	홍콩	-0.071	0.016	0.001
	인도네시아	-0.322	0.013	0.000
	한국	-0.220	0.013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아시아 청소년들은 "자기수양은 훌륭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역시 인도네시아와 태국 청소년들의 자기 수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했으며, 한국 청소년의 의식은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에 비하여 가장 낮았다.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2	1.71		0.62
홍콩		2717	1.76		0.58
인도네시아		4984	1.68		0.57
한국		5233	1.92		0.58
태국		5230	1.68		0.61
합계		23296	1.75		0.60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200.288	4	50.072	141.127
집단-내		8263.711	23291	.355	
합계		8463.999	23295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55	0.014		0.005
	인도네시아	0.027	0.012		0.251
	한국	-0.206	0.012		0.000
	태국	0.029	0.012		0.178
홍콩	대만	0.055	0.014		0.005
	인도네시아	0.082	0.014		0.000
	한국	-0.151	0.014		0.000
	태국	0.084	0.014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027	0.012		0.251
	홍콩	-0.082	0.014		0.000
	한국	-0.233	0.012		0.000
	태국	0.002	0.012		1.000
한국	대만	0.206	0.012		0.000
	홍콩	0.151	0.014		0.000
	인도네시아	0.233	0.012		0.000
	태국	0.235	0.012		0.000
태국	대만	-0.029	0.012		0.178
	홍콩	-0.084	0.014		0.000
	인도네시아	-0.002	0.012		1.000
	한국	-0.235	0.012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아시아 5개국의 청소년들은 모두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 높은 영성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표 Ⅲ-2-129

아시아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8	1.74		0.64
홍콩		2715	1.86		0.65
인도네시아		4982	1.95		0.69
한국		5244	1.81		0.58
태국		5234	1.62		0.61
합계		23313	1.79		0.64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305.588	4	76.397	189.849
집단-내		9379.326	23308	.402	
합계		9684.914	23312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114	0.015		0.000
	인도네시아	-0.204	0.013		0.000
	한국	-0.071	0.012		0.000
	태국	0.126	0.012		0.000
홍콩	대만	0.114	0.015		0.000
	인도네시아	-0.090	0.015		0.000
	한국	0.043	0.015		0.084
	태국	0.240	0.015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204	0.013		0.000
	홍콩	0.090	0.015		0.000
	한국	0.133	0.013		0.000
	태국	0.330	0.013		0.000
한국	대만	0.071	0.012		0.000
	홍콩	-0.043	0.015		0.084
	인도네시아	-0.133	0.013		0.000
	태국	0.197	0.012		0.000
태국	태국	-0.126	0.012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홍콩	-0.240	0.015	0.000
	인도네시아	-0.330	0.013	0.000
	한국	-0.197	0.012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신적 성숙" 역시 좋은 시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각 나라별 인식의 강도를 살펴보면,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 홍콩 순으로 정신적 성숙을 강조하고 있었다.

표 III-2-130

아시아 청소년들의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을 할지라도 정신적 성숙이 없이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7	2.04		0.75
홍콩		2717	2.19		0.73
인도네시아		4981	2.07		0.71
한국		5242	2.11		0.72
태국		5234	1.82		0.71
합계		23311	2.03		0.73
분산분석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338,688	4	84,672	161.618
집단-내		12210,051	23306	.524	
합계		12548,739	23310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155	0.017		0.000
	인도네시아	-0.028	0.014		0.433
	한국	-0.075	0.014		0.000
	태국	0.215	0.014		0.000
홍콩	대만	0.155	0.017		0.000
	인도네시아	0.126	0.017		0.000
	한국	0.080	0.017		0.000
	태국	0.369	0.017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028	0.014		0.433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홍콩	-0.126	0.017	0.000
	한국	-0.047	0.014	0.030
	태국	0.243	0.014	0.000
한국	대만	0.075	0.014	0.000
	홍콩	-0.080	0.017	0.000
	인도네시아	0.047	0.014	0.030
	태국	0.290	0.014	0.000
태국	태국	-0.215	0.014	0.000
	홍콩	-0.369	0.017	0.000
	인도네시아	-0.243	0.014	0.000
	한국	-0.290	0.014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5) 요인 5 :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각 사회의 법 신뢰를 윤리적 기반으로 삼아 시민원리에 대한 아시아 청소년들의 가치신념 태도를 비교하였다. 세부 항목으로의 법 신뢰는 학생들이 인지하는 자국 법에 대한 신뢰 정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2-131 아시아 청소년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요인 5)의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14	2.37		0.44
홍콩		2728	2.24		0.39
인도네시아		5002	1.99		0.40
한국		5241	2.31		0.45
태국		5240	1.90		0.40
합계		23325	2.15		0.46
분산분석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856.59	4	214.15	1218.422 (0.000)
집단-내		4,098.66	23320	0.18	
합계		4,955.25	23324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127*	0.010		0.000
	인도네시아	0.378*	0.008		0.000
	한국	0.052*	0.008		0.000
	태국	0.465*	0.008		0.000
홍콩	대만	-0.127*	0.010		0.000
	인도네시아	0.251*	0.010		0.000
	한국	-0.075*	0.010		0.000
	태국	0.338*	0.010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378*	0.008		0.000
	홍콩	-0.251*	0.010		0.000
	한국	-0.326*	0.008		0.000
	태국	0.087*	0.008		0.000
한국	대만	-0.052*	0.008		0.000
	홍콩	0.075*	0.010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태국	인도네시아	0.326*	0.008	0.000
	태국	0.413*	0.008	0.000
	태국	-0.465*	0.008	0.000
	홍콩	-0.338*	0.010	0.000
	인도네시아	-0.087*	0.008	0.000
	한국	-0.413*	0.008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아시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의 세부 요소인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에 대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평균 2.46~2.96의 보통에서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표 Ⅲ-2-132 아시아 청소년들의 "법은 돈과 권위를 가진자의 편이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25	2.59		.929
홍콩		2732	2.70		.851
인도네시아		5015	2.96		.844
한국		5246	2.46		1.000
태국		5252	2.63		.884
합계		23370	2.66		.926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702.360	4	175.590	212.401
집단-내		19315.649	23365	.827	
합계		20018.009	23369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113	0.022		0.000
	인도네시아	-0.372	0.018		0.000
	한국	0.130	0.018		0.000
	태국	-0.041	0.018		0.251
홍콩	대만	0.113	0.022		0.000
	인도네시아	-0.260	0.022		0.000
	한국	0.243	0.021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인도네시아	태국	0.071	0.021	0.025
	대만	0.372	0.018	0.000
	홍콩	0.260	0.022	0.000
	한국	0.502	0.018	0.000
	태국	0.331	0.018	0.000
한국	대만	-0.130	0.018	0.000
	홍콩	-0.243	0.021	0.000
	인도네시아	-0.502	0.018	0.000
	태국	-0.171	0.018	0.000
태국	태국	0.041	0.018	0.251
	홍콩	-0.071	0.021	0.025
	인도네시아	-0.331	0.018	0.000
	한국	0.171	0.018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이들은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는데, 태국 청소년들은 가장 강하게 동의하였으며, 대만과 한국학생들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동의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2-133 아시아 청소년들의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20	2.04		.816
홍콩	2732	1.92		.782
인도네시아	5016	1.71		.724
한국	5245	2.13		.908
태국	5255	1.59		.634
합계	23368	1.87		.807
분산분석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1073.704	4	268.426	443.506
집단-내	14140.146	23363	.605	
합계	15213.850	23367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120	0.018	0.000
	인도네시아	0.338	0.015	0.000
	한국	-0.086	0.015	0.000
	태국	0.458	0.015	0.000
홍콩	대만	-0.120	0.018	0.000
	인도네시아	0.217	0.018	0.000
	한국	-0.206	0.018	0.000
	태국	0.337	0.018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338	0.015	0.000
	홍콩	-0.217	0.018	0.000
	한국	-0.423	0.015	0.000
	태국	0.120	0.015	0.000
한국	대만	0.086	0.015	0.000
	홍콩	0.206	0.018	0.000
	인도네시아	0.423	0.015	0.000
	태국	0.543	0.015	0.000
태국	대만	-0.458	0.015	0.000
	홍콩	-0.337	0.018	0.000
	인도네시아	-0.120	0.015	0.000
	한국	-0.543	0.015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아시아 청소년의 경우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역시 동의하고 있었는데, 태국과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은 법원의 공정성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으며, 홍콩, 대만과 한국학생들 역시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Ⅲ-2-134 아시아 청소년들의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19	2.10	.769
홍콩	2729	1.94	.690
인도네시아	5023	1.56	.61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		5243	1.97		.756
태국		5253	1.51		.617
합계		23367	1.80		.734
분산분석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1386.230	4	346.558	723.597
집단-내		11188.932	23362	.479	
합계		12575.162	23366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164	0.016		0.000
	인도네시아	0.542	0.014		-
	한국	0.131	0.014		0.000
	태국	0.586	0.014		-
홍콩	대만	-0.164	0.016		0.000
	인도네시아	0.378	0.016		0.000
	한국	-0.033	0.016		0.407
	태국	0.423	0.016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542	0.014		-
	홍콩	-0.378	0.016		0.000
	한국	-0.411	0.014		0.000
	태국	0.044	0.014		0.032
한국	대만	-0.131	0.014		0.000
	홍콩	0.033	0.016		0.407
	인도네시아	0.411	0.014		0.000
	태국	0.455	0.014		0.000
태국	태국	-0.586	0.014		-
	홍콩	-0.423	0.016		0.000
	인도네시아	-0.044	0.014		0.032
	한국	-0.455	0.014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반면 이들은 마지막 질문인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질문에 나라별 약간의 인식차이를 보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청소년의 경우, 법률시스템에 문제가 없다에 동의하는 의견을 보인 반면, 대만(평균 2.73점)과 한국(평균 2.70점) 학생들은 이에 대해 다소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보였다.

표 Ⅲ-2-135 아시아 청소년들의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20	2.73		.806
홍콩		2731	2.39		.754
인도네시아		5019	1.73		.870
한국		5243	2.70		.938
태국		5250	1.88		.798
합계		23363	2.28		.949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4395.165	4	1098.791	1543.394
집단-내		16629.304	23358	.712	
합계		21024.469	23362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337	0.020		0.000
	인도네시아	1.003	0.017		-
	한국	0.031	0.017		0.489
	태국	0.856	0.017		-
홍콩	대만	-0.337	0.020		0.000
	인도네시아	0.667	0.020		0.000
	한국	-0.306	0.020		0.000
	태국	0.519	0.020		0.000
인도네시아	대만	-1.003	0.017		-
	홍콩	-0.667	0.020		0.000
	한국	-0.973	0.017		-
	태국	-0.148	0.017		0.000
한국	대만	-0.031	0.017		0.489
	홍콩	0.306	0.020		0.000
	인도네시아	0.973	0.017		-
	태국	0.825	0.016		-
태국	태국	-0.856	0.017		-
	홍콩	-0.519	0.020		0.000
	인도네시아	0.148	0.017		0.000
	한국	-0.825	0.016		-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6) 요인 6 :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아시아 청소년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 간 시민정체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청소년들은 자국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지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자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아주 강했으며,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 수준에서의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즉, 아시아 청소년들은 자국의 전통문화와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적 이슈들에 대하여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2-136 아시아 청소년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요인 6)의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21	1.70		0.55
홍콩		2730	1.84		0.53
인도네시아		5008	1.53		0.42
한국		5240	1.96		0.54
태국		5252	1.52		0.43
합계		23351	1.70		0.53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736.19	4	184.05	748.0005 (0.000)
집단-내		5,744.38	23346	0.25	
합계		6,480.57	23350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141*	0.012		0.000
	인도네시아	0.173*	0.010		0.000
	한국	-0.258*	0.010		0.000
	태국	0.187*	0.010		0.000
홍콩	대만	0.141*	0.012		0.000
	인도네시아	0.313*	0.012		0.000
	한국	-0.118*	0.012		0.000
	태국	0.327	0.012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173*	0.010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홍콩	-0.313*	0.012	0.000
	한국	-0.431*	0.010	0.000
	태국	0.014	0.010	0.717
한국	대만	0.258*	0.010	0.000
	홍콩	0.118*	0.012	0.000
	인도네시아	0.431*	0.010	0.000
	태국	0.445*	0.010	0.000
태국	태국	-0.187*	0.010	0.000
	홍콩	-0.327*	0.012	0.000
	인도네시아	-0.014	0.010	0.717
	한국	-0.445*	0.010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아시아 청소년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세부항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는 우리 정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아시아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는데,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경우 전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강렬한 열망을 표현하였다.

표 III-2-137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는 우리 정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26	1.68	.651
홍콩	2730	1.91	.659
인도네시아	5019	1.57	.542
한국	5244	2.01	.693
태국	5260	1.52	.544
합계	23379	1.72	.647
분산분석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집단-간	878.620	4	219.655
집단-내	8901.695	23374	.381
합계	9780.315	23378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홍콩	-0.235	0.015	0.000
	인도네시아	0.109	0.012	0.000
	한국	-0.332	0.012	0.000
	태국	0.159	0.012	0.000
홍콩	대만	0.235	0.015	0.000
	인도네시아	0.344	0.015	0.000
	한국	-0.097	0.015	0.000
	태국	0.394	0.015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109	0.012	0.000
	홍콩	-0.344	0.015	0.000
	한국	-0.441	0.012	0.000
	태국	0.049	0.012	0.003
한국	대만	0.332	0.012	0.000
	홍콩	0.097	0.015	0.000
	인도네시아	0.441	0.012	0.000
	태국	0.491	0.012	-
태국	태국	-0.159	0.012	0.000
	홍콩	-0.394	0.015	0.000
	인도네시아	-0.049	0.012	0.003
	한국	-0.491	0.012	-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다음으로 이들은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모두 긍정하고 있었다. 이 역시 태국과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인식이 강했으며, 대만, 홍콩, 한국 청소년의 인식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38

아시아 청소년들의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므로 전통 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23	1.70	.670
홍콩	2730	1.80	.636
인도네시아	5020	1.44	.595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		5242	1.82		.684
태국		5253	1.39		.574
합계		23368	1.61		.659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765.698	4	191.424	477.322
집단-내		9369.463	23363	.401	
합계		10135.160	23367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99	0.015		0.000
	인도네시아	0.256	0.013		0.000
	한국	-0.119	0.012		0.000
	태국	0.312	0.012		0.000
홍콩	대만	0.099	0.015		0.000
	인도네시아	0.356	0.015		0.000
	한국	-0.020	0.015		0.787
	태국	0.411	0.015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256	0.013		0.000
	홍콩	-0.356	0.015		0.000
	한국	-0.375	0.013		0.000
	태국	0.056	0.012		0.001
한국	대만	0.119	0.012		0.000
	홍콩	0.020	0.015		0.787
	인도네시아	0.375	0.013		0.000
	태국	0.431	0.012		0.000
태국	태국	-0.312	0.012		0.000
	홍콩	-0.411	0.015		0.000
	인도네시아	-0.056	0.012		0.001
	한국	-0.431	0.012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마지막으로 "나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책임을 통감한다"는 책임성 역시 모든 아시아 청소년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강도에 있어서는 전통문화 보존의 당위성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22	1.73		.666
홍콩		2730	1.82		.668
인도네시아		5016	1.58		.600
한국		5240	2.06		.730
태국		5256	1.64		.589
합계		23364	1.76		.674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709.138	4	177.284	417.659
집단-내		9915.234	23359	.424	
합계		10624.372	23363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88	0.015		0.000
	인도네시아	0.152	0.013		0.000
	한국	-0.325	0.013		0.000
	태국	0.089	0.013		0.000
홍콩	대만	0.088	0.015		0.000
	인도네시아	0.240	0.015		0.000
	한국	-0.237	0.015		0.000
	태국	0.176	0.015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152	0.013		0.000
	홍콩	-0.240	0.015		0.000
	한국	-0.477	0.013		0.000
	태국	-0.064	0.013		0.000
한국	대만	0.325	0.013		0.000
	홍콩	0.237	0.015		0.000
	인도네시아	0.477	0.013		0.000
	태국	0.413	0.013		0.000
태국	태국	-0.089	0.013		0.000
	홍콩	-0.176	0.015		0.000
	인도네시아	0.064	0.013		0.000
	한국	-0.413	0.013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7) 요인 7: 정치인에 대한 인식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원리에 대한 가치신념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공직에 있는 정치인들의 가족들의 법적행동 및 도덕적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인의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 청소년들은 정치인의 가족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과 태국 청소년의 경우 이 부분을 강력하게 동의하고 있는 반면, 대만과 홍콩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수준에서 역시 정치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표 Ⅲ-2-140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요인 7)의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2	1.95		0.63
홍콩		2728	2.02		0.60
인도네시아		4997	1.76		0.52
한국		5238	1.74		0.62
태국		5232	1.71		0.54
합계		23327	1.81		0.59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322.60	4	80.65	237.6559 (0.000)
집단-내		7,914.52	23322	0.34	
합계		8,237.13	23326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75*	0.014		0.000
	인도네시아	0.194*	0.012		0.000
	한국	0.212*	0.011		0.000
	태국	0.242*	0.011		0.000
홍콩	대만	0.075*	0.014		0.000
	인도네시아	0.269*	0.014		0.000
	한국	0.287*	0.014		0.000
	태국	0.317*	0.014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194*	0.012		0.000
	홍콩	-0.269*	0.014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	0.018	0.012	0.632
	태국	0.048*	0.012	0.002
한국	대만	-0.212*	0.011	0.000
	홍콩	-0.287*	0.014	0.000
	인도네시아	-0.018	0.012	0.632
	태국	0.030	0.011	0.146
	태국	-0.242*	0.011	0.000
태국	홍콩	-0.317*	0.014	0.000
	인도네시아	-0.048*	0.012	0.002
	한국	-0.030	0.011	0.146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마지막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 개의 세부 항목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설문에 모든 청소년들은 동의하였는데, 대만청소년의 정치인의 가족의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표 III-2-141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16	1.65	.665
홍콩		2726	1.79	.656
인도네시아		4981	1.82	.620
한국		5236	1.86	.696
태국		5242	1.74	.639
합계		23301	1.77	.660
분산분석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집단-간		135,109	4	33,777
집단-내		10028,387	23296	.430
합계		10163,496	23300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235	0.015	0.000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인도네시아	0.109	0.012	0.000
	한국	-0.332	0.012	0.000
	태국	0.159	0.012	0.000
홍콩	대만	0.235	0.015	0.000
	인도네시아	0.344	0.015	0.000
	한국	-0.097	0.015	0.000
	태국	0.394	0.015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109	0.012	0.000
	홍콩	-0.344	0.015	0.000
	한국	-0.441	0.012	0.000
	태국	0.049	0.012	0.003
한국	대만	0.332	0.012	0.000
	홍콩	0.097	0.015	0.000
	인도네시아	0.441	0.012	0.000
	태국	0.491	0.012	-
태국	태국	-0.159	0.012	0.000
	홍콩	-0.394	0.015	0.000
	인도네시아	-0.049	0.012	0.003
	한국	-0.491	0.012	-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또한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설문에 한국학생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 다음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청소년이 뒤따르고 있었다.

표 III-2-142

아시아 청소년들의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범법 혹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에 대한 국가 비교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9	2.29	.869
홍콩	2729	2.34	.815
인도네시아	5010	1.81	.717
한국	5238	1.67	.682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태국		5239	1.78		.749
합계		23355	1.94		.809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1650.668	4	412.667	705.966
집단-내		13649.059	23350	.585	
합계		15299.728	23354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99	0.015		0.000
	인도네시아	0.256	0.013		0.000
	한국	-0.119	0.012		0.000
	태국	0.312	0.012		0.000
홍콩	대만	0.099	0.015		0.000
	인도네시아	0.356	0.015		0.000
	한국	-0.020	0.015		0.787
	태국	0.411	0.015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256	0.013		0.000
	홍콩	-0.356	0.015		0.000
	한국	-0.375	0.013		0.000
	태국	0.056	0.012		0.001
한국	대만	0.119	0.012		0.000
	홍콩	0.020	0.015		0.787
	인도네시아	0.375	0.013		0.000
	태국	0.431	0.012		0.000
태국	태국	-0.312	0.012		0.000
	홍콩	-0.411	0.015		0.000
	인도네시아	-0.056	0.012		0.001
	한국	-0.431	0.012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질문에 역시 모든 나라 청소년들의 동의하였다. 이는 위의 두 세부 항목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청소년들은 정치인의 도덕적 책임이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행위에까지도 미쳐야 한다는 공인으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만		5135	1.78		.706
홍콩		2728	1.87		.670
인도네시아		5003	1.73		.597
한국		5239	1.77		.695
태국		5239	1.67		.627
합계		23344	1.75		.662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유의확률)
집단-간		78.514	4	19.628	45.124
집단-내		10152.155	23339	.435	
합계		10230.668	23343		
사후비교분석(Scheffe)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대만	홍콩	-0.088	0.015		0.000
	인도네시아	0.152	0.013		0.000
	한국	-0.325	0.013		0.000
	태국	0.089	0.013		0.000
홍콩	대만	0.088	0.015		0.000
	인도네시아	0.240	0.015		0.000
	한국	-0.237	0.015		0.000
	태국	0.176	0.015		0.000
인도네시아	대만	-0.152	0.013		0.000
	홍콩	-0.240	0.015		0.000
	한국	-0.477	0.013		0.000
	태국	-0.064	0.013		0.000
한국	대만	0.325	0.013		0.000
	홍콩	0.237	0.015		0.000
	인도네시아	0.477	0.013		0.000
	태국	0.413	0.013		0.000
태국	대만	-0.089	0.013		0.000
	홍콩	-0.176	0.015		0.000
	인도네시아	0.064	0.013		0.000
	한국	-0.413	0.013		0.000

주 : 강하게 동의함=1, 동의함=2, 동의하지 않음=3,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4

(8) 소결

아시아 5개국의 각 나라별 특성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의 차이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국가 중 한국, 대만, 홍콩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부정부패 및 공무원 사적인 정치개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정부의 연공서열에 의한 정치운영 및 혈연, 학연, 지연에 따른 사적인 결정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특히, 통계적인 결과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한국과 대만 학생들의 경우 정부의 공공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반면, 홍콩 청소년들은 반대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강도는 다소 약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학생들은 오히려 정부의 타락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응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과 대만학생들은 정부의 공정정대하고 공무원의 공사구분이 명확한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태국 및 인도네시아 학생의 경우 이러한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둘째, 아시아 청소년의 아시아시민에 대한 정체성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간 청소년들의 아시아 가치신념에는 나라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1.84 표준편차=0.51).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시아인으로서는 아시아 문화 전반에 대한 자부심은 태국, 대만, 한국, 인도네시아, 홍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태국, 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와 홍콩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에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주제로 하여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가치신념을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청소년들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시민적 가치에 모두 전반적인 동의를 보였지만, 동의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본 가치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 4개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 어른, 고위직, 교사, 부모에 대하여 순종을 강요하는 가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 청소년들은 권위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가치신념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권위의 복종에 대한 태국 청소년들의 가치신념이 가장 강하였고,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적 수준에서 본 시민적 가치에 동의하였다.

넷째, 아시아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갖추기 위하여 도덕성, 자기수양,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통되게 동의하였으나, 특히, 태국청소년들은 정신수양 및 영적능력이 바람직한

시민의식에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에 비하여 이에 대한 요구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시아 청소년들은 자국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지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자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했으며,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 수준에서의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즉, 아시아 청소년들은 자국의 전통문화와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적 이슈들에 대하여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은 정치인의 가족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과 태국 청소년의 경우 정치인의 본인과 주변사람의 청렴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반면, 대만과 홍콩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수준에서 역시 정치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수준과 관련 변인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를 세계 청소년의 역량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고 이들의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 도출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의 2009년 ICCS 국제설문 및 아시아 설문 내용을 기본으로 우리나라 및 아시아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을 나라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의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 설문을 통해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대륙별 차이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민주시민 지식 결과에 따르면, 유럽의 민주시민 지식수준은 세 대륙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다. 특히, 유럽국가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과 이탈리아의 민주시민 지식은 전반적으로 가장 뛰어난 수준이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민주시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아시아의 경우 국가별 민주시민 지식 점수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과 대만이 상당히 높은 민주시민 지식 점수가 나온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지식수준은 매우 낮았다.

둘째, 학교에서의 시민활동 참여에 대한 국가별 차이분석 결과 각 대륙 및 나라에 따른 학교에서의 시민활동 참여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라틴아메리카 학생들의 학교 내 시민활동에 대한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고, 아시아는 세 대륙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학교 내 시민 활동참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의 학교 내 시민 활동 참여 수준은 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 참여국 전체 중 가장 미비한 수준이었다.

셋째, 학교 토론에의 개방성은 유럽이 가장 개방적인 반면, 아시아는 가장 폐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영국이, 라틴 국가에서는 칠레가,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홍콩에 학교토론에 개방적인 반면, 한국은 학교 토론에서의 개방성에서 38.09점을 보여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토론 개방성을 보였다.

넷째, 학교에서 학생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의 경우, 학생의 의견이 실제 학교정책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학교 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응답을 보여 학교에서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형성 및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섯째, 유럽과 아시아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민주시민 사회의 모습에서 정치인의 공명정대함을 높은 가치로 두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하고 있어 정치지도자의 혈연이 정부에서 일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반면, 라틴아메리카는 두 대륙의 청소년에 비하여 다소 허용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섯째, 유럽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기업과 정부의 언론 소유에 부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언론의 독립성을 중요한 민주사회의 모습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반응에 아시아는 국가별 큰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언론의 독립에 대해 강한 긍정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기업과 정부의 언론소유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일곱째, 라틴아메리카 청소년들은 정부 대표자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을 좋은 시민의 행동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어 한국청소년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오직 7.0%만이 정부대표자들에 대한 존경심표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 이들은 정부대표에 대한 존경표현과 좋은 시민의 행동은 별개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덟째,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국민의 국가비판 권리에 대해 매우 동의 의견을 보여 아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 비판할 권한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중 66.6%는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다는 데에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여, 한국 청소년들은 국민이 국가와 법, 정치, 사회가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홉째, 이들은 성별에 따라서도 민주시민에 대한 의식과 시민활동 참여 정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들은 학교 내의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에 있어 남학생보다 적극적이었고, 이러한 경향은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를 막론하고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하여 방과 후 드라마 음악 활동과 같은 다양한 참여활동에서부터 토론에 적극적 참여, 반장 등 임원

투표,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등의 영역에서의 참여가 높았다.

또한, 국제데이터를 통한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대륙의 개인 및 학교수준 변인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층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대륙 중 유럽의 경우 민주시민 지식정도가 가장 높았지만, 향후 어른이 된 이후의 투표의지에 있어서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여 세 대륙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라틴아메리카 청소년은 민주시민 지식은 낮았지만, 향후 투표 참여의지는 다소 높았다.

둘째, 세계 청소년의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및 학교수준의 변인에 따르면, 유럽청소년의 경우 10%, 라틴 아메리카는 11%, 아시아는 18.0%의 학교수준의 변인 영향을 받고 있어 아시아 국가의 학교교육의 영향이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반면, 이들의 향후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는 학교수준의 영향이 낮아 학교교육은 대륙여부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교육과 지식형성에 치중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태국 청소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민주시민 지식은 낮았지만, 선거참여 의지는 높았다. 또한 이들의 민주시민 지식 형성의 기초모형 분석에 따르면, 학교차원의 변수는 45%, 개인변수는 55% 수준으로 다른 대륙 및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학교차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청소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주시민 지식형성에 학교차원의 변수는 6%내외, 개인변수는 94% 내외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교수준에 의한 영향정도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이할 만한 사항은 개인변수의 가족변수, 즉, 부모학력 및 부모의 정치관심 등의 변인이 학교변수와 상호작용으로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청소년의 각 나라별 민주시민 역량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 대만, 홍콩청소년의 경우 정부와 공무원에 사회정의와 공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의견과 공무원의 친분에 따른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공무원의 공명정대함을 높을 가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 청소년의 경우 이와 같은 내용에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다른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둘째,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이 어른 및 부모의 의견 수용 정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인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를 지라도 자신의 소신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셋째, 한국 청소년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이들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 법률 시스템은 완전하다는 의견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아, 법제도에 문제가 있을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은 스스로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의 문화, 경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이들은 공통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연합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함으로 아시아 발전을 위해 국가들 간의 연합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여섯째, 아시아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인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행동 요인에 있어, 나와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항상 부모님, 어른, 선생님 등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부모님과 어른들을 의견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성별에 따라 남학생들은 부모보다는 사회적 권위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특성을 보였다.

일곱째,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청소년에게서 특이할만한 점은 정부가 국민의 영적 삶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사람들의 종교나 영적 삶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질문에 다소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영적 삶과 국가의 역할을 연관 지어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한 요소로 도덕성, 자기수양, 높은 영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여덟째, 또한 이들 인도네시아와 태국청소년들은 국가의 법 제도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의 응답과는 다르게 "법률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질문에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어, 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아홉째, 아시아 청소년들은 자국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자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했으며,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 수준에서의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은 정치인의 가족의 법적 도덕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과 태국 청소년의 경우 정치인의 본인과 주변사람의 청렴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반면, 대만과 홍콩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수준에서 역시 정치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2. 정책제언

IOCS의 설문도구는 일반적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이 일상이나 문화적 맥락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시민참여와 정체성, 시민의식, 시민 역량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신념 및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이 도구를 사용하여 세계 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들을 평균 점수를 비교하는 것은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의 수준을 아시아 사회, 문화의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가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소년의 경우, 민주시민 지식형성에 학교수준에 의한 민주시민 역량 형성의 영향 정도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태국 뿐 아니라 홍콩 및 대만의 경우도 20% 이상에 가까운 학교수준의 영향을 보여 학교 교육 및 분위기가 이들의 민주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오히려 개인수준의 영향이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가족변수, 즉, 부모학력 및 부모의 정치관심 등의 변인이 학교변수와 상호작용으로 민주시민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어, 좀 더 높은 수준의 학교 교육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일관적으로 국가와 정부의 민주주의적 사고와 행동 그리고 공무원의 공적인 책임과 공명정대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으며, 아시아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에 대한 주장의 강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 즉, 이미 한국사회 청소년들은 이론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바람직한 시민의 자세 및 행동 등의 변수나 국제설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민주시민이라는 지식적 의식이 뛰어나다는 것이 항상 행동도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한국 청소년들은 이미 이론적 지식적 민주시민 역량은 높은 수준에 올랐으나 이에 대한 실천적 행동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학교 내외 활동의 개발 및 커뮤니티 활동을 확대하고, 사회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의 실천적 행동을 배우고 삶에서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상당히 경직된 수업위주의 교유환경이 남아있어 민주시민과 관련한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과 관련한 활동은 임원 선거 등 소수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고, 개방적, 실질적인 토론 활동은 거의 없었다. 특히 국제 사회와 비교하여도 한국 학교의 토론문화는 최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즉 한국은 이론적 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의식과 관련하여 지식적인 교육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천적이고 행동하는 분야에서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향후 자연스럽게 토론을 접하고 다양한 정치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며,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이러한 지식적 활동을 실제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개방적 교육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청소년들은 다른 전반적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과는 달리 어른, 고위직, 교사, 부모에 대하여 순종을 강요하는 시민사회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어른, 부모, 스승에 대한 순종을 매우 중요한 사회적 규범으로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다른 아시아 4개 국가들의 청소년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태도이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는 청소년들의 교육과정에서 이미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르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토론중심의 개방형 수업 등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개선 및 학교환경의 변화를 통해 자율성, 공공성, 민주성, 책임성 확대를 지원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성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 청소년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의 보존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지만, 그 수준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변화를 조영하, 김태준(2010)은 그의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를 사회의 급격한 변화 즉, 지구촌화, 핵가족화 혹은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행동이라고 하였는데, 청소년들이 자국의 전통문화와 유산의 보존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자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세대통합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와 전통의 중요성 및 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교육의 제시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서의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민주시민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학교내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가 임원 선거 등 비교적 한두 활동에 한정적으로 치우쳐 있었으며,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토론 활동 역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의 교육은 시민의식과 관련하여 지식적인 교육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천적이

고 행동하는 분야에서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민주시민 관련 지식은 높으나, 미래 투표의지나 사회 참여 등 실천적 행동은 낮아, 지식이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학생들의 경우 교과과정에서 추상적인 정보와 지식을 줄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의 학급운영 참여, 의견제안, 영향력 행사를 위한 다양한 과정은 교육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학생들은 국내외 다양한 활동이 한정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국제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교의 실천적이지 못한 교육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즉, 학교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진작시키는 데 필수적, 이러한 참여교육은 향후 학생이 커뮤니티에 자발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성, 공공성, 민주성, 책임성 등과 관련된 민주시민 문화적 풍토 및 분위기가 확장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삶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고 있었으나, 이들의 민주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 및 가정환경 배경에 대부분이 한정되어 있었다. 학교는 학교장 혹은 특정 교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민주적 풍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적으로 학생 교육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가정과 지역사회 시민교육의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시민교육은 비단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도 함께 부담해야 할 책임임이 분명하다. 특히 분석결과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었듯 가정배경 및 환경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시민교육은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가 함께 연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컨대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단체와 학교에서 연계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 학교, 시민사회 협력형 교육모델 개발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 마련을 통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시민교육은 세계화와 지역 통합의 맥락에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양성평등과 상대주의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세계가 작아지는 환경적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나라의 구분 없이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세계를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 국가마다의 시민교육의 강화 경향은 세계화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교육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정규화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이들의 역량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교육과정 내에서의 교육과정 개편, 교과목 편성, 자율교과목 도입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내에 민주시민의식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교육 단계에서의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교육은 향후 이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회화과정이다. 따라서 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이 없이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교육은 민주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김태준 외(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외(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연구** :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성태제(2007).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조영하 · 김태준(2010). IEA 시민의식 국제비교연구 참여를 통한 아시아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비교 연구: ARM 예비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3), 189-217.
- Amadeo, J., Torney-Purta, J., Lehmann, R., Husfeldt, V., and Nikolova, R. (2002).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n IEA study of upper secondary students in siX² teen countries*.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 Bronfenbrenner, U.(1988). Interacting systems in human development. In N. Bolger, C. Caspi, G. Downey, and M. Moorehouse (Eds), *Persons in conteX² t: Developmental processes* (pp.25-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aly, T. (2005). *In Each Other's Shadow: What Has been the Impact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in Ireland?*, Doctoral Thesis, University College Dublin. [www.socialcapitalgateway.org/Final TH PhD 9 Feb.pdf](http://www.socialcapitalgateway.org/Final%20TH%20PhD%209%20Feb.pdf)
- Lave, J. & Wenger, E.(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2000).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 Fim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Paris: OECD.
- OECD(2002). *Draft strategy paper in key competnecies: A frame of reference for a coherent assessment program*. Paris: OECD.

- OECD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ding Society*. Paris: OECD.
- OECD(2005). *Learning a Living: First results of the Adults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Paris: OECD.
-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Paris: OECD.
- Perrenoud P. (2001). The key to social fields: Competencies of an autonomous actor. In D.S. Rychen & L.H. Salganik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pp. 151-173). Gottingen, Germany: Hogrefe & Huber.
- Schulz, W., Fraillon, J., Ainley, J., Losito, B., & Kerr, D. (2008).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Assessment framework*. Amsterdam: IEA.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May). *Initial findings from the IEA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August).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Torney-Purta, J., Lehmann, R., Oswald, H., & Schulz, W(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 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Amsterdam, Netherlands: IEA.
- Wenger, E.(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Study for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and the Development of Support Systems II : Civic competency factor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relations among them

This study aimed to objectively assess where Korean civic education stands and identify its implications for policies by analyzing the result of the 2009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conduct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youths in Europe, Latin America and Asia were as follows: European youths showed a higher level of civic knowledge than Latin American and Asian youths. In terms of civic participation at school, Latin Americans showed the highest level, while Asians showed the lowest. European youth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openness to classroom discussions, whereas Asian youths had a closed attitude. With regard to the model of an appropriate civic society, European and Asian youths significantly valued the aboveboard attitude of politicians.

The survey of youths in five Asian countr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Youths in Korea, Taiwan and Hong Kong showed a more negative attitude against government corruptions and public servants' engagement in politics, comparing to ones in Indonesia and Thailand. Korean youths valued their own convictions in case of disagreements, in contrast to ones in other Asian countries who widely accepted adults' and parents' opinions. Overall, Asian youths had a positive view to their identity as Asian, Asian culture,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Lastly,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esults, the study suggested policy tasks to improve youth's civic competency.

Key words : civic competence, civic knowledge, civic participatio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연구보고 12-R16-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Ⅱ
교육 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인 쇄 2012년 12월 21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2003. 9. 53 제 20-444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786-2999 대표 박진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실)

ISBN 978-89-7816-657-7 94330

978-89-7816-648-5 (세트)

